



고성군 마을

지명유래

간성읍 · 거진읍 · 현내면 · 수동면 · 죽왕면 · 토성면 편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간성읍·거진읍·현내면·수동면·죽왕면·토성면 편



강원도

고성문화원





조선지형도

1911년에 측량 되고 1913년에 제작
(1/50,000)



일러두기

1. 본 책의 지명 유래는 『고성군지(高城郡誌)』 및 『지명유래지』 등 이미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기존 기록과 상이한 부분은 『여지도서(輿地圖書)』, 『호구총수(戶口總數)』, 『관동지(關東誌)』,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한국지명총람』, 『조선총독부관보』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바로 잡았다.
2. 지명 유래 수록은 군의 읍면 행정 건제순, 마을명은 법정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건제순으로 나열했으며,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수동면을 포함해 수록했다.
3. 마을별로 산(山), 강(川), 골짜기(골, 谷), 바위(岩), 고개(峴), 들(坪) 등 지형지물(地形地物)에 대한 자연 지명을 현장의 호칭(呼稱)대로 최대한 수록했고, 지형 변경, 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진 지명도 조사 내용에 포함해 수록했다.
4. 지명 유래 해설문 중 한자는 ()로 병서하였다.
5. 시대 표기는 서기 연대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묘호(廟號)를 ()로 병서하였다.
6. 지도 이미지는 조선시대의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게시되었으며, 각 지역의 구(區)와 읍(邑)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된 지형도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이용된 지도는 『조선지도』·『1872년지방군현지도』·『해동지도』·『광여도』·『여지도(고4709-68)』·『여지도(고4709-78)』(이상 규장각소장)·『대동여지도』·『1:50, 000 조선지형도』
7. 지명 집필에서 인용된 사료, 논문, 향토지 등의 참고문헌은 후미에 일괄적으로 수록하였고 필요한 경우 각주를 표시했다.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를 종합 정리했다.

흔히,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이고 뿌리라고 한다. 사람의 이름을 인명(人名)이라고 한다면 땅의 이름을 지명(地名)이라 하는 것이다. 인명은 개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생존 기간에 한정되어 사용 범위와 그 생명의 길이가 정해지는 것이지만 지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안에서 생활하며 만들어 내는 모든 문화가 그 안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이다. 즉 인명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끝나지만 지명은 그곳에서 사는 공동체의 후손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 단위의 지명과 지역 최소 단위의 땅이름은 공동체의 뿌리이며 그 역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명(地名)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고 지역사의 뿌리라는 사실이다.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마다 선조들 삶의 모습과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이름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명은 그 시대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지명을 찾아 정리하는 일은 우리 역사 뿌리 찾기의 일환이다. 지명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후세에 정확한 이름과 유래를 전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를 올바르게 잇는 매우 의미 있는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 기록의 경우, 1632년 택당 이식(李植) 선생에 의해 편찬된 수성지(水城志) 이후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 『고성군지(高城郡誌)』, 『지명유래지(地名由來誌)』 등이 여러 차례 발간되어 문헌적인 근거가 되고 있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관내 지명을 전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명실상부한 역사 사료로 총정리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役事)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

이번 방대한 조사·연구와 정리 작업에 힘써 주신 고성향토사연구소 한창영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일

고성문화원장 주 기 창

'마을 지명 유래를 종합 정리하면서'

2020년 고성향토사연구소를 개설한 이후 금석문조사와 보고서, 군세일람 제작 등 적지 않은 사료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지역 역사의 근간이 되는 마을 지명 유래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지명학자 강길부의 『땅이름 국토사랑(1997)』에서 “지명은 돌연히 생기거나 어느 한 개인이 갑자기 명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토착민들의 생활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명명자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또 오랜 세월을 두고 집단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므로 시간을 초월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적 경과와 공간적 전파를 요하는 것으로 지명은 사회집단의 계약으로서 일단 이름이 붙여지면 시대가 변화해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되는 성질이 있다. 지명은 자연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생명의 유기체(有機體)로서 생활과 문화의 변천, 민중의 의식, 시대사조와 주위 환경에 따라 개칭되거나 소멸하는 타율적 변천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명은 매우 중요한 역사(歷史)가 아닐 수 없다. 지명을 통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지역 역사의 근간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마을 지명의 변천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사할 수 없었던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지명을 올바르게 정리한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명 정리 과정에서 우선, 문헌적인 사료를 수집하고 기존 발간된 자료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했다. 현장 답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증을 받지 못한 사료도 있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사라진 지명도 있었다. 새로 만들어진 지명과 사라진 지명, 폐쇄된 지명도 가급적 조사에 포함하여 수록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지명 연구·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해 금석문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연구에 힘써 주신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일

고성향토사연구소장 한 창 영



조선지형도

일러두기

발간사

총론편

1. 개관 19

2. 고성군연혁 23

간성을 편 29

상리(上里) 32

하리(下里) 34

신안리(新安里) 35

동호리(東湖里) 38

봉호리(蓬壺里) 40

간촌리(良村里) 42

교동리(校洞里) 44

해상리(海上里) 46

탑현리(塔峴里) 49

광산리(廣山里) 50

어천리(魚川里) 52

장신리(長新里) 55

탑동리(塔洞里) 58

선유실리(仙遊室里) 60

금수리(金水里) 61

진부리(陳富里) 64

흘리(屹里) 66

거진을 편 73

거진리(巨津里) 76

자산리(慈山里)	79
봉평리(蓬坪里)	80
화포리(花浦里)	82
원당리(源塘里)	84
송정리(松亭里)	86
용하리(龍下里)	88
산북리(山北里)	89
송강리(松江里)	90
석문리(石門里)	92
초계리(草溪里)	93
오정리(梧亭里)	95
대대리(大垚里)	96
송죽리(松竹里)	99
반암리(盤岩里)	101
송포리(松浦里)	102
냉천리(冷泉里)	104

현내면 편 109

대진리(大津里)	111
철통리(鐵桶里)	113
초도리(草島里)	114
죽정리(竹亭里)	117
산학리(山鶴里)	120
화곡리(禾谷里)	122
마달리(馬達里)	124
마차진리(麻次津里)	126
명파리(明波里)	129
배봉리(培峰里)	131
주민 미거주 마을	132

수동면 편 143

초현리(草峴里)	145
정월리(汀月里)	145
태봉리(台峰里)	146
덕산리(德山里)	146
내면리(內沔里)	147
외면리(外沔里)	147

신대리(新垓里)	148
사비리(沙飛里)	149
고미성리(姑味城里)	150
사천리(沙泉里)	151
하탄리(下炭里)	152
신탄리(新炭里)	152
흑연리(黑淵里)	153
상원리(上院里)	154

죽왕면 편	159
향목리(香木里)	163
가진리(加津里)	164
공현진리(公峴津里)	169
오봉리(五峰里)	173
오호리(五湖里)	176
인정리(仁亭里)	179
구성리(九城里)	182
삼포리(三浦里)	185
야촌리(野村里)	188
송암리(松岩里)	190
문암리(文岩里)	191
마좌리(麻佐里)	196

토성면 편	201
천진리(天津里)	203
청간리(淸澗里)	205
아아진리(我也津里)	207
금화정리(錦花亭里)	210
교암리(橋岩里)	211
백촌리(栢村里)	214
운봉리(雲峰里)	216
학야리(鶴也里)	218
도원리(桃源里)	220
성대리(城垓里)	225
용암리(龍岩里)	227
신평리(新坪里)	230

인흥리(仁興里)	233
성천리(星川里)	237
원암리(元岩里)	238
용촌리(龍村里)	242
봉포리(鳳浦里)	244

참고문헌

편집후기

색인

고성군행정지도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총론 편

1. 개관

2. 고성군 연혁



1. 개관

가. 지명사의 변천

우리 지명 연구는 757년(신라 경덕왕 16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 1145년)¹⁾에 의하면 고려 건국과 동시에도 상당한 수의 지명이 개정되었다. 조선시대 발행된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1451년)를 비롯해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1425년),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1425년), 용비어천가 지명주석(龍飛御天歌地名註釋, 1445~1447),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1478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등 지명 기록들도 있다. 그 후에도 택리지(擇里志, 1714년)²⁾,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³⁾,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년)⁴⁾, 관동지(關東誌, 1829~1831년)⁵⁾, 대동지지(大東地志, 1861~1866년)⁶⁾,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 1884년)⁷⁾ 등 지명과 관련된 많은 기록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행정구역 개편, 군사 작전용 지도의 표기 수단 등을 위하여 지명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명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집으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⁹⁾』, 『신구대비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¹⁰⁾』 등이 있다.

191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지지자료』에는 자연 지명과 동리명을 비롯한 인문 지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언문 칸에 한자어 또는 한자표기 지명과 대응되는 각각의 속지명(俗地名)도 표기되어 있어 지명에 대한 자료 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의 경우는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도·부·군·면(道·府·郡·面) 및 리·동(里·洞)의 현황을 조사·정리한 것이다.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명칭을 볼 수 있는 자료로 리동명의 뒷부분이 ‘~리(里)’와 ‘~동(洞)’으로 단순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구대비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는 일제에 의해 단행된 군·면·리·동(郡·面·里·洞) 통폐합 결과와 이에 대응되는 구한말 시기의 행정구역과 그 명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1) 1145년 편찬된, 한국사에서 내용 전체가 현대까지 전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사서.

2) 1751년(영조 27) 실학자 이증환(李重煥)이 현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우리나라 지리서.

3)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

4)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한 책으로 1789년(정조 13) 규장각에서 한성부의 초기(草記)를 기초로 편집, 간행한 것으로 보임.

5) 강원감영 영지와 26개 군현의 읍지로써 1829년에서 1831년 사이에 감영에서 군현의 읍지를 수합하여 성책(成冊)한 것으로 추정.

6) 1861년 이후부터 1866년경 사이에 김정호(1804~1866)가 편찬한 32권 15책의 필사본 전국 지리지이자 역사지리서.

7) 1884년(고종 21) 고영희(高永喜)가 편찬한 강원도 간성군 읍지.

8) 1910년경 조선 지명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 지명의 유형·한자 지명·한글 지명·소재 동리 등의 내용이 한자 혹은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다.

9) 1912년 조선 총독부에서 구 한국 지방 행정 구역의 명칭을 조사하여 간행한 책.

10) 일제 강점기 오치 다다시치가 저술한 1914년 전국 군면동리(郡面洞里)의 통폐합 이전과 이후의 지명을 대조한 책.

해방 이후 『한국지명총람』은 한글학회 주관으로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0여 년간 걸쳐 전국의 지명을 조사하여 수록했다.

우리 군의 경우,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를 중요한 문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읍지(邑誌)가 처음 편찬된 것은 택당 이식(李植, 1584~1647) 선생에 의해서였다. 간성현감으로 재직하던 1631년(인조 9)~1632년(인조 10)에 『수성지(水城志)』 1권을 편찬했다. 『수성지(水城志)』는 17세기 다양한 사찬 읍지들이 간행되던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많은 읍지들은 지방관으로 나가 있던 관인들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 간성지(杆城誌)에는 장유(張維)의 서문(序文)이 있었다. 그러나 원본 『수성지(水城志)』의 체제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택당 선생 아들 이단하(李端夏)가 유고를 수습하여 발간한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의 10책 『간성지(杆城志)』 필사본이 전해진다. 당대의 문장가인 이식(李植)과 장유(張維)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수성지(水城志)』는 지역사의 근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748년(영조 24)에 간성군수로 재직 중이던 김광우(金光遇)는 『수성지(水城志)』가 마멸될 것을 염려하여 베껴 보관했다. 김광우에 의해 이식 선생의 『수성지(水城志)』가 선사(繕寫)된 후 어느 시점에 감영(監營)의 읍지명(邑誌命)에 따라 《신증(新增)》과 《부록(附錄)》이 포함된 수정된 읍지(邑誌)가 만들어졌다.

읍지가 지방관에 의해 다시 편찬된 것은 1884년(고종 21)에 이르러서였다. 간성군수로 있던 고영희(高永禧)가 규17513본 유형의 읍지에 실린 원문을 충실히 전재했지만 원문과 달라진 지역 상황은 《교정(較正)》과 《첨재(添載)》란을 두어 보충했다. 그 후 이 읍지를 일제강점기에 다시 필사한 것이 지금에 이른다. 이 기록에 산(山)과 하천(河川), 방리(坊里) 등 한자로 표기된 것이 공식적인 지명이다.

고려 때부터 시작된 군현제와 부군면제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통용되어 온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및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3호(1914년 2월 26일)¹¹⁾에 의거 1914년 3월 1일 「고성군」을 폐지하고 「간성군」이 이를 인수하였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강원도령 제2호(1914. 3. 11)¹²⁾에 의거 군내면 일원과 해상면 일원이 군내면으로, 오현면 일원과 대대면 일원이 오대면으로, 죽도면 일원과 왕곡면 일원이 죽왕면으로, 수동면 일원과 남면의 칠송리, 시랑리, 양고리, 보현동, 백천교를 제외한 일원을 수동면으로 각각 통폐합하였다.

1916년 8월 1일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55호(1916. 7. 22)¹³⁾에 의거 대대적인 마을 병합이 이루어졌다.

11) 조선총독부 관보 제476호(1914년 3월 4일 발행)

12) 조선총독부 관보 제482호(1914년 3월 11일 발행)

13) 조선총독부 관보 제1197호(1916년 7월 29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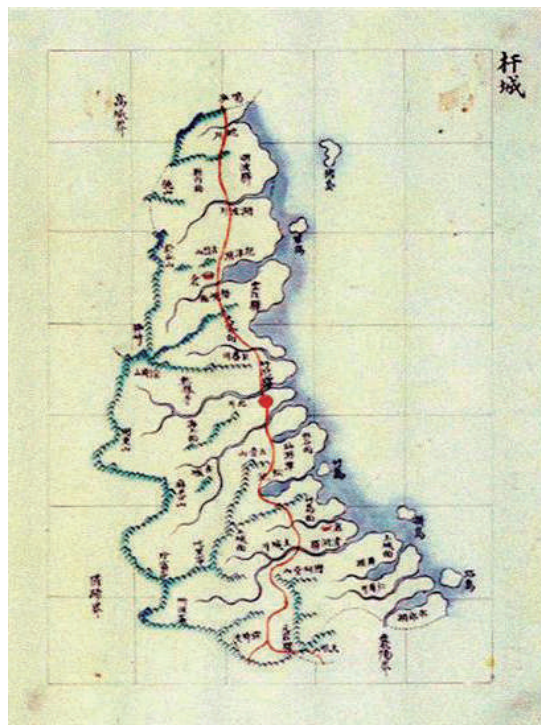
1917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강원도령 제10호(1917. 10 .1)¹⁴에 의거 ‘군내면’이 ‘간성면’으로 변경되었다.

1919년 5월 13일 조선총독부강원도령 제5호(1919년 5월 13일)¹⁵에 의거 ‘간성군 죽왕면 동호리’를 ‘간성면’에 편입하였다.

1919년 5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88호(1919. 5. 9) 조선총독부 관보 제2022호(1919년 5월 9일 발행)에 의거 군의 명칭을 ‘간성’에서 ‘고성으로, 위치의 란 ’간성‘을 ’고성면 동리‘로 각각 고쳤다. 같은 날 조선총독부령 제89호(1919. 5. 9)¹⁶에 의거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장전리, 주현리, 사호리와 남애리를 고성군’으로, ‘고성군 죽왕면과 토성면이 양양군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1937년 4월 1일 장전읍의 일부 지역이 외금강면(外金剛面)으로, 같은 해 7월 1일 신북면이 장전읍(長箭邑)으로 승격되었고, 1940년 12월 1일 오대면(梧垈面)이 거진면(巨津面)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북한 치하에 예속되었다가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법률 제350호)¹⁷에 의거 대한민국 행정권에 들어온 후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 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178호)¹⁸에 의거 양양군 죽왕면과 토성면이 고성군으로 환원되어 지금에 이른다.



고지도(간성군)

14)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1917년 10월 1일 발행)

15) 조선총독부 관보 제2025호(1919년 5월 13일 발행)

16) 조선총독부 관보 제2022호(1919년 5월 9일 발행)

17) 대한민국 관보 제1204호(1954년 10월 21일 호외 발행)

18) 대한민국 관보 제3301호(1962년 11월 21일 발행)

나. 지명 유래 조사 및 편집

우리는 상고사와 삼국시대 기록이 취약하다. 고구려 언어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명으로 잊혀진 언어를 찾는다는 의미도 크다. 예를 들면, 광개토왕비 등 현재 전해지는 유적의 표기가 비록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고구려 언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성지방의 옛지명 달홀(達忽)도 한자로 표기됐지만 달(達)은 [tara] 홀(忽)은 [kuru] 등으로 미약하지만 고구려어를 찾았다는 점에서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명이 그 시대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명은 대부분 특정한 지형과 지세를 고려한 자연 친화적 한자식 표기 이름이 많다. 해안을 따라 나루터가 있는 곳의 진(津)자와 포(浦)자를 비롯해 지형·지세와 관련된 평(坪), 천(川), 강(江), 산(山), 호(湖), 암(巖), 동식물과 관련된 송(松), 오(梧), 학(鶴)자도 많고, 마을 설화와 관련된 용(龍)자도 적지 않다. 또 방위를 나타내는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위치를 표시하는 상(上), 중(中), 하(下), 크다는 의미의 대(大)자를 사용한 이름도 많다. 또한 우리 지명이 고유 지명임에도 한자 기록으로 전해지면서 본래 음차, 훈차 기록으로 본래 지명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자식 표기에 따라 왜곡된 지명도 없지 않다.

유래는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전해지는 유래와 각종 사료에 나타난 지명과 땅 이름을 함께 조사했는데 이곳에 실린 땅 이름 중 고유 방언도 상당히 많다. 우리 땅 이름에 ‘바위’를 ‘바우’로, ‘~땅’을 ‘~미’로, ‘길다’를 ‘질다’ 등 지명을 통해 자모음 변형에 의한 독특한 우리 언어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명 유래 조사는 기본사료 수집과 현지 조사 등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조사 구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하고, 간성읍 황재철 연구원, 거진읍 이선국 연구원, 현내면 한창영 연구소장, 수동면 김광섭 연구원, 죽왕면 이성식 연구원, 토성면 김철수 연구원이 각각 담당했다.

기본사료 수집기간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하였고, 현지조사, 원고 작성 및 편집은 9월 30일까지, 사진 촬영은 10월 30일까지 각각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폐기된 지명도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지명, 민통선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지명도 상당하지만 가급적 조사 내용에 포함했다.

읍면	조사 및 집필		읍면	조사 및 집필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간성읍	연구원	황재철	수동면	연구원	김광섭
거진읍	연구원	이선국	죽왕면	연구원	이성식
현내면	연구소장	한창영	토성면	연구원	김철수

2. 고성군 연혁

고성군은 선사시대 출토된 구석기와 신석기 유구 등으로 미루어 선사인(先史人)들이 살았었다.

상고시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에 따르면 동예(東濊)에 속한 땅이었다.

삼국시대 「고성」은 본래 고구려의 달흘군(達忽郡) 지역으로 ‘달흘(達忽)’이라고 하고, 「간성」은 수성군(遼城郡) 지역으로 ‘가라흘(加羅忽)’ 혹은 ‘가아흘(加阿忽)’이라고 하였다.

757년(신라 경덕왕 16) 12월 지명을 한식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수성군(遼城郡)을 수성군(守城郡)으로, 이것의 영현(領縣)인 승산현(僧山縣)을 동산현(童山縣)으로, 익현현(翼峴縣)을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쳤다. 또한 달흘군(達忽郡)을 고성군(高城郡)으로 고치고, 그 영현인 저수혈현(猪遼穴縣)을 환가현(豢豭縣)으로, 평진현현(平珍峴縣)을 편험현(偏嶮縣)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시대 초기 고성군(高城郡)과 수성군(守城郡), 그 예하의 영현(領縣)들은 모두 삭방도(朔方道)에 속하였다가 현종 때 5도 양계가 정비되면서 동계(東界)에 편입되었다.

당초 고성지역은 고성현이었으며, 별호는 풍암(豐岩)이었으며, 환가현(豢豭縣)과 안창현(安昌縣)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

신라 때 수성군(守城郡)으로 불린 간성현은 고려 때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현령을 두었다가 뒤에 군(郡)으로 승격되면서 고성현의 통치를 겸하였으나 1389년(공양왕 1) 다시 간성과 고성으로 나누어졌다. 간성현의 별호는 수성(水城)이었으며, 열산현(烈山縣)을 속현으로 두었다. 고구려 때 승산현이었던 열산현은 신라에서 동산(童山)으로 고쳐 부르고, 고려 때 지금의 열산현 이름으로 바뀌었고, 봉산(鳳山)으로도 불렸다. 1629년 고을에서 역노(逆奴)가 주인을 살해하는 변고가 일어나 간성군(杆城郡)의 이름을 현(縣)으로 강등하였다가 10년 뒤인 1638년 다시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면서 강릉부 고성군(高城郡)은 동면(東面), 일북면(一北面), 이북면(二北面), 서면(西面), 남면(南面), 수동면(水洞面), 안창면(安昌面) 등 7개 면을 관할하였고, 강릉부 간성군(杆城郡)은 군내면(郡內面), 왕곡면(旺谷面), 죽도면(竹島面), 해상면(海上面), 대대면(大垈面)¹⁹, 오현면(梧峴面), 토성면(土城面), 현내면(縣內面) 등 7개 면을 관할하였다.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면서 강원도 고성군(高城郡)과 간성군(杆城郡)으로 각각 출발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성군 전체가 간성군(杆城郡)에 편입되면서 같은 해 4월 1일 고성군에 소속된 동면과 안창면을 병합하여 고성면(高城面)으로, 일북면과 이북면을 병합하여 신북면(新北面)으로 각각 개편하고, 남면이 서면과 수동면에 각각 분리 편입되었다. 간성군에 소속된 해상면은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왕곡면과 죽도면은 죽왕면(竹旺面)으로, 대대면과 오현면은 오대면(梧垈面)으로, 토성면과 현내면을 그대로 두어 9개 면, 124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7년 10월 1일 군내면이 간성면(杆城面)으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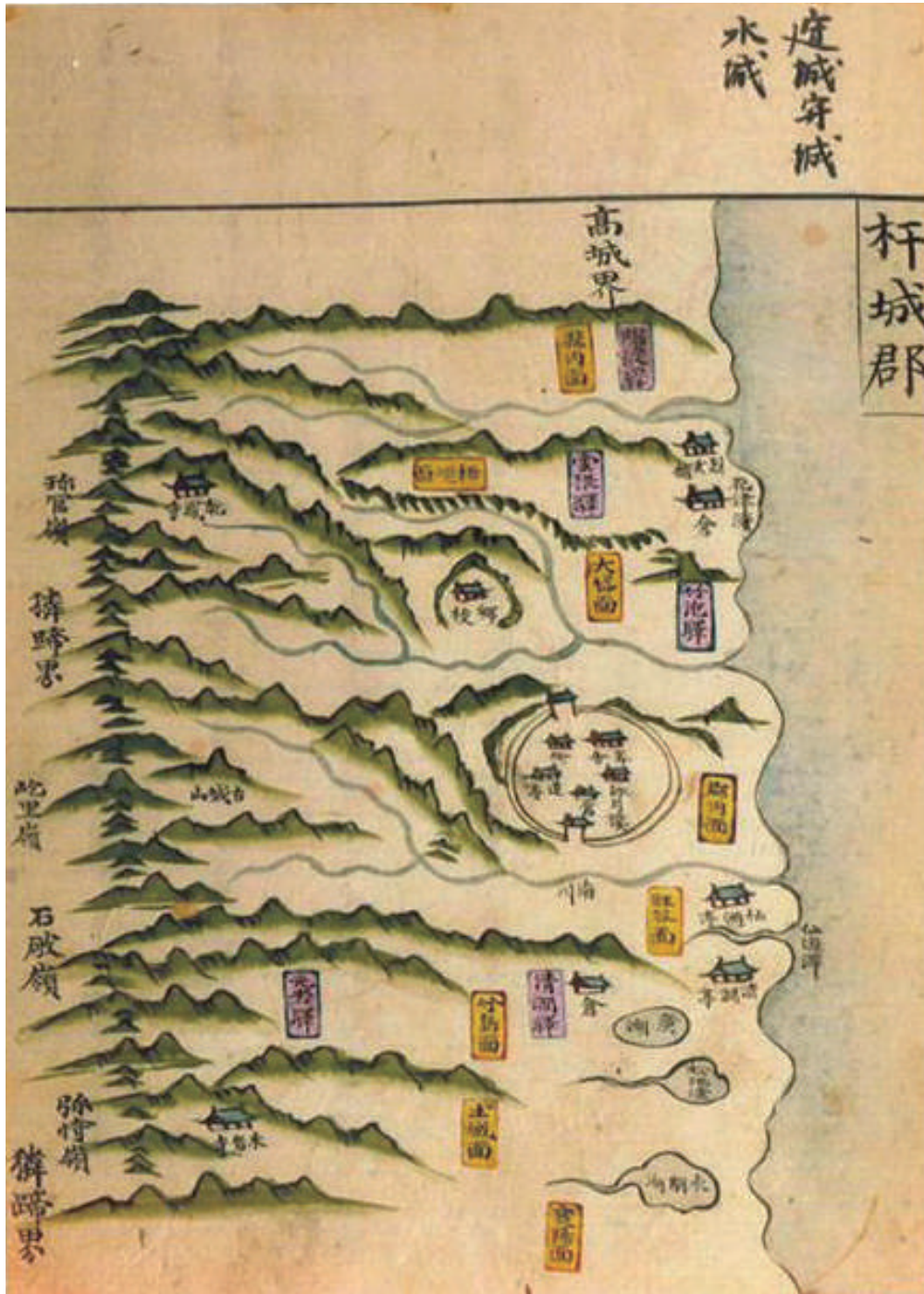
19) <輿地圖書, 1757년>와 <戶口總數, 1789년>에는 대대면(大代面)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9년 5월 15일 「간성군」이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되면서 죽왕면과 토성면이 양양군(襄陽郡)으로 편입됐다.

1937년 4월 1일 장전읍의 대부분 지역이 외금강면(外金剛面)으로, 같은 해 7월 1일 신북면이 장전읍(長箭邑)으로 승격되었고, 1940년 12월 1일 오대면(梧垓面)이 거진면(巨津面)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북한 치하에 예속되었다가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권에 들어온 후 1963년 1월 1일 양양군 죽왕면과 토성면이 고성군으로 환원되었다.

2022년 현재 남쪽 고성군의 행정구역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등 2읍 4면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수동면은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여지도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간성읍 편

상리(上里)

하리(下里)

신안리(新安里)

동호리(東湖里)

봉호리(蓬壺里)

간촌리(艮村里)

교동리(校洞里)

해상리(海上里)

탑현리(塔峴里)

광산리(廣山里)

어천리(魚川里)

장신리(長新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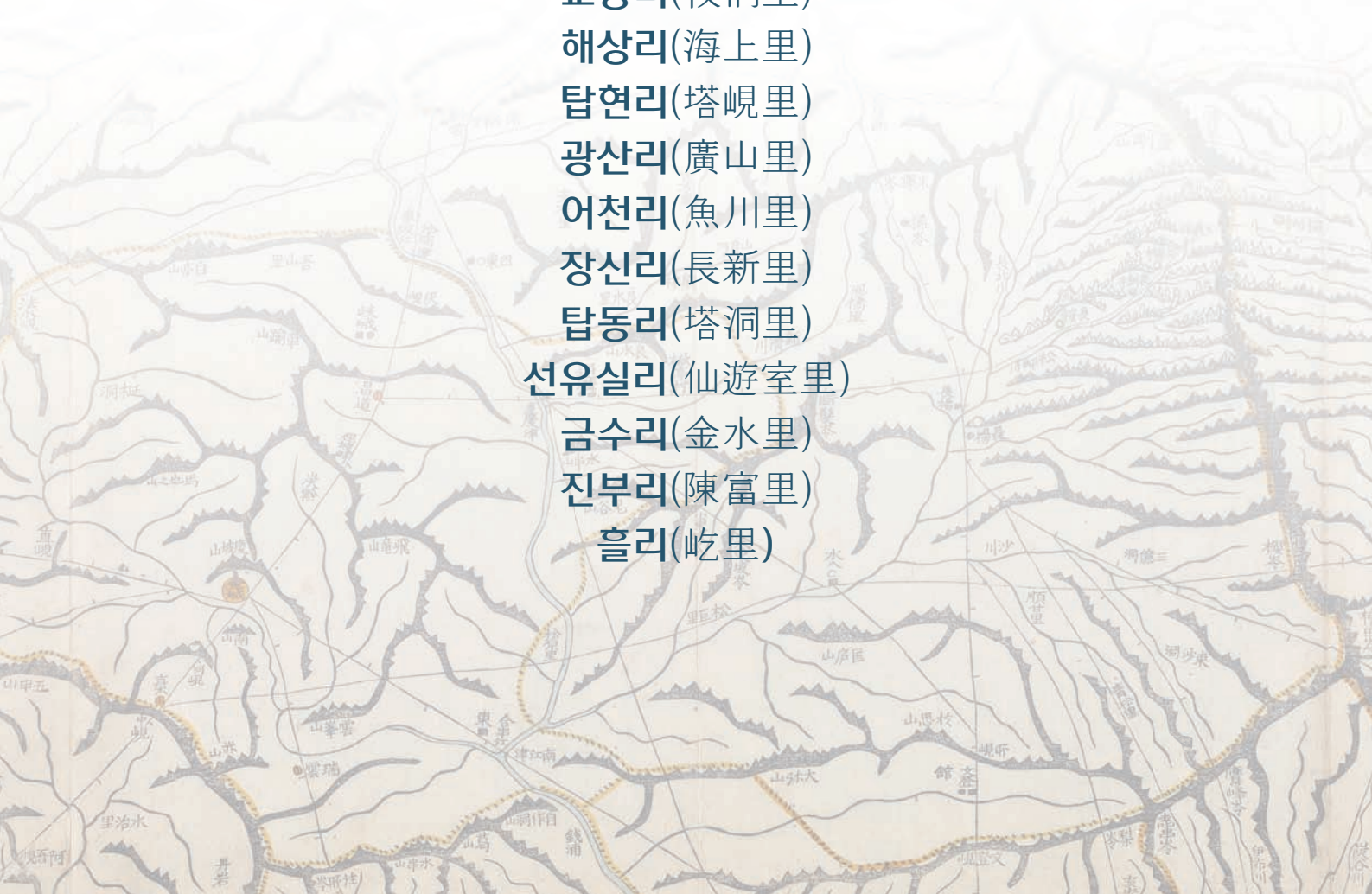
탑동리(塔洞里)

선유실리(仙遊室里)

금수리(金水里)

진부리(陳富里)

흘리(屹里)



간성읍(杆城邑)

해상면(海上面)을 폐지하고 군내면(郡內面)에 편입 되었다가 군내면(郡內面)이 간성면(杆城面)이 되었다.

(1) 군내면(郡內面)

강원도 간성군 관할 아래 있었고 간성군의 읍내가 되므로 현내면(縣內面)이라 하다가 군내면(郡內面)이 되었다고 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안심리(安心里), 신성리(新城里), 금장동리(金章洞里), 천하정리(天下井里), 수동리(水洞里), 방축동리(防築洞里), 금용동리(金龍洞里), 서문리(西門里)를 관할하였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안심리(安心里), 금장동리(金章洞里), 천하정리(天下井里), 수동리(水洞里), 방축동리(防築洞里), 금용동리(金龍洞里), 서문리(西門里), 신성리(新城里)를 관할하였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상리(上里), 서문리(西門里), 방축동(防築洞), 용연동(龍淵洞), 하리(下里), 중리(中里), 신성리(新城里), 안심리(安心里), 유촌(柳村), 금곡리(金谷里), 수동리(水洞里), 봉호리(蓬壺里), 탑동리(塔洞里), 선유실(仙遊室), 흘리(屹里) 등 15개 동리를 관할했다.



(2) 해상면(海上面)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간촌리(良村里), 하해상리(下海上里), 내어비탄리(內於非呑里), 만산리(滿山里), 장전리(長田里), 부동리(釜洞里), 진부리(陳富里), 정토리(淨土里), 팔음천리(八音川里)를 관할하였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간촌리(良村里), 교동상리(校洞上里), 교동하리(校洞下里), 장전리(長田里), 팔음천리(八音川里), 어비탄리(於非呑里), 만촌리(萬村里), 탑동리(塔洞里), 진부리(陳富里), 위천리(渭川里)를 관할했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어룡리(魚龍里), 오금천리(五金川里), 장전리(長田里), 신평리(新坪里), 광평리(廣坪里), 만산리(晩山里), 부동리(釜洞里), 토기점리(土器店里), 팔음리(八音里), 임천리(林泉里), 위천리(渭川里), 교상리(校上里), 교중리(校中里), 교하리(校下里), 탑동리(塔洞里), 간촌리(良村里), 진부리(陳富里) 등 17개 동리를 관할했다.

(3) 군내면(郡內面) → 간성면(杆城面)

1914년 4월 1일 해상면을 폐지하고 간성군 군내면에 편입하였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용연동, 서문리, 방축동을 병합하여 상리(上里)로, 중리와 하리를 병합하여 하리(下里)로, 신성리와 안심리, 유촌을 병합하여 신안리(新安里)로, 금곡리와 수동리를 병합하여 금수리(金水里)로 각각 개편하였다. 한편, 어룡리, 오금리를 병합하여 어천리(魚川里)로, 장전리, 신평리를 병합하여 장신리(長新里)로, 광평리, 만산리, 부동리를 병합하여 광산리(廣山里)로, 팔음리, 임천리, 위천리를 병합하여 해상리(海上里)로, 교상리, 교중리, 교하리를 병합하여 교동리(校洞里)를 각각 신설하고, 탑동리를 탑현리(塔峴里)에 편입하였다. 1917년 10월 1일 군내면을 간성면으로 개칭했다.

1919년 5월 13일 죽왕면 동호리가 간성면에 편입되었고, 같은 달 15일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 15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의거 간성면으로 수복된 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따라 간성읍으로 승격됐다. 읍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리출장소를 두었으나 고성군조례 제1630호(1998. 3. 19. 공포)로 폐지되었고, 2014년 5월 30일 신안7리가 신설되어 법정리는 17개리, 행정리는 34개리 125개 반을 형성하고 있다.

元戶一百八十二口九百八十四	元戶二百八十七口一千二百七十四
男四百八十八	男六百六十六
女四百九十六	女六百一十
海上面	杆城面
川良村里非校洞上里萬村里塔洞里陳富里	八里
元戶二百三十八口八百四十八	元戶一千八百五十六口七千九百
男四百三十五	男四千二百
女三百一十三	女三千二百
郡內面	防安洞里金章洞里天下井里新洞里
元戶二百三十八口八百四十八	元戶一千八百五十六口七千九百
男四百三十五	男四千二百
女三百一十三	女三千二百

호구총수(戶口總數)

간성읍 마을 명칭 변천표

시기 및 읍면별		마 을 명
1914. 4. 1 이전	郡內面	上里, 中里, 下里, 西門里, 安心里(등문박), 新城里(새작골), 柳村, 金谷里(짐장골), 水洞里(물골), 防築里, 蓬壺里, 龍淵洞(쇠물골), 屹里, 塔洞里(고래술), 仙遊室 (15개리)
	海上面	良村里(간바티), 校上里, 校中里, 校下里(바르매), 魚龍里(메부른) 五金川里, 晚山里, 廣坪里, 土器店里, 釜洞里(가매골), 渭川里 (양장말), 八音里(웃바르매), 林泉里, 塔洞里(답고개), 長田里(장밭치), 新坪里(새말), 陳富里 (16개리)
1914. 4. 1	郡內面	上里, 中里, 下里, 西門里, 安心里, 新城里, 柳村, 金谷里, 水洞里, 防築洞, 龍淵洞, 蓬壺里, 屹里, 塔洞里, 仙遊室, 良村里, 校上里, 校中里, 校下里, 八音里, 林泉里, 渭川里, 魚龍里, 五金川里, 晚山里, 廣坪里, 土器店里, 釜洞里, 塔峴里, 長田里, 新坪里, 陳富里(32개리)
1916. 8. 1	郡內面	上里(상리, 방축동, 용연동, 서문리), 下里(중리, 하리), 新安里(신성리, 안심리, 유촌), 金水里(금곡리, 수동리), 校洞里(교상리, 교중리, 교하리), 海上里(팔음리, 임천리, 위천리), 魚川里(어룡리, 오금천리), 廣山里(광평리, 만산리, 부동리, 토기점리), 長新里(장전리, 신평리), 仙遊室里(선유실리), 蓬壺里, 屹里, 塔洞里, 良村里, 塔峴里, 陳富里 (16개리)
1917. 10. 1	杆城面	上里, 下里, 新安里, 金水里, 校洞里, 海上里, 魚川里, 廣山里, 長新里, 仙遊室里, 蓬壺里, 屹里, 塔洞里, 良村里, 塔峴里, 陳富里 (16개리)
1919. 5. 13	杆城面	죽왕면 ‘동호리(東湖里)’를 간성면에 편입 (17개리)
수복 이후	杆城面	上里, 下里, 新安里, 東湖1·2里, 蓬壺里, 良村里, 校洞里, 海上1·2里, 廣山1·2·3里, 魚川1·2里, 長新1·2里, 塔洞里, 金水里 仙遊室里, 塔峴里, 陳富里, 屹里 (23개리)
현재	杆城邑	上1·2, 下1·2, 新安1·2·3·4·5·6·7, 東湖1·2, 蓬壺, 良村, 校洞, 海上1·2, 廣山1·2·3·4, 魚川1·2·3, 長新1·2, 塔洞1·2, 金水, 陳富, 屹1·2·3 (34개리)

상리(上里)

동쪽으로 하1, 하2리 서쪽으로 간촌리와 교동리로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는 금수리, 북쪽으로 거진을 대대리가 이웃하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소농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골짜기라 하여 속칭 소농골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쇠룡골이라고 부른다. 여지도서에는 금룡동리(金龍洞里), 방축동리(防築洞里), 천하정리(天下井里)이란 기록이 있었으나 금룡동리와 천하정리는 연대 미상 용연동(龍淵洞)으로 변했고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문리(西門里)와 방축동(防築洞), 용연동(龍淵洞)이 상리(上里)에 편입했다.

1973년 행정구역 분할로 현재의 상1리와 2리가 됐다. 또 간성 시가지 주변에 있던 읍성의 서쪽문이 현재 고성중·고교로 가는 국도 상에 있었다고 하여 그 서쪽 문 일대를 서문터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그 일원이 상1리 4반이 됐다.



관내도

▼ 상리 마을 전경



구전에 의하면 옛날 함씨가 처음으로 상리에 입주 정착할 때부터 간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윗부분을 상리, 중간 부분을 중리, 그리고 남천 쪽을 하리라 불렀다고 한다. 또 상리 서남쪽 골짜기를 방축이 있다하여 방축동이라 하고 지금의 군립도서관 부근엔 우물이 3개 있던 곳이라 삼정동이라 했는데 용현동이라고도 불렀다. 그 외에 1반을 서문밖, 2반을 사직당, 5반을 천하정(天下井)이라 부르고 있다.

Ⅰ 상1리 Ⅰ

- △ 원상리(元上里) : 성안에 위치한 마을
- △ 용연동(龍淵洞) : 일명 쇠롱골
- △ 쇠롱-골 : 일명 회룡동, 용연동이라고 하는데 용소가 있던 마을
- △ 삼정동 : 지금 군립도서관이 있는 마을 동북방 0.5km 지점에 옛날에는 우물이 3개 있었다 하여 삼정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 △ 와우산(臥牛山) : 지형이 소(牛)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와우산이라고 하는데 충혼탑과 공덕비가 있다.

Ⅰ 상2리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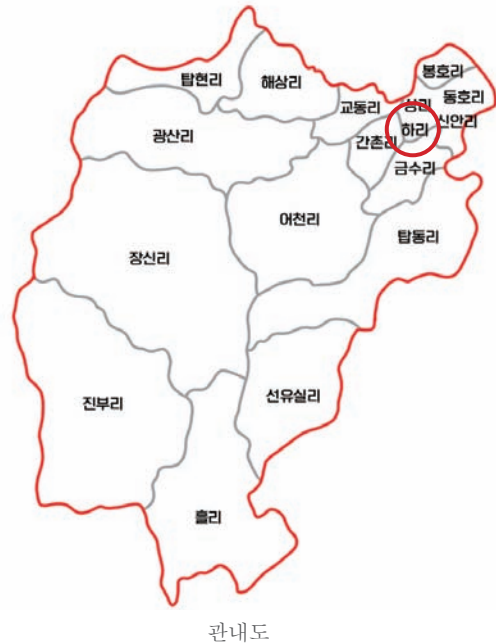
- △ 감박-재 : 서문 밖 부근에 있는 산
- △ 방축-골(防築洞) : 방축이 있던 마을
- △ 서문(西門) : 간성읍성의 서쪽에 있는 문
- △ 서문-밖 : 일명 서문외(西門外)라고도 하는데 서문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중·고등학교 가는 길
- △ 천하정(天下井) : 공설운동장 주변마을

하리(下里)

동쪽으로 신안1, 2리 남쪽으로 신안2리와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금수리, 그리고 북쪽으로 상1, 2리와 이웃하고 있다.

마을 유래는 현 간성우체국 주위에 못이 있다고 하여 속칭 연당(蓮塘)마을이라고도 하였다. 옛날에는 현재의 읍사무소 자리에 현청(縣廳)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시대에는 간성군청이었다. 1916년 8월 1일 중리(中里)와 하리(下里)를 합하여 하리에 편입하였고, 1973년 하1, 2리로 분할 됐다.

옛날엔 성안 마을엔 삼정(三井), 사지(四池), 오목(五木)이 있었는데, 하1리에 그중 2정(井), 3지(池)가 있었다고 한다. 1994년 이후 군청과 문화의 집 앞 우물을 각각 정비했다. 간성읍성은 고려말 축성으로 둘레 2, 467척, 높이 15척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 고성군청 남쪽의 축성(築城) 흔적과 간성읍행정복지센터(구, 간성읍사무소) 주변에 토성(土城)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관내도

▼ 하리 마을 전경



- △ 수성-터 : 간성의 옛 고을 수성군(遼城郡)의 터
- △ 중리 : 간성 읍내 중앙이 되는 마을
- △ 동문 : 간성읍성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 △ 간성읍성(杆城邑城) : 고려말 축성으로 둘레 2,467척, 높이 15척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 △ 삼정·사지·오목(三井·四池·五木)

신안리(新安里)

동쪽으로 동호리가 있고, 서쪽은 하2리, 남쪽의 금수리, 북쪽의 상2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통일신라 이후 간성현이라는 골이 생긴 후 새 골짜기라 일명 ‘새작골’과 안심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고 개울가 버드나무가 많다고 하여 유촌(柳村)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성내의 안심리(安心里)와 성외의 신성리(新城里)의 머릿자를 따서新安리(新安里)로 부르게 됐다.

그 후 인구가 점점 늘어 1955년경부터 행정구역을 신안1, 2, 3, 4리로 구분하였다가, 1994년 아파트 신축을 계기로 신안5, 6리로 추가 분할 됐으며, 2014년 삼익아파트 구역이 신안7리로 분구됐다. 마을 속칭으로 시장마을(신안1리), 시장 변두리(신안2리), 정거장 거리(신안3리), 남천세거리(신안4리), 삼익아파트(신안7리) 등이 있다. 마을은 간성읍 소재 남쪽에 위치한 소도읍의 도심지역으로 전통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 집합 장소가 몰려 있고, 경찰서, 소방서, 금강농협 등 주요 관서가 위치하고 있다.



관내도

동문 밖 옛날의 구, 우시장 자리에 영관정(迎官亭)이 있었는데 신관사 또 부임시나 귀빈이 순시 할 때 유숙하던 곳으로 주변의 송림이 매우 아름다웠고 큰 소나무가 정자 앞에 2그루 있었다고 하여 이 송정(二松亭)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1955년 수복 후 신안1, 2리로 분구되었는데 2리는 시장 변두리와 남천(세거리) 그리고 정거장 일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다가 1973년 3리(정거장)와 4리(남천)로 분리되었고 현재 6개 반에서 1985년 6월 1일 군인아파트 건립으로 1개 반이 증설됐다.

197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신안2리에서 나누어진 신안3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기차역이었던 곳이라 하여 속칭 정거장 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 남쪽에 있는 냇가를 끼고 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중심이라 하여 속칭 남천세거리로 불리며 신안2리에 계속 편입되었던 관계로 모든 행정 및 사업이 뒤떨어지다가 197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신안4리로 분구됐다.

아파트 건립 등으로 늘어난 가구에 따라 1994년 신안1, 2, 3, 4리에서 분할되어 신안5, 6리로 분구됐다.

아파트 건립 등으로 늘어난 가구에 따라 1994년 신안1, 2, 3, 4리에서 분할되어 신안5, 6리에 이어 2014년 5월 30일 7리로 추가 분구됐다.

▼ 신안리 마을 전경



Ⅰ 신안 1리·신안 2리 Ⅰ

- △ 무자동(無子洞) : 지금의 신안1리7반 (군인아파트 5동입구)이 무자골로 전해지고 있는데 옛날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 백호 등 (지금의 농촌지도소 뒷산)에서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그곳에 예지당(禮智堂)이라는 집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그 곳에 자리가 확인되고 있다.
- △ 동문-밖 : 동문 바깥쪽에 있는 마을
- △ 새넛-들(선유평) : 새жат골 동쪽에서 동호리 서쪽에 걸쳐 있는 들
- △ 새жат-골 : ‘신성(新城)’ 새로 쌓은 성이 있는 마을
- △ 낙수-봉 : 새жат골 앞에 있는 산
- △ 무지-골 : 안심에 있는 골짜기
- △ 부목-골 : 안심들 남동쪽에 있는 들
- △ 안심(安心) : 동문밖 북쪽에 있는 마을
- △ 안심-들 : 안심 앞에 있는 들
- △ 안착 : 자의안 옆에 있는 들
- △ 영관정(迎官亭) :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영접하던 곳으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 △ 유촌(柳村) : 신안리에 있는 마을
- △ 자의-안 : 양조장 부근 동남쪽에 있는 들
- △ 중학텃-거리 : 중학교 터 부근에 있는 마을
- △ 건봉사 포교소(乾鳳寺 布敎所) : 건봉사 포교당은 당초 1915년 간성읍 상리에 개설되었으나 현 포교소는 수복이후 개설된 곳이다.

Ⅰ 신안3리 Ⅰ

- △ 자의-안 : 양조장 부근 동남쪽에 있는 들
- △ 양조장 모퉁이 : 양조장 모퉁이에 있는 마을
- △ 역전 모퉁이 : 1937년 개통된 동해북부선 철도 간성역(杆城驛) 모퉁이에 있는 마을
- △ 간성역(정거장)터 : 1937년 개통된 동해북부선철도 간성역사(杆城驛舍)가 있던 자리

Ⅰ 신안4리 Ⅰ

- △ 고마-골 : 남천 세거리 뒤에 있는 산
- △ 남천-세거리 : 남천의 세거리를 이룬 마을
- △ 남천(南川)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고을에서 남쪽 5리에 있으며 선유령(仙遊嶺)이 근원지이다. 역시 여울과 폭포 벼랑 계곡이 있으며 가히 노닐 만 하다.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흙다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유령에서 발원한 지류는 탑동을 굽이돌아 동해로 흐른다.
- △ 증수-골 : 남천 세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남천교(南川橋) : 남천의 세거리를 이룬 마을
- △ 남천-들 : 남천(南川) 가에 있는 들

Ⅰ 신안5리 · 신안6리 · 신안7리 Ⅰ

동호리(東湖里)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서쪽은 신안리, 남쪽은 향목리, 북쪽은 봉호리를 접하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300년 전 당시 선조들이 마을을 개척할 때 갈대가 너무나 무성히 자라 있는 갈대밭이었기에 갈벌이라 칭하였다가 1880년대에는 신선이 놀다 가는 아름다운 마을이라 하여 왕곡면 선유리(仙遊里)와 용포리로 개칭했으며 이곳에 있는 용호(龍湖)가 간성 동쪽에 있다고 동호리로 개칭하였다. 1919년 5월 13일 간성군 죽왕면 동호리에서 간성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은 구석말과 넘어말로 구분하는데 구석말은 3반의 산밑 구석에 위치하여 있다 해서 그렇게 불리워졌고, 넘어말은 마을회관 앞 마을안길을 중심으로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을 넘어말이라 칭했다. 또한 농경지는 수삼넘어 앞 무논, 아래들, 새내들, 별미동산, 염전밭 등으로 구분되어 부르는데, 그 명칭마다 각각 유래와 이유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수삼 넘어는 본 마을에서 봉호 쪽으로 가는 논골을 칭하며 조선 중엽 북천강이 수구너머로 흘러내려 물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였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관내도

▼ 동호1리 마을 전경



또한 도로에서 마을 안쪽을 마을 앞에 있는 무논이라 하여 앞 무논, 동호2리 쪽으로 내려오는 들아래 남천강과 금속천이 남천으로 흐르지 않고 마을 쪽으로 흘러 농경지 양천천 사이에 있었다 하여 새내들이라 각각 칭했고, 넓은 들 사이에 1km 정도의 임야가 우뚝 솟아 있는 부근을 벌미동산이라 불렀으며 마을 하구 안에 들어있는 들이라 하여 아랫들이라 칭했다고 한다. 한편 염전밭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백사장에다 한 자 정도의 진흙을 깔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다 하여 바닷가 주변을 염전밭이라 부른다.

웃갈벌을 선유리(仙遊里)라고 하며, 동쪽의 호수라 하여 동호리(東湖里)라고 한다. 마을입구 산 능선 부근에서 용기문과 손톱무늬, 점열무늬 등 다양한 무늬의 선사시대와 청동기시대 토기들이 다량 출토되어 B.C 3천년~2천년 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갈-벌 : 선유리와 용포리에 걸쳐 있는 마을로써 예전에는 갈대밭이었다고 함.
- △ 밭-무논 : 바깥쪽에 있는 들로 논에 물이 많음
- △ 벌밋-동산 : 들판 가운데 있는 조그만 동산
- △ 새넛-들(仙遊坪) : 동호리 서쪽과 신안리 동쪽에 걸쳐 있는 들
- △ 석이-바우 : 석이(石耳) 버섯이 난다는 바위
- △ 아랫-갈벌(龍浦里 또는 龍湖) : 갈벌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용이 잠겨 있는 소(沼)가 있다고 함.
- △ 안-무논 : 안쪽에 있는 들, 가물지 않는 논이 많다고 함.
- △ 웃-갈벌(山遊里) : 갈벌 위쪽에 있는 마을
- △ 염전두루 : 옛날 염전을 하던 들

동호2리 마을 전경 ▼



봉호리(蓬壺里)

간성읍 소재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거진읍 송죽리, 서쪽은 거진읍 대대리, 남쪽은 신안4리, 동쪽은 동호리와 동해로 연결돼 있다.

마을의 골 명칭은 골말, 버덩말, 벤밭골, 방죽골, 수재밭골, 안장골, 돌고지, 아랫들, 개까, 굴구머매 등의 여러 가지 속칭으로 불려 왔다.

마을 앞에 호수가 있고 그 호변에 쭉이 많으므로 봉호리(蓬湖里)라 하였으나 어(魚) 씨가 번성하였다가 윤(尹) 씨에게 기세가 꺾이자, 윤 씨 측에서 어 씨의 성이 고기를 상징한 것이니 호수가 있어서 다시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영영 막는다는 뜻으로 호수 ‘호(湖)’자를 병 ‘호(壺)’자로 고쳤다고 한다.²⁰⁾

지형적으로 봉호동 앞에 산이 가로막혀中间的의 길이 동리 앞을 졸라매게 되어 마치 병마개를 졸라맨 듯한 형국으로 봉호리(蓬壺里 : 병 '호(壺)'자임) 리명이 고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봉호리 마을 전경



20) 『한국지명총람2(강원도편)』, 한글학회, 1981, 43쪽

- △ 고등이(高阜子) : 가파르게 비탈진 마을 산으로 고부자에 있는 고개를 고부자 - 고등이라고 한다.
- △ 돌고지 : 봉호 서북쪽에 있는 산
- △ 돌구-너메 : 봉호 서쪽 산 너머에 있는 들
- △ 뒷-듬병 : 봉호 뒤에 있는 소(沼)였으나 지금은 들이 되었다.
- △ 뒷-드루 : 봉호 뒤에 있는 들
- △ 물-건네 : 수월(水越) 개울 건너편에 있는 들
- △ 방축-골 : 방축이 있던 골짜기
- △ 뱀밭-골 : 봉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반석 : 돌고지 부근의 골짜기
- △ 서낭-봉 : 서낭당이 있는 산
- △ 술구-너메 : 봉호 동쪽 고개 너머에 있는 들
- △ 술구-너미 : 봉호 동쪽에 있는 고개
- △ 아랫-드루 : 봉호 아래쪽에 있는 들
- △ 안-골 :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들
- △ 안장-골 : 안장바우가 있는 골짜기
- △ 오리-봉 : 오리 목처럼 생겼다는 산
- △ 장사바우 : 아랫뜰 공동묘지 한쪽에 약 3평 정도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장사의 발 자국이 있다하여 장사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 쟁밋-봉 : 봉호 앞에 있는 산
- △ 큰 가산 : 봉호 마을에서 가장 큰 산
- △ 텃-골 : 안골 바깥쪽에 있는 골짜기
- △ 통-우물 : 마을에 있는 큰 우물로 우물을 나무로 짰다.

간촌리(良村里)

동쪽으로 상리, 서쪽으로 어천리, 남쪽으로 금수리 그리고 북쪽으로 교동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 마을 원님의 부친이 명하기를 용암이라 하였다. 그 후 속칭 구암동(龜岩洞)이라 부르다가 약 300년 전부터 물 흐르는 방향이 간방(良方 동북쪽)으로 흘렀다하여 간촌(良村)이라 칭하여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다. 여기서 간방(良方)이라 함은 간촌에서 흐르는 물이 북천(교동리 앞)위로 흘렀던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마을 입구에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밑에 깊은 소(沼)가 있었는데 용수(龍水)라 하였다. 그 깊이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넣어도 모자랐다고 하며, 물속에 용이 있다고 하여 용바위라고 하였고 그동네 이름을 용암동(龍巖洞)이라고 하였다. 용암동 서쪽 약 2km 지점에 고개를 용암동길이라고 하였는데 1960년까지 어천리와 광산리 주민들이 이 고갯길을 넘어 간성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 간촌리 마을 전경



- △ **뒷-골** : 간촌 뒤에 있는 골짜기
- △ **방갯-골** : 간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용-바우** : 마을 동남쪽 5km지점에 위치한 바위로 옛날 그 바위 밑에 깊은 물(소)이 있었는데 그 물을 "용수(龍水)"라 하여 그 바위를 용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 **섬-바우** : 마을 서남쪽 8km 지점의 절벽에 바위 2개가 겹쳐져 있는데 밑에서 볼 때 그 모양이 벼섬(가마니) 모양과 같다 하여 섬바위라고 부른다.
- △ **냉천(약수터)** :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3km되는 청수골에 위치하고 있는 데 지금 부터 3~4백 년 전으로 추정되는 때에 한 농부가 이 약수터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쏟은 후 부터 약수가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도 남아있는 물이 아주 차가워 여름에 부근 농부들이 자주 마신다고 한다.
- △ **냉장터** :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냉장골에 있으며 옛날 피부병 환자가 그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아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지형도

교동리(校洞里)

동쪽으로 거진읍 대대리, 서쪽으로는 광산리, 남쪽으로는 간촌리, 북쪽에 해상리와 거진읍 초계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조선시대 말기 조(趙)씨 가문이 마을을 창설하였다고 하여 조동이라 칭하여 오다가 거진읍 대대에서 향교를 이전 설립하면서 유교를 가르치는 마을이라 하여 교동(校洞)이라 칭하여 전해 내려온다. 조선지리지 자료를 살펴보면 향교 아래를 교하리(校下里), 향교 중간을 교중리(校中里), 향교 위마을을 교상리(校上里)라고 하였고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을 교동리(校洞里)로 하고 군내면(간성면)에 편입하였다.

마을 행정구역상 3반부터 5반까지를 웃말이라고 하고 중간위치인 1반에서 2반까지를 중간말, 그리고 나머지 1반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 교동리 마을 전경



- △ 건논-순개(越筍浦) : 아랫개 건너편에 있는 마을
- △ 규봉산 : 교동 서북쪽 간성향교가 있는 산
- △ 남산 : 교동 앞에 있는 산
- △ 배나뭇-골(梨木洞) : 배나무가 많다고 함, 마을 북쪽 약1.5km지점에 있는 골짜기
- △ 아랫-바르매 : 본래 바르매라고 불렀는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해상리(海上里)로 많이 옮겨가서 살게 되면서 그곳을 바르매라고 부르고, 그 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아랫바르매라고 부른다.
- △ 아랫-순개(下筍浦) : 교동 북쪽에 있는 들
- △ 왕뱅이(旺方) : 기봉산 서쪽에 있는 버덩
- △ 왕-소 : 북천 개울에 있는 소
- △ 울개-터(渭溪坪) : 교동 서쪽에 있는 들
- △ 정가집-골 : 옛날 정 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이 있었다는 골짜기
- △ 정자-미(亭子坪) : 교동 서쪽에 있는 들
- △ 함박-골 : 기봉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활텃-거리 : 전에 활을 소던 터
- △ 정지미-버덩 : 교동리 마을 서쪽에 위치한 들판을 부르는 이름이다.
- △ 밤나무-골 : 마을 북쪽 1km 떨어진 곳. 지금은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다.
- △ 극락암(極樂庵) : 945년 (고려 혜종, 을사년) 때 건봉사 묘적동에 창건했으며 1878년 (조선 고종15년, 무인년)에 건물이 전소됐다고 한다. 1882년(조선 고종 19년) 사봉진 스님이 다시 49칸을 창건했으나 한국전쟁 당시 또 전소되었다. 그 후 신축과 이전, 전소를 반복해 가며 오늘에 이르렀다.
- △ 간성향교(杆城鄉校) : 지방문화재자료 제104호로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4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 말엽 이용계(李龍溪)가 간성군 군내면 용연동(상리)에 건립하였는데 이후 거진면 방축동, 간성면 대전동 등지로 옮겨 지은 일이 있으며 6.25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것을 수복 후 1955년 다시 건립하였다. 향교 주변에 택당 이식(李植) 선생의 공덕비 등이 남아 있다.
- △ 전봉상(全鳳祥) 효자각 : 조선 선조 때 사람인 전봉상(全鳳祥)은 부모가 일평생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백방으로 구입 대접한 효행으로 1610년에 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3인의 효자비가 있고, 정·측 1칸에 팔작지붕이다.
- △ 간성기선(杆城基線) 동단(東端)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장거리 정밀 삼각측량 성과 기준점으로써 전국 13곳 중 한 곳으로 1912년 교동리 976-26 번지에 설치한 시설이다.

해상리(海上里)

동쪽으로 거진읍 대대리, 서쪽으로 탑현리, 북쪽으로 거진읍 초계리, 남쪽으로 교동리와 각 접하고 있다.

간성읍 마을 각리 끝에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속칭 위촌마을이라 불렀다. 해상1리 서쪽으로 8km 지점에 구절폭포가 있어서 이 폭포에서 흐르는 물을 우수라 하였으며 그 상류 지역을 우천이라 했는데 우천의 우향으로 샘이 솟아 임천리(林泉里)라 부르던 것이 지금의 해상1리가 됐다. 또 그 우수의 하류에 있는 마을을 번개(礮溪)라 부르는데 그것이 지금의 해상2리가 되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는 정토리(淨土里)와 하해상리(下海上里), 팔음천리(八音川里)라는 기록도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무성한 숲에서 맑은 샘물이 흐른다는 임천리(林泉里), 백운동(白雲洞) 골짜기 구절폭포에서 굽이 돌아내려오는 물이 중국 위수(渭水)와 같다고 하여 위천리(渭川里) 현재의 해상1리로, 팔음리(八音里)는 해상2리가 되었다. 팔음이란 金, 石, 絲, 竹, 木, 土, 草, 匏의 8가지 소리를 말하며 시경(詩經)에



▼ 해상1리 마을 전경



이르기를 '팔음(八音)이 극해(克諧)하여 무상탈윤(無相奪倫)이면 신인이화(神人以和)라' 하였는데 이는 여덟 가지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귀신도 사람과 화합한다는 뜻으로 처음 마을의 준령 끝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여 팔음이라 칭한 것이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마을 부근에 건봉사가 있어서 석가탄신일이 되면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어, 이 동네를 지나게 되므로 팔방의 소식을 잘 듣게 되었다고 하여 팔음리라고도 한다.

구절폭포(九折瀑布) 아래 육송정(六松亭)이라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한 뿌리에서 6개의 나무가 뻗어 나와 그렇게 불렀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Ⅰ 해상 1리 Ⅰ

△ 호래비-골짜기 : 마을 앞 골짜기로서 옛날 이곳에서 홀아비가 혼자서 살았다고 하여 그렇게 칭하여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 가매-소 : 가마처럼 생긴 소

△ 광지개-미 : 섬바윗재 동북쪽에 있는 산

△ 구용-소 : 구용(구유)처럼 생긴 소

△ 등돛-골 : 임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새자-골(鳥啼洞) : 임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선-바우 : 팔음 서북쪽에 있는 바위

△ 섬바윗-재 : 선 바위가 있는 산

△ 위천리(渭川里) : 중국 위수(渭水)라는 큰 강물이 있는데 이 마을로 흐르는 냇물의 방향과 굴곡이 비슷하다고 한다.

△ 이승-골(梨新洞) : 새자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임천(林泉) : 바르매 서쪽에 있는 마을

△ 질-골(路洞) : 길이 있는 곳

△ 청련암(靑蓮庵) : 해상리에 있는 절 터

△ 평풍-바우 : 병풍처럼 생긴 바위

△ 육송정 홍교(虹橋) : 한 뿌리에 여섯 지주의 소나무가 있는 부근의 다리로서 2002년 3월 6월 국가보물 제1337호로 지정된 홍예다리로서 석교(石橋)이다. 지금은 소나무는 고사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간성기선(杆城基線) 서단(西端)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장거리 정밀 삼각측량 성과 기준점으로써 전국 13곳 중 한 곳으로 1912년 해상리 656-6번지에 설치한 시설이다.

Ⅰ 해상 2리 Ⅰ

△ 감상-골(甘霜谷) : 팔음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남수-편 : 해상리에 있는 들

- △ 뫇-골 : 팔음(八音)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샘안-개울 : 해상 앞을 흐르는 내
- △ 왕뱅잇-들 : 샘안개울 남쪽에 있는 들
- △ 원장-골(溫井洞) : 온정(溫井)이 있다는 골짜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산골짜기에 온천이 있어서 거지가 찾아들어 온천을 없애 버렸는데 그 후에도 온정골로 불렸다고 한다.
- △ 쟁-골(齋洞) : 팔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드루 : 개울 북쪽에 있는 큰 들
- △ 팔음(八音) : 위천 동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부근에 건봉사가 있어서 석가탄신일이 되면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동네를 지나게 되므로 팔방의 소식을 잘 듣게 된다고 한다.
- △ 간성향교 기적비 : 임진왜란 때 왜군이 침입하자 김자발, 박응렬 등이 향교에 모시던 성현의 위비(位碑)를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송덕골 굴바위에 안치하였다가 해상리에 충현사(忠賢祠)를 짓고 모시다가 교동 향교를 준공하자 이안(移安)한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비문은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찬(撰)하고 서영보(徐榮輔 1759~1816)가 썼다. 비석은 비신의 높이 1.42m, 폭 61cm, 두께 22cm이다. 正、側 1칸 맛배집의 보호각내에 있다.
- △ 정석개(鄭石介) 열녀각 : 해상2리 곰골에 있으며 1592년부터 1593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정석개란 여인이 마을사람과 올케와 함께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석개는 붙잡혔기에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저항하자 두 유방(乳房)을 칼로 도려낸 다음 칼로 찢러 죽이니 열녀로 정하고 나라에서 정문(旌門)을 세웠다.
- △ 고왕뱅이(告旺방) : 왕뱅잇돌 위에 있는 골짜기

▼ 해상2리 마을 전경



탑현리(塔峴里)

동쪽으로 해상1리, 서쪽으로 민통선 북방 수동면과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 광산리, 북쪽에 거진을 냉천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마을 유래는 탑 고개 아래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탑동으로 부르다가 후에 탑현리로 개칭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건봉사 일대가 민통선 북방지역 설정되어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고기(古記)에는 탑현골짜기를 백운동(白雲洞)이라 하고 상원봉에서 발원하여 계곡을 따라 구절폭포(九折瀑布) 등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이어져 있다고 한다.



- △ 각시서낭-재 : 각시 죽은 혼을 모셨던 서낭이 있는 고개
- △ 구절-폭(九折瀑) : 물이 아홉 번 휘돌았다는 폭포
- △ 기파-대(企把台) : 광해 때 택당 이식 선생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 배고리-바우 : 백련암(白蓮庵) 부근에 있는 바위
- △ 백련동(白蓮洞) : 백련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골짜기
- △ 복곳-골 : 구절폭이 있는 골짜기
- △ 사오남-고개 : 냉천리 건봉사로 가는 고개로 탑고개라고 한다.
- △ 샛이망-재 : 탑현 서남쪽에 있는 산
- △ 서푸나무-골 : 서푸나무라는 나무가 많은 골짜기
- △ 숫돌-뱅이 : 숫돌이 많이 나오는 산

광산리(廣山里)

동쪽으로 교동리, 서쪽으로 향로봉산맥, 남쪽으로 어천리와 장신리, 북쪽으로 해상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원래 간성 북천강 상류에 있는 마을로 강의 북쪽마을을 만산(晩山)이라 하였고 강(江)의 남쪽을 광평(廣坪)이라 하였고 웅기점말(토기점 土器店) 서남쪽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하여 부동리(釜洞里)라고 하였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시 "광평"에서 '광(廣)'자와 "만산"에서 '산(山)'자를 따서 광산리(廣山里)라 칭하고 1, 2, 3, 4리로 분할, 명명하게 됐다. 광산1리는 행정상 3반으로 나누어졌는데 1반을 안말, 2반을 앞말, 3반을 새마을이라 칭하고 마을 앞뜰을 정자평이라고 부른다. 여지도서에는 만산리(滿山里)와 부동리(釜洞里)라는 기록이 있다.

광산4리는 옛날 위계촌이라고도 했다. 1961년 33세대가 서울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이라 하여 속칭 정착마을이라 했는데 1976년에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광산1리에서 7가구가 편입되기도 했다. 1961년 이전에는 광산1리에서 편입되었다고 해 만산이라 불렀다.



▼ 광산1리 마을 전경



Ⅰ 광산 1리 Ⅰ

- △ 대동(大洞) : 광산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그 규모가 크다고 하여 대동(大洞)이라 칭한다.
- △ 산제동 : 1740년대부터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라 하여 산제동이라 불렸으며 그 위의 골짜기를 호지논-골이라 한다.
- △ 천제(天祭)-골 : 광산초등학교 서편의 골짜기를 말하며 옛날에는 이곳에서 천제(天祭)를 지냈다고 한다.
- △ 대-곡(大谷 큰골) : 광산초등학교의 뒷골로 현재 향로봉 치성당이 있었다.
- △ 하-곡(下谷 아랫골) : 광산1리 광산초등학교의 동편에 있는 해상1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 △ 배루-소 : 광산1리에서 2리로 가는 고갯길에 있는 소를 이르는데 옛날엔 매우 깊었으나 지금은 개간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 △ 만산(晩山) : 광평 북쪽에 있는 마을
- △ 정재-평(정자평) : 만산 앞에 있는 들

Ⅰ 광산 2리 Ⅰ

- △ 굴-바우 : 마을 북서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 밑에 넓이 15m² 정도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고 하여 굴바위라 칭하고 있다.
- △ 가매골(釜洞) : 웅기점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말-구리 : 옛날 마을이 있었다고 함.
- △ 새-오개 : 탑고개로 가는 중간에 있는 고개
- △ 웅기점-말(土器店里) : 웅기점이 있던 마을
- △ 점-말 : 토기점리(土器店里), 일명 웅기점말을 말한다.
- △ 화성-골 : 웅기점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승도-골 : 마을 북쪽 6km 떨어진 곳에 옛날 고려시대에 몽고족이 침입하였을 때 승려들이 피난하였던 골짜기가 있다고 하여 승도골이라 칭하여 전해오고 있다.

Ⅰ 광산 3리 Ⅰ

- △ 광-평 : 넓은 들이 있는 마을로, 들을 ‘광평드루’라고 함
- △ 소팽이 : 소팽이 골에는 까마귀 머리가 있어 이동네 시집오면 까마귀 머리라 했다.
- △ 어룡-고개 : 광평에서 어룡(魚龍)으로 가는 고개로 옛날 호랑이가 신랑 신부를 물어다가 이 고개에서 뜯어 먹었다고 하여 신행(新行)은 이 고개를 지나지 않는다 함
- △ 오리-평 : 들길이가 족히 5리는 된다하여 오리평이라 부른다.
- △ 그 외에 고치골, 뒷방축골, 갑들이 등의 속명칭이 전해오고 있다.

Ⅰ 광산 4리 Ⅰ

- △ 탄-봉 : 마을입구 중앙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다른 산과 떨어져 있다고 하여 외탄봉이라 부르다가 탄봉으로 전해오고 있다. 마을 체험장을 유치하면서 탄봉을 철거하여 지금은 없어졌다.
- △ 울개-터(渭溪村) : 정착민 마을

어천리(魚川里)

동쪽에 간촌리와 금수리, 서쪽으로 장신리, 남쪽으로는 탑동리와 선유실, 북쪽에는 광산리와 교동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고기(古記)에 의하면 당초 내어탄리(內於香里)라고 하였고, 『여지도서』에는 내어비탄리(內於非香里)라는 기록도 있다. 마을의 남쪽으로 200m 지점에 박씨 소유의 산이 있었는데 그 생긴 모양이 어두(魚斗)처럼 생겼다고 하여 그 뜻을 따서 어룡리(魚龍里)라 칭하고 어룡리 동북쪽을 오금천리(五金川里)라고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어변형룡(魚變形龍), 즉 ‘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었다’는 데서 본따 어룡리(魚龍里)라 불렀다고도 한다. 한편, 어룡리는 으뜸 되는 마을로써 어룡소(魚龍沼)가 있는데 천년 묵은 고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고, 오금천리는 어룡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써 옛날 앞 내에서 오금이 났다고 한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어룡리와 오금천리를 병합하여 어천리(魚川里)로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 시 1, 2리로 나누어졌다.



▼ 어천1리 마을 전경



어천2리는 마을 입구에 섬처럼 뚝 떨어진 산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시체처럼 생겼다고 하여 송장산이라 불렀다. 그 뒷산의 모양은 '금오가 탁자형'이라, 즉 까마귀가 뒤쫓는 모양이라 하여 마을 앞 하천의 천(川)자를 합하여 속칭 오금천(烏金川)이라 하였는데 중간의 '금(金)'자는 옛날 뒷산에 사금이 나는 금광이 있었다 하여 '금(金)'자를 쓴다는 설도 있다.

어천3리는 산세가 수려하고 꽃이 많아 놀이에 적당하다 하여 속칭 꽃댕리골이라 불렀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30세대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했으며 그 후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어천1리에서 분리하여 어천3리가 되었다. 2개 반으로 나누어져 1반은 꽃댕이 마을, 2반을 너래골이라 부른다.

3반은 광대골이라 불렀으나 1979년 없어졌다. 2008년부터 매년 6월마다 하늬라벤더팜에서 주최하는 라벤더축제가 열려 많은 체험관광객들이 찾아온다.

Ⅰ 어천 1리 Ⅰ

- △ 잿-골 : 마을 서쪽 4km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로 나뭇잎파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일명 저수지골.
- △ 조계산 : 마을 중심에 있는 산. 산정에 종을 달아 놓고 모임을 알렸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던 곳.
- △ 뒷골고개(함정고개) : 광평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옛날에는 높고 으스스했다고 함.
- △ 짹별 : 마을 안 작은 들, 현재 마을 회관이 있는 곳
- △ 성황산 : 꽃댕이 가는 길 부근 산으로 매년 정월 초하루 제를 지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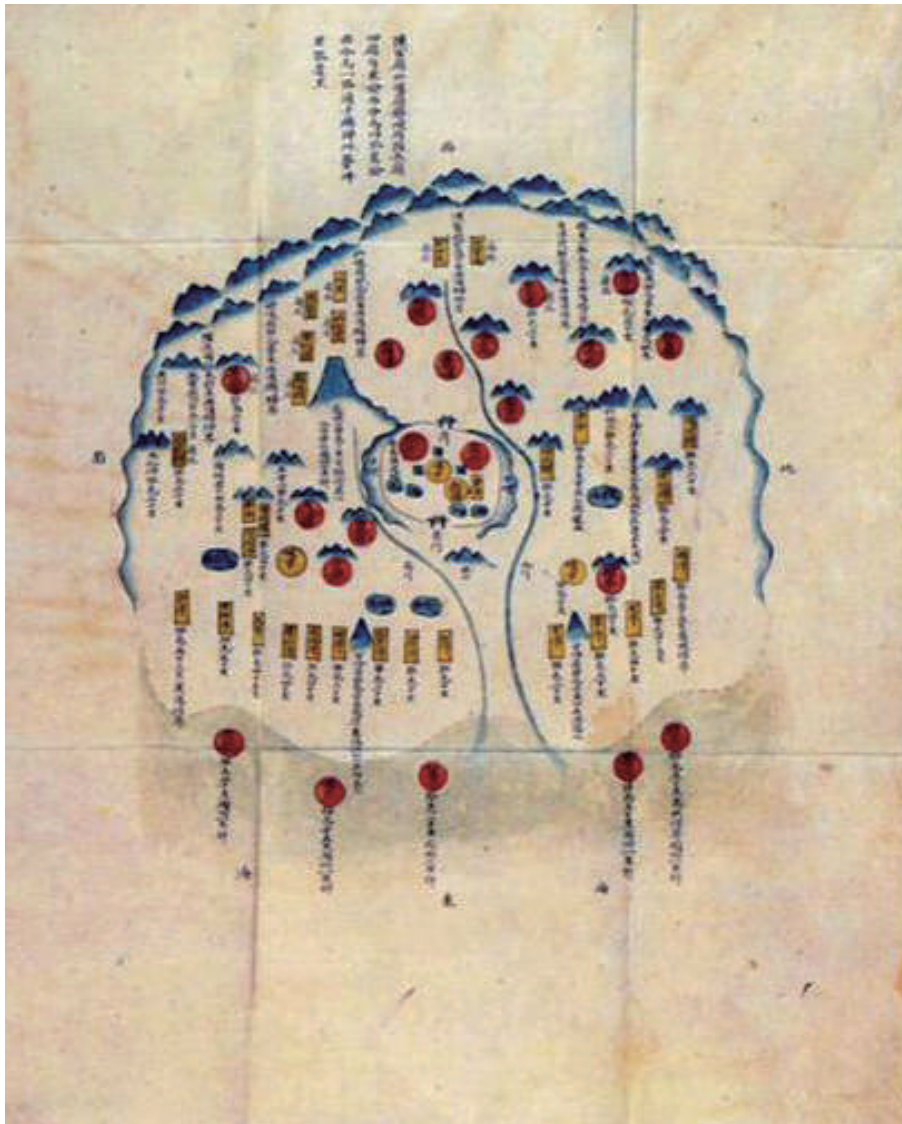
Ⅰ 어천 2리 Ⅰ

- △ 대대골 :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
- △ 송장산 : 일제강점기 산 모양이 꼭 사람 시체와 같다 하여 송장산이라 칭하여 오다가 그 후 봉황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 △ 정자평 : 마을 입구에 있는 들
- △ 그 외에도 온정골 등도 있다.

Ⅰ 어천 3리 Ⅰ

- △ 재향군인촌 : 5.16군사정변 이후 재향군인회(사무국장 황종국 전 군수) 일부와 토성면 신평리 주민 30가구가 입주하여 PL480으로 개간하여 이룬 마을. 그 후 천주교 춘천교구 박도마 주교 주도로 너래골 133-9번지 일대를 인수하여 1970년대 목장(관리인 김시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 △ 너래-골 : 마을 서쪽에 위치한 2반을 이르는 명칭.

- △ 관대-바우(갓관) : 마을의 남쪽에서 8km 떨어진 곳에 바위가 있는데, 생긴 모양이 머리에 쓰는 관처럼 생겼다 하여 관대바위라 불렀는데, 구전에 의하면 관대 바위와 고성산 사이를 줄로 이어 놓고 그 줄 위로 다녔다고도 한다.
- △ 꽃댕이마을 : 들꽃이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맨 꼭대기 마을이라는 의미도 있다.
- △ 제왕-골 : 1반에 있는 골짜기
- △ 득송골천 : 마을에서 가장 긴 실개천
- △ 목장골천 : 밤나무골 단지 인근에 있는 실개천
- △ 광대골천 : 선유실 가는 길에 있는 실개천



고지도(간성군지방도, 1872년)

장신리(長新里)

동쪽에 어천리, 서쪽에 수동면과 향로봉산맥, 남쪽에 진부리, 북쪽에 광산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여지도서』에는 장전리(長田里), 속칭 장밭이(長田)라고도 부르는데 그 유래는 정확치 않으나 지금부터 약450년 전(조선 중종에서 인종)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때는 마을 앞이 모두 밭이었고 그 밭의 규모가 장신2리까지 길게 분포되어 장전(長田)이라 부르고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1916년 8월 1일 신평리(新坪里)와 합하여 장신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1, 2리만이 있으며 1, 2반을 아랫말, 3, 4반을 웃말이라고도 부르며, 장신2리는 새마을이라 불렀다.



관내도

장신1리 마을 전경 ▼



장신 1리

수복직후 국도46호선 진부령 도로 양편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형성되었고 인접 주둔부대 중심으로 영외거주 군인을 포함해 주민들이 많이 살았다. 고성경찰서 수동지서와 광산초등학교 장신분교도 있었으나 1980년 이후 군부대가 이전하고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을의 규모가 크게 줄었고 분교도 폐쇄되었다.

『조선지형도』에는 장전리(長田里)로 기록하고 있다.

△ 무랑-골 : 물이 많은 골짜기

△ 터밭-골 : 장밭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터박골 바위의 외문포 : 터박골 바위에는 외문포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바위 옆에 외줄기 폭포가 있기 때문에 약 100년 전에 새겨져서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 선녀탕 : 터박골 외문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선녀가 달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하는 바위 웅덩이를 말한다.

△ 낚은-터골 : 장신1리 마을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 저수지가 있다.

△ 가재-골 : 마을 중간을 지나는 소하천으로 가재가 많이 있다고 하여 가재골이라 불렀으며 장마 때만 물이 흐르고 상류에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다.

△ 문암-골 : 마을의 서쪽 계곡으로 산나물 및 버섯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나물 캐던 할머니가 이상한 산나물이 있어 한보따리 뜯어와 마을사람에 보여 주었는데 이것이 산삼이라고 판명돼 심마니들이 모여 나물 뜯은 곳을 다시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지금도 문암골 어딘가에 산삼이 있다고 믿고 있다.

△ 냉천 : 터박골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

장신2리 마을 전경



장신 2리

- △ 새마을(新坪里) : 고기(古記)에 신평리(新坪里),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 지금의 장신2리를 말한다. 조선지형도에는 신평리(新坪里)로 기록하고 있다.
- △ 나가뿔-골 : 나(羅) 씨가 살던 골짜기
- △ 소동령 Sottongnyeong [異] 소동령(小東嶺)²¹: 진부령(陳富嶺)과 함께 간성(杆城)과 인제(麟蹄)가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고개이다. 이곳의 지명에 대한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진다. 가장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는 고개를 넘어 장으로 팔려가던 소들이 고개 정상에 있는 주막 앞에 똥을 많이 누어 산이 소똥 모양이 되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과거 한양으로 가던 길목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산 생김새가 소똥과 같이 되어버린 탓에 소동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한편 간성과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들 중에서는 그 규모가 작은 편이라 '동쪽의 작은 고개'라는 뜻으로 소동령(小東嶺)이라 부르던 것이 자연스레 소동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지리지』에서는 간성군 해상면(海上面) 신평리(新坪里)에 위치한 소동령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한글 지명으로 '싯쑹영'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 지리지와 지도에는 소동령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지형도』에는 소종령(小鐘嶺)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 △ 장자-골 : 마을 서쪽 3km지점, 옛날에 부자였던 장씨 집안이 거주하였던 골짜기.
- △ 장-밭 : 지형이 길게 생겼다고 하여 칭함
- △ 다리-골 : 마을 남쪽
- △ 함정-막골 : 골이 함정처럼 움푹한 곳
- △ 큰자리-골 : 장신2리 1반 뒷산
- △ 선혜-골 : 장신2리 1반 밑골
- △ 수챗-골 : 수채가 있던 골짜기
- △ 칩-소 : 마을 서북쪽에 2개의 작은 폭포 아래 소를 이루고 있는데 연어 등 회귀어종이 북한 상류를 따라 이곳까지 온다고 하며 구전에 의하면 용(龍)이 승천하다 떨어져 이무기가 되어 폭포 밑의 굴속에 살았다고 전한다.
- △ 삼-봉(三峯) : 향추골 북쪽에 있는 해발 987m 산으로 봉우리가 셋으로 되어 있다.
- △ 머냇-골(遠川谷) : 마을 북쪽 향로봉에서 삼봉을 거쳐 내려오는 골짜기로 골이 멀고 깊다고 하여 머냇골이며 60년대에는 굴피채취, 숯제조 장소로 유명하고 심마니가 산삼을 많이 캐던 곳이다. 일명 몽우(夢雨)내골이라고도 한다.
- △ 작은 머내-골 : 장신2리 2반 다리 골짜기
- △ 용-소 : 마을 서북쪽의 진부령 방향 하천을 따라 3km 거리에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용이 놀던 곳이라 하여 '용소'라고 하며 그 깊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 용바위(龍巖) : 새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밑에 깊은 소가 있는데 용이 이 바위에서 올라갔다고 한다.
- △ 소평이-골 : 입구는 좁고 안이 넓으며 암소가 앉은 형세의 골짜기
- △ 수리봉 : 삼봉 줄기 밑에 일제강점기 금강채석장이 있었다고 한다.
- △ 문턱소 : 칩소 위에 있는 가마소
- △ 명지소 :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가도 모자랄 만큼 깊은 소
- △ 강□소 : 강씨 집성촌 마을

21)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701쪽

탑동리(塔洞里)

동쪽으로 죽왕면 공현진리와 오봉리, 서쪽으로 어천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 죽왕면 구성리, 북쪽으로 어천리와 금수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간성군읍지』 기록에는 10여층 탑이 있으므로 탑동(塔洞)이라 부른다고 하고, 문(文)씨가 마을에 들어 온 후, 서북쪽 50m 위치한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탑을 발견하였다 하여 탑골 또는 탑동(塔洞)이라고 불렀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마을 앞 농경지에 수렁이 많다고 하여 속칭 고래실과 예전 보(湫)를 막았던 곳이라고 하여 보매기, 산 모양이 청룡(靑龍)을 닮았다고 하여 청룡골을 합하여 탑동리(塔洞里)라고 하였다고 한다.



관내도

▼ 탑동1리 마을 전경



Ⅰ 탐동 1리 Ⅰ

- △ 가운데-골 : 가운데 있는 골짜기
- △ 고래-실 : 탐동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건너말과 아랫말로 나뉘며, 그 안 골짜기도 고래실이라고 한다.
- △ 괴망-골 :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
- △ 구승-소 : 구승(구유)처럼 생긴 소
- △ 동누-골 : 마을 서쪽의 폭포수 있는 곳
- △ 동릿가-산 : 탐동 소유의 산
- △ 동숙-골 : 본말과 소천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
- △ 뒷-산 : 탐을 썻던 곳이 있는 산
- △ 마송(馬松)나무 : 탐동1리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앞 냇가에 우뚝 솟은 큰 소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를 마송나무라 부른다. 나무의 수령은 약 250~300년으로 추정되며 그 둘레가 4m나 된다. 현재는 이 나무부근이 하천으로 되었으나 구전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50년전 이 마송나무 부근에 가옥이 몇 채 있었는데 계사년 포락 시 가옥이 물에 잠기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소나무에 올라가 다리를 말 타는 모양으로 걸치고 피신하여 목숨을 구했다 하여 말 마(馬)자를 따서 마송나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이 마송나무를 둘러싸고 양쪽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소나무 있는 곳은 섬 형태를 이루고 있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 뱀-소 : 뱀이 많다는 소(沼)
- △ 보매기 : 전에 보를 막았던 곳
- △ 셋-골 : 풀이 많은 골짜기
- △ 서낭-고개 : 서낭이 있었던 고개
- △ 세-고개 : 고개 셋이 연달아 있다.
- △ 안고래술 : 마을 앞
- △ 움목-골 : 우묵하게 되어 있는 골짜기
- △ 작은 드릉-골 : 건너말 뒤에 있는 골짜기
- △ 조폭-동(鳥瀑洞) : 폭포가 있는 골짜기
- △ 지당-소 : 산제당(山祭堂) 부근에 있는 소
- △ 청룡-골(靑龍) : 산 지형이 청룡을 닮았다는 마을
- △ 촛대-바위 : 촛대처럼 생겼다는 바위
- △ 큰 드릉-골 : 건너 말 뒤에 있는 골짜기

Ⅰ 탐동 2리 Ⅰ

- △ 재리-골
- △ 약수터 및 냉천

선유실리

본래 간성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골짜기에 선유담(仙遊潭)이 있어 선술, 선유실이라고 하였고, 고을 서쪽에 영서로 가는 소로(小路)가 있었으나 1574년(선조 7년) 간성군수 황린(黃麟)이 처음 개통하면서 선유령(仙遊嶺)이라고 하였다.

한편, 1973년 행정구역 분리 시 2반을 따로 떼어 마산봉의 신선함을 본떠 신선'선(仙)'자와 옛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에 따라 놀'유(遊)'자를 써서 선유실리(仙遊室里)라고 부르다가 고도 한다.

현재 행정구역 상 탑동2리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내도

△ 곱박-골 : 소천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

△ 관대바위 冠帶巖 Gwandaebawi [異] 광대바위²²⁾: 군의 간성을 고성산 서남쪽에 위치한 바위이다. 이름은 옛날 이 지역에 살던 '관대'라는 사람이 버섯을 따기 위해 산을 지나다 큰 짐승을 만났는데 짐승이 길을 비키지 않자 짐승에게 침을 뱉는 순간 그 짐승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에서 유래 되었다. 관대가 그 바위를 타고 내려와 산봉우리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려는 순간 물에 비친 백말이 뛰어 나왔다는 전설도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간성군 해상면(海上面) 어룡리(魚龍里)에 위치한 바위 명칭으로 관대암(冠帶巖)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이름은 '광대바위'라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 바위 위에서 광대가 놀았다는 데서 유래가 전해지는데 현재는 광대바위보다 관대바위 혹은 관대암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관대바위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 독-바위: 독처럼 생겼다는 바위, 탑동1리 서쪽으로 2km지점에 있는 폭포수 위에 독처럼 생긴 독모양의 경사가 비슷한 바위를 독바위라 했는데 옛날에 나무하러 갔다 오다가 그 바위 위에 돌을 던져 바위 위에 돌이 올라앉으면 혼사가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장가를 못간 노총각들이 계속 돌을 던져 지금은 올라앉은 돌이 많이 쌓여 있다.

△ 소천골(소청골): 고래실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골짜기

△ 재리-골: 소천골 앞에 있는 골짜기

△ 쇠종-골: 지금부터 약100년 전, 철이 들어 있는 암석을 장작불의 용광로에 녹여 흘러 내리는 쇳물로 버섯(연장), 농기구 등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쇠종골이라고 했다.

22)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702쪽

- △ 안반-덕 : 모양이 평평하게 생긴 산, 탑동2리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 넓은 골이 있는데 그곳이 딱칠 때 쓰는 안반처럼 넓고도 평평하게 생겼다 하여 '안반데기'라고 부른다.
- △ 가래-골 : 아랫마을에 있는 골짜기
- △ 거문-소 : 빛깔이 검은 소(沼)
- △ 꽃당-소 : 송어가 이 위로는 못 올라간다는 소(沼)
- △ 무랑-골 : 옷말 뒤에 있는 골짜기
- △ 선유담(仙遊潭) : 선유실에 있는 못, 작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서 반은 못 가운데로 들어 오고 그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봄이면 철쭉꽃 진달래가 만발하여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 △ 아랫말 :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용소(龍沼) : 용이 났나는 소(沼)
- △ 자진고개 : 아랫말에서 탑동으로 가는 고개
- △ 지푸네 : 선유실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
- △ 하수연 광산 : 가래골에 있는 광산

금수리(金水里)

동쪽으로 죽왕면 향목리, 서쪽으로 간촌리, 남쪽에 탑동리, 동남쪽과 북쪽으로 상리와 하리, 신안리와 각각 인접하고 있다.

옛날에는 금장동(金藏洞)이라 불렀고, 여지도서에는 금장동리(金章洞里)와 수동리(水洞里),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금곡리(金谷里)라고 한다. 그 아랫골에 물이 흐른다고 물골, 수동(水洞)으로 불렀고, 수동 서쪽을 '짐장골' 또는 '김장골(金章谷)'이라고 불렀는데 두 이름의 머릿자를 따서 1916년 8월 1일부터 금수리(金水里)로 고쳐 불렀다. 1929년 4월에는 당시 일본인 조일(朝日)이 금수리 산129번지에 금이 저장된 줄 알고 2년간 금광을 찾다 금을 못 찾고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속명은 김장골이다.



관내도

- △ 토-골 : 마을 뒷골짜기
- △ 건넌-들 : 마을 앞 들판
- △ 천혜장 : 현재 공설운동장이 들어선 곳
- △ 망-골 : 성향당을 지나는 골짜기
- △ 참-망골 : 망골 위쪽 골짜기
- △ 짐승-골 : 짐승이 많이 살았다는 골짜기
- △ 진-골 : 고성산 우측 골짜기
- △ 탄제-논골 : 고성산 좌측 골짜기
- △ 진패기 : 고성산 앞 조그마한 들판
- △ 덕세미-골 : 고성산 중앙 골짜기
- △ 사송골재이 :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골짜기
- △ 부챗-골 : 불상이 있었던 골짜기
- △ 감박-재 : 금수리와 간촌리의 경계 산마루
- △ 차전-바우 : 고성산 산록 동편 너럭바위
- △ 낙수봉(洛水峰) : 금수 남쪽에 있는 산
- △ 문-고개 : 신안리 쪽으로 가는 고개, 문고개에 있는 서낭을 문고개서낭 이라고 부른다.
- △ 못-골(水洞) : 금수 동쪽에 있는 마을
- △ 잣-말 : 못골에 딸린 작은 마을
- △ 정승-골(정순골) : 금수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짐장골(김장곡, 김장동) : 금수리 서쪽에 있는 마을

▼ 금수리 마을 전경



- △ 짝-바우 : 짐장골 앞에 있는 바위
- △ 탑둔지 : 4층으로 된 탑이 있다.
- △ 탑전대 : 옛날 수타사 사지 석탑
- △ 고성산 古城山 Goseongsan ²³⁾: 간성읍(杆城邑)의 북동부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297m).
 곳에 평지가 발달되어 있고 산 정상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일찍이 외세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전쟁 중에도 군사적 요충지 기능을 하였다. 그런 까닭에 고구려시대에 쌓은것으로 보이는 고성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고성산(古城山)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 고적조에는 “둘로 쌓았으며 둘레가 4백3척 인데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고성산성의 기록이 있다. 『해동지도』에는 간성군의 읍치 서쪽에 묘사되어 있으며 고성산 가까이 기록된 진부령(珍富嶺)·흘리령(屹里嶺)·석파령(石破嶺) 등을 통해 인제와 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872지방지도』에서는 산이 간성군 읍치의 북서쪽에 묘사되어 있고, 읍에서 10리 떨어진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도』에는 읍치의 남서쪽에 ‘고성(古城)’만 기록되어 있다. 한편 산 아래 위치하였다는 수타사(壽陀寺, 水陀寺)는 빈대가 너무 많아 승려들이 절간에 불을 지르고 이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절터에 석탑만 남아있다.
- △ 맹골 : 옛날 화전놀이 하던 곳, 일명 화전터
- △ 떡고개 : 고성산 넘어 원정동이나 관대암, 어천리로 넘어 다니던 고갯길, 고성산 우측 중턱에 있는 길로 꼭 쉬어가는 고개
- △ 동문역 : 덕새미 옆 골짜기 차전바위 아래
- △ 샷갓-바우 : 동문역 골짜기 아래 샷갓모양의 바위
- △ 탄저나무-골 :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보이는 골짜기
- △ 호랑바우 : 탄저나무골 위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의 바위
- △ 성황당(천제단) : 호랑바위 아래 매년 음력 3월 3일, 9월 9일 두 번 제(祭)를 지낸다.
- △ 방간깨 : 옛날 물레방아가 있던 곳
- △ 모노-골 : 마을 위쪽 남쪽 골짜기
- △ 고숯 : 마을 앞 골짜기, 옛날 열 서낭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 그루만 남아 있다.
- △ 춘박골 : 정순골 아래골짜기, 현재 미성환경 자리라고 한다.
- △ 석장골 : 춘박골 다음 골짜기, 마을 정남쪽
- △ 지정터 : 옛날부터 정월 초하루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 터
- △ 폭포 : 고성산 남방 2km 지점에 남천 중심의 반석이 150m 정도의 양면으로 깔려있는 중간에 4m 높이 폭포가 있다.
- △ 냉천 : 금수리 산51전지 속칭 냉장터라는 곳에 있는 높이 30m, 폭 20m의 암반 벽의 중간 1.5m지점에서 용출되는 냉천은 수량이 풍부하여 하계절 특히 삼복에 많은 사람들이(대부분이 여자) 목욕하면 만병통치라 하여 모여드는데 고성산에서 약500m 정도 동방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 그 밖에 뒷재, 불땅골, 정자넌, 한터골, 드름드리, 뒷골, 중애망골, 삼승골, 토끼골, 골방골 등이 있다.

23)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698쪽

진부리(陳富里)

동쪽으로 흘2리와 어천3리, 서쪽과 남쪽으로 인제군, 북쪽으로는 장신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향로봉과 진부령 계곡을 따라 국도 46호선 진부령 고개 아래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여 진부리(陳富里)라고 불렀다. 여지도서에는 진부리(陳富里)라는 기록이 있다.

고성군의 진산 향로봉과 진부령 계곡 최상류에 위치한 마을로 예로부터 금강굴과 계곡천에서 사금을 채취해 풍요롭고 넉넉한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 주변의 향로봉과 서낭골, 암자골, 모정골, 제춧골 등 깊은 골짜기가 많아 산약초 등을 채취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이다.



관내도

▼ 진부리 마을 전경



- △ 칠절봉(七節峯) : 옛날 진부리에 노부모를 모시고 지극한 효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시집을 못가고 있었다. 그러던중 부친이 병들어 백약이 무효하고 병은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되었을 때 처녀의 꿈속에 산신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하는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 주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처녀는 그길로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갔다. 그러나 처녀는 산에서 일곱 토막의 시체로 발견되었고, 그길로 영영 돌아올 수 없었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그 처녀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이산을 칠절봉(七節峯)이라고 불렀다.
- △ 진부리-사지 : 마을 서남쪽 200여m 떨어진 경작지에 절터가 남아 있다.
- △ 모종-골 : 마을 서편 골짜기
- △ 진부원(陳富院) : 간성읍지에는 진부령 밑에 두었는데 본래 원집이 없었고, 영사이에 여행자가 왕래하는 길에는 마을도 주막도 없었다. 다시 원(院)을 두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 △ 서낭-골(城隍谷) : 서낭이 있던 골짜기
- △ 암자-골(庵子谷) : 암자가 있던 골짜기
- △ 제춧-골(齊秋谷) : 일명 향추곡(香秋谷)이라고도 하며 향로봉 밑에 있는 골짜기, 계곡 안에 용소(龍沼)가 있는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 △ 진뱃-령(陳富嶺) : 인제군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 조선시대 진부원(陳富院)이 있었다고 하며 진부원이 있었던 터가 있다.
- △ 용소(龍沼) : 공병대골, 제추골에서 향로봉으로 올라가노라면 중턱 쪽에 용의 모습과 꼭 닮은 폭포와 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용(龍)이 승천(昇天)하였다고 하여 이 소를 용소(龍沼)라고 한다. 1980년 가뭄이 심하게 들어 6월에 고성군수 이하 각급 기관장들이 이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는데 3일 만에 많은 비가 내려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흘리(屹里)

위치는 동쪽으로 선유실, 서쪽과 북쪽으로 진부리와 인제군, 남쪽으로 토성면 도원리에 각각 이웃하고 있다.

마을 유래는 산림이 울창하고 산이 높다하여 흘리(屹里)라 불렀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장터, 조장리, 영말기를 병합하였다. 속칭 밖(外)흘리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마을의 면적이 광활하여 지역별로 구분할 때 칭하던 이름으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 흘리 마을 전경



Ⅰ | 흘리 |

- △ **마장-터** : 말이 쉬던 곳이라고 하며, 옛날 교통이 불편하여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영동과 영서지방을 통행하는 지름길로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지대를 마장터라 불렀다. 옛날에는 이곳에 주막이 있어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가는 선비들이 말을 매어놓고 숙식을 하였고, 또 말을 타고 다니며 물물교환을 하던 상인들이 소로로 이용했다고 하여 그때부터 마장터라 칭하여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다. 해방 전에는 이곳에 10여 채의 가옥이 있었다.
- △ **쉬운배미-골(운배밋골)** : 논배미가 쉰 개 있는 골짜기,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논을 개간했는데 이것을 다 끝내고 쉼하여 보니 꼭 쉰(50)배미가 되었다 하여 그때부터 쉬배미골이라 했으며 이곳엔 지금도 5가구가 살고 있다.
- △ **참봉-골** : 옛날에 이 고을에 참봉이 살고 간 이후 고을이름을 참봉골이라고 불렀다.
- △ **작은 정승골** : 정승골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정승-골** : 정승이 놀던 곳이라는 골짜기
- △ **가리막-골** : 신선봉 밑에 있는 골짜기
- △ **밧-흐리** : 흘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
- △ **수리-봉** : 밧흘리에 있는 산
- △ **제당-골** :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

Ⅰ | 흘2리 |

속칭 '안흘리'라고 하며 해발 750~800m의 고랭지로 1966년 강원도의 지침에 따라 생겨난 실향민들이 임야를 밭으로 개간한 값진 땅으로 그들은 반평생을 바친 이곳에서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는 개간 토지에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여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 **선-바우(선돌)** : 우뚝 서 있는 바위, 1960년 경 이호빈(李浩彬) 목사가 마을에 처음 들어와 교회를 건립하였을 때 그 교회 뒷산에 서 있는 바위를 선돌이라 명하고 교회 이름도 '선돌 교회'라고 했다.
- △ **마산 馬山 Masan [異] 마산봉(馬山峰)²⁴⁾** : 군의 간성읍 토성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1,052m). 군의 간성읍과 토성면의 경계를 이룬다. 산세가 말과같이 생겨 마산(馬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며 마산봉(馬山峰)으로 불리기도 한다. 1911년에 간행된 『조선지리지』에는 간성군(杆城郡)의 대대면(大垈面) 죽포리(竹泡里)와 토성면 원암리(元巖里)에 두 곳의 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마산은 토성면 원대리에 기록된 곳이다. 『조선선지형도』에는 물골봉(水曲峰)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를 비롯한 고지도와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마산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금강산 1만 2천봉 가운데 하나로 설경이 뛰어나 건봉사(乾鳳寺)·천학정(天鶴亭)·화진포(花津浦) 등과 함께 고성8경에 속한다. 남한쪽 백두대간의 북단에 위치하여 신선봉에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등산코스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위의 진부령과 향로봉·비로봉을 비롯한 금강산 일부까지 보이기도 한다. 진부령과 이어지는 산기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으로도 알려진 알프스스키장이 있다.

24) 『한국지명유래집(중부권)』,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699쪽

- △ 노루-소 : 전에 노루가 빠져 죽었다는 소
- △ 대간령(大間嶺) : 해발 643m, 셋령이라고도 하는데 마장터에서 토성면 원대리로 가는 고개
- △ 말-머리 : 모양이 말머리처럼 생겼다는 바위
- △ 매-바우 : 매처럼 생긴 바위
- △ 박사-뒤편 : 중흥리에 있는 골짜기
- △ 배나뭇-골 : 돌배나무가 있는 골짜기
- △ 새박골-령 : 토성면 원터로 가는 고개
- △ 옥수-봉 : 안흥리에 있는 산
- △ 중-흥리(중흥리) : 흥리 중간에 있는 마을
- △ 안-흥리(안흥리) : 흥리 안쪽에 있는 마을
- △ 흐릿-령(屹里嶺) : 선유실로 가는 고개
- △ 제당-골 :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
- △ 씨알학원 : 선돌교회 이호빈 목사가 개설한 중흥리에 있던 학원
- △ 동원농산 : 안흥리에 있었던 목장, 외국어대학 재단 운영
- △ 안반데기 : 안반처럼 넓고 평평하게 생겼다하여 안반덕이라고 부른다. (선유실리 '안반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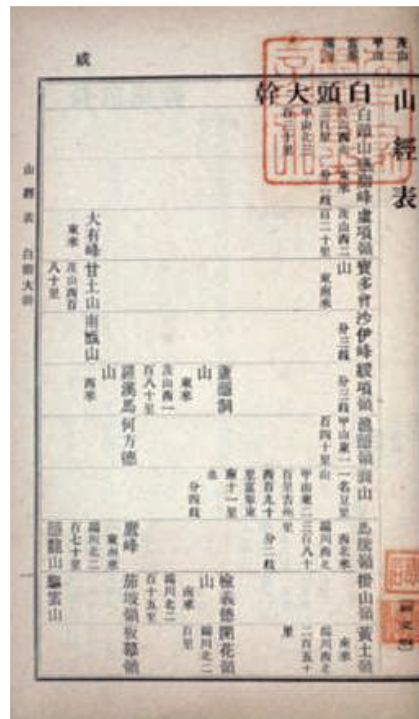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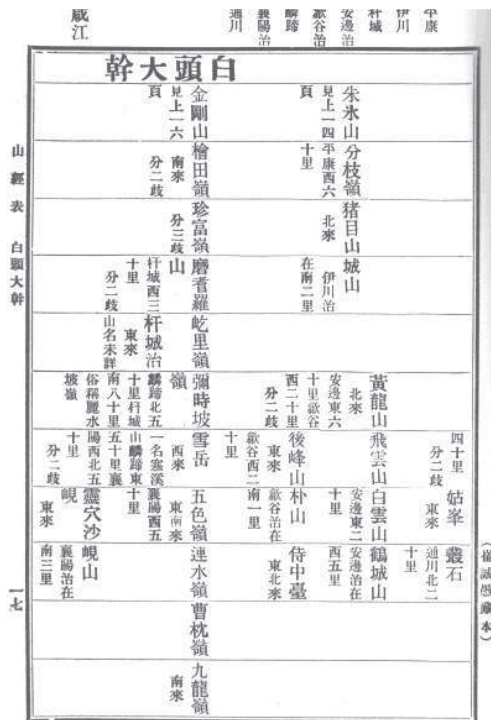
Ⅰ 흥3리 Ⅰ

마을은 진부령 영상(嶺上)에 위치하며, 아랫동네는 조쟁이라는 속칭이 있다. 조(朝)는 아침을 뜻하고 쟁(商)은 장사를 뜻하는데 구전에 의하며 옛날 물물교환이 성행할 때 영동과 영서의 중간 지점인 이곳에서 동해안 특산물인 어물과 영서 산물인 곡물과 산채 등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 장(場)이 섰는데, 주로 아침에 장이 선다고 하여 조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해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 △ 영-말기 : 진부령(陳富嶺) 마루가 되는 곳에 있는 마을
- △ 조장리 : 인제군과의 경계에 있는 마을
- △ 진부령 陳富嶺 Jinburyeong [異] 진벚령, 조장(朝場), 조쟁이²⁵ : 칠절봉(七節峯, 172m)과 마산(馬山, 1,052m)을 연결하는 산줄기의 낮은 부분으로 간성읍 흥3리에 위치한 고개이다. 관동지방과 영서지방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로서 고성군 간성읍과 인제군 북면을 직접 연결한다. 추가령(楸哥嶺)·대관령(大關嶺)과 함께 3대 영(嶺)에 속한다. 『여지도서』 간성군 관액조에 “군의 서쪽 4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고지도에는 간성과 인제가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에 묘사되어 있다. 진부령은 진벚령, 조장(朝場), 그리고 조장이 변음된 조쟁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진부’의 유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개 길이는 60km 정도로 1981년 국도(46호선)로 승격되었고, 1984년 포장 완공되었다. 진부령의 이름을 딴 진부리(陳富里)가 영하(嶺下) 취락을 이루고 있다. 고개 남쪽의 마산과 이어지는 곳에는 이 지역의 유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조성된 알프스 스키장이 있다. 이곳은 진부령스키장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키장인데 많은 적설량으로 유명하다.

25)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701~702쪽

- △ 향로봉 香爐峰 Hyangnobong [異] 마기라산(磨耆羅山), 가리라봉(迦里羅峰), 마기산(磨耆山): 군의 수동면과 간성읍 그리고 인제군의 경계에 위치한 봉우리이다(고도 : 1,287m).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의 하나로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산의 북쪽 사면으로 휴전선이 지나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 놓은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옛날 제사 지내던 터가 있었다 한다. 원래 이름은 마기라산(磨耆羅山)이었으며 신라시대에는 가리라봉(迦里羅峰)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에 “마기라산 고을 서쪽 3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남산 고을 남쪽 5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마기라산 군 바로 서쪽 30리에 있다. 진부령의 주맥으로 인제의 경계로부터 뻗어와 군의 진산이 되었다. 봉우리를 향로봉이라 하고 도량과 마주보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지도』에는 마기산(磨耆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1872 지방지도』와 『대동여지도』에서는 진부령 북쪽에 위치한 마기라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는 향로봉이 진부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1973년에 향로봉의 북동쪽에 위치한 건봉산(乾鳳山)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247호로 지정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이다. 향로봉 정상에 위치한 성황당에서 매년 두 차례 성황당제를 지낸다.
- △ 냉천: 흘3리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냉천은 여름에는 손이 시리도록 차서 식수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김이 날 정도로 따뜻하여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였다고 하며 아직까지 몇 집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경표(山經表) 26

26) "조선후기 문신·학자 신경준이 조선의 산맥(山脈)체계를 도표로 정리해 영조 연간에 편찬한 지리서,역사지리지"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거진읍 편

거진리(巨津里)

자산리(慈山里)

봉평리(蓬坪里)

화포리(花浦里)

원당리(源塘里)

송정리(松亭里)

용하리(龍下里)

산북리(山北里)

송강리(松江里)

석문리(石門里)

초계리(草溪里)

오정리(梧亭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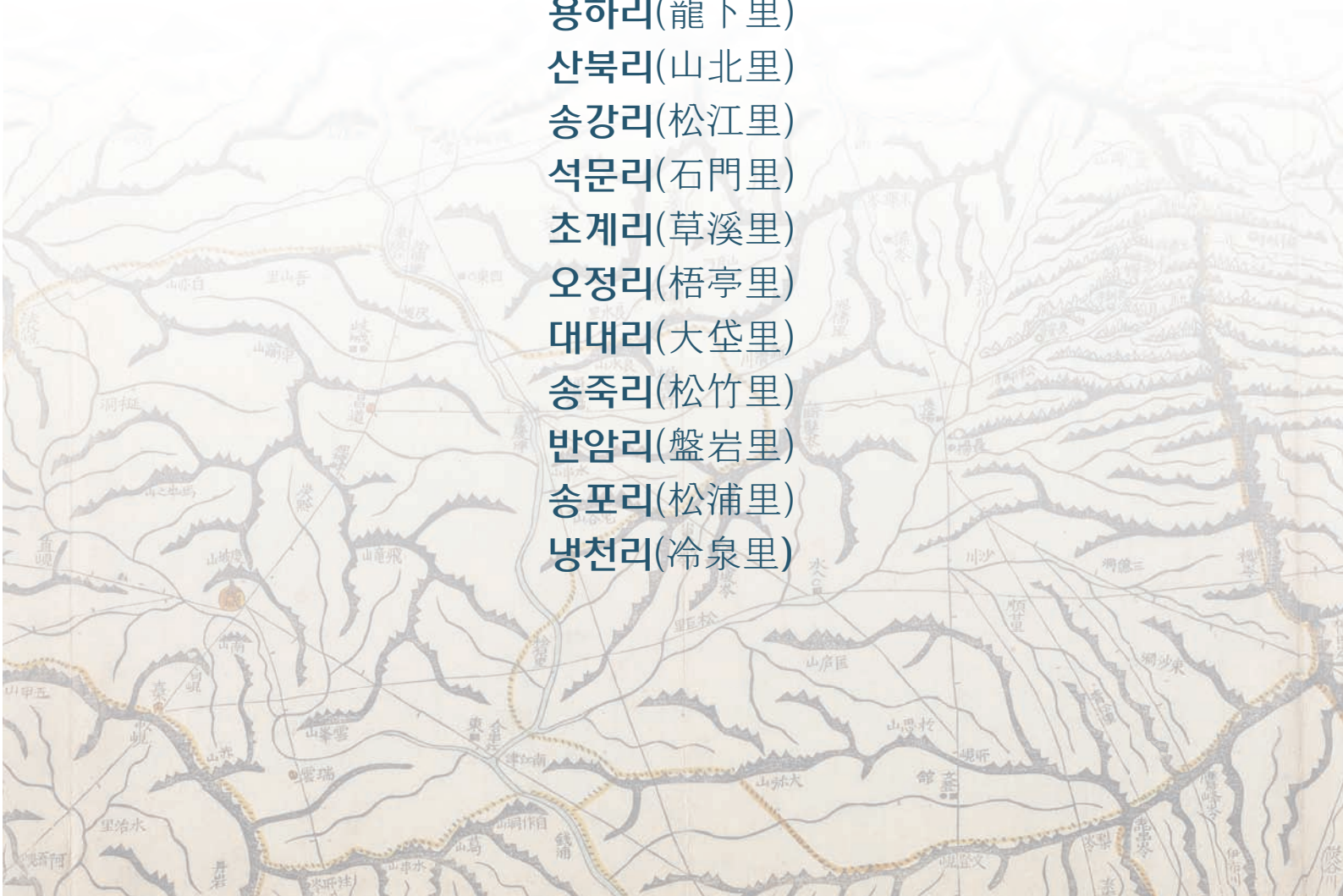
대대리(大垈里)

송죽리(松竹里)

반암리(盤岩里)

송포리(松浦里)

냉천리(冷泉里)



거진읍(巨津邑)

대대면(大垈面)과 오현면(梧峴面)이 병합하여 오대면(梧垈面)이 되었고, 오대면이 거진면(巨津面)이 되었다.

(1) 오현면(梧峴面)

간성군의 북쪽에 위치한 면으로 오동나무 많은 고개가 있는 면이어서 오현면(梧峴面)이라 하였다고 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차동리(次洞里), 수외리(水外里), 신성리(新城里), 화포리(花浦里), 삼거리(三巨里), 외평리(外坪里), 상거탄리(上巨呑里), 봉호리(蓬湖里), 산북리(山北里), 거탄진리(巨呑津里), 월안리(月安里)를 관할하였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수외리(水外里), 상거리(上巨里), 신성리(新城里), 화포리(花浦里), 외평리(外坪里), 산북리(山北里), 봉호리(蓬湖里), 월안리(月安里), 삼거리(三巨里), 거진리(巨津里), 장항리(獐項里), 차동리(次洞里)를 관할하였다.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에는 경포리(鏡浦里), 수외리(水外里), 상거탄리(上巨呑里), 신성리(新城里), 화포리(花浦里), 외평리(外坪里), 산북리(山北里), 봉호리(蓬湖里), 월안리(月安里), 송정리(松亭里), 자산리(慈山里), 장평리(長坪里), 차동리(次洞里), 장항리(獐項里), 원당리(源塘里), 동대리(東垈里), 용호리(龍湖里)를 관할하였다.



1910년 4월 25일 송강 산북 일대 구산면(邱山面)을 폐지하고 오현면에 편입하였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에는 송정리(松亭里), 송강리(松江里), 상산북리(上山北里), 하산북리(下山北里), 외평리(外坪里), 봉호리(蓬湖里), 화포리(花浦里), 월안리(月安里), 원당리(源塘里), 자산리(慈山里), 수외리(水外里), 거진리(巨津里), 차동리(次洞里), 장평리(長坪里), 장항리(獐項里), 냉천리(冷泉里), 토기점(土器店), 용호촌(龍湖村) 등 18개 동리를 관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대대면(大垈面)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대대면(大代面)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대리(大代里), 오고탄리(五古呑里), 석문리(石門里), 죽포역리(竹泡驛里), 반암회리(盤巖回里), 포남리(浦南里)를 관할하였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도 대대면(大代面)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대리(大垈里), 칠동리(漆洞里), 석문리(石門里), 죽포역리(竹泡驛里), 포남역리(浦南驛里), 회진리(回津里)를 관할하였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에는 대대리(大垈里), 사계리(沙溪里), 칠동리(漆洞里, 지금의 梧亭), 석문리(石門里), 송호리(松湖里), 포남리(浦南里), 반암리(盤岩里), 송학리(松鶴里), 죽포리(竹泡里) 등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3) 오대면(梧垈面) → 거진면(巨津面)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오현면(梧峴面)과 대대면(大垈面)이 병합하여 간성군 오대면(梧垈面)이 되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산북리와 토기점리 등을 병합하여 산북리(山北里)로, 하산북리와 용호촌을 병합하여 용하리(龍下里)로, 외평리와 봉호리, 자산리를 병합하여 봉평리(蓬坪里)로 각각 신설하고 차동리와 장평리를 화포리로, 월안리는 원당리로, 수외리는 거진리에 각각 편입하였고, 장항리(獐項里)는 냉천리(冷泉里)로 개편되었다. 대대면 관할이었던 송호리와 포남리 등을 병합하여 송포리(松浦里)로, 송학리와 죽포리를 병합하여 송죽리(松竹里)로, 사계리와 칠동리를 병합하여 초계리(草溪里)로 각각 신설하였다.

대대면 (大代面)	梧峴面 (梧峴面)	元戶 (元戶)	縣內面 (縣內面)	元戶 (元戶)	縣內面 (縣內面)	元戶 (元戶)	縣內面 (縣內面)	元戶 (元戶)	縣內面 (縣內面)
大代面 元戶 一百六十九	梧峴面 元戶 一百六十九	元戶 一百六十九	縣內面 元戶 一百六十九	元戶 一百六十九	縣內面 元戶 一百六十九	元戶 一百六十九	縣內面 元戶 一百六十九	元戶 一百六十九	縣內面 元戶 一百六十九
大代面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梧峴面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元戶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縣內面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元戶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縣內面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元戶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縣內面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元戶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縣內面 戶口 二千五百七十八

호구총수(戶口總數)

1919년 5월 15일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되면서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40년 12월 1일 오대면이 거진면(巨津面)으로 개칭되었고, 1945년 8.15해방 이후 북한에
예속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1954. 1. 21. 공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거진
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1973년 ‘읍(邑)’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거진읍 마을 명칭 변천표

시기 및 읍면별		마 을 명
1910. 4. 25	邱山面	梧峴面으로 통합(송강, 산북 일대) [내부령제8호, 관보1910.4.27.자]
	梧峴面	
1914. 4. 1이전	梧峴面	巨津里, 水外里, 慈山里, 松亭里, 松江里, 上山北里(웃산두), 下山北里(아래산두), 外坪里(밭두루), 蓬湖里, 花浦里, 月安里(다란이), 源塘里, 次洞里(책골), 長坪里(장두루), 獐項里(노루목), 龍湖村(오약골) (16개리)
	大垞面	大垞里(한터), 沙溪里(사근다리), 漆洞里(옥거른), 石門里, 松湖里(솔마직이), 浦南里, 盤巖里(반바우), 松鶴洞, 竹泡里 (9개리)
1914. 4. 1	梧垞面	巨津里, 水外里, 慈山里, 松亭里, 松江里, 上山北里, 下山北里, 外坪里, 蓬湖里, 花浦里, 月安里, 源塘里, 次洞里, 長坪里, 獐項里, 龍湖里, 大垞里, 沙溪里, 漆洞里, 石門里, 松湖里, 浦南里, 盤巖里, 松鶴洞, 竹泡里, 冷泉里, 土器店里 (27개리)
1916. 8. 1	梧垞面	巨津里(거진리, 수외리), 蓬坪里(자산리, 봉호리, 외평리), 花浦里(장평리, 화포리, 차동리), 源塘里(원당리, 월안리), 松浦里(송호리, 포남리), 龍下里(용호리, 하산북리), 山北里(상산북리, 토기점리), 冷泉里(냉천리, 장항리), 草溪里(사계리, 칠동리), 松竹里(송학리, 죽포리), 大垞里, 松亭里, 松江里, 石門里, 盤巖里 (15개리)
1940. 12. 1	巨津面	위의 15개 중심으로 20개리 분할 추정
수복 이후	巨津面	巨津1·2·3리, 蓬坪1·2리, 花浦里, 源塘里, 松浦1·2리, 龍下里, 山北里, 冷泉里, 草溪1·2리, 松竹里, 大垞里, 松亭里, 松江里, 石門里, 盤巖里 (20개리)
현재	巨津邑	巨津1·2·3·4·5·6·7·8·9·10·11, 慈山, 蓬坪, 花浦, 源塘, 松亭, 龍下, 山北, 松江, 石門, 草溪, 梧亭, 大垞1·2, 松竹, 盤岩, 松浦1·2 (28개리) 冷泉里 제외

거진리(巨津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자산리와 봉평리, 북쪽에는 화포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송포리와 인접하고 있다.

약 500년 전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이곳에 들렀다가 산세를 훑어보니 클 '거(巨)'자와 같은 형국이며 거부장자(巨富長者)가 붙어날 것이라고 하였기에 거진리(巨津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거탄진리(巨呑津里)와 수외리(水圍里)로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수외리(水外里)가 거진리(巨津里)에 편입되었는데 구·수외리(현 거진10, 11리) 앞에 있는 자산천이 바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양분(兩分)되어 이 마을 앞에 서부터 해안 안쪽에 있는 본래의 국도 옆을 따라서 거진1리 선착장까지 약1km 길게 돌아서(우회) 흘렀기에 수회리(水廻里)라고도 불렀다.



관내도

▼ 거진리 마을 전경



예부터 자산천이 두 갈래였던 것을 곧바로 바다로 흐르게 고친 후로는 넓은 하천부지와 해안 매립 부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마을이 생겼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에는 들 이름(坪名)을 진평(陳坪)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무네미, 보롱골, 비양골, 삼장골, 참날개, 후룻말을 거진리(巨津里)에 편입하였고, 거진리는 1925년부터 오대면 소재지, 1940년부터 거진면 소재지가 되었고, 1973년 7월 1일 이후 거진을 소재지가 되었다.

1997년 12월 27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행한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강원도읍지2』에는 ‘해상리(海上里)’라는 기록도 있다.

1940년대까지는 원산, 부산 간 여객선의 기항지였으며, 1925년부터 1945년까지는 동해북부선 철로의 「거진역」이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했다.

1954년 9월 1일 수복 직후 거진리가 거진1, 2리로 구분하였다. 1959년 3월 19일 인구증가로 거진3리로, 1960년 12월에 또다시 거진5리로 점차 확장 구분하였다.

1971년 1월 1일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6, 7, 8리로 확장 구분되었고, 1973년 9월 거진9리에서 거진10리로, 1981년 7월 1일 거진10리에서 거진 11리로 행정구역이 각각 확장·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멸치잡이가 성행했고 정어리 가공공장도 있었다. 1970년대, 1980년대 까지 우리나라 명태 유통량의 70%가 어획되었던 겨울 명태의 주산지였고, 여름철 오징어, 봄철 콩치도 많이 잡혀 황금어장을 보유한 포구로 전국의 많은 어업인들이 몰려들기도 했었다.

Ⅰ 거진 1리 Ⅰ

△ 백암도(白岩島) : 일명 흰섬, 또는 백섬, 백도. 신섬이라고도 한다. ‘ㅎ’구개음화 현상으로 ‘흰섬’이 ‘신섬’으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05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유지다. 면적은 약 6,000㎡이고 육지와 110m 거리에 있다. 어업인들이 주변 해역에서 정치성 구획 어업을 하고 있다.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무인도로 전체적으로 급경사의 원뿔형 형상으로 배가 접안하거나 사람들이 오르기 쉽지 않는데 2020년 이곳에 인공전망대를 세웠다.

△ 잔여살 : 거진항 북단, 백암도 좌측 편에 자리 잡고 있다. 옛날부터 물질을 하던 해녀들 사이에서 이곳에 위치한 작은 바위와 물살을 잔여살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잔여살, 잔처리, 잔철 등 으로는 부른다.

△ 무당-바우 : 백암도 근처에 위치한 공군부대 밑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다. 바위의 생김새가 울긋불긋하고 무당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무당바위라고 불렀다.

△ 검은-섬(거무섬 또는 흑도²⁷⁾) : 현재 거진항 활어회센터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전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검은섬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했다고 한다. 수복이후 현재의 방파제가 완성되면서 섬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전쟁 직후 피난민 등이 산 중턱이나 해안가에 집을 짓고 검은섬 근처에서 용변을 봤다고 해서 똥바우라고도 부른다.

27) 『한국지명총람2(강원도편)』, 한글학회, 1981, 47쪽

- △ 누른-섬(황도黃島): 바다 안에 있는 바위인데 유황이 섞여 있다고 함
- △ 물나드리: 물이 드나드는 곳인데 지금은 해오름 섬터가 있는 곳
- △ 보롱-골: 보롱암이라는 절이 있던 마을
- △ 미력-바우: 미륵처럼 생긴 바위로 정성을 드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없음
- △ 방어-바우: 이 바위 근처에 방어가 많다고 하여 칭함
- △ 사다리-바우: 사다리처럼 돌계단을 이룬 바위
- △ 촛대-바우: 촛대처럼 생긴 바위인데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 못함
- △ 뽕주산: 보롱골 너머에 있는 산인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함

Ⅰ 거진 2리 Ⅰ

- △ 빨랫골

Ⅰ 거진 4리 Ⅰ

- △ 탁릉-천(卓凌泉): 거성초등학교 입구 김근(金根) 댁 앞에 있는 우물의 물이 깨끗하고 수질이 좋아 예부터 약수터로 유명했었다. 1940년경 건봉사 고승인 탁릉허(卓凌虛) 스님이 사재(私財)로 우물을 현대식으로 개수해 인근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 주었다. 또 논 800평을 우물 관리를 위하여 기증하여 매년 가을철마다 우물 제사를 올려 오다가 약 30년 전 마을에서 논을 매각해 제를 올리지 못했고 상수도 보급되면서 샘물 이용자가 줄어들고 우물 관리가 소홀해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Ⅰ 거진 5리 Ⅰ

- △ 행랑-골: 상여틀(행상行喪)이 있던 골짜기라 하여 행랑골이라 불렀다.

Ⅰ 거진 6리 Ⅰ

- △ 세비-촌: 수복 당시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砂飛里) 양(梁) 씨 성(姓)을 가진 난민이 정착하였고, 그 주변 이웃들이 모여 들어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사비촌(砂飛村)이 생겨났는데 이후 모음변이에 의해 세비촌으로 불렸다. 옛 읍사무소 서북쪽 태봉(泰峰)앞에 위치하여 집단으로 살고 있어 단위 마을 같은 양지마을이다.
- △ 발향산(發香山): 마을 뒷산인 태봉의 서쪽 골짜기 이름이 바랑골이며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1961년 10월 15일 이 골짜기에 무량사라는 절을 건축하였는데 옛날에 주민들이 제사지내던 골짜기라 하여 분향골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무량사(無量寺)를 건립한故 고광선(高光) 주지스님이 태봉 뒷산을 발향산(發香山)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자산리(慈山里)

위치는 동쪽으로 거진11리, 서쪽으로 송정리, 남쪽으로 자산천을 경계로 송포1리, 북쪽으로 봉평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 뒤에 있는 와우산(臥牛山)을 자산(慈山)이라고 하고 마을 이름을 자산리(慈山里)라 명명하고 마을 앞 하천도 거탄천(巨呑川)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자산천(慈山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와 『강원도읍지(江原道邑誌)』, 『관동지(關東誌)』에는 자산리(慈山里)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보(湫名)는 진평보(珍坪湫), 주막은 자산주막(慈山酒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5년부터 1925년까지는 오대면 소재지였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는 봉평리 2구(區)라고 불렀다가 1946년 다시 분리됐다. 속칭은 자솔리이다.



자산리 마을 전경 ▼



- △ 거릿-말 : 한길 가에 있는 마을
- △ 배나무-정 : 큰 배나무가 있는 마을
- △ 와우산(臥牛山, 자우산雌牛山) :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암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다고 칭함
- △ 자산천(慈山川) : 건봉산에서 발원한 지류가 냉천리와 송강리, 송정리를 굽이돌아 동해로 흐른다.
- △ 층층-골 : 와우산 뒤에 있는 골짜기로 층층이 되어 있다고 함
- △ 할미-재 : 전에 술을 팔던 할머니가 있었던 고개

봉평리(蓬坪里)

위치는 동쪽으로 거진리, 서쪽으로 송정리, 남쪽으로 자산리, 북쪽으로 화포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쑥이 많았으며 서방의 판봉 밑에 연못이 있다하여 봉호리(蓬湖里)라 불렀는데, 이는 마을 앞 논과 공동묘지 앞 논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 겨울이면 천수(天水)를 많이 담아 이것이 봄철까지 만수(滿水)가 되어 마치 호수를 이루었으므로 용수구미(龍沼岬)로 구전되어 오다 봉호(蓬湖)라고 불렀다고 한다.



▼ 봉평리 마을 전경



또 봉호 바깥 쪽 들에 있는 마을을 외평리(外坪里)라고 불렀는데 봉호리(蓬湖)리와 외평(外坪), 자산(慈山)을 합해서 봉평리(蓬坪)라고 했다. 들 이름(坪名)을 대평(大坪)이라고 했다.

옛날 오현면(梧峴面)이었을 때 산세를 좌우한 봉평리와 화포리를 합쳐서 오현리(梧峴里)라 불러오다 그 후 지형 상 연유로 두 마을의 앞과 뒤의 고개(峴)를 사이에 두고 각각 분리했으며, 1916년 서편에 있는 밧두루마을(外坪里)과 합해서 봉평리(蓬坪里)라 명명했다. 최근 국도7호선 도로 확장으로 마을이 양분되었다.

△ 개-무덤 : 개를 묻었던 무덤이라고 하는데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치 못함

△ 검산(劔山) : 마을 앞에 칼처럼 생긴 산이 있다고 함

△ 대-평(大坪) : 마을 앞 큰 들

△ 발용-골(發龍谷) : 마을에 있는 골짜기인데 정확한 위치를 확인치 못함

△ 봉호리(蓬湖里) : 쑥개라는 호수가 있던 마을인데 현 위치를 확인치 못함

△ 삼정-골 : 마을에 있는 골짜기

△ 서낭당-골 : 마을 서낭당이 있었던 골짜기

△ 외-평(外坪) : 마을 바깥 쪽 들에 있는 마을, 현 봉평리 4반 위치임

화포리(花浦里)

위치는 동쪽으로 거진1리와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송정리와 원당리, 남쪽으로 봉평리와 거진8, 9리, 북쪽으로 화진포 호수와 현내면 초도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옛날 예국의 땅으로서 그 당시 화포리 동쪽의 높은 산이 마치 매가 앉아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응봉(鷹峯)이라 하였다고 하며 응봉 앞에 있는 현 화포리 마을의 지형이 작은 새가 응봉을 향해 날고 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화포리의 옛 이름을 응추촌(鷹雛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다섯 고을이 있었는데, 하나는 용이 앉았다 하여 발용골, 소가 등에 얹은 삼정을 벗어 놓았다 하여 삼정골, 모시나무가 많이 있다 하여 모시골, 곰이 꿇어앉은 것 같다 하여 능골, 산이 꽃처럼 생겼다 하여 화상골이라 하였다.

이 다섯 골이 합하여 오현(梧峴)이라 불렀는데 한 선비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이 나비형국이되어 있으니 참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화포리 마을 전경



그 말을 듣고 지성 있는 한 노인이 ‘나비가 있으면 꽃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비가 ‘화진포에는 갈꽃도 많이 피었더라.’하여 그 말을 듣고 농부들이 그 후 이 마을의 이름을 화포(花浦)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에도 화포리(花浦里)와 차동리(次洞里), 장평리(長坪里)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주막은 구총주막(狗塚酒幕)으로 기록하고 있다.

차동리(次洞里)는 화진포 둘레에 두 번째 마을이라는 뜻이고, 장평리(長坪里)는 화진포 호변을 따라 긴 들녘이 펼쳐져 있다는 의미로 이름 하였고, 간성군읍지에는 장평진리(長坪津里)로 기록하고 있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 때 화포리에 병합되었다.

화포리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은 응봉산, 서쪽은 만포산, 중앙은 법고산과 각담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골은 장평동, 고진동, 반용동, 삼정동, 월평동, 차동, 묘시동, 응동, 만포동, 방화고동, 화산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가평대(加平臺)**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 『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화진호(花津湖) 기슭에 있으며 언덕이 호수 속까지 이어져 있다. 일찍이 가평(加平)의 수령이 된 자가 정자를 쌓았으나 지금은 무너지고 없다. 그 고장 사람들은 가평대(加平臺)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고날기(고진 古津)** : 옛날에는 나루였다고 전함

△ **모랫-골** : 마을 동쪽에 있는 산골짜기

△ **방아-다리** : 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 **열산호(烈山湖)** : 화진포의 옛이름으로 가장 깊은 소를 ‘용소구미’라 부른다.

△ **응봉(應峰)** : 산세가 매를 닮은 형상이라고 하여 응봉이라고 한다.

△ **찾골(차동次洞)** : 동해와 화진포 중간에 있는 마을

△ **화진-포(화진호, 열산호)** : 마을 북쪽에 있는 큰 호수로 옛날 열산현 자리인데, 홍수로 인해 호수가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바람이 자고 물결이 일지 않을 때는 물 속에 담과 집이 보인다고 한다. 또 이 호수는 땅 밑으로 동해와 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옛날 부자인 이화진이란 사람의 터였는데, 어느 날 스님이 그의 집에 와서 시주를 청했더니, 그는 곡식 대신 쇠똥을 던져 주었다. 이것을 본 그의 며느리가 측은히 여겨 시아버지 몰래 쌀을 주었더니, 그 며느리에게 “여기 있으면 화를 입을 것이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스님 따라 가다가 송정리 고창고개에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살던 집과 터가 물바다로 변해 있고, 같이 가던 스님도 흔적 없이 사라져 이에 절망한 며느리는 그곳에서 목을 매어 죽었는데 그의 넋이 고창서낭의 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원당리(源塘里)

위치는 동쪽으로 화진포가, 서쪽으로 용하리와 노인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 송정리가, 북쪽으로 현내면 죽정2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에 큰 못이 있었다고 하여 원당리(源塘里) 또는 원댕이라고 하였고, 뒷산이 반달형이라 하여 부르던 동반월동(東半月洞)과 서반월동(西半月洞)을 합쳐진 월안리(月安里)는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 때 원당리(源塘里)에 편입됐다.



▼ 원당리 마을 전경



- △ 가젯-골 : 가재가 많은 골짜기
- △ 귀룽-고개 : 귀충나무가 많았던 고개
- △ 다라니(월안) : 원당 동북쪽 화진포 가에 있는 마을
- △ 대장-골 : 섬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
- △ 막-고개 : 산북리로 가는 고개
- △ 배나뭇-골 : 가젯골 위에 있는 골짜기
- △ 버덩-말 : 버덩에 있는 마을
- △ 섬수-골 : 옷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 △ 속-개 : 들 북판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
- △ 속갯-들 : 속개가 있는 들
- △ 안-터 : 전에 안(安) 씨가 살았다는 골짜기
- △ 옷갯-배미 : 위쪽 가에 있는 마을
- △ 옷-골 : 산북으로 가는 막고개 밑에 있는 마을



대동여지도

송정리(松亭里)

위치는 동쪽으로 봉평리, 서쪽으로 송강리, 남쪽으로 석문리, 북쪽으로 원당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중심 일대에 노송이 많아 풍치 좋은 정자를 이루고, 마을 앞 하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며 앞산에는 냉정(冷井)터 (일명 냉장골)가 있어 송정리(松亭里)라 부르게 되었다. 1914년까지는 오현면(梧峴面)의 소재지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삼거리(三巨里)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산 이름을 남수황산(南岵隍山), 보 이름을 대평보(大坪湫)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 마을 동쪽에 예부터 있었던 동대리(東垞里, 속칭 동터) 바람부리는 일제강점기 중엽에 이산(離散)되어서 현재는 농지가 되었다.



▼ 송정리 마을 전경



- △ **고총-서낭** : 송정 북쪽에 있는 서낭당. 화진포에 살던 부자의 며느리 고청이가, 그 시아버지가 스님을 홀대하는 것을 보고, 몰래 시주하였는데, 그 스님이 “나를 따라 와야 산다.” 하므로 그를 따라 이곳에 이르러 자기 집을 뒤돌아보니, 바다가 되고 스님도 홀연히 사라져, 이곳에서 목을 매어 죽었고 그 녀이 고총서낭 신이 되었다. 그 신이 영험해 동해의 조업을 좌우하므로 면민들이 무당을 들어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씩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 △ **남숫-들** : 남사라는 절이 있었던 들
- △ **냉정-터** : 마을 앞 무시골 냉정골에 차가운 물이 솟아 나왔었다. 이 물은 여름철에도 목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냉수가 솟아 이곳에 암자를 짓고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물이 많이 나지 않고, 1986년도 송강리 일원의 대형 산불로 인해 주변의 많은 송림이 소실되었다.
- △ **땅-골** :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써 석문리와 경계지역이고 그 고개를 땅골 고개라고 한다.
- △ **무수-동(舞袖洞)** : 마을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일명 무소골이라고도 한다.
- △ **팽자나무-거리** : 폐교된 송정초등학교에서 서쪽 200m지점에 있었다. 동대(東垓)에 있었던 나무로 과거 송정리와 상거리(上巨里 송강리)가 오현면(梧峴面, 그 이전에는 東垓面이라고도 했다고 한다)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을 때 이곳을 거쳐 수동면과 인제 방면으로 가는 무곡보부상들의 검문소 구실을 하였던 곳으로 검사대상은 어(漁), 염(鹽), 식수(食水), 목물(木), 철(鐵) 등의 식품과 제품이었으며 이곳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저런 고기와 식염을 등에 지고 가서 곡식과 바꾸는 통로이다. 현재 이 나무는 고사하여 없어지고 그 자리는 경지가 되었다.

용하리(龍下里)

위치는 동쪽으로 송정리가 있으며, 서쪽으로 수동면, 남쪽으로 송강리가 위치하고, 북쪽으로 산북리가 자리 잡고 있다.

노인산(老人山)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하산북리(下山北里) 또는 아랫산두라고 하였다.

마을 뒤에 용의 형상을 닮은 암산이 있으며 마을 앞에는 늪(湖)이 있었으므로 옛적부터 용호촌(龍湖村)이라 불려왔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하산북리(下山北里)와 합하여 용하리(龍下里)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지형도』에는 하산두(下山頭)로 기록되어 있다. 『간성군읍지』와 『관동지』에는 용호리(龍湖里)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이곳에 토기를 만드는 토기점(土器店)이 1973년까지 있었다.



- △ 새갓-모치 : 송강 마을과의 경계에 있는 들
- △ 오약-골 : 점말 위에 있는 골짜기
- △ 용호-촌 : 아랫산두 서쪽에 있는 마을
- △ 점-말 : 일명 토기점(土器店)으로 용기를 굽던 마을
- △ 흥-골 : 산두 뒤에 있는 골짜기

▼ 용하리 마을 전경



산북리(山北里)

위치는 동쪽으로 원당리, 서쪽으로 수동면, 남쪽으로 용하리를, 북쪽으로 현내면 화곡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노인산(老人山)이 뒤에 있으므로 ‘산뒤’가 ‘산두’로 모음 탈락현상으로 추정되며, 산북이라고도 하였다.

노인산 밑에서 토기를 구워 생계를 이어오던 마을인 토기점 마을과 거진면에서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부르던 웃산두 또는 상산북리(上山北里)라고 하였으며, 흩어져 살다가 후에 합쳐서 산북리라고 불렀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산북리(山北里)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상산북리(上山北里), 웃산두로 기록되어 있다. 산 이름은 오동곡산(梧桐谷山, 오동골), 고개 이름은 고진령(古津嶺)과 고직령(高直嶺)이 있고, 보 이름은 산북보(山北溑)로 기록되어 있다.



관내도

산북리 마을 전경 ▼



- △ 구승-소 : 소 먹이를 담아주는 구승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
- △ 단지-소 : 향아리처럼 둥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 무쇠점-골 : 무쇠점이 있었던 골짜기
- △ 오동-골 : 늘근산(노인산)에 있는 골짜기
- △ 지네-소 : 지네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 그 외에도 산두골, 구시농골, 지장터 소돈지, 젓골 등 여러 골짜기가 있고, 북동쪽에는 노인산이 있다.

송강리(松江里)

위치는 동쪽으로 송정리가 있으며, 서쪽으로 수동면, 남쪽으로 석문리, 북쪽으로 용하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에 큰 냇가가 있고 소나무가 무성하다고 하여 송강리(松江里)라고 하였다.

학봉산 아래 있는 대대골(大谷村)과 고래(古來) 동구(東口)섬이라 부르던 몽강촌(夢江村)을 합하여 상거리(上巨里)라 불러오다 후에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되룡골과 노루목을 병합하여 송강리(松江里)라고 했다. 수복당시 이 마을이 뒤늦게 입주가 허용되어 옛 송강초등학교는 송정리로 옮겨졌다. 마을 남쪽에 해당하는 산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었으나 1986년에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수목이 소실되었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산 이름은 오시동산(烏時洞山), 골짜기는 문리골(文利谷), 교룡골(蛟龍谷) 또는 회룡동(回龍洞)이라고 하고, 보 이름은 송강보(松江湫)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강저수지는 1971년 축조를 시작하여 1975년 12월 31일 준공되었고, 제방길이 138m, 제방높이 31.1m, 저수량 2,672천㎥, 유역면적 1,250ha, 송정, 송강, 송포, 영북지역 34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 △ 가릿-골 : 삼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
- △ 노루-목 :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긴 마을이라는 장항리(獐項里)의 속칭으로 노루메기라고도 한다.
- △ 대대-골 :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대골-뒤편 : 대대골 뒤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
- △ 되룡-골(회룡동) : 송강 서쪽에 있는 마을
- △ 머넛-골 : 노루목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몽강섬 :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무니-골(文利谷) : 되룡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文) 씨가 화전을 하던 곳이라고도 함
- △ 발문지 : 마을 서쪽에 있는 들
- △ 벼락-바우 : 옛날 이 바위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바위가 깨지고 그 밑에서 피가 흘렀다고 전한다.
- △ 부아나뭇-골 : 오싯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삼-거리 : 송강 북쪽 세 갈림길에 있는 마을
- △ 삼박-골 : 무니골 들머리에 있는 골짜기
- △ 승짓-골 : 대대골 옆에 있는 골짜기
- △ 오싯-골 : 오소령으로 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
- △ 오소-령(烏巢嶺) : 일명 소신령 또는 오싯령이라고 하며, 인적이 드물어 까마귀가 집을 짓고 살던 곳으로 수동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 용-소(龍沼) : 옛날 이 소에서 장군이 탈 용마가 났다고 한다.

송강리 마을 전경 ▼



석문리(石門里)

위치는 동쪽으로 오정리와 초계리, 서쪽으로 냉천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 간성읍 해상리와 북쪽으로 송강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서북간의 문안골(門內谷) 어구에 있는 계류(溪流)의 양쪽산 옆에 절벽을 이루는 암석이 있는데, 그 모양이 돌기둥(石柱門)을 세운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하여 석문리(石門里)라 불렀다. 문안골에는 옛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 △ 승직-골 : 마을 서쪽 군부대 골짜기로, 바위틈에서 소량의 냉천이 나오는데 여름에 매우 차며 군부대가 위치하기 전에는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물에 목욕을 하면 땀띠와 피부병이 말끔히 치료되는 효험을 보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위치를 모른다.
- △ 뒷-골 :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 △ 땅-골 : 송정리, 송강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 △ 문안-동 : 골짜기 어귀가 문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
- △ 방아다릿-버덩 : 초계리와 연이어져 있는 들
- △ 심개텃-골 : 석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용-골 : 용골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석문리 마을 전경



초계리(草溪里)

위치는 동쪽으로 오정리를, 서쪽으로 석문리와 간성읍 해상리를, 남쪽으로 간성읍 교동리를, 북쪽에 송정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높은 산(高峴山) 아래인 와우산(臥牛山) 기슭에 여섯 모퉁이(동안터, 장밭골(長位田洞), 윗마을(上村, 새잇마을, 아랫마을, 을용동)로 나뉘어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을 길이가 1.5km나 되며 마을 앞에 길게 흐르는 소하천은 예부터 장마 때마다 범람하여 매년 농지가 사토(沙土)로 매몰 되어 매우 모래(沙)가 많고 또는 외나무다리가 많기로 유명하며 항상 다리 놓기에 도끼(斤)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예부터 사근다리(沙斤橋里), 사교(砂橋)라고 했다. 그 후 조선 중엽에는 모래가 시내(溪)로만 흐르라고 사계리(沙溪里)로 고쳤다. 1915년까지 대대면(大垈面)의 소재지였다. 『조선지형도』에는 상사계리(上沙溪里)와 하사계리(下沙溪里)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대헌문원공(大賢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아호가 사계(沙溪)이므로 유림(儒林)으로부터 마을 이름 변경 요구와 모래가 너무 많아 풀이 많이 자라라는 뜻으로 1915년 초계리(草溪里)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초계리 마을 전경 ▼



마을 앞 골짜기를 검장골(鉞藏谷), 들 이름을 금천평(金川坪, 진천평)이라고 했다.

이 마을에 초계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자유당 초기에 오지(奧地)라고 하여 대대리로 옮겨졌으며 농경지 정리 후에도 다리가 7개소나 가설되어 한 마을에 다리가 많기로 유명했었다.

- △ 감상골-고개 : 감상골은 웃말 위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 골로 가는 고개
- △ 강냥-골 : 셋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강동-평(江東坪) : 아랫말 앞에 있는 들로, '강둥이'라고도 부른다.
- △ 고금-바우 : 초계리 아랫마을 서북간에 있는 선바위골(立石谷)에는 주위가 병풍을 두른 듯한 많은 바위 중에 50m 이상의 깎아 세워 놓은 듯한 수직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 평평한 놀이터가 있어 옛적에 신선이 며칠을 놀고 갔다는 전설이 있다. 예부터 고금병「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바위가 쓰러지는 듯하여 현기증을 일으켜 놀라서 어리석은 고금병 「말라리아」를 고쳤다고 하여 고금바위라 전한다.
- △ 금장-골 : 개울 건너편에 있는 들
- △ 남-산 : 아랫말 앞에 있는 산
- △ 다랫-골 : 웃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동안-터 :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을
- △ 매-바우(수리바우) : 모양이 매처럼 생긴 바위
- △ 맹진-골 : 오정리와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
- △ 밤나뭇-골(울목동) :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
- △ 방아다릿-버덩 : 석문까지 걸쳐 있는 들
- △ 비득-골 : 양쟁이 위에 있는 골짜기
- △ 산가낙-골 : 남산 위쪽에 있는 골짜기
- △ 셋-말 : 아랫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마을
- △ 선-바우 : 우뚝 선 형상의 바위
- △ 섬박-골 : 선바위가 있는 골짜기
- △ 아랫-말 :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양쟁-이 :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
- △ 웃-말 : 위쪽에 있는 마을
- △ 쟁골-고개 : 전에 재궁동(齎宮洞)이라 불렀는데 아랫말에서 해상리로 넘어가는 고개
- △ 짐천-드루 : 웃말 남쪽에 있는 들
- △ 한텃-고개 : 대대리 한터로 가는 고개

오정리(梧亭里)

위치는 동쪽의 송죽리와 반암리, 서쪽으로 석문리와 초계리, 남쪽으로 대대1리, 그리고 북쪽으로 송포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예부터 마을 옆에 있는 바위틈에서 옥수(玉水)가 잘 솟아 나오므로 옥동(玉洞)이라 불렀다. 그 후 옷나무가 많아 옷골, 옷고른 또는 칠동(漆洞)이라고 고쳐 불렀다.

조선 중엽에 와서 마을의 샘물을 주(周)나라의 유명한 칠수(漆水)에 비유하여 칠동(漆洞)이라고도 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동(梧桐)나무가 번성하여 자연적으로 정자(亭子)를 이루었다고 하여 오정리(梧亭里)라 고쳐 부르게 됐다고 한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칠동리(漆洞里)라고 하고, 고개를 구현(狗峴, 개고개), 골짜기를 장골(長谷), 옥골(玉洞), 들 이름을 주교평(舟橋坪, 배다리들)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초계리(草溪里)에 병합되어 1916년부터 1945년까지는 초계리(草溪里) 2구(區)라고 불렀다.



오정리 마을 전경 ▼



- △ 갯-골 : 익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
- △ 구자릿-골 : 송골 뒤에 있는 골짜기
- △ 뒷-골 : 오정 뒤에 있는 골짜기
- △ 매-바우 : 산봉우리가 매처럼 생긴 산
- △ 머우밭-골 : 행진골 옆에 있는 골짜기
- △ 봉수-터 : 옛날 봉화를 올렸던 산
- △ 세신-바우 : 진골에 있는 바위
- △ 솔경지 : 익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송-골 : 골이 좁은 골짜기
- △ 응-골 :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
- △ 익고개 : 마을에서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
- △ 잔-골 : 골이 작은 골짜기
- △ 진-골 : 골이 긴 골짜기
- △ 행징-골 : 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대대리(大垓里)

위치는 동쪽으로 송죽리와 간성읍 봉호리, 서쪽으로 초계리와 접하여 있고, 남쪽으로 간성읍 상리, 북쪽에 오정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예부터 마을의 뒷산인 노구산(老구山)이 마치 세 마리의 큰 학(鶴)이 사이좋게 날개를 펴고 앉은 것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터(垓)라고 하여 '학터' 또는 학대리(鶴垓里)로 불렸다. 그 후 어음(語音)이 변해 현재는 '한터' 또는 대대리(大垓里)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다른 뜻으로 넓은 들이라는 의미로 '한터'라고 하고 한자어 대대리(大垓里)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마을 뒤편에 있는 노구산의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거북이가 사자 네 마리를 등에 업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으며, 사자 네 마리는 동서남북을 향하여 본 마을을 사수하는 형이라 했다. 그래서인지 조선 중엽 때 교동리(校洞里)의 마을 주민이 몰래 숨어들어와 교동마을을 향한 사자의 아래턱을 부수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할미봉은



관내도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선녀가 이 봉우리에서 살다 늙어간 곳이라 하여 할미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선녀가 사용하던 장독 모양의 바위가 아직 남아 있어 그 바위를 독바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본 마을은 아직까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오래 살며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법이 없는데 할미봉이 높아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대면의 소재지였으나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골말과 삼거리, 성단계를 합해 대대리(大垈里)라고 하였고, 1930년까지 방축골(防築谷) 산기슭에 큰 늪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으로 변했다.

방축동(防築洞)에는 1546년(조선 명종 원년) 간성읍 교동리로 이전한 간성향교와 유적지가 있다. 근래 마을 야산 주변에 청동기 유물들의 일부가 발견되어 청동기 주거지군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에는 마을명 대대리(大垈里), 고개 이름은 노고현(老姑峴, 할미고개), 골짜기는 방축골(防築谷), 들은 후천평(後川坪), 대구미평(大口尾坪), 제방은 운자제언(雲字堤堰), 보는 후천보(後川溲, 지금의 북천보), 주막은 송전주막(松田酒幕, 솔밭주막)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 대대1리는 일명 ‘안대대리’ 또는 ‘큰말’이라고 한다.

대대2리는 국도7호선과 국도46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속칭 ‘삼거리’라고 마을 삼거리 중심에는 옛날 충훈탑이 있었으나 해체하였고 대신 노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대1리 마을 전경 ▼



대대 1리

- △ 강댕잇-고개 : 대대리에서 초계리로 가는 고개
- △ 골-말 : 골짜기에 있는 마을
- △ 까치박-깨 : 할미재 뒤에 있는 골짜기
- △ 노고-봉(老姑峯) : 큰 마을 뒤에 있는 할미재를 노고봉이라 부른다
- △ 대기미 : 청룡 뿌리 뒤에 있는 들로써 대구미(大口尾)라고 한다.
- △ 독-바우 : 바위 모양이 독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름
- △ 뒷-드루 : 마을 뒤에 있는 들
- △ 뒷드루-고개 : 뒷드루 부근에 있는 고개
- △ 명등-골 : 시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시양-골 : 골말 뒤에 있는 골짜기
- △ 양지-말 : 양지쪽에 있는 마을
- △ 양짓-고개 :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고개
- △ 옥내이 : 응달말에 있는 우물
- △ 옷물-터 : 마을 북서쪽 400m 지점에 있는데 옷이 오르면 이 물에 세 번 정도 씻으면 잘 낫는다고 한다.
- △ 응달-말 : 응달쪽에 있는 마을
- △ 정자깨 : 정자나무가 있는 산
- △ 청룡뿌리 : 지형이 청룡처럼 생긴 산

대대2리 마을 전경



Ⅰ 대대 2리 Ⅰ

- △ **합죽교(合築橋)** : 간성 상리와 접하고 있는 북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라 하여 북천교였으나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과 북에서 합작하여 건설했다고 하여 합죽교(合築橋)라고 하는데 길이 214m, 폭 6m, 높이 5m인 교량이다. 교각 총 17개 중 남쪽의 9개 교각은 1948년 북한의 강원도 인민위원회가 착공하였으나 건설도중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으며, 북쪽의 8개 교각은 수복 후 국군공병대대가 1960년에 완공하여 개통시켰다. 2004년 12월 31일 근대문화재 제143호로 등록됐다.
- △ **서당깨** : 서당이 있던 마을
- △ **솔밭에** : 솔밭이 있는 바깥쪽의 들
- △ **송-골** : 서당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대리 추모공원** : 삼거리에 있었던 6.25 전투전사자 충혼비를 이곳으로 옮겨 왔고, 이후 월남참전기념탑과 참전용사추모비,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가 함께 건립되어 추모공원이 되었다.
- △ **함박-골** : 서당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북천(北川)**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 『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읍성 북쪽 2리에 있으며 마기라산(麻耆羅山)이 기원이다. 직연(直淵), 벽력연(霹靂淵), 난자도(蘭子島) 폭포가 있으며 못 중에서 으뜸이다.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향로봉에서 발원한 지류가 진부령 계곡을 굽이돌아 동해로 흐른다.

송죽리(松竹里)

위치는 동쪽의 동해, 서쪽으로 오정리와 대대리가 있으며, 남쪽으로 북천과 간성을 봉호리, 북쪽으로 반암리와 오정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옛날 송학동(松鶴洞)과 죽포리(竹泡里)라고 부르는 두 마을이 있었다.

송학동(松鶴洞)은 송림이 무성하고 앞뜰에 학(鶴)이 찾아온다고 하여 이름 하였고 또 한곳은 북천하구에 자리 잡은 곳으로 앞산인 마산(馬山) 기슭에 호수와 대나무가 있어서 죽포동(竹泡洞)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죽포동이 수해로 인하여 가옥이 유실된 후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두 마을을 합하여 송죽리(松竹里)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 죽포리에는 죽포역(竹泡驛)이 있었다.



마을 앞에 있는 마산은 옛날 용마가 났으나 용마(龍馬)를 탈 장사가 마을에 태어나지 않아 용마가 의리상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여 마산(馬山)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죽포역리(竹泡驛里), 간성군읍지에는 죽포리(竹泡里)와 송학동리(松鶴洞里)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마을명을 ‘죽포리’와 ‘송학리’로, 죽포리 산은 마산(馬山), 들 이름은 야다평(野多坪), 역 이름은 죽포역(竹泡驛), 송학리 산은 송학봉(松鶴峰), 들 이름은 유전평(柳田坪, 버드내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마산(馬山) : 죽포 동쪽 들 가운데 있는 해발 46m 산으로 말처럼 생겼다.²⁸⁾

△ 송학동(松鶴洞) : 송죽 남쪽에 있는 마을

△ 유람(油岩) : 일출암 부근에 있는 바위

△ 일출암(日出庵) : 해가 빨리 뜨는 곳에 있는 절

△ 죽포(竹泡) : 송죽 북쪽에 있는 마을

▲ 송죽리 마을 전경



28) 『한국지명총람2(강원도편)』, 한글학회, 1981, 49쪽

반암리(盤岩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오정리, 남쪽으로 송죽리, 북쪽으로 송포2리에 각각 인접하고 있다.

예부터 간성군 대대면에 속한 마을로써 해안이 돌아가는 모퉁이에 위치하여 돌구미 또는 회진리(回津里)로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 땅속에 암반이 있고 마을 주변에 암석과海中(海中)의 평평한 반석이 널려있다고 하여 반바우 또는 반암리(盤岩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신호의 역할을 하였던 높은 봉수봉 정양산(正陽山)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반암회리(盤岩回里)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산 이름은烽燧山(봉수산, 正陽山 烽燧), 작봉(鵲峰, 까치봉) 일명 응암봉(鷹巖峰), 들 이름은 장승평(長承坪)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관내도

반암리 마을 전경 ▼



△ **벼락-바우** : 일명 벽력암(霹靂岩)으로 거진을 송포2리와 반암리 사이 돌고개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 집채만한 큰 바위가 세 개가 있었다. 제일 큰 바위는 집 한 채의 두 배쯤 되는데 한 개가 있고 그 밑에 그 보다 작은 바위가 발가는 쟁기처럼 생긴 널찍한 바위 등 세개가 있었다. 한국전쟁 때 대부분 훼손되었다.

△ **착섬** : 반암 해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20m지점에 위치한다. 옛날부터 게(기)가 많아 살아서 기섬이라고도 부른다. 게들이 서식하기 좋은 명당자리이기도 하고 일본군이 배가 다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먹이를 먹던 게의 양쪽 집게다리를 잘라 섬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착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송포리(松浦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석문리, 남쪽으로 오정리, 북쪽으로 자산천을 경계로 자산리, 봉평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마을은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윗마을은 북방에 있는 와우산(臥牛山)의 위쪽으로 1km 상거한 자산천 옆에 2,000평의 큰 늪(浦)이 1789년(영조 22년)까지 있었다고 하여 포남리(浦南里)라고 불렀다.

▼ 송포1리 마을 전경



아랫마을은 뒷산이 말이 누운 것 같은 형국을 하고 있고 소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여 솔마직리(松馬直里)라고 부르다가 후에 송림 앞에 늪이 있다고 하여 송호리(松湖里)로 개칭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송호리(松湖里)와 포남리(浦南里)를 합해 송포리(松浦里)라고 부르게 되었고, 송호리는 송포2리로, 포남리는 송포1리로 각각 행정구역을 분리하였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들 이름은 낙산평(洛山坪), 보 이름은 낙산보(洛山湫), 주막은 교항주막(橋項酒幕, 다리목주막), 골짜기는 반석골(礪石谷)로 기록하고 있다.



관내도

Ⅰ 송포 1리 Ⅰ

- △ 낙산평(洛山坪) :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 낙산보(洛山湫) : 마을 북쪽에 있는 보(湫)
- △ 교항주막(橋項酒幕, 다리목주막) : 자산 다리 남쪽에 있는 주막
- △ 냉정골 냉천 : 4계절 온도의 변화가 없으며 물의 온도는 섭씨 2℃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물을 먹으면 냉(冷)이 없어진다고 전한다.

송포2리 마을 전경 ▼



Ⅰ 송포 2리 Ⅰ

- △ 송호리(松湖里) : 언문 표기로 '솔마직이(솔마지기)'라고 한다.
- △ 반석골(礮石谷) : 솔마직이(松湖里)에 있는 골짜기
- △ 줄평(茁坪) : 송호리에 있는 들
- △ 돌고개 벼락바우 :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아이가 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낙 비가 쏟아져 바위 밑에서 비를 피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집에서 연기가 솟으며 불이 붙기 시작하여 소년은 불이야 소리를 치며 바위 밑에서 막 나왔는데 팡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 한참 후 깨어보니 비를 피해 섰던 바위가 벼락에 맞아서 갈라져 있었다. 그때부터 그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냉천리(冷泉里)

동쪽에는 석문리, 남쪽에는 간성을 탑현리, 서쪽에 수동면 고진동계곡, 북쪽에 송강리와 용하리가 있다.

대찰인 건봉사(乾鳳寺)가 있는 마을로써 찬 샘이 있으므로 찬샘골 또는 냉천동(冷泉洞)이라 하였고, 관모봉(冠帽峰)과 건봉령(乾鳳嶺)에서 신비롭게 흐르는 맑고 찬 샘물이 사찰과 마을 중심을 흐르므로 냉천리(冷泉里)라고 불렀다.

『간성군읍지』, 『관동지』, 『조선지리지』에는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장항리(獐項里) 마을이 있었는데 송강리와 연결하고 있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항리와 냉천리가 병합하여 냉천리(冷泉里)로 개칭되었고 오대면(거진면)에 편입되었다.

산은 청상봉(靑裳峰, 치마산), 감로봉(甘露峰)으로, 고개 이름은 건봉령(乾鳳嶺)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1989년도 민통선이 북상함에 따라 건봉사에 승려들의 거주가 시작됐고, 현재는 활발한 건봉사 복원사업으로 점차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냉천골 사하촌(寺下村)은 송강리저수지(현 거진저수지) 축조로 인해 많은 지역이 물속에 잠겼다.



관내도

△ 가마-골 : 가마처럼 생긴 골짜기

△ 건봉령(乾鳳嶺) : 건봉사에서 수동면(水洞面)으로 넘어가는 고개

△ 건봉사(乾鳳寺) : 520년(법흥왕 7) 아도(阿道)가 창건하고 원각사라 하였으며, 533년(법흥왕 20) 부속암자인 보림암(普琳庵)과 반야암(般若庵)을 창건하였다. 758년(경덕왕 17) 발징(發徵)이 중건하고 정신(貞信)·양순(良順) 등과 염불만 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만일회의 효시이다. 신라 말에 도선(道詵)이 중수한 뒤 절의 서쪽에 봉형(鳳形)의 돌이 있다고 하여 서봉사(西鳳寺)라 하였으며, 1358년(공민왕 7) 나옹(懶翁)이 중건하고 건봉사라 하였다. 1464년(세조 10) 세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자신의 원당(願堂)으로 삼은 뒤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전답을 내렸으며, 친필로 동참문을 써서 하사하였다. 1878년 4월 3일 산불이 일어나서 건물 3,183칸이 전소되었는데, 1879년 대웅전·어실각·사성전·명부전·범종각·향로전·보안원·낙서암·백화암·청련암을 중건하였다. 현재 고성 건봉사지는 1982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6·25전쟁 때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불이문은 1984년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 건봉산 乾鳳山 Geonbongsan²⁹ : 군 중부의 거진읍과 수동면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908m). 향로봉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247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고지도에는 건봉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건봉사(乾鳳寺)에 대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간성군에는 건봉사의 뒷산이 금강산이며 군의 서쪽 20리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를 비롯한 고지도에서는 진부령(珍富嶺) 동쪽에 건봉사가 묘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서는 간성군(杆城郡) 오현면(梧峴面)에 위치한 건봉령(乾鳳嶺)과 건봉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볼 때 건봉사의 이름을 따서 이 산을 건봉산이라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건봉(乾鳳)은 건봉사를 창건한 아도화상이 “건방(乾方)에 고개가 있고 큰 돌이 봉황(鳳凰)이 나는 모양과도 같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건봉사는 오늘날에도 ‘금강산 건봉사’로 불리며 고성8경(건봉사·천학정·화진포·청간정·울산바위·통일전망대·송지호·마산봉)의 제1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520년(신라 법흥왕 7)에 창건된 절로 창건당시 원각사(圓覺寺)라 불리었으나 1358년(고려 공민왕 7) 건봉사라 개칭되었다. 사명대사가 석가모니의 치아 사리를 가져와 봉안하는 등 조선시대 4대 사찰로 꼽혔으나 한국전쟁 당시 거의 소실되어 최근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능파교(보물 제1336호), 불이문(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 옛건봉사터(강원도기념물 제51호) 등이 있다.

△ 보림-골(普琳谷) : 보림암(普琳庵)이라는 암자가 있던 골짜기

△ 봉-바위(鳳巖) : 건봉사 부근에 있는 바위

△ 부돛-골(浮屠谷) : 건봉사에 딸린 부도가 200여 기 있는 골짜기

△ 소신대(燒身臺) : 넓적하게 생긴 큰 바위로 신라 때 만일연불회에서 정업(淨業)하던 스님과 신도가 이곳에서 아미타불의 가피(加被)를 입어 왕생하였다고 함.

△ 찬샘물골 : 차가운 물이 나는 샘이 있는 골짜기

29)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697-698쪽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현내면 편

대진리(大津里)

철통리(鐵桶里)

초도리(草島里)

죽정리(竹亭里)

산학리(山鶴里)

화곡리(禾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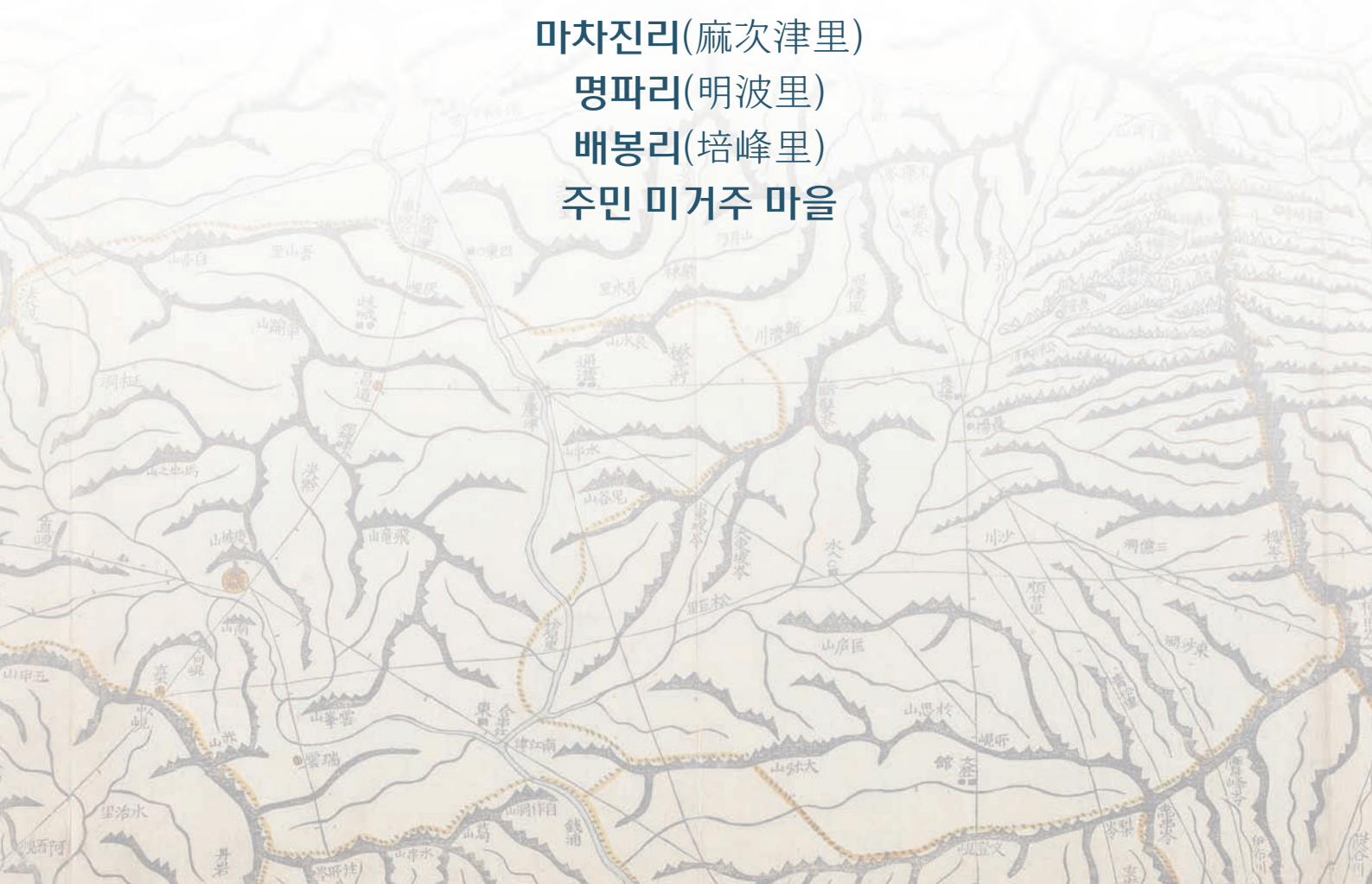
마달리(馬達里)

마차진리(麻次津里)

명파리(明波里)

배봉리(培峰里)

주민 미거주 마을



현내면(縣內面)

고구려 때 승산현(僧山縣) 또는 소물달(所勿達)이라 불렀고 신라 경덕왕 때에는 동산현(童山縣)으로 불리었는데 그 후 여산현(驪山縣)으로 개칭되었을 때 수성군(守城郡)에 흡수되었다가 고려 때 다시 열산현(烈山縣)으로 분리되었고 별호를 봉산(鳳山)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열산현(烈山縣)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중기에 와서는 관제 개혁으로 폐현(閉縣) 되는 동시에 현내면(縣內面)으로 개칭되면서 간성군에 속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열산리(烈山里), 마직리(馬直里), 검장동리(檢長洞里), 사천리(蛇川里), 명파역리(明波驛里), 도발리(道發里), 운근역리(雲根驛里), 초부리(草阜里), 저도진리(猪島津里), 가오리(加五里), 목달리(木達里), 마차구미진리(麻差仇味津里), 대진리(大津里), 초도리(草島里)를 관할했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열산리(烈山里), 마직리(馬直里), 검장동리(檢長洞里), 사천리(蛇川里), 명파리(明波里), 도발리(道發里), 운근역리(雲根驛里), 초도리(草島里), 목달리(木達里), 마차진리(磨差津里), 대진리(大津里), 초부리(草阜里), 제진리(猪津里)를 관할했다. 1910년 4월 25일 열산, 학산 일대 여산면(呂山面)을 현내면에 편입하였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에는 모정리(茅亭里), 중평리(仲坪里), 도발리(道發里), 죽림리(竹林里), 열산리(烈山里), 학산리(鶴山里), 초도리(草島里), 초진도(草津島), 철통리(鐵桶里), 마직리(馬直里), 마차진(麻次津), 배봉리(培峰里), 화곡리(禾谷里), 명파리(明波里), 제진리(猪津里), 사천리(蛇川里), 검장동(檢藏洞), 대진리(大津里) 등 1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모정리, 중평리, 도발리, 죽림리 등을 병합하여 죽정리(竹亭里)로, 열산리, 학산리를 병합하여 산학리(山鶴里)로, 마직리와 건달리를 병합하여 마달리(馬達里)를 각각 신설하고 초진리를 초도리에 편입하였으며, 검장동을 검장리(劍藏里)로 개편하여 13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9년 5월 15일 간성군(杆城郡)을 폐지하고 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되면서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15 해방 이후 북한에 예속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1954. 1. 21. 공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현내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법정리(法定里)는 10개리이며, 행정리(行政里)는 16개 마을 80개 반을 갖고 있다. 38°36'51"을 경계로 휴전선과 접하고



관내도

있는 현내면은 1957년 5월 12일부터 명파리, 배봉리, 화곡리, 마달리 등 4개 민통선 출입영농 마을을 갖고 있었으나 1958년 6월 4일부터 입주영농이 실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178호)에 의거 고성면의 수복지구(송현리·명호리·송도진리·대강리)가 현내면에 편입되었다.

현내면 마을 명칭 변천표

시기 및 읍면별		마 을 명
1910. 4. 25. 이전	呂山面	縣內面으로 통합(열산, 학산 일대)[내부령제8호, 관보1910. 4. 27.자]
	縣內面	
1914. 4. 1 이전	縣內面	大津里(황금), 鐵桶里(철통골), 草島里(촌섬), 草津里(나루섬), 竹林里, 仲坪里, 道發里, 茅亭里, 禾谷里, 鶴山里, 烈山里, 馬直里, 培峰里, 明波里, 猪津里(돌섬), 蛇川里(사천리), 檢長洞里(검장동리), 乾達里(건드래), 麻次津(마차금) (19개리)
1914. 4. 1	縣內面	大津里, 鐵桶里, 草島里, 草津里, 竹林里, 仲坪里, 道發里, 茅亭里, 禾谷里, 鶴山里, 烈山里, 馬直里, 培峰里, 明波里, 猪津里, 泗川里, 劍藏洞, 乾達里, 麻次津 (19개리)
1916. 8. 1	縣內面	大津里, 鐵桶里, 草島里(초도리, 초진리), 竹亭里(죽림리, 중평리, 도발리, 모정리), 禾谷里, 山鶴里(열산리, 학산리) 馬達里(마직리, 건달리), 培峰里, 明波里, 猪津里, 泗川里, 劍藏洞, 麻次津里 (13개리)
수복 이후	縣內面	高城面
		縣內面
수복 이후	縣內面	松峴里(九川同, 地境里 포함), 明湖里(明倫洞, 雁湖里 포함), 松島津里 편입
		大津里, 鐵桶里, 草島里, 竹亭里, 禾谷里, 山鶴里, 馬達里, 培峰里, 明波里, 猪津里, 泗川里, 劍藏洞, 麻次津里
현재	縣內面	大津1·2·3·4·5, 鐵桶, 草島1·2, 竹亭1·2, 山鶴, 禾谷, 馬達, 麻次津, 培峰, 明波 (16개리) 미거주 마을(猪津, 劍藏, 泗川, 松峴, 松島津, 大康) 제외

대진리(大津里)

위치는 동해안 최북단 면소재지이며,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마달리, 북쪽으로 마차진리, 남쪽으로 초도리, 철통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처음엔 대구미진(大仇味津)이라 불렀고, 그 후 안(安)씨와 김(金)씨가 개척하였다고 해서 안금리(安今里)라고 칭하다가 고려시대 여산현(驪山縣), 그 후에는 열산현(烈山縣)에 속해 황금리(皇琴里, 황구리)라고 불려왔고,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촌, 한질 목, 후릿말을 병합하여 대진리(大津里, 한나루)로 개칭하였다. 그 후 동해안을 따라 확장되는 신작로가 개설되고, 1920년에는 고성군 현내면 소재지로 승격하였으며, 한나루(포구)에 축항을 쌓아 명실공이 조그마한 어항으로 축조되었고, 1925년부터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어 1937년에 개통을 보게 됨으로서 어항을 모체로 풍부한 수산자원(청어, 정어리)과 농산물을 원산으로 수송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1945년 8. 15해방 이후 1952년까지 북한 공산치하에 있었고, 6. 25전쟁으로 인해 철도는 파괴되고 이 마을 200여호의 가옥이 잣더미로 폐허가 되었다.



대진리 마을 전경 ▼



195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행정권이 수복되어 경향 각지에서 이곳에 피난민과 전재민이 일시에 많이 몰려 대진리 일원만 9, 000여명으로 늘어 대진 1, 2, 3리 분할 관할하였고, 1973년에는 행정구역 조정상 2개리를 늘려 대진4, 5리로 분할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진 5개 마을에는 2017년 12월말 기준 661가구 1, 232명이 사는 포구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이 반농반어의 형태로 살고 있고 소재지 중심 가로변 약간이 상업에 종사한다. 1리는 신촌말, 2리는 한질목, 또는 아리랑고개라고 하고, 3리는 중간말, 4리는 양짓말, 5리는 우리말(후릿말)이라고 한다.

△ 거무 - 섬 : 바다 안에 있으며 빛깔이 검은 바위.

△ 너릿 - 골 : (너래골)너래 바위가 많은 골짜기.

△ 돌 - 고개¹ : 돌고개 밑에 있는 마을.

△ 돌 - 고개² : 돌이 있는 고개.

△ 신촌 - 말(새마을) : 68 재해 구호주택에 집단으로 새로 거주하는 마을

△ 안 - 골 : 후릿말 서쪽에 있는 마을.

△ 양짓 - 말 : 양지 쪽에 있는 마을.

△ 장개 - 터 : 장(蔣)가가 살았다는 골짜기.

△ 큰 - 거무섬 : 거무섬 옆에 있는 큰 섬.

△ 한질 - 목 : 한길 가에 있는 마을.

△ 한질목 - 고개 : 한질목에 있는 고개.

△ 후릿 - 말 : 고기를 후린다 하여, 후릿말이라 함.

△ 긴 - 등 : 수복 이후부터 내려오던 길로서 길이가 약 3km정도의 산등선으로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으며 길이가 길어서 긴등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한다.

△ 뒷 - 불 : 예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로 대진항 쪽을 안으로, 등대능선 이웃 해안을 뒤로 생각하여 등대 능선 북쪽에 위치한 해안 모래사장을 뒷불이라 칭하고 있다.

Ⅰ 대진 2리 Ⅰ

대진리는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아 월동기에는 적삼옷을 입고도 모진 바람을 이겨내기 어려우나 대진2리는 지리적으로 분지처럼 형성되어 유난히 따뜻하여 속칭 양지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Ⅰ 대진 5리 Ⅰ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여 속칭 돈꼴이라 하였으며 이후 '똥꼴'이라 하기도 한다. 대진시내로 통하는 이 마을 고개를 솔미고개라고도 부르며 또 이 마을에는 재해 구호주택이 있고, 면사무소와 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철통리(鐵桶里)

위치는 면 소재지로부터 1km 서쪽에 있으며, 동쪽에 초도리, 서쪽에 화곡리, 남쪽에 죽정리, 북쪽에 대진리와 인접되어 있다.

조그마한 마을에 뜻이 굳은 사람만이 모여 살았다 하여 예부터 철통골 또는 철통리(鐵桶里)라는 속칭이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고도 하며, 불당골에 당간지주인 철통이 있었으므로 철통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철통리가 되었다고 한다.



철통리 마을 전경 ▼



- △ 갑바직 - 골 : 진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고승 - 이 : 피란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마당 - 골 : 피란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불땅 - 골 : 불당(佛堂)이 있었던 골짜기.
- △ 수달 - 리(水達里) : 수라 - 리, 철통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아랫 - 말 : 철통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안 - 골 : 철통 안쪽에 있는 골짜기.
- △ 웃 - 말 : 철통골 위쪽에 있는 마을.
- △ 진 - 등 : 등이 길다하여 진등이라 함.
- △ 피란 - 재 : 불땅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화달 - 평 : 철통 서쪽에 있는 들.
- △ 철통소류지 : 1945년경 축조된 소류지는 유역면적이 164ha, 제방길이 130m, 제방높이 5m, 수심 3m 등으로 몽리 면적이 20ha이다.

초도리(草島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 서쪽은 철통리, 남쪽의 화진포와 죽정리, 북쪽의 대진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고려시대 이 지역에 섬이 많아 일명 섬동래 또는 9개소에서 섬이 솟는다고 하여 구룡물이라는 속칭이 생겼다고 한다. 이 마을 앞바다의 섬에는 억새 따위의 새(草)와 수목이 많았으므로 초도(草島)라고 부르는 섬이 있었기에 '새임리'라 칭하다가 진포(津浦)마을이므로 초진리(草津里)라고 불렀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나룻가에 큰 섬이 있으므로 나룻섬, 또는 섬, 초진(草津)이라 하였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초진도(草津島)를 병합하여 초도리라고 하였다.³⁰⁾

1918년~1919년까지는 현내면 소재지였다. 1리를 아랫말, 2리를 웃말이라고 부르고 면사무소 앞을 솔미라고 불렀다.



30) 『한국지명총람』추기

△ 공수 - 골 : 범 박골 밑에 있는 골짜기.

△ 광대 - 바위 : 초도앞 동해(東海) 가운데 있는 바위. 이 바위 뒤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와 금구도에 있는 큰 소나무(현존)에 줄을 매어 놓고 광대가 줄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광대바위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바위 뒤에 있던 소나무는 1961년 포부대가 주둔하면서 벌목을 했다고 전해진다.

△ 구룡 - 물 : 구룡모퉁이에 있는 우물.

△ 구룡 - 모퉁이(九龍-) : 금구도(金龜島)와 상대하여 있는 모퉁이.

△ 금구 - 도(金龜島)[초도, 초진도] : 일명 거북섬이라고도 하는데 그 섬의 거북머리 부분이 동남쪽 대양을 바라보고 나가는 형용이라서 초도리(草島里)가 흥하지 못한다는 전설도 있으며 어느 때인지 연대는 모르나 섬 주위에 돌담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큰 성터와 같은 돌 구조물이 있으며 자연석 높이 5m와 길이 13m가 섬의 북서쪽에 잘 남아 있다. 또 돌굴이 있는데 속에는 태극형의 큰 바위가 있었으며 한쪽은 없어지고 현재는 반쪽만 남아 있다. 굴 위에는 넓은 돌방석이 있는데 약 20년 전까지도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거북섬에서 죽는 사람이 생길 경우 거북섬에 있는 명당자리에 묘를 쓸 수 있다는 전설도 있다. 섬에는 소나무와 전죽으로 덮여 있고 두릅과 머루, 찔 등과 물고기 화석, 말 발자국, 축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도리 마을 전경 ▼



근래 일부 향토사학자 및 단체에서 재야사학자 고 오종철 씨의 ‘다시 찾은 고구려정사’를 근거로 거북섬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의하면 394년(광개토대왕 3년) 8월 쯤 화진포의 거북섬에 왕릉 축조를 시작했으며 광개토대왕 18년 8월 왕릉 축조 현장을 대왕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자명왕 2년에는 이곳에서 광개토왕의 망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고성군에서는 2008년 7월경 학계의 관련 학자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학술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인 물증이 전혀 없어 금구도와 광개토대왕릉과 관련설을 부정하고 있다. 섬에는 축성연대와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길이 60m, 높이 170~230m의 성곽의 잔해가 남아 있고, 섬 산정 부근에는 주초석과 와편, 토기편 등이 발견되었다. 간성지(杆城志)에는 초도(草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 △ 나랏 - 섬 :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된 바위.
- △ 나랏 - 샘 : 초도리.
- △ 범박 - 골 : 초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산젯 - 골 : 산제(山祭)를 지내던 골짜기.
- △ 서낭 - 산 : 서낭이 있는 산.
- △ 종수릿 - 고개 : 죽정리(竹亭里)로 가는 고개.
- △ 초-진(草津) : 초도리
- △ 큰 - 드루 : 다른 곳보다 큰 들.

Ⅰ 초도 1리 Ⅰ

- △ 시온중학교 개설 : 1964년 현내면 초도리 218번지 1, 800평을 초도리에서 기증하여 최초 시온중학교가 개설되었으나 약 2년 후에 없어지고 1967년에 중학교 설립이 추진되어 부지를 동네에서 기증하여 교사(校舍 임시 건물)가 건축되었으나 다음 해인 1968년 10월에 해일 피해로 인하여 교실이 전파됨에 따라 지금의 대진중학교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폐교되었다.
- △ 이화여대 휴양소 : 1957년 초도리 남단 화진포 주변지에 이화여대 총장 박마리아가 이대 하계 휴양소(梨大夏季休養所)로 사용키 위해 주변 10ha의 산과 평지 그리고 해변 일대를 임대하여 5동의 별장을 짓고 매년 하기(夏期)에는 이대 교수단 및 학생들을 보내 교대 휴양하다가 1968년 7월 산학리 고성산(古城山) 정상에 3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나타난 이후 현재 까지 활용치 않고 건물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학교재단 측과 협의하여 건물을 철거했다.
- △ 공수골 소류지 : 일제강점기 축조된 제방으로 유역면적이 15ha, 재방실이 50m, 높이 5m로 저수량 2, 000톤이며 몽리면적이 5.5ha 등이다.

죽정리(竹亭里)

위치는 동쪽으로 화진포(거진읍 화포리 옛 장평 長坪)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거진읍 산북리, 남쪽으로는 거진읍 원당리, 북쪽으로는 산학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동북쪽으로 열산현(烈山縣)때의 고성산(古城山), 서북쪽으로 노인산(老人山) 정상을 경계로 마을 중산평야지대로 중평천이 화진포로 흘러내려 마을 앞에는 문전옥답의 1,000석 두루가 있어 예부터 재해가 없는 부촌으로 이름나 있었다.

마을 남쪽에는 초록빛 수려한 화진포가 있고 마을에는 작은 야산이 밀림을 이루고 있어 골을 이룬 곳에 여러 개의 자연 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 연산군 때에는 화진포 주변의 '마장뿌리' 산봉우리에 세운 모화정(茅花亭)이 있어 화전(花煎)놀이와 휴식처로 활용한 관계로 현 죽정1리를 모정리(茅亭里)로 불려왔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현 죽정2리에 해당하는 중평리(仲坪里), 도발리(道發里), 죽림리(竹林里) 등 3개 리와 모정리(茅亭里)를 합쳐 죽림리(竹林里)라는 '죽(竹)'자와 모정리(茅亭里)라는 '정(亭)'자를 합쳐 죽정리(竹亭里)로 개칭하였다. 현재 본 마을 중간으로 흐르는 중평천을 경계로 동쪽은 죽정1리, 서쪽은 죽정2리로 개편 되었다.



죽정리 마을 전경 ▼



죽정1리(옛 모정리 茅亭里) 일대에는 선사시대나 고구려 때의 북방식 지석묘로 보이는 고인돌이 2km에 걸쳐 산재해 있으며 용수구미라는 곳에서는 10여 년 전 돌도끼, 기왓장, 돌칼 등의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 △ 강자 - 평(江字坪) : 강째 구랭이
- △ 강째구랭이[강자평] : 옛날의 지번이 강(江)인 들.
- △ 갯 - 드루 : 갯가에 있는 들.
- △ 꿏 - 산 : 조선시대 세조(世祖)가 이곳에서 고양이 때문에 위기를 면했다 하여, 꿏산 이라 부른다 함.
- △ 늘근 - 산 : 죽정 서쪽 거진면과의 경계에 있는 산
- △ 늘 - 버덩이 : 늘근산 밑에 있는 골짜기.
- △ 달인리 - 다리 : 월안교(月安橋), 거진면 월안리를 잇는 다리
- △ 대장 - 골 : 재피골 밑에 있는 골짜기.
- △ 도발 - 리 : 중평과 죽림 사이에 있는 마을.
- △ 동막 - 골 : 거진읍(巨津邑)과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 △ 모 - 정(茅亭) : 모화정(茅花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마을.
- △ 모화정 - 부리 : 옛날 모화정이 있던 산.
- △ 방축 - 골 : 전에 숲으로 둘러싸였던 골짜기.
- △ 산제 - 골 :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
- △ 새죽 - 산물 : 절의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쓰던 물.
- △ 살군 - 뜨루 : 중뜨루 옆에 있는 들.
- △ 섬 - 바위 : 곡식 담는 섬처럼 생긴 바위.
- △ 섬바윗 - 골 : 섬바위가 있는 골짜기.
- △ 원다라기 - 골 : 논배미가 원 개나 된다는 골짜기.
- △ 용네밋 - 고개[龍踰峴(용유현)] : 화진포에서 용이 나서 이 고개를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음.
- △ 재피 - 골 : 도발리 부근의 산골짜기.
- △ 점심 - 바위 : 나무꾼들이 이 바위에서 점심밥을 먹는다 함.
- △ 죽림(竹林) : 대숲이 있는 마을.
- △ 중 - 뜨루 : 중간에 있는 들.
- △ 중림(仲林) : 중평(仲坪), 모정 서쪽에 있는 마을.
- △ 충신의 - 벌 : 나라에서 충신에게 하사(下賜)하였다는 들.
- △ 한들 - 바위 : 한들한들 흔들린다는 바위.
- △ 회룡선(回龍線) : 산북리(山北里)로 통하는 구로(舊路).
- △ 보탕골 : 옛날에 골짜기에 4~5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어 조용한데다 원시림이 우거진 관계로 피서지로 알려져 있어 여름이면 죽정 마을주민들이 개를 잡아 보신탕을 해 먹으며 즐겼다 하여 보탕골이라 부른다.

- △ **마장뿌리** : 마을 뒤쪽 화진포 호수 주변인데 옛날 이곳에서 백마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
- △ **청용뿌리** : 화진포 이승만 대통령별장 부근으로 옛적에 이곳에서 청마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
- △ **불당개미** : 신라시대에는 마을에 불당이 있었다하여 불당개미라고 불렀다.
- △ **용수개미** : 옛날에 용이 화진포에서 하늘로 솟았다하여 용수개미라고 불렀다.
- △ **구터** : 마을 남쪽의 골짜기로 옛날 큰 재난이 있을 때 마다 이곳에 마을 전체 주민이 피신을 하였다 한다.
- △ **행금터** : 마을 동쪽에 있으며 옛날 어른들이 이곳에 행금을 가져와 놀았다고 한다.
- △ **충신별(냉장골과 붙어 있다)** : 마을의 북쪽에 있으며 옛날 이곳에서 장군이 났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
- △ **냉장개미(냉천, 약수터)** : 죽정1리 마을에서 2.5km 동쪽의 화진포 주변으로 화진포해수욕장과 화진포를 끼고 있는 곳으로 예부터 동해와 화진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에도 시원하다 하여 냉장개미라 하며 계속 솟아오르는 냉수 약수터가 있어서 피서지로도 유명하다.
- △ 마을 동쪽에 있는 줄배머리의 뒷산, 즉 죽정리 산1번지에는 1940년초에 원산 명사십리에서 철수한 서양인들이 별장으로 신축한 5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화진포 휴양지로 사용했다고 한다.

| 죽정 2리 |

- △ **대장동 소류지** : 일제강점기 축조된 것으로 제방길이 86m, 유역면적 10ha, 몽리면적 18ha로 1980년 일부 보수했다.



조선지형도

산학리(山鶴里)

위치는 동쪽으로 초도리, 서쪽에 화곡리, 남쪽에 죽정리, 북쪽에 철통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산학리는 원래 두 모퉁이로 나뉘어져 있어 옛 운근리(雲根里)를 고쳐서 산학리(山鶴里)와 열산리(烈山里)가 있었다.

고려 때 여산현(驪山縣) 다음인 열산현(烈山縣)의 소재지가 열산리(烈山里)에 있었고 운근역(雲根驛)이 위치한 마을을 학산리(鶴山里)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관제개혁으로 폐현(廢縣)되는 동시에 간성군에 속하고 현내면으로 개칭된 후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폐합으로 두 마을의 '산(山)'자와 '학(鶴)'자를 따서 산학리(山鶴里)로 불렀는데 1914년까지는 현내면 소재지이기도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운근역리(雲根驛里)라는 기록이 있다.

마을 뒤에는 고려 초기에 만든 것으로 전하는 주위 약 12m 정도의 성지(城址)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쑥고개 봉화봉(烽火峰)에서 횃불로 신호하면 이곳에서 간성 고성산으로 연락하였다고 한다.



▼ 산학리 마을 전경



- △ **고성산 古城山 Goseongsan**³¹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 고적조에는 “열산현(烈山縣) 북쪽 1리에 있는데 곧 현의 남산이다. 군과의 거리는 35리이다.”는 고성산의 기록이 있다. 『여지도서』에는 “군의 북쪽 30리에 위치한 산으로 열산현의 진산이며 금강산(金剛山)의 주맥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 △ **구 - 화곡(舊禾谷)** : 열산 북쪽에 있는 마을. 화곡(禾谷) 서쪽에 있는 화곡리(禾谷里)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화곡리라 한다.
- △ **등축 - 골** : 고성산 밑에 있는 골짜기.
- △ **열 - 산(烈山)** : 옛 열산현(列山縣)의 중심지.
- △ **중 - 뜨루** : 중간에 있는 들.
- △ **풀뭇 - 골** : 쇠를 녹이기 위한 풀무가 있었다는 골짜기.
- △ **하우 - 고개** : 화곡리(禾谷里)로 가는 고개.
- △ **성제고개** : 옛날 성을 쌓았다고 하여 성제고개라 한다.
- △ **봉화터** : 옛날에 햇불로 현내면 고성산과 봉화산, 간성 고성산과의 봉화를 올리던 곳을 말한다.
- △ **소마니골** : 마을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
- △ **분모골** : 마을 동북쪽
- △ **사창골** : 마을입구 동쪽
- △ **행상골**
- △ **외솔배기** : 죽정리, 산학리 경계지점(중두루)에 조선시대 간성군수 권익룡(權益隆)의 공덕비(功德碑)로 비각(碑閣)은 없고 비(碑)가 고송(古松)과 함께 남아있다.
- △ **정흥동회 소류지** : 상·하소류지로 나뉘어 있으며 제방길이가 80m와 50m이며, 몽리면적이 8ha로 1968년 개보수 됐다.
- △ **노인산 老人山 Noinsan [異] 비적지산(鼻的只山), 어구산(於邱山, 於丘山), 지산(只山)**³² : 군의 현내면과 거진읍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383m). 해발고도는 높지 않으나 바람이 강하고 경사가 심해 나무들이 살지 못하며 큰 바위로 덮인 모양이 마치 노인의 머리처럼 보여 노인산으로 불린다고 전해진다. 옛 기록에서 ‘노인산’의 지명은 나타나지 않으며 『조선지리지』에서 간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어구산(於邱山)의 한글 지명을 ‘눌근산’이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어구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에 “열산현(烈山縣) 서쪽 4리에 있다. 비적지산(鼻的只山)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간성군에는 “어구산군 북쪽 35리에 있다. 열산현의 서쪽 금강산의 주맥으로 고성경계에서 뻗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어구산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조선지도』, 『1872지방지도』, 『대동여지도』 등의 고지도에는 화진포(花津浦) 서쪽에 어구산이 묘사되어 있다. 『1872지방지도』에는 읍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기록되어 있다. 산에는 노총각 전설이 전해져 내려 온다. 산밑에 살던 노총각이 노인산과 절터를 찾아 기도 끝에 아내를 만났는데 날개달린 아들이 태어나자 그 날개를 잘라 없애 버렸고, 이에 노한 하늘이 용마를 보내 아기를 데려갔다는 전설이다.

31)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698쪽

32)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698~699쪽

화곡리(禾谷里)

위치는 동쪽에 철통리와 산학리, 서쪽에 수동리, 남쪽에 산북리, 북쪽에 마달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옛날부터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서 버드내라고 불러오고 있으며, 군량(軍糧)과 병기창고(兵器倉庫)가 있었다고 하여 창대리(倉垓里)라고도 부르며,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농작물과 목축의 소득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화곡(禾谷)과 버드내를 병합하여 화곡리(禾谷里)라고 하였다.³³⁾



▼ 화곡리 마을 전경



33) 『한국지명총람』 후기

- △ 고지기 - 영[고직령(高直嶺)] : 수동면(水洞面) 오싯골로 가는 고개.
- △ 독축 - 골 : 산뚝골 어귀에 있는 골짜기.
- △ 무네밋 - 드루 : 물이 넘어갔다는 들.
- △ 버드 - 내[유천(柳川)] : 화곡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았음.
- △ 산뚝 - 골 : 거진읍(巨津邑) 산북리(山北里)로 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
- △ 산뚝골 - 평 : 산뚝골 밑에 있는 들.
- △ 에미네 : 버드내 서쪽에 있는 마을
- △ 용네밋 - 고개 : 용이 넘어갔다는 고개.
- △ 탑 - 골 : 탑이 있었다는 골짜기.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 △ 탑골 - 령 : 탑골 뒤에 있는 고개.
- △ 할미 - 소 : 옛날에 할머니가 빨래하다 익사 직전 손녀가 달려와 구출하려 했으나 어린 손녀가 힘이 약해 함께 익사하였다고 하여 할미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물 깊이가 명주 두 필의 길이였으나 현재는 1.7m이다.
- △ 호랭이 - 바우 : 마을 동쪽에 있는 바위로 호랭이 입과 형상이 같다고 한다.
- △ 확 - 소 : 방아확처럼 생긴 소. 물 깊이는 1.5m이며, 둘레는 12m로 발방아 확모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고 여기서 방아를 찼었다고 하며 대문 세운 자리가 한쪽만 남아 있는데 바위에 45cm 가량 파여 있으며, 다른 한쪽은 없어졌다.
- △ 서낭나무 : 소나무 4주, 떡갈나무 1주로 수령이 약 300년 이상 되었으며 오랜 옛날부터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다.
- △ 푸대미골 : 성황당 골짜기를 말한다.
- △ 이내방골 : 마을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 △ 독지골 :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독점이 있었다고 한다.
- △ 쌍계동(일명 화장골) : 마을에서 가장 큰 골짜기로 옛적에 이곳에 암자가 있었다고 하여 불리워지고 있다.
- △ 창터 : 옛적에 이곳에서 돌창, 돌칼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마을 주변에서 돌칼, 돌창, 돌촉, 화살촉, 돌자구 등이 출토되었지만 현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마달리(馬達里)

위치는 동쪽에 마차진리와 대진리, 서쪽에 수동면, 남쪽에 화곡리, 그리고 북쪽에 명파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하늘이 가깝다고 하여 부르던 건달리(乾達里)와 원래 마직리(麻直里)라 부르던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의 남쪽에 꼭 말이 누워있는 형태와 같은 산이 있어서 후에 마직리(馬直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두 마을의 '마(馬)'자와 '달(達)'자를 합해 마달리(馬達里)로 되었다. 옛날에는 이웃마을인 마차진리(麻次津里)에 마직리(麻直里)의 동쪽 일부가 유입되었다.



▼ 마달리 마을 전경



- △ 갈밭 - 골 : 갈(대)이 많은 마을
- △ 킁 - 소 : 킁(구유)처럼 생긴 소.
- △ 기린 - 네미 : 푼듯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기린 모양으로 생겼음.
- △ 대진 - 고개 : 대진리(大津里)로 가는 고개.
- △ 마 - 산(馬山) : 모양이 말처럼 생긴 산.
- △ 마직(麻直, 馬直) : 마달리(馬達里)에서 가장 큰 마을. 지형이 말처럼 생겼으며, 또 말이 잘 자란다 함.
- △ 마차진 - 고개 : 마차진리(麻次津里)로 가는 고개.
- △ 무지개 - 굴 : 무지개처럼 생긴 굴.
- △ 바드랫 - 굴 : 푼듯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봉릿 - 굴 : 탑봉리(塔鳳里)쪽에 있는 골짜기.
- △ 범 - 바우 : 전에 범이 새끼를 쳤다는 바위.
- △ 벼락친 - 골 : 옛날에 벼락이 떨어진 골짜기.
- △ 살구나무 - 골 : 살구나무가 있는 골짜기.
- △ 쌍계 - 동(雙桂洞) : 속칭 쌍잠, 화잠이라고 하며, 쌍계 - 암(雙桂庵) 마을이 있었던 곳
- △ 쑥 - 골 : 암골에 상대하여 수(雄)에 해당하는 골짜기.
- △ 암 - 골 : 쑥골에 상대하여 암(雌)에 해당하는 골짜기.
- △ 연점 - 골(鉛店-) : 연점(鈴店)이 있었다는 골짜기.
- △ 은점 - 골(銀店-) : 은점(銀店)이 있었다는 골짜기.
- △ 절 - 골 : 절이 있었던 골짜기.
- △ 조제 - 암 : 약600년 전에 세웠는데, 건봉사(乾鳳寺)에 속한다 함.
- △ 직 - 골 : 곧게 생긴 골짜기.
- △ 진 - 여울 : 여울이 길다고 진여울이라 함.
- △ 창대 터 : 창대(蒼竹)가 났다는 터.
- △ 촛대 - 바우 : 촛대처럼 생긴 바위.
- △ 촛대바우 - 소 : 촛대 바우가 있는 소.
- △ 탑 - 골[탑동(塔洞)] : 쌍잠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 평풍 - 소 : 병풍석 밑에 있는 소.
- △ 푼듯 - 골 : 마직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빈대바위 : 마달리에서 화곡리 쪽으로 약 700m지점에 있는 바위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바위틈에서 빈대가 나왔다고 하며 현재까지 빈대가 나오고 있다 한다. 40명은 앉아서 놀 수 있는 큰 너래바위 이다.
- △ 범잡은골 : 건달리 북쪽의 500m길이가 되는 골짜기로, 지금부터 100여년전 조선 말기 이진사댁 할아버지가 호환(虎患)으로 비명에 가시자 할머니께서 손수 드뭇칼을 놓고 이 골짜기에서 몇날 며칠을 기다린 끝에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고 돌아왔다는데서 현재까지 범잡은골로 불리고 있다.
- △ 창대 : 마달리의 서남쪽으로 화곡리와와 경제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옛날 조선 말기 이곳을 군사들이 창고로 사용했다고 한다.

- △ **여미네골** : 화곡리와 의 경계지점으로 수동면 시내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는 길 인데 고개 위의 넓은 곳에서 여민(呂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되어 그 말이 사투리로 변하면서 에미네골이나 불러오고 있다.
- △ **냉골하천** : 마달리앞 도랑으로 여름철에는 손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가워 상추도 씻기 힘들었다고 하였으나 새마을 농로확장 시 매몰되어 없어졌다.
- △ **석불** : 마을회관에 석조여래좌상이 있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마을청년들에 의해 절골(건달리 골짜기)에서 경운기로 운반되어 왔다고 전하며 현재는 몸체만 남아 있다.

마차진리(麻次津里)

위치는 동쪽에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배봉리와 마달리, 남쪽에 대진리, 북쪽에 명파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고기(古記)에는 마차진(馬差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에는 마차구미진리(麻差仇味津里)라는 기록이 있다. 옛날에 인접한 마직리(麻直里)와 한마을로 병합하였을 때에 '마(麻)'자를 넣어서 마차진리(麻次津里)라 고쳐 썼다고 전하는데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직리(麻直里)가 분리 되면서 동편 일부를 흡수하고 몽구미, 무송대(茂松臺)부근에 수달리(水達里)로 편입하였다 한다.

무송대(茂松臺)·무송정 등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 누정조에 “무송대 열산현(烈山縣) 북쪽 명파역(明波驛) 남쪽에 있다. 봉우리가 바닷가에 높이 솟았는데, 예전 이름은 송도(松島)이다. 그 위에 소나무가 많으며



관내도

모랫길이 육지에 잇따랐는데 바닷물이 넘치면 들어갈 수 없으며, 땅 에는 가득한 우는 모래(鳴沙)이다.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이 사절(使節)을 받들어 관동지방에 왔다가 일찍이 이 섬에 올라왔으므로 그렇게 이름을 고친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무송부원군의 이름을 따 무송대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의 간성군 누정기록에 “무송정은 군 북쪽 50리에 있다. 작은 봉우리가 바닷가에 높이 솟았는데 그 위에 오래 된 소나무들이 있다. 무송부원군 윤자운이 사절을 받들어 왔다가 누대를 지어 놀았던 까닭에 이름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해동지도』를 비롯한 고지도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이 섬 주위의 바위에 자시(子時)에 자연적으로 움직여 갈라진다는 자마석(子磨石)이 있다. 평시에 무송정(茂松亭) 또는 무선정(舞仙亭)이라고도 부르는데 뱀이 없다고 하며 주위에는 잡어, 해조류와 방게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마차진리 마을 전경 ▼



- △ 갈강 - 바위 : 동해 안 물 속에 들어 있는 바위.
- △ 거북 - 바위 : 거북처럼 생긴 바위.
- △ 괴뻘 - 고개 : 무송정에서 본말로 가는 고개. 마차진에 있는 말의 고뻘에 해당한다 함.
- △ 논 - 골 : 논이 많은 골짜기.
- △ 텁승 - 골 : 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동두 - 바위 : 옛날에 정성을 드리던 바위.
- △ 떡 - 고개 : 쭉고개.
- △ 만재 - 바위 : 만재라는 사람이 미역을 뜯다가 미끄러져 죽었다는 바위.
- △ 늪 - 너메 : 무송정 북쪽에 있는 절 터. 마차진에 있는 말의 목에 해당한다 함.
- △ 몽그미(몽구미) : 바닷가에 있는 들.
- △ 무송 - 정[무송대] : 무선정(舞仙亭), 무송정(茂松亭)이라고 하며 소나무가 무성한 섬. 높이 25m, 이 섬의 서낭나무에서 꿀이 나오면 풍년이 든다 함.
- △ 민달그 - 미 : 마차진리 북쪽에 있는 들.
- △ 박성 - 머들기 : 마차진리 북쪽에 있는 곳.
- △ 배봉 - 굴(培奉窟) : 마차진에서 배봉리로 통한 동해북부선 철로의 굴(터널). 길이400m.
- △ 버른 - 내기[여남암(汝南岩)] : 뿌리가 바다 밑으로 박힌 바위.
- △ 버릿 - 골 : 무송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봉우 - 터 : 봉화봉으로 봉으 - 뚝이라고도 한다
- △ 봉 - 현(蓬峴) : 쭉고개
- △ 술산봉수(戌山烽燧)[봉화 - 봉(烽火峰), 봉우터, 봉으뚝] : 마차진 북서쪽에 있는 산. 높이 100m, 쭉고개 봉화대라고 불리며 석축 상단의 지름 약6m, 높이 8m의 흔적이 잘 남아 있었는데 2016년 봉수지를 임의 복원 했다.
- △ 서덜 - 등 : 마차진의 서쪽을 막은 산.
- △ 쭉 - 고개[봉현, 떡고개] : 저진(楮津)으로 가는 고개. 봉화봉 밑이 되는데, 쭉이 많다 하여, 또는 이 고개에서 떡장수가 떡을 팔아서 행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 △ 웅글 - 머리 : 우물이 있는 곳.
- △ 온정 - 터 : 더운물이 나는 샘.
- △ 청강 : 물이 나오는 바위.
- △ 흑도 - 암(黑島岩) : 몽그미(몽구미) 앞에 있는 바위.
- △ 무송정굴(茂松亭窟) : 무송정 서쪽에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 터널 (길이150m)

명파리(明波里)

위치는 동쪽에 동해를 바라보고, 서쪽의 수동면, 남쪽의 마차진리, 마달리, 북쪽의 검장리(劍藏里)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여지도서』에는 명파역리(明波驛里)라고 기록하고 있다. 민통선 마을로 동해를 바라보아 동해의 맑은 물과 백사장을 낀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명파리로 불리게 되었으며 고려시대부터 명파역(明波驛)이 위치하여 금강산 탐방 사대부와 시인, 풍류객들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반전(半田)을 병합하여 명파리라고 하였다고 한다.³⁴⁾

광산천(鑛山川)과 명파천(明波川)이 흘러 마을이 형성되었기에 전답이 비옥하고 각종 어족이 풍부하다. 또한 속칭 광산골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광산이 개발되어 금, 은을 생산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1970년 고명광산이 들어와 한때는 성업을 이뤘으나 지금은 폐광되어 그 후 대림광업이 광맥을 찾았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고명광산의 은은 전국에서 순도 2위를 자랑하는 우수한 지하자원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명파리 마을 전경 ▼



34) 『한국지명총람』 후기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6km 지점에는 통일전망대가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하나 민통선 내 위치한 취약점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으나 1995년 6월에 민통선이 광산천 북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마을 내 도로변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식당 등 새로운 먹거리촌이 형성돼 찾는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통일전망대를 찾는 탐방객이 크게 줄어들어 국도변 마을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반 - 전(半田)[반재이] : 명파 남서쪽에 있는 마을.

△ 부채술 : 현재 국도 7호선 도로 옆 명파초등학교 담 앞에 위치한 1쌍의 소나무는 약 300년 전에 이 마을의 장자인 부자집 김유근(金有根)이라는 사람이 심은 것으로 그 형상이 마치 부채처럼 생겼다 하여 예부터 부채술로 명명되었으나 우측소나무가 고사(枯死)되어 현재 한 그루만이 살아 있다.

△ 광산골 : 마을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부터 금 · 은 광석이 많아 광산골이라 한다.

△ 안골 : 마을 북쪽의 골짜기로 옛날에 성을 쌓고 원님이 살던 곳이라 전한다.

△ 갈마평 : 마을 북쪽의 산이 말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앞이 넓은 평야로 되어 있어 갈마평이라 한다.

△ 쌍학골 : 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말엽 묘지를 이전시키기 위해 묘를 파헤치니 학 2마리가 날아올랐다고 하여 이곳을 쌍학골로 부른다.

△ 애기난골 : 마을 서쪽의 골짜기로 옛날 병자호란 때 피난을 했던 아주머니가 이곳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흘린 피를 마을입구인 이곳에 묻혀 오랑캐가 돌아가도록 하였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 고분군 : 직경 3.6m의 고분 5기가 있는데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 조제암터 : 마을 서북쪽 4km 떨어진 고려 초기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조제암은 건봉사의 말사(末寺)로서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 명파천(明波川)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열산(烈山) 북쪽 20리에 있으며 근원지는 작산(鵲山)이다. 개울 아래쪽 명파역(明波驛)이 왼쪽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배봉리(培峰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와 접해 있고, 남쪽에 마달리, 그리고 북쪽에 명파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신라시대에 봉화를 올려 통신을 전하던 봉화봉(烽火峰) 또는 돛대봉이라 부르는 뾰족한 봉우리 아래에 마을이 위치하였다고 하여 배봉리(培峰里)라고 불렸다. 인근 명파리와 함께 민통선 북방 출입 영농을 하고 있다.

△ 지씨덕골 :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마을이 생겨날 때 아랫골, 윗골에 모두 지 씨가 살았었다고 하여 지씨덕골이라 부른다.

△ 호방골 :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 고등골 :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가 똑바로 보인다고 한다.

△ 쑥골 : 마을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쑥대밭으로 되어있다.

△ 명수골 :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중의 하나 (夢水)



관내도

배봉리 마을 전경 ▼



住民 未居住 마을

제진리(猪津里)

『간성군읍지』³⁵에 따르면 관아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현내면 관할지역으로 마을 앞 해변에 섬이 있는데 예부터 이 섬에는 화살 만드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했다. 섬이 흡사 돼지가 엮드려 있는 형상이라 저도(猪島)라고 부르며, 이 섬에는 예부터 오동나무와 전죽이 많다. 1938년 동해북부선 철도가 완성되면서 간이역인 제진역(猪津驛)이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저도진리(猪島津里)로 기록하고 있고, 『조선지리지』에는 마을에 팔랑굴(八狼谷), 광대골(廣大谷), 서낭고개(城隍峴), 제진주막(猪津酒幕)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3년 남북출입사무소 일명 CIQ건립 운영되었고, 2007년 5월 동해선철도 제진역사(猪津驛舍)도 새롭게 건립되어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열차가 시범 운행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다.



- △ 광대골(廣大谷) : 넓고 큰 골짜기라 하여 광대골이라 불렀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봉천(大峰川) : 대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다.
- △ 바랑골(八狼谷) : 바람이 많이 부는 골짜기여서 바랑골이라고 불렀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성황현(城隍峴) : 서낭고개라고 한다. 성황(城隍)이 있던 고개.
- △ 소봉암(小蓬岩) : 지경리 앞에 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다.
- △ 오래암(五來岩) : 다섯 개의 바위가 함께 있다. 육지와 바다물이 붙어 있는 곳에 있다.
- △ 용암(龍岩) : 남쪽에 있다. 작은 섬이다.
- △ 저도(猪島)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 『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열산(烈山) 북쪽 30리 바다 가운데 있다. 봉우리가 있는데 암벽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특이하다. 위쪽에는 소나무와 오동나무 숲과 전죽(箭竹)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 제진주막(猪津酒幕) : 본래 두 곳이 있었다고 한다. 저진(猪津) 마을 입구와 현재 검문소 지나서 사천리(泗川里)와 경계에 있었다.

35) 강원도 간성군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884년에 편찬한 읍지.

사천리(泗川里)

『간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북쪽 67리에 있다. 본래 간성군 현내면(縣內面)의 지역으로서, 사두봉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사천리(蛇川里)라 불렀고 중국 노(魯)나라의 사수(泗水)의 지형과 흡사하다 하며 수양과 학문을 탐구하는 곳으로서 적임지라 하여 사천리(泗川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여지도서』와 『간성군읍지』, 『관동지』에는 사천리(蛇川里)로 기록하고 있고,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을에 사두봉(蛇頭峰), 허가골(許哥谷), 사천평(蛇川坪)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 사두봉(蛇頭峰) : 뱀머리봉이라 한다. 뱀 머리처럼 생겨 비릇된 이름이다. 고성면 구천동(九川洞)과 경계에 있는 봉우리. 해발 262m이다.
- △ 사천리(蛇川里) : 사두봉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지금의 한자명이 바뀌었다.
- △ 사천평(蛇川坪) : 뱀내평이라 한다. 사천리 서쪽에 있는 들.
- △ 사천소류지 : 사천리 100번지 일대로 유역면적 3ha, 몽리면적 20ha, 제방연장이 30m 등으로 일제강점기 축조되었으며 1986년 일부 개보수 됐다.
- △ 허가골(許哥谷) : 예전에 허(許)씨가 살았다는 골짜기.

검장리(劍藏里)

『간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간성군 현내면(縣內面)의 지역으로서, 검장리(檢長里)라 불렸으며, 이 마을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마을 생김새가 칼을 쫓은 형상과 같다고 하여 1914년 검장리(劍藏里)라 부르게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검장동리(檢長洞里),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을명을 검장동(鈴藏洞)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을에 성황골(城隍谷), 야장골(冶匠谷), 탄골(炭谷), 숯골계곡(炭谷溪), 명파고개(明波峴)가 있다.



- △ 검장동(鈴藏洞) : 고성면 구천동 남쪽에 있다.
- △ 명파고개(明波峴) : 명파리(明波里)로 넘어가는 내리막 고개.
- △ 성황골(城隍谷) : 서낭골에 딸려 있는 작은 골짜기.
- △ 야장골(冶匠谷) : 대정네집골이라 한다. 야장간(대장간)이 살던 골짜기.
- △ 숯골(炭谷) : 마을 서쪽의 숯(가마) 굽던 골짜기.
- △ 숯골계(炭谷溪) : 숯골에 있는 시내.

고성면(高城面)

고성면(高城面)은 본래 안창면(安昌面)과 동면(東面)이 합쳐서 만들어진 면이다.

당초 안창면(安昌面)은 고성군 지역으로서 고려 때 편안하고 번창하다는 안창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면이므로 안창면이라 하였고, 지경진(地境津), 송현(松峴), 구천(九川), 안호(雁湖), 명륜(明倫), 송도진(松島津), 대강(大康), 강정(江亭), 성자(成子), 초구(草邱), 감호(鑑湖), 포외진(浦外津) 등 12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동면(東面)은 고성군 지역으로서 군의 동쪽에 있는 면이므로 동면이라 하였고, 쌍봉(雙峰), 진동(榛洞), 고잠(高岑), 백현(百峴里), 동리(東里), 교동(校洞), 울대(栗垜), 봉수(烽燧), 입석(立石), 말무(末茂), 상보(上寶), 중보(中寶), 능호(菱湖) 등 13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 시 고성군의 안창면(安昌面)과 동면(東面)을 병합하여 간성군에 신설했던 면으로서 원래 고성군 중심지가 있는 면이므로 고성면이라 하였다.

1916년 8월 1일 지경리, 송현리, 구천동을 병합하여 송현리(松峴里)로, 동리, 교동, 울대리를 병합하여 동리(東里)로, 안호리와 명륜동을 병합하여 명호리(明湖里)로, 강정리, 성자동, 초구리, 감호리를 병합하여 감월리(鑑月里)로, 쌍봉리, 진동, 고잠리를 병합하여 고봉리(高峰里)로, 상보리, 중보리, 능호리를 병합하여 보호리(寶湖里)를 각각 신설하여 13개리를 관할하였다.

1919년 고성군에 편입 되었고, 1945년 해방 후,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북한 치하에 있다가 1950년 6·25전쟁 때 국군이 탈환하여, 대진, 마달, 명파, 배봉, 화곡, 마차진, 철통, 초도, 산학, 죽정 등 10개 마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그 나머지 현내면 속한 저진, 사천, 검장 3개리와 1962년 11월 21일 편입된 고성면 송현, 명호, 송도진, 대강 4개리는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여 군 통제 하에 있다.³⁶⁾

36)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178호)에 의거 고성면의 수복지구(송현리·명호리·송도진리·대강리)가 현내면에 편입되었다.

명호리(明湖里)

『고성군읍지』³⁷⁾에 따르면 관아 남쪽 25리에 있다. 본래 안창면(安昌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면과 안창면을 병합하여 고성면으로 개칭되었고, 1916년 8월 1일 안창면의 명륜동(明倫洞)과 안호리(雁湖里)를 병합하여 고성면 명호리(明湖里)가 되었다가, 1919년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 △ 명륜동(明倫洞) : 조선시대 초기 무렵에 고성향교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안호리(雁湖里) : 기러기 무리가 호수에 가득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용무산(龍霧山) : 안호리에 있다. 해발 261m이다.
- △ 연대봉(蓮垵峰) : 안호리에 있다. 해발 74m이다.



고지도

37) 1896년(고종 33)에 편찬된 강원도 고성군 읍지.

Ⅰ 송현리(松峴里) Ⅰ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30리에 있다. 본래 안창면(安昌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소속된 동면과 안창면을 병합하여 고성면(高城面)으로 개칭되었다.

1916년 8월 1일 지경리(地境里)와 송현리(松峴里), 구천동(九川洞), 후곡(后谷) 등을 병합하여 송현리(松峴里)가 되었다. 1919년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송현리 마을에 뒷골주막(后谷酒幕), 구천동(九川洞) 마을에 구천동계곡(九川洞谷), 구천동천(九川洞川), 구천동 고개(九川洞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 가경지고개(佳境地峴) : 북쪽 명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해발 157m 이다.
- △ 구천동(九川洞) : 송현리 서쪽에 있던 마을.
- △ 구천동골(九川洞谷) : 암내골이라고 한다. 골짜기에 바위가 많다.
- △ 구천동천(九川洞川) : 속칭명은 암내이다.
- △ 구천동고개(九川洞峴) : 현내면 경장리로 넘어가던 고개.
- △ 뒷골주막(后谷酒幕) : 구천동 북쪽에 있었던 주막.
- △ 송현리(松峴里) : 상지경이라 한다. 지경리 위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지경리(地境里) : 송현리 동쪽 바닷가에 마을. 제진리와 경계에 있다.
- △ 후곡(后谷) : 뒷골이라 하고. 한자명이 후곡(後谷)이라 한다. 골짜기에 마을이 있었다.

Ⅰ 송도진리(松島津里) Ⅰ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본래 안창면(安昌面) 관할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고성면 관할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여지도서』와 『간성군읍지』와 『강원도읍지』에는 송도진(松島津)으로, 『여지도서』와 『관동지』에는 송도리(松島里)로, 『조선지리지』에는 송도진리(松島津里)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 송도(松島) : 섬 위에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송도 라 하였다. 해발 21m 이다.

△ 송도진리(松島津里) : 송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강리(大康里) ■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본래 안창면(安昌面) 관할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고성면 관할지역으로 변경되었다. 1916년 8월 1일 안창면의 후천(后川)과 대강리(大康里)를 병합하여 대강리(大康里)가 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마을에 고향산(高隍山), 대강역(大康驛), 외면고개(外沔峴)가 있었고, 『관동지』에는 대강역리(大康驛里)로 기록하고 있다. 1952년 북고성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초구리(草邱里)가 되었다.

△ 고향산(高隍山) : 고문헌에는 한자명은 고향산(古隍山) 옛날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해발 364m이다.

△ 덕산고개(德山峴) : 수동면 덕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 대강역(大康驛) : 옛날에 역참이 있었던 곳이다.

△ 외면고개(外沔峴) : 수동면 외면리로 넘어가는 고개.

△ 후천(后川) : 대강리 북쪽에 있다. 한자명은 후천(後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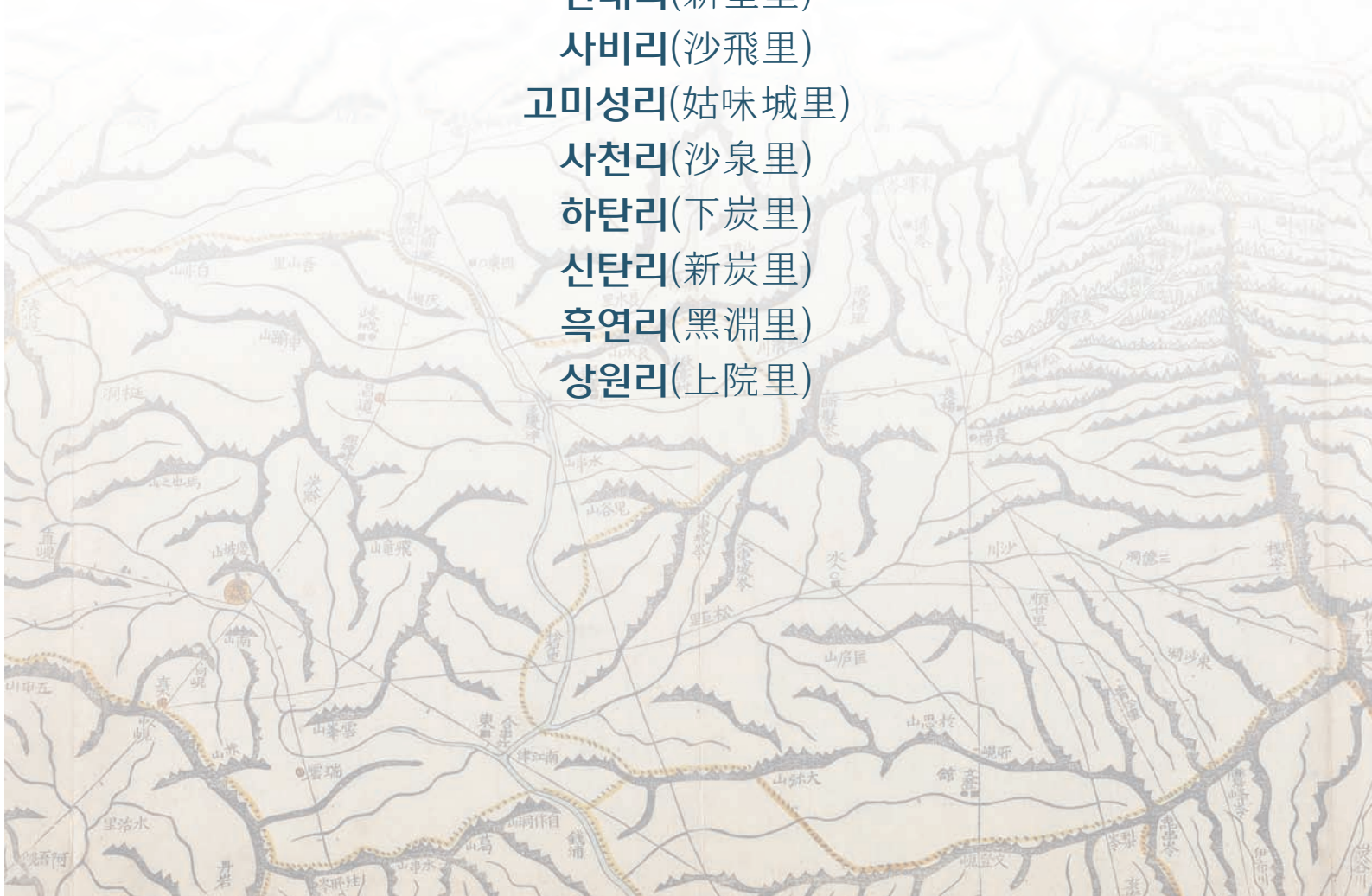
대강리 마을 일원 ▼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수동면 편

초현리(草峴里)
정월리(汀月里)
태봉리(台峰里)
덕산리(德山里)
내면리(內沔里)
외면리(外沔里)
신대리(新垞里)
사비리(沙飛里)
고미성리(姑味城里)
사천리(沙泉里)
하탄리(下炭里)
신탄리(新炭里)
흑연리(黑淵里)
상원리(上院里)



수동면(水洞面)

본래 고성군 지역으로써 골짜기로 물이 많이 흐르는 면(面)이므로 수동면(水洞面)이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내면(內沔), 외면(外沔), 신대(新垔), 사비(沙飛), 고미성(姑味城), 사천(沙泉), 상원(上院), 상탄(上炭), 하탄(下炭), 흑연(黑淵), 덕산(德山) 등 11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간성군 수동면으로 개편되면서 상탄리(上炭里)와 하탄리(下炭里)를 병합하여 신탄리(新炭里)로, 남면의 상초현리(上草峴里)와 하초현리(下草峴里)를 병합하여 초현리(草峴里)를, 남면의 상정월리(上汀月里)와 하정월리(下汀月里)를 병합하여 정월리(汀月里)를 각각 신설하고 남면의 태봉리(台峰里)와 토동(土洞)을 병합하여 태봉리(台峰里)로, 상원동(上院洞)을 상원리(上院里)로, 흑연동(黑淵洞)을 흑연리(黑淵里)로 각각 개편하여 산하에 13개 동리를 두고 관할하였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으로 편입 되었고, 1945년 해방 후 38도선 이북으로 북한 치하에 있다가 1952년 한국전쟁 때 국군이 탈환하여, 초현(草峴), 정월(汀月), 태봉(台峰), 내면(內沔), 흑연(黑淵) 5개 리는 북고성군에, 덕산(德山), 외면(外沔), 신대(新垔), 사비(沙飛), 고미성(姑味城), 신탄(新炭), 사천(沙泉), 상원(上院) 8개 리는 남고성군에 각각 편입되었고,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1979년 수동면을 폐지하고 간성읍 관할 하에 수동지소가 되었다. 2000년 6월 22일 고성군 수동면 행정 구역의 행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간성읍에서 수동면 관련 업무를 겸임하게 되었다.³⁸⁾

현재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어 대부분 민통선 북방지역과 비무장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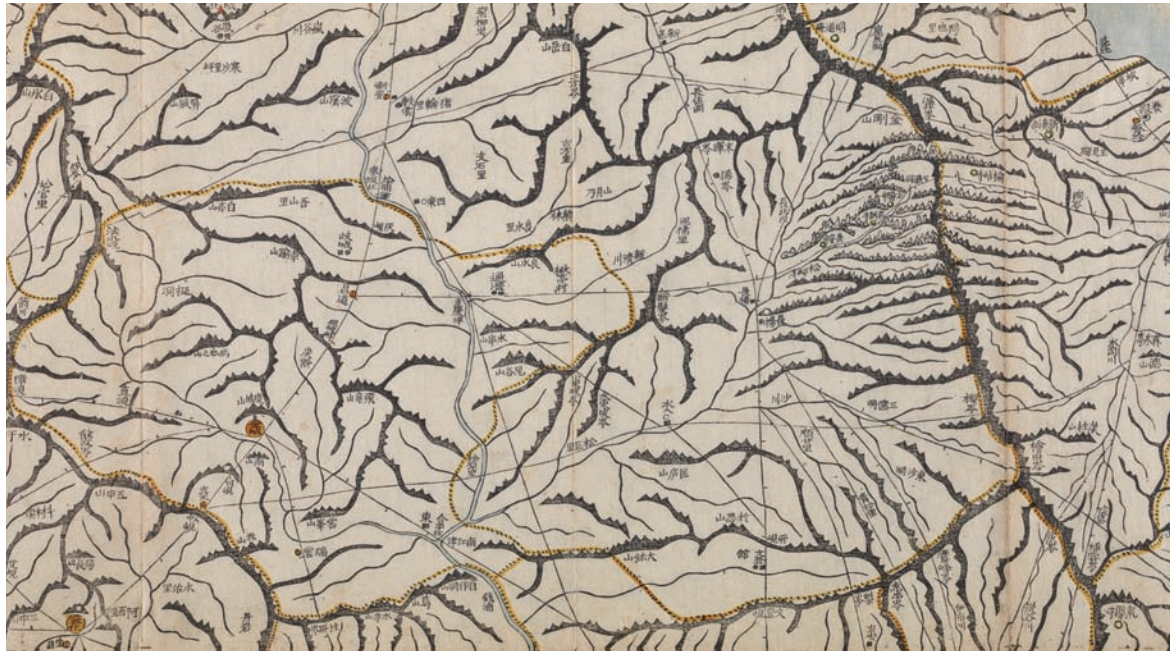


관내도

38)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 관리에 관한 조례(고성군 조례 제1724호)가 제정됨.(고성군의회 회의록)

수동면 마을 명칭 변천표

읍면별		마 을 명
~1914년 까지	8·15해방 때 및 현재	
水洞面		草峴(上草峴, 下草峴), 汀月(上汀月, 下汀月), 台峰(土洞), 德山. 內沔, 外沔, 新垔, 沙飛, 姑味城, 沙泉, 新炭(上炭, 下炭), 黑淵, 上院 (13개리)
	水洞面	草峴, 汀月, 台峰, 德山. 內沔, 外沔, 佛堂, 新垔, 沙飛, 月田, 姑味城, 院垔, 新炭, 下炭, 沙泉, 黑淵, 上院 (17개리)
	水洞面	德山. 外沔, 新垔, 沙飛, 姑味城, 新炭, 沙泉, 上院 (8개리), 草峴, 汀月, 台峰, 內沔, 黑淵(5개리, 북고성)



대동여지도

초현리(草峴里)

『고성군읍지』³⁹⁾에 따르면 하초현리는 관아 남쪽 10리에 있고 상초현리는 관아 남쪽 15리에 있다. 고성군 남면 지역으로서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폐합 시 고성군 남면의 상초현리(上草峴里)와 하초현리(下草峴里)를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신설한 리로서 새초가 무성한 고개를 끼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초현리라 하였다.

1952년 군면리 대폐합 시에 따라 고성군 순학리에 편입되었다.

- △ 공수포평(公需浦坪) : 공수미평이라 한다. 하초현리에 있다.
- △ 동촌(東村) : 동쪽에 형성된 마을.
- △ 상초현리(上草峴里) : 서면 내침리(內砦里)와 강 사이에 있는 마을. 1914년 하초현리와 합쳐 초현리에 편입되었다.
- △ 족지평(足址坪) : 상초현리에 있다.
- △ 족지평제연(足址坪堤堰) : 족지평에 있는 제방. 속칭 족지평 방축이라 한다. 상초현리에 있다.
- △ 하초현리(下草峴里) : 남강 하류에 있던 마을.

정월리(汀月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하정리는 관아 남쪽 20리에 있고 상정월리는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고성군 남면 지역으로서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폐합 시 고성군 남면의 상정월리와 하정월리(下汀月里)를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신설한 리로서 달빛이 비쳐들면 빼어난 경관을 이루는 개울가 마을이라 하여 정월리라 하였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정월리가 되었다.

1953년 월비산리 등 지역에 편입되었다. 6·25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남후정천(南后亭川) : 하정월리에 있다. 남후정이라는 정자가 시냇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상정월리(上汀月里) : 하초현리 남쪽에 있던 마을. 1914년 하정월리와 합쳐 정월리에 편입되었다.
- △ 안현(鞍峴) : 안장 고개라고 한다. 상정월리에 있다.
- △ 울목현(栗木峴) : 밤나무 고개라고 한다. 상정월리에 있다.
- △ 울천(栗川) : 상정월리에 있다. 밤나무소라 한다. 밤나무가 냇가 주변에 많았다고 한다.
- △ 월비산(月飛山) : 정월리 동쪽에 있다. 덕산리까지 뻗어있다.
- △ 월비봉화허(月飛烽火墟) : 봉우터라 한다. 월비산에 봉수대(터)가 있다.
- △ 침곡현(砦谷峴) : 방아실 고개라 한다. 방앗간이 있었던 고개로 상정월리에 있다.
- △ 하정월리(下汀月里) : 하초현리 남쪽에 있던 마을. 1914년 상정월리와 합쳐 정월리에 편입되었다.

39) 1896년(고종 33)에 편찬된 강원도 고성군 읍지 필사본.

태봉리(台峰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30리에 있다. 고성군 남면 지역으로서 태봉을 끼고 있으므로 태봉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에 고성군 남면의 외태봉리(外台峰里)와 내태봉리(內台峰里), 1916년 8월 1일 자연마을 토동(土洞)을 통합하여 간성군 수동면 태봉리로 개편되었다. 1927년 고성군 수동면 태봉리로 되었다가 1952년 대폐합에 따라 고성군 유격리에 편입되었다.

- △ 외태봉리(外台峰里) : 태봉리 북쪽에 있던 마을. 일제강점기 지도상 한자명이 대봉리(臺峰里)로 표기 되어 있다.
- △ 작봉(鵲峰) : 까치봉이라 한다. 토동(土洞) 서쪽에 솟아 있다. 해발 1,042m이다.
- △ 피방(避方) : 토동 동쪽에 있던 마을.
- △ 토동(土洞) : 태봉리의 서남쪽에 있던 마을.

덕산리(德山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본래 금강산에 인접한 고성군 월비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간성군 수동면 덕산리로 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가 되었다. 1953년 월비산리 등 지역에 편입되었다. 6·25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 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덕무(德茂, 德武) : 덕산리 속칭명이다.
- △ 덕무현(德茂峴) : 상보리(上寶里)와 고봉리(高峯里)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는 214m이다.
- △ 수령(水嶺) : 북쪽은 덕산리로 넘어가며, 서쪽으로 내면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높이는 154m이다.
- △ 월곡(月谷) : 달골이라 한다. 달의 모양처럼 생긴 골짜기.
- △ 월곡현(月谷峴) : 초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달 골짜기 고개라고 한다.
- △ 월비산(月飛山) : 군의 동쪽에 위치한 산이다(해발 456m). 산은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동쪽은 안부를 사이에 두고 긴 능선으로 351고지와 연결되어 있다. 주요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서쪽과 남동쪽, 북동쪽 경사면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골짜기가 있으며 서쪽 기슭으로 남강이 흐른다. 『조선지형도(고성)』에서 남강 유역의 정월리(汀月里)의 동쪽에 해발 458.6m의 산지에 '월비산'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산에 달이 쏘는 것이 마치 날아오르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태봉현(台峰峴) : 태봉리로 넘어가는 고개.
- △ 황장산(黃腸山) : 질 좋은 소나무가 많다. 여기서 나오는 목재가 황장목으로 유명하다. 해발 240m이다.

내면리(內沔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서쪽 25리에 있다. 내면리는 남강 지류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내면리와 연암동(鰲嶺洞)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고, 1919년 고성군 수동면 내면리가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도회천(桃灘川) : 복숭아꽃들이 시냇물에 온통 꽃들로 물들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수침곡(水砧谷) : 물방아골이라 한다. 예전에 디딜방앗간이 있던 골짜기.
- △ 연암동(鰲嶺洞) : 연암골에 장수 마을.
- △ 연암골(鰲央谷) : 연암동에 작은 골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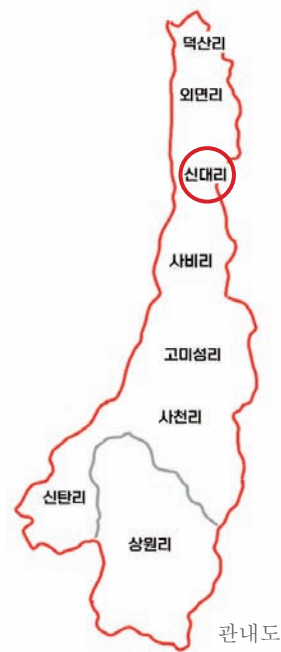
외면리(外沔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본래 남강 지류에 위치한 산간 마을로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수잠리(水岑里), 직동(直洞), 불당동(佛堂洞), 백일포(白日浦), 토기점(土器店)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가 되었고, 1949년 행정구역 개편 시 불당리 등 지역으로 분리 신설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구천동현(九川洞峴) : 고성면 구천동 넘어가는 고개.
- △ 대강고개(大康峴) : 고성면 대강리로 넘어가는 고개.
- △ 덕동송립국민학교 : 6년제 학교를 운영하다가 해방 후 5년제 인민학교로 개편되었다.
- △ 불당동(佛堂洞) : 백일포 동쪽 불당(佛堂)이 있었던 마을.
- △ 백일포(白日浦) : 불당동 서쪽에 있다. 마을의 전체가 물가에 모래가 덮인 마을이다.
- △ 수잠리(水岑里) : 물가에 빼죽한 산봉우리가 있던 마을.
- △ 외면령(外沔嶺) : 다른 이름으로 외면현(外沔峴)이라 한다. 고향봉(古隍峰, 364m)을 거쳐 고성면 대강리로 넘어가는 고개.
- △ 직동(直洞) : 곧은 골을 한자로 옮겨 직동이라 한다. 외면리 동쪽에 있고 고성면 구천동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 △ 전평(前坪) : 앞버덩이라 한다.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 토기점(土器店) : 불당동 남쪽에 옛날 토기점이 있었던 마을.

신대리(新垞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40리에 있다. 본래 남강 지류에 위치하고 외면리와 사비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고성군 지역이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내평리(內坪里), 장재암곡(長在菴谷)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가 되었고 수동면 소재지였다고 전한다. 6·25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내평리(內坪里) : 물구비 안쪽에 있던 마을.
- △ 상산골(上山谷) : 신대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직동으로 연결된다.
- △ 성직고개(城直峴) : 사비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 성직소성이라는 산성이 있었다.
- △ 신대국민학교 : 일제강점기 학교를 운영하다가 해방 후 5년제 인민학교로 개편되었다.
- △ 신대리(新垞里) : 속칭은 장전이라 한다. 길게 새로 조성된 물가 마을.
- △ 신대시장(新垞市場) : 매월 3, 8일 장이 개시되었다.
- △ 신대중학교 : 3년제 중학교 신설되었다.
- △ 수곡(水曲물굽이) : 물이 굽어 돌아 흘러 물굽이라고 한다.
- △ 수동면사무소 : 강원도 고시 제84호에 따라 1924년 11월 25일 신대리 310번지로 면사무소를 이전 하였다.
- △ 장재암골(長在菴谷) : 신대리 서쪽 장재(長在) 암자가 있었던 골짜기 마을. 북쪽으로 일제강점기 농과대학 연습림이 있었다.
- △ 전천(前川) : 앞개울이라 한다. 마을을 앞에 하천을 말한다.
- △ 형제현(兄弟峴, 형제고개) : 사기점(沙器店)에서 신대리로 넘어가는 고개. 물가 따라 넘어가는 고개와 산으로 두개의 고개가 있는데 방향은 신대리로 가기 위한 고개이다. 『고성읍지(1896)』에서는 "고을 남쪽 50리에 두 고개가 있는데, 마치 형제와 같다고 해서 이름 지었다. 수동으로 부터 탄둔령(炭屯嶺)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비리(沙飛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50리에 있다. 본래 남강 지류에 위치한 마을로 모래가 날아다닌다고 사비리라고 하였고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허가동(許哥洞), 구만리(九萬里), 사기점(沙器店)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가 되었다. 1949년 사비리로부터 원전리를 분리 신설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갈마현(喝馬峴) : 원대리 북쪽에 있는 고개. 말들이 험하고 가팔라서 오르는 말들도 힘들어 목이 마르다는 고개로, 해발 496m이다.
- △ 고곡(蕨谷) : 곤사리골이라 한다. 고사리가 많다는 골짜기. 사기점 서쪽에 있다.
- △ 건달령(乾達嶺) : 현내면 건달리(지금의 마달리)로 넘어가는 고개.
- △ 구만리(九萬里) : 사비리 남쪽에 있다. 강변의 길이가 9만리 만큼 길게 뻗어있는 마을.
- △ 사기점(沙器店) :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그릇을 만드는 사기점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원대리(院垞里) : 사비리 남쪽 강 너머 있던 마을.
- △ 허가동(許哥洞) : 옛날 허(許)씨가 모여 살았다는 마을.

고미성리(姑味城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60리에 있다. 본래 남강 지류에 위치한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원대리(院垵里), 오소동(烏巢洞)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가 되었고, 1949년 고미성리로부터 원대리를 분리 신설하였다. 6·25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고직령(高直嶺) : 속칭명은 고지기령이라 한다. 고미성리에서 오소동을 거쳐 고직령에 이른다. 동쪽 방향에는 거진읍 산북리 노인산 앞이다.
- △ 구만리(九萬里) : 원대리에 있다. 아홉 개의 물굽이가 있는 강을 끼고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 남강(南江)⁴⁰ : 군의 남쪽 일대를 흐르는 하천이다(유로 : 85km, 유역 면적 : 561.1km²). 서쪽의 차일봉(1,528m)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 유역 일대의 기반암은 화강암으로 하류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삼각주가 발달하였다. 남강 하류의 기본 물길은 후천(後川)이었으나 오늘날은 홍수나 장마 등에 물길이 변화되어 작은 물줄기였던 적벽강으로 흐른다. 적벽강은 적벽산(赤壁山)의 북쪽으로 흐르는 유로를 지칭한다. 상류에는 금강산 4대 폭포의 하나인 십이폭포와 구룡소, 거북바위, 은선대 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고성)』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구룡연이 된다. …(중략) 동남쪽으로 흘러 주연(舟淵)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흑연(黑淵)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 전탄(箭灘)이 되고, 고을 성(城) 남쪽에 이르러서 남강이 된다.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 고성포(高城浦)가 되고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기록이 있다. 『해동지도(고성)』에서는 남강이 분기한 하줄기 하천이 대호정 남쪽으로 남강이 흐르고 있어 적벽강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조선지도(고성)』에서는 분기하지 않고 적벽강으로 하천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 △ 두무산 : 고미성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 무산(巫山, 1,319m)과 모습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1,098m이다.

40)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2)』, 2013,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 동경제대연습림 :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농학부에서 운영하는 연습림이 존재하여 임산자원이 보존 가능했으나, 중일전쟁이 격화되면서 임산자원만 반출되었다.
- △ 수동(水洞)공립보통학교 : 1929년 4년제 개교하여 해방 후 5년제 인민학교로 개편되었다.
- △ 오소곡(鳥巢谷) : 오수골이라 한다. 오소동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오소동(鳥巢洞) : 본래는 오수동(五疇洞)이다. 원대리와 고미성리 사이에 있던 마을.
- △ 원대리(院垞里) : 고미성리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 한천곡(寒泉谷) : 참샘골이라 한다. 찬 샘물이 나오는 골짜기.
- △ 할미성 : 고미성리 속칭명이다. 옛날 여장수가 쌓은 성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허교곡(虛橋谷) : 허공다리골이라 한다. 절벽과 절벽 사이의 놓은 다리가 있었던 골짜기.

사천리(沙泉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서쪽 80리에 있다. 사천리는 남강 지류에 위치한 고진동 계곡 주변 마을로 본래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가 되었다. 6·25전쟁 직후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 △ 건봉령(乾鳳嶺) : 고진동에서 금강산 건봉사로 넘어가는 고개로, 해발 613m이다.
- △ 고진동(高津洞) : 사천리 동쪽에 있던 마을. 동쪽으로 가면 건봉산(191m)이 연결된다.
- △ 니켈 광산 :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채굴하였다. 일제는 항공기 동체용 합금강 재료로 확보하기 위해 니켈 광산을 개발하여 흥남제철소로 공급했다.
- △ 반평(班坪) : 이릉밭치라고 한다. 길게 늘어진 밭이다.
- △ 사천리(沙泉里) : 샘밭치라고 한다. 예전 샘을 재배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샘밭 : 샘물이 나오는 밭을 말한다.
- △ 오소령(鳥巢嶺) : 사천리에서 고진동을 거쳐 건봉산을 넘어가는 고개로 해발 728m이다. 『고성읍지(1896)』에서는 "오치령(五峙嶺)이라 한다.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곧 삽치령의 동쪽 지류이고 간성(杆城)과 경계되는 길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탄리(下炭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80리에 있다. 하탄리는 본래 월비산리 영역에 있던 마을로 본래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에 간성군 수동면 신탄리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949년 행정구역 개편 시 다시 복귀되었다. 1953년에 유격리 등 지역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 △ 굴별우(屈別隅) : 서로 다른 바위가 짝을 이루어 하나의 굴을 만들었다. 하탄리 북쪽에 있다.
- △ 내허평(內墟坪) : 하탄리 남쪽에 있던 마을.
- △ 솟둔 : 하탄리 속칭명이다. 한자명은 탄곡(炭谷)이다.

신탄리(新炭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90리에 있다. 상탄리는 본래 고성군 수동면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에 상사정(相思亭), 송어직(松魚直), 해삼대(海參垜), 소산동(消産洞), 용수동(龍水洞), 내허평(內墟坪), 연작동(燕雀洞), 송어교(松魚橋)를 간성군 수동면 신탄리(新炭里)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현재 남고성에 속해 있다.

- △ 내평리(內坪里) : 안쪽에 있었던 마을.
- △ 안터구미 : 굽어진 곳에 있던 마을. 구미는 바다와 강으로 돌출한 지형을 말한다.
- △ 연작골(燕雀谷) : 상탄리 동쪽 작은 골짜기.
- △ 상사정(相思亭) : 삼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마을.
- △ 송어직(松魚直) : 송오직이라 한다. 상탄리 속명이다.
- △ 송어교(松魚橋) : 송호다리라고 한다. 다리 아래로 여름철에는 송어 떼가 물을 따라 올라온다.
- △ 삼치령(三峙嶺) : 상탄리에 있다. 인제군 서화면 경계로, 해발 556m이다.
- △ 소산동(消産洞) : 작은 산 안에 있던 마을.
- △ 용수동(龍水洞) : 개천에서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 연작동(燕雀洞) : 연작골에 있던 작은 마을.
- △ 해삼대(海參垜) : 집터 모양이 해삼처럼 생긴 마을.

흑연리(黑淵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100리에 있다.

흑연동은 본래 고성군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에 전골(前谷), 신개골(新開谷), 사명당(沙明堂), 대천동(大川洞), 간촌(間村), 송강(松江), 흑연동(黑淵洞)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19년 고성군 수동면 흑연리가 되었고 현재 북고성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간촌(間村) : 물 흐르는 방향이 간방(良方 동북쪽)으로 흘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천동(大川洞) : 큰 하천이 흐르는 마을.

△ 대암(大巖) : 커다란 바위가 있다.

△ 백발골 : 잣나무 발이 많이 있었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 사명당(沙明堂) : 모래 빛깔이 맑은 곳에 당집(堂宇)이 있던 마을.

△ 신개골(新開谷) : 골짜기 안에 새로 형성된 마을.

△ 송강(松江) : 남강 양안의 소나무가 무성하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안터리 : 간촌 동남쪽 우묵한 곳에 있던 마을.

△ 이기대 : 남동쪽에 있던 바위.

△ 전골(前谷) : 일명 압골이라 하는데 골짜기 앞에 있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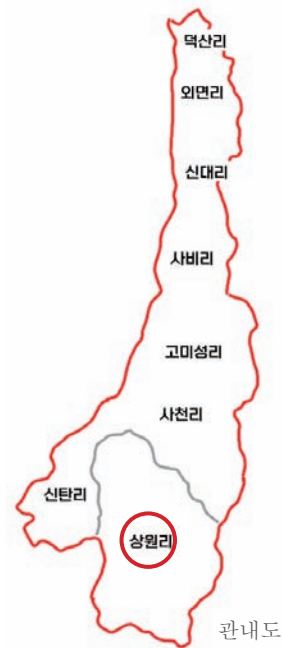
△ 함지덕령(咸池德嶺) : 함(咸)씨와 지(池)씨가 길을 닦아 만들었다는 고개.

△ 해삼터(海參堡) : 바다에 해삼처럼 생긴 터가 있었던 마을.

△ 흑연동(黑淵洞) : 거무소라 한다. 물 빛깔이 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흑연동에서 흑연리로 바뀌었다.

상원리(上院里)

『고성군읍지』에 따르면 관아 남쪽 110리에 있다. 상원리는 향로봉에 인접한 남강 지류 중 상류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고성군 수동면 상원동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상원동(上院洞), 사양제(斜陽堤), 사일제(斜日堤), 회골(檜谷), 송지골(松枝谷), 간곡(間谷)을 병합하여 간성군 수동면 상원리가 되었다가 1919년 고성군 수동면으로 편입되었다. 6·25 전쟁 직후 군사 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민통선 북방지역 비무장 지대로 남아 있다.



- △ 간곡(間谷) : 새골이라 한다. 여상골과 사양제 사이에 있는 마을. 상원리 서쪽에 있다.
- △ 노루멧이 :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늘어진 넓은 뜻인 너르가 노루로 음이 변하여 넓게 늘어진 목이라는 의미이다.
- △ 반항평(盤項坪) : 여상골 북쪽에 있는데 둥글게 생긴 들판이 물가를 끼고 있다.
- △ 부허령 : 부허(布赫.몽고)족이 넘어왔다는 고개.
- △ 사엄 : 상원리 속칭명이다.
- △ 사양제(斜陽堤) : 상원리 남쪽에 있는 제방. 해가 질 때 노을이 아름답다.
- △ 사일제(斜日堤) : 사양제 반대편에 있다. 해가 온종일 비친다.
- △ 상원동(上院洞) : 1914년 폐합 시 상원리가 되었다.
- △ 솔아치 : 소라지라 부른다.
- △ 송지골(松枝谷) : 사양제 서남쪽에 있던 마을.
- △ 여상골(女裳谷) : 여자의 치마 모양의 골짜기. 상원리 북쪽에 있다.
- △ 화망령(火望嶺) : 화락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고개.
- △ 회골(檜谷) : 회목이 많은 골짜기.



광여도(고성군 1800년)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죽왕면 편

향목리(香木里)

가진리(加津里)

공현진리(公峴津里)

오봉리(五峰里)

오호리(五湖里)

인정리(仁亭里)

구성리(九城里)

삼포리(三浦里)

야촌리(野村里)

송암리(松岩里)

문암리(文岩里)

마좌리(麻佐里)



죽왕면(竹旺面)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의 『간성지(杆城志)』(1633년경)에는 지금의 죽왕면이 왕곡방(王谷坊:고을 남쪽 15리에 위치)과 죽도방(竹島坊:고을 남쪽 25리에 위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어 『여지도서(輿地圖書)』(1757년)와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서는 왕곡면(旺谷面)과 죽도면(竹島面)으로 되어 있다. 1914년 4월 1일자로 왕곡면과 죽도면을 통합하여 죽왕면(竹旺面)으로 하였다. 죽왕면의 마을 변천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왕곡면[旺谷面, (古)王谷]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망곡리(芒谷里), 공수진리(公須津里), 가포진리(加浦津里), 갈도리(袞道里) 4개 마을로 되어 있다.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왕곡리(旺谷里), 공수진리(公須津里), 가진리(加津里), 갈도리(袞道里), 향목리(香木里) 5개 마을로 되어 있다. 특히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달리 왕곡리와 가진리의 명칭 변화가 나타나고 향목리가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간성군읍지』(김광우, 1748년 이후)에서는 왕곡리(旺谷里), 적동리(笛洞里), 향목리(香木里), 부진리(副津里), 가을도리(加乙道里), 봉호리(蓬壺里)와 <海津>에서 가포진(加浦津里)을, 그리고 <신증>에서 가진(加津)을 아름다운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봉호리가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의 <교정>에서 부진리는 ‘폐지’되었다고 하고, 갈도리는 ‘지금의 용포리(龍浦里)’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첨재>에서는 선유리(仙遊里)가 추가되었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서는 선유리(仙游里, 웃갈벌), 용포리(龍浦里, 아래갈벌), 향목리(香木里, 상나무말), 가진리(加津里, 덕포), 공수진(公須津), 장현리(帳峴里, 장막재), 금성리(錦城里), 왕곡리(旺谷里), 적동리(笛洞里, 적골)로 9개 마을로 되어 있다.

1914년 4월 1일 왕곡면과 죽도면이 폐합되기 직전의 왕곡면사무소는 선유리(仙遊里:지금의 동호리, 웃갈벌에 해당함)에 있었다.



관내도

(2) 죽도면(竹島面)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마좌리(麻佐里), 서파탄리(西破呑里), 오리진리(五里津里), 괘진리(掛津里), 보둘리(甫豆里), 황포리(黃浦里), 화정리(花井里), 감민당리(甘民堂里) 8개 마을로 되어 있다.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보두팔리(甫豆八里), 황포리(黃浦里), 감인당리(甘仁堂里), 화정리(花井里), 오리진리(五里津里), 서성리(西城里), 마좌리(麻佐里), 괘진리(掛津里), 석교리(石橋里) 9개 마을로 되어 있다.

『간성군읍지』(김광우, 1748 이후)에서는 마좌리, 서파리, 보두을리(甫豆乙里), 황포리, 화정리, 감민당리, 금포리(金圃里)의 7개 마을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에서는 기존의 마좌리, 서파리, 보두을리, 황포리, 화정리, 감인당리와 더불어 <교정>에서 서파리는 ‘지금의 서성리(西城里)’라고 하고, 보두을리는 ‘지금의 삼성, 무송’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첨재>에서 구둔(돈)리(九頓里), 금포리(錦圃里), 신정리(新亭里), 평촌리(坪村里), 순포리(筍浦里), 석교리(石橋里)가 추가되었다.

면목	남자	여자	합계
竹島面	2,130	1,892	4,022
元戶	1,951	1,815	3,766
郡內面	3,311	1,545	4,856

호구총수(戶口總數)

『수성읍지』(1897경)의 <교정>에서는 감인당리가 ‘지금의 평촌에 흡수’되었다고 하고, <첨재>에서 포월리(浦月里)가 추가되면서 ‘황포에서 분리’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지리지』에서는 평촌리(坪村里), 순포리(筍浦里), 포월리(浦月里), 황포리(黃浦里: 누른개), 삼성리(三星里), 무송리(茂松里), 금포리(錦圃里: 아래토성), 곡실리(谷室里: 뽕소?), 화정리(花井里), 서성리(西城里: 서파른), 구둔리(九頓里: 구두독), 마좌리(麻佐里: 마장이), 오리진(五里津: 오리나루), 괘진(掛津: 괘나루), 망포리(望浦里: 망개) 15개 마을로 되어 있다.

1914년 4월 1일 왕곡면과 죽도면이 폐합되기 직전의 죽도면사무소는 금포리(지금의 야촌리)에 있었다.

(3) 죽왕면(竹旺面)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간성군 왕곡면(旺谷面)과 죽도면(竹島面)을 병합하여 지금의 죽왕면(竹旺面)이 되었다. 통합 이후 죽왕면사무는 1916년 2월 5일 오리진으로 이전하였다. 죽왕면이 탄생하면서 다시 마을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행정구역명칭일람(강원도)』(1914년 4월 1일 현재)에 기록되어 있다. 죽왕면의 경우 향목리(香木里), 선유리(仙游里), 용포리(龍浦里), 가진리(加津里), 공수진(公須津), 장현리(帳峴里), 금성리(錦城里), 왕곡리(旺谷里), 적동리(笛洞里), 오리진(五里津), 감인당리(甘仁堂里), 화정리(花亭里), 마좌리

(麻佐里), 서성리(西城里), 구둔리(九頓里), 순포리(筍浦里), 포월리(浦月里), 황포리(黃浦里), 삼성리(三星里), 무송리(茂松里), 금포리(錦圃里), 곡실리(谷室里), 괘진리(掛津里), 망포리(望浦里) 24개 마을로 되었다. 특히 죽왕면이 탄생하면서 생긴 변화는 기존의 평촌리(坪村里)가 감인당리(甘仁堂里)로 되고, 화정리(花井里)가 화정리(花亭里)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의 인정리(仁亭里)가 탄생하게 된 기원이라 하겠다.

또다시 1916년 8월 1일 리동을 대대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24개 마을을 12개 마을로 통합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선유리와 용포리를 병합하여 동호리(東湖里)로, 공수진(公須津)과 장현리(帳峴里)를 공현진리(公峴津里)로, 금성리와 왕곡리, 적동리를 오봉리(五峰里)로, 감인당리(甘仁堂里)와 화정리(花亭里)를 인정리(仁亭里)로, 구둔(돈)리(九頓里)와 서성리(西城里)를 구성리(九城里)로, 망포리와 괘진리를 문안진리(文岩津里)로, 순포리와 포월리, 황포리를 삼포리(三浦里)로, 금포리와 무송리, 삼성리, 곡실리를 야촌리(野村里)로, 오리진(五里津)을 오호리(五湖里)로 폐합 및 개칭하고 마좌리, 가진리, 향목리의 지명은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마을 지명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1919년 5월 13일 죽왕면 동호리가 간성면에 편입되면서 죽왕면은 11개 마을로 축소되었다.

1919년 5월 15일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개칭되고, 죽왕면과 토성면 전체가 양양군(襄陽郡)에 편입되었다.

1945년 8.15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소재하여 북한의 통치영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양군 죽왕면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일로 법률 제1178호(1962. 11. 21. 공포)에 의거 양양군에서 고성군으로 환원되었다.

죽왕면 마을 명칭 변천표

시기 및 읍면별		마 을 명
1914.4.1 이전	旺谷面	仙遊里(웃갈벌), 龍浦里(아래갈벌), 香木里, 加津里, 公須津, 帳峴里(장막재), 旺谷里, 錦城里, 笛洞里 (9개리)
	竹島面	五里津, 麻佐里, 九頓里, 西城里, 三星里, 茂松里, 錦園里, 谷室里, 坪村里, 花井里, 筍浦里, 黃浦里, 浦月里, 望浦里, 掛津里 (15개리)
1914.4.1	竹旺面	仙遊里(웃갈벌), 龍浦里(아래갈벌), 香木里, 加津里, 公須津, 帳峴里(장막재), 旺谷里, 錦城里, 笛洞里, 五里津, 麻佐里, 九頓里, 西城里, 三星里, 茂松里, 錦園里, 谷室里, 甘仁堂里, 花亭里, 筍浦里, 黃浦里, 浦月里, 望浦里, 掛津里 (24개리)
1916.8.1	竹旺面	東湖里(선유리, 용포리), 香木里, 加津里, 公峴津里(공수진, 장현리), 五峰里(왕곡리, 금성리, 적동리), 五湖里(오리진), 仁亭里(감인당리, 화정리), 九城里, 麻佐里, 三浦里(순포리, 황포리, 포월리), 野村里(무송리, 삼성리, 금포리), 文岩津里(망포리, 괘진리) (12개리)
1919.5.13	竹旺面	香木里, 加津里, 公峴津里, 五峰里, 五湖里, 仁亭里, 九城里, 麻佐里, 三浦里, 野村里, 文岩津里 (11개리)
현재	竹旺面	香木, 加津, 公峴津1·2, 五峰1·2, 五湖1·2, 仁亭1·2, 九城, 三浦1·2, 野村, 松岩, 文岩1·2 (17개리) [麻佐里 미거주 마을 제외]

향목리(香木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간성읍의 탑동리, 북쪽에 간성읍의 동호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은 가진리가 연결되어 있다.

『호구총수』(1789)와 『간성군읍지』(김광우)에서 향목리의 지명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래 간성군 왕곡면(旺谷面)에 소속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약 700년 전 향목리 정(鄭)씨 선조께서 울릉도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 오면서 3본의 향나무를 가져와 상나무말(상남말), 향목리(香木里)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현재는 향나무가 없고 그 터(현재 박화실씨 집뒤)만 남아 있다.



향목리 마을 전경 ▼



- △ 갯-버덩이 : 바닷가에 위치한 들이다.
- △ 게목(갯목새) : 남천 하류 포구(浦口, 浦溝)를 말한다.
- △ 노평-골 : 가진 방향의 골짜기다.
- △ 구득-골 : 양짓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다.
- △ 남천(南川) : 고성군 간성읍을 중심으로 볼 때 간성 남쪽에 위치한 하천이라 하여 남천이라 부른다.
- △ 남천-평 : 남천가에 있는 들이다.
- △ 돌-고개 : 마을 남쪽 가진리 방향으로 작은 돌산을 의미한다.
- △ 둥둥바우 : 두드리면 둥둥 소리가 나는 바위를 말한다.
- △ 범-바우 : 향목리 노평골 산59번지에 있는 범바위는 크기가 15평 정도의 집채만 하고 옛날에는 이곳에서 범이 살아서 곧잘 주민들의 눈에 띄었으며 산림이 울창 하여 사람의 왕래가 없었던 곳이라 한다.
- △ 범바웃골 : 범바위가 있는 골짜기다.
- △ 상남-말(상나무말) : 향목리의 별칭이다.
- △ 진골 : 길게 생긴 골짜기다.
- △ 청-소 : 물이 푸른 소(沼)를 말한다.
- △ 큰서낭-고개(大城隍峴) : 상남말 남서쪽에 있는 큰 고개 마루터에 커다란 성황 나무와 성황당이 있었으므로 큰 서낭고개로 불려진다.
- △ 화합-송 : 지금은 없어졌으나 옛날에는 서낭고개에 큰 소나무 2그루가 있어서 이를 화합송이라 불렀었다.

가진리(加津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간성읍 탑동리, 남쪽으로는 공현진2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향목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택당 이식의 유고(澤堂先生遺稿) 『간성지(杆城志)』(1633 년경)에서는 <海津>편에 가포진(加浦津)이란 지명과 함께 마을에는 2개의 석봉(石峯)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곶(公須串: 선창고개가 있는 북쪽 석봉)이고 다른 하나는 성조곶(成造串, 공중바우가 있는 석봉)으로 서로의 거리는 5, 6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간성군읍지』(김광우, 1748 이후)의 [新證]에는 가진(加津)이란 지명과 함께 마을 봉우리 정상에 넓은 평지가 있고 수십간(數十間)의 담장벽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오래전 정자나 사찰의 터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그곳이 청간과 낙산의 명승에 뒤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서도 가진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1757)에는 왕곡면 가포진리로 관문 동쪽 7리에 있으며 57호(남자 90, 여자 206)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마을은 덕포(德浦)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부터 다른 항구보다 수산물이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덕이 많이 되었다 하여 약 100여 년 전부터 속칭 덕포(德浦), 덧포라 불렸으며, 또한 언덕 넘어 포구가 있다 하여 덕포(德浦)라는 주장도 있다. 덕포라는 지명이 문헌상 확인되는 것은 『조선지지자료』(1911)에서 가진리의 언문(諺文) 표기로 덕포라는 기록과 1911년에 측량되고 1913년에 제작한 일제강점기의 지도라 할 수 있다.

1916년 8월 1일 리동(里洞) 구역 및 명칭 개편 시에는 가진리(加津里)로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민간에서는 덕포라는 지명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가진리 마을 전경 ▼



- △ **덕포굴** : 1937년 12월 1일 개통된 간성-양양간 동해북부선 철도의 기차굴(터널)이며, 길이가 150여 미터쯤 된다. 1967년에 발간한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51쪽에도 “덕포굴(가진굴)”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에도 ‘덕포굴’로 명시되어 있고, 1960년대에 육군공병대가 작성한 <지방별지명조사철-고성군>에서도 ‘덕포굴’로 표기되어 있다.
- △ **고주-바우(高柱巖, 고재-바우)** : 가진항에서 서남쪽 1Km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바위는 크게 두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고 마치 탑을 쌓아 놓은 것처럼 돌들이 올라앉아 있다. 전형적인 토어(tor) 지형이다. 예전 가진항 조성 전 공현진으로 가기 위해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그 고개 바닷가에 있는 바위라고 해서 고재바우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소풍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고재바위에서 바다 쪽으로 더운바우와 해구바우가 있고 해구 바위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지만 발로 밟고 올라 설 수 있다. 또 고재바위 주위에 통바우, 사공바우, 큰손바우, 찌진바우라고 부르는 작은 바위들이 있었다고 한다.
- △ **(구)공동묘지** : 마을 북쪽 공장거리에서 동호리 해안가 방향으로 500m 구간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묘지들 사이로 해당화가 만발하던 곳이다. 해당화 밭이었다. 지금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해당화가 거의 사라졌다.
- △ **공장(거리)** : 마을 북쪽 새나리 고개를 넘어 바닷가 일대를 말하며, 일제강점기 정어리 공장이 있었던 장소다. 예전에 간성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던 곳이다. 한때 고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름해양훈련의 장소이기도 했다. 현재는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다.
- △ **공중-바우(空中巖)** : 가진리 마을 앞가산 서낭당 동쪽 바다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바위 사이에 틈이 있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구신작로** : 가진리 서편 1.5km 지점(공동묘지)을 통과하는 옛길이며, 지금의 7번국도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도로를 말한다. 1970년대까지 오봉리, 공현진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간성시장 및 중고등학교를 도보로 다녔던 길이었다.
- △ **굴-등** : 덕포굴이 있는 산등성이를 말한다.
- △ **굴-앞** : 덕포굴 남쪽 입구쪽을 말한다.
- △ **너래밭-골(노래박골)** : 마을 서편 2km 지점의 골짜기를 말한다.
- △ **대-섬** : 가진 북쪽 새나리 고개 넘어 공장(거리) 해변 앞에 가장 큰 섬이 있다. 대섬에는 장군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전한다. 대섬 앞에는 동글바위와 뽕죽바위가 있다. 대섬에서 바다로 조금 떨어진 곳에 섬바위가 있다.
- △ **대장-골** : 가진리 버스정류장에서 간성방향으로 오른편 골짜기를 말한다.
- △ **돌-고개** : 가진리 마을에서 향목리 방향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도깨비가 살았다는 설화의 장소이기도 하다.
- △ **동사터** : 예로부터 마을 사무소가 있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말에 학교(원)가 있었으며, 지금은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다.
- △ **뒷-버덩(後坪)** : 가진리 북쪽 향목리 방향의 넓은 들을 말한다. 예전에는 모두 밭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논으로 개간한 곳이 많다.

- △ **동글바우** : 공장거리 앞 바다에 있는 둥근바위를 말한다.
- △ **미끌바우** : 마을 앞 해변 중앙, 즉 앞불에 있는 바위로 ‘화바우’라고도 한다. 바위가 평평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끼(바다풀)가 많아 매우 미끄럽다.
- △ **민물구석** : 마을 앞 하천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데 그 주변을 민물구석 이라고 부른다. 민물구석 앞에는 말바위와 마당바위가 있다. 현재는 마당바위가 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있다.
- △ **밧가래(밧가리)** : 가진리 마을 남쪽 앞개울이 흐르는 들을 말한다.
- △ **범의 굴** : 옛날에 범이 살았다는 굴(구멍), 마을사람들은 ‘범에구영’이라고 말한다.
- △ **벼락-바우** : 고려 말기 무렵 양반집의 젊은 일꾼이 주인마님과 부정한 짓을 하다 발각되자 둘이 함께 도망가다 비를 피하여 이 바위 밑 동굴에 숨었었는데 하늘이 노여워했는지 바위에 벼락이 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현재 밑에 있던 동굴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아 있어 벼락바위라 부른다.
- △ **봉지-꼬뎡이** : 가진리 서편 높은 언덕을 말한다. 과거에는 교회가 있었고, 독가촌도 이 언덕 서편에 있었다. 지금은 언덕 위에 10여 채의 가옥들이 들어섰다.
- △ **봉화-대** : 옛날 통신수단의 일환으로 사용해 오던 봉화터가 마을 앞(가) 산에 있었는데 그 흔적만이 남아있고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옛터도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옛 기록에는 산 정상에 정자, 혹은 사찰의 터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 △ **사궁-바우** : 바위 모양이 사람처럼 생겼다.
- △ **새나리-고개** : 가진리 서북쪽 마을입구의 높은 고개를 말한다. 고개가 너무 심하여 진저리가 나는 고개란 의미가 있다고 한다. 마을 초상이 나면 행상(行喪)이 이 고개를 절대 넘지 않았다고 한다.
- △ **새마을(신촌마을)** : 가진리 6, 7반의 구역을 말한다. 1968년 해일로 조성된 마을이다.
- △ **선-바우** : 서 있는 바위다.
- △ **선창(선창)** : 가진 마을 북쪽 나루(포구)를 말한다. 지금은 군부대의 통제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나 1990년대까지 사용했던 작은 포구이다. 마을과 가까워서 한때 많은 어선들이 정박하던 곳이다.
- △ **선창-고개** : 선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 **첩-바우** : 마을 북쪽 포구(선창) 앞에 있는 대섬에서 바다 쪽의 작은 섬을 말한다.
- △ **신선암(神仙岩)** : 옛날에 신선이 놀았다고 한다.
- △ **신작로** : 7번 국도를 말한다.
- △ **앞-가산** : 가진리 마을 앞산을 말한다. 마을 서낭당이 있다. 옛 기록에는 산 정상에 정자, 혹은 사찰의 터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청간정과 낙산사에 뒤지지 않는 곳 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간성군읍지』(김광우)
- △ **앞-도랑** : 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다.
- △ **앞-바우(前巖)** : 새마을 동쪽 바다에 위치한 바위를 말한다.

- △ 앞-바우섬(前巖島) : 새마을 동쪽 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 △ 앞-불(땅) : 마을 앞 해변을 말한다.
- △ 운동장 터 : 마을 북쪽 공장거리 인근의 공동묘지 입구 넓은 공터를 말한다. 일제강점 말기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운동회 등을 열었던 장소다.
- △ 응-골 : 작은 응골과 큰 응골로 나뉘어진다.
- △ 진재등 : 가진리 버스정류장에서 서편 언덕 일대를 말한다.
- △ 집-골 : 옛날에 집이 있었다는 골짜기로 짓골새라고도 한다.
- △ 철다리 : 본 마을 남쪽에 동해북부선 철교가 있었다. 1960년대 초까지 철교가 존재했었다. 지금은 교각의 흔적만 남아 있다.
- △ 촛대-바우 : 고재바위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 생김새가 촛대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큰널기(-날기) : 큰 나루를 뜻한다. 가진리 남단에 위치한 포구로 높은 고개를 넘어야 닿을 수 있는 포구였다. 가진리 어부들은 큰 파도가 치면 이곳으로 어선을 피난시키곤 하던 자연적인 미항이었다. 지금은 항구 조성으로 자연지형이 변형되어 있다.
- △ 큰-말 : 1968년 새마을(신촌마을)이 생긴 이후 원마을을 '큰말'로 불렀다.
- △ 한사-골 : 마을 서북쪽 지역을 말한다.
- △ 해-바지 : 옛날에 햇불을 놓았던 골짜기다.
- △ 화-바우 : '미끌바우'를 말한다.
- △ 황평(黃坪), 버리골(伐梧洞坪), 오바우(烏岩沙) 등이 있다.<조선지지자료>

공현진리(公峴津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의 오봉1리, 남쪽의 오호1리, 그리고 북쪽의 가진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이식 선생의 『간성지(杆城志)』(1633년)의 <海津>에는 공수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수진(公須津)이란 지명이 나타난 것은 『여지도서』(1757)가 처음이다. 왕곡면 공수진리로 관문 동쪽 10리고 90호(남자 160, 여자 288)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공수진과 더불어 인근에 장현리(帳峴里, 언문표기로 ‘장막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공수진과 장현리는 1916년 8월 1일 공현진리로 마을 통폐합이 될 때까지 유지된 마을이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공수진리의 '공(公)'과 인근마을 장현리의 '현(峴)'을 합하여 공현진리(公峴津里)가 되었다.



공현진리 마을 전경 ▼



옛날 관청에서 경작하는 공수전(公須田 : 미역밭이 전해짐)이 있던 마을이라고 하여 공수진리(公須津里)라고 하였다고 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간성 현감 택당 이식이 선유담에서 작시한글에 "공수왕처세방회(公須往處勢方回)"란 글을 인용하여 속칭 공수진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와유록(臥遊錄)』에 수록된 <매향비(埋香碑)의 내용에는 '고성 사선봉(삼일포) 매향비'라는 글자와 더불어 '杆城 公須津 埋一百一十株'라고 기록되어 있다. 매향비란 향나무를 해안지방에 묻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둔 비석을 말하며 주로 불교의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강원도 편)에 "매향비(埋香碑)는 삼일포의 남쪽에 있다. 원 나라 지대(至大) 2년 기유(고려 충선왕 원년)에 강릉도 존무사(江陵道存無使) 김천호(金天皓) 등이 중 지여(志如)와 함께 향나무를 해변 각 고을에 묻고서, 그 묻은 곳과 가지 수효를 적어서 단서(丹書) 곁에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비문을 탁본한 내용에는 간성군 공수진에 110그루의 향목을 묻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공현진에는 선유담뿐만 아니라 매향지라는 유적지가 존재한다. 선유담 인근이나 바닷가 해안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향목을 매장할 때에는 '매향의식'이라고 하여 공동체적인 종교의례를 거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현진2리 마을 전경



- △ **가설목** : 선유담 계곡 끝 지점의 골짜기를 말한다.
- △ **고제-바우(鼓齊巖)** : 공현진 2리 북쪽 가진 방향 1km 지점에 있는 높은 바위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 △ **곰-바우** : 바닷물 가운데 있는 바위를 말한다.
- △ **공장거리** : 공현진 1리 남쪽 해안가 주변에 일제강점기 시기 정어리 공장 등이 있었던 곳이다.
- △ **깍정** : 선유담 계곡 옆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 △ **너래바우** : 예전 공현진 포구의 물밑이 평평한 바위로 되어 있어 선박의 출입이 용이했다고 한다.
- △ **노팽이** : 보릿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대보름산** : 마직길을 지나 넓은 분지로 갈대밭이 있었다. 마을 송계산(松契山)이 있는 곳이다.
- △ **돼지-바우** : 공현진 2리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생김새가 돼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둥글바우라고도 하였다.
- △ **동대골** : 공현진 새마음이 자리한 언덕 구릉지를 말한다.
- △ **둥글-바우(둥질바우)** : 둥글게 생긴 바위를 말한다.
- △ **뒷골(後谷)** : 장막재에 있는 골짜기다.
- △ **마직길** : 장막재 고개길을 따라 오봉 두백산(두배산) 기슭을 지나 탑동으로 통하던 길이다.
- △ **망재-고뎡이** : 망을 보기에 알맞은 바위를 말한다.
- △ **박첨지산** : 공현진초등학교의 뒷산이라고 한다.
- △ **박첨지-우물** : 박첨지가 땀다는 우물을 말한다. 예전에 공현진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있었던 큰 우물로 마을사람들과 학생들이 이용했다.
- △ **보릿골** : 선유담 계곡 입구를 지나 마을의 서북쪽 500m 지점에서 좌측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간다.
- △ **선유담(말근담이)** : 공수진 북서쪽에 있는 호수를 말한다. 신라시대에 사선(四仙)인 영랑(永郎), 술랑(述郎), 안상(安祥), 남석(南石)이 여기서 놀았다고 전한다. 예로부터 선비들이 자주 찾던 명소였다. 선유담 입구 바위에 ‘仙遊潭’이란 암각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어제창, 『미재집』) 선유담의 가운데 작은 산록에도 ‘仙遊潭’이란 암각문이 있다. 또한 여름이면 순채(蓴菜)가 가득하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정자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름은 가학정(駕鶴亭), 유한정(幽閑亭)이었다. 지금은 호수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잡초로 무성하다.
- △ **송림(松林)** : 선유담 바닷가를 따라 솔숲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이식의 『간성지』에서 간성군의 7군데의 송림을 소개하고 있다.
- △ **스뭇개-바우** : 일명 화채암은 공현진항 방파제 넘어 위치한다. 원래 섬이었는데 방파제 공사 때 바다를 메우기 위해 섬의 일부를 훼손하였고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옛날에는 화채꽃이 피었다고 해서 화채암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옛 선비들이 15~20명 정도가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방파제 공사 후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현재 전국적인 일출의 명소로도 알려진 곳이다. 사진작가들은 한 번쯤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당초 3개의 바위가 묶여 있다는 삼속도(三束島)이며 한글 표현으로 ‘셔뭇뒤’

에서 ‘스몇개’로 변형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1910년 발간된 『조선지지자료』에 당시 왕곡면 공수진 앞바다의 섬 이름 가운데 ‘삼속도(三束島 셔몇뒤)’라는 표기가 나오며 3개의 바위가 묶여 있다는 의미의 삼속도는 바로 일출 명소인 그 바위를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글 ‘셔몇뒤’에서 ‘스몇대’를 거쳐 ‘수몇개’로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옴-바우** : 공현진 2리 해수욕장과 가진항 사이 동쪽으로 약 100m 앞에 위치하고 있다. 옴바위는 오(다섯)와 섬(홍합)이 합쳐져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바위의 형상이 마치 풀이 옷을 입는 듯 체를 덮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옛날에는 물개들이 바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 **울모래(鳴沙)** : 공현진 1리 해안에서 송지호 해변에 이르는 모래밭을 말한다.

△ **작은 서낭** : 공현진 1리 새마을 옛 군부대 인근에 있었다.

△ **장막-재(帳峴, 帳幕峴)** : 공수진 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간성 원이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놀았다고 전한다.

△ **정거장 터** : 1937년 12월 1일에 개통된 동해북부선 공현진역(간이역)사가 있었던 터를 말한다. 지금의 한옥마을 앞이다.

△ **집념** : 집너미에 있는 들을 말한다.

△ **큰-골(큰골짜구, 大同坪)** : 공현진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군부대 있는 쪽을 말한다.

△ **큰 서낭** : 공현진초등학교 뒷산 아래 校舍 인근에 위치해 있다.

△ **학교터** : 1908년 근대 사립학교인 공명의숙(학교)[公明義塾]이 공현진 1리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한다. 작은 어촌마을에서 일찍 부터 근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은 마을의 큰 자랑이었다.

△ **한-배미(一夜坪)** : 공현진 서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화채암(畵彩巖)** : 공현진 마을 앞에 있는 스몇개 바위를 말한다.

△ **황새바우** : 선유담 건너편(북쪽) 산자락에 있는 바위로 황새처럼 생겼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마을의 기운을 꺾기 위하여 쇠못을 박아 놓았던 바위다. 1980년대에 마을 사람들이 쇠못을 뽑았다고 전한다.

△ 그 외 혼도골, 드령골 등이 있다.

오봉리(五峰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가, 서쪽으로는 구성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정2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공현진리가 인접되어 있다.

본래 왕곡면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지도서』(1757)에서는 망곡리(芒谷里)로 되어 있었으나, 『호구총수』(1789)와 『간성군읍지』(김광우)에서 왕곡리(旺谷里)로 되었다. 『여지도서』에서는 망곡리에 40호(남자 89, 여자 194)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간성군읍지』(김광우)에서 적동리(笛洞里)가 나타난다. 그리고 『조선지지자료』(1911)에서는 금성리(錦城里), 왕곡리(旺谷里), 적동리(언문표기로 적골) 3개 마을로 되어 있다. 금성리, 왕곡리, 적동리는 1916년 8월 1일 오봉리로 마을 통폐합이 될 때까지 유지된 마을이다. 『강원도간성군양안』(1903)의 기록을 보면, 금성리는 함(咸)씨가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왕곡리는 최(崔)씨가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 씨는 왕곡마을에만 살았으나, 함 씨는 금성리와 왕곡리에 나누어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왕곡리는 동학운동이 펼쳐진 장소이기도 하다. 1889년 동학 제2교조 최시형(崔時亨)이 몇 개월 동안 피신한 은신처(김하도 家)이기도 하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고 동학농민군이 금성리 함일순의 집에서 체류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오봉1리(왕곡) 마을 전경 ▼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금성리, 왕곡리, 적동리 3개 마을이 오봉리(五峰里)로 통폐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음산(五音山)을 주산으로 하여 뒷산[두백산頭伯山, 頭背山(뒷산)]이라고도 한다. 공모산(拱帽山), 골미봉(산)[골모봉(骨帽峰)], 순방산[脣(順)防山], 제공산[濟孔(山+齊崆)山, 馬山, 발도산], 그리고 호근산(湖近山, 갯가산, 높은 재) 등 5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오봉리(五峰里)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특히 오음산과 두백산 일명 뒷배재는 신생대 제3기 알칼리 현무암 분포지역으로써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산명의 한자는 왕곡마을 자료와 『조선지리지』를 참조하였다.)

오봉1리는 고려 말 두문동 72인 중 한 사람인 홍문박사 함부열(咸傳說)이 조선왕조 건국에 반대하여 간성으로 은거한 데서 연유되었다고 전한다. 그의 손자 함영근이 이곳 왕곡마을에 정착한 이후 함씨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에서 생활해 왔다고 전해진다. 이후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그의 후손인 양근 함(咸)씨(강릉 咸씨라고도 함)와 강릉 최(崔)씨가 주축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봉2리는 옛날에 옥황상제의 시녀인 외동선녀가 오봉뒷산에서 피리를 불었다고 하여 적동리(笛洞里, 적골)라고도 하였다. 적동마을 동남쪽 산중턱에 적곡사(笛谷寺)라는 자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들끓어 이 절이 망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가는-골 : 가늘게 생긴 골짜기를 말한다.

△ 가리밭-재 : 갈밭이 많았다는 골짜기를 말한다.

△ 골미(모)봉(骨帽峰) : 골무처럼 생겼다고 전하는 산을 말한다. 금성리에 있다고 한다.

△ 금성리 : 1916년 오봉리로 통합되기 이전의 옛 마을의 하나다. 주로 함씨가 살았다고 전한다.

△ 논-꼴 : 논이 많은 골짜기를 말한다.

△ 도방구미 : 왕곡에서 송호정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뚝볼-고개 : 뚝볼 인근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 뒷산, 뒤배씨-산(頭伯山, 頭背山) : 금성리에 있는 산을 말한다.

△ 뚝통-골 : 적골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뒷막-골 : 오봉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뚝-골 : 왕곡에서 한 고개 넘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뱅엇-다리(뱅엇다리) : 뱅어가 올라온다는 다리를 말한다.

△ 벼락-바우 : 벼락으로 갈라졌다는 바위를 말한다.

△ 부체-바우 : 부처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 삼밭-골 : 삼밭이 있었다는 마을을 말한다.

△ 송호정(松湖亭) : 송지호(松池湖)가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1959년 지어진 정자가 1996년 산불로 소실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지었다. 이곳은 한때 공현진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풍장 소이기도 했다.

- △ **숨방-골** (순방골, 順防谷) : 금성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썩고개** (蓬峴) : 적동리에 위치한 고개로 적골에서 화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 **오음산** 五音山 Oeumsan⁴¹ : 군의 죽왕면 공현진리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282m). 산의 남쪽으로 송지호가 있다. 정상에 올라가면 주위의 장현리·왕곡리·적동리·서성리·탐동리 등 다섯마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오음산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또한 산 밑에 선유담(仙遊潭)이 있었는데 신선이 이 산에서 오음육율(五音六律)을 즐겼다 하여 오음산이라 칭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을 남쪽 15리에 있다. 산마루에 못이 있는데 비를 빌면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군 남쪽 15리에 있는데 선유령(仙遊嶺)의 주맥으로 인제 경계에서부터 뻗어와 도량산(禱兩山)과 마주보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지리지』에는 왕곡면 장현리(帳峴里)에 있는 산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872지방지도』에는 읍에서 10리 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간역(淸澗驛)·청간정(淸澗亭) 등이 주위에 묘사되어 있다. 이식의 『간성지』에서도 오음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과 함께 도선(道詵)이 이 진산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 △ **왕곡** (旺谷)리 : 1916년 오봉리로 통합되기 이전의 옛 마을의 하나다. 오래전에 왕곡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강원도간성군양안』(1903)의 기록을 보면, 최 씨가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함씨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 △ **왕곡마을** : 현재 오봉 1리의 ‘왕곡마을’은 고려말, 조선초 이래 양근 함씨와 강릉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600년 세월을 정주해온 전통 있는 마을이다. 특히 19세기 전후에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과 초가집 군락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어 전통민속마을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0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되었다. 고성군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마을이다.
- △ **움묵-골** : 전에 우물이 있었다는 골짜기를 말한다.
- △ **작은 석쟁이** : 뒤통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적골1** (적동笛洞) : 옛날에 절이 있었다는 마을을 말한다. 옥녀가 뒷산에서 옥피리를 불었다고 전한다.
- △ **적골2** : 절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제공산** (山+齊崆山) : 금성리에 있는 높은 산을 말한다. 일명 재골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 △ **진-골** : 긴 골짜기를 뜻한다.
- △ **짐장-골** : 왕곡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큰골산** (大谷) : 골이 큰 산을 말한다. 적동리에 있었다.
- △ **한고개** : 왕곡에서 공현진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 **함배미** : 송지호 가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함장-고개** : 간성읍 탐동리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 **행개미** : 송호정 건너편에 있는 개를 말한다.
- △ **황토고개** (黃土峴) : 황토가 많은 고개를 말한다. 적동리에 있다.
- △ **황현** (黃峴, 누른고개) : 금성리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41)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699~700쪽

오호리(五湖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인정1리, 남쪽에는 삼포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에는 오봉리와 공현진리가 이웃하고 있다.

본래 간성군 죽도면에 소속된 마을이다. 『여지도서』(1757)에서 처음으로 오리진리(五里津里)라는 기록이 있다. 그 내용에는 관문 남쪽 20리에 위치하며 9호(남자 11, 여자 32)가 살았다는 기록도 나타난다. 『조선지지자료』(1911)에서도 오리진(五里津, 언문표기로 오리나루)으로 되어 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합으로 왕곡면과 죽도면이 죽왕면으로 통합 및 개칭되었다. 이어 1916년 2월 5일 죽왕면사무소가 오리진으로 이전하였다. 현재에도 죽왕면사무소가 유지되고 있다.

1916년 8월 1일 리동 통폐합시 오리진(五里津)을 오호리(五湖里)란 지명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상 오호1, 2리로 분리되어 있다.



▼ 오호리 마을 전경



옛날 마을근처에 송지호(松池湖), 금지호(錦池湖), 번개, 버덩개(野浦), 황포라고 불리던 다섯 가지의 개가 있어 오호리(五湖里)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200여 년 전 울산 쪽에서 송(宋) 씨가 올라와 초기 국도 7호선 서쪽에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며 비슷한 시기에 고 씨도 함께 들어왔다고 전하며 인정뜰(댐두르) 중심으로 주로 농사를 지었다. 현재 송지호해수욕장 일부는 옛날 염수밭이어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1996년 4월 23일 대형 산불로 인해 울창한 주변 송림이 크게 소실된 적이 있다.

- △ 개나릿강 : 동해 가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 거북-바우 : 송지호 해변 모래사장파 바다에 걸쳐져 자리 잡고 있다. 생김새가 거북이와 닮았다고 하여 거북바위 혹은 마당처럼 평평하다고 하여 마당바위라고도 부른다.
- △ 거문섬(흑도) : 빛깔이 검은 섬을 말한다.
- △ 고래-바우 : 송지호 해변에서 동쪽으로 약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파도가 치면 바위가 마치 고래가 물을 뿜듯이 보이며, 파도가 잔잔하면 고래가 수면 위로 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궁갯-다리(금계교) : 궁개에 놓인 다리를 말한다.
- △ 궁갯드랑(금계) : 면사무소 서쪽의 개를 말한다.
- △ 대-섬 : 죽도(竹島)를 말한다.
- △ 뒷개 : 마을 뒤 북쪽에 있는 송지호를 말한다. 앞개는 마을 남쪽에 있는 개로서 예전의 '오리포'를 말한다.
- △ 뒷갯-다리 : 송지호에 있는 다리를 말한다.
- △ 때섬-말 : 두 개울이 마주치는 삼각주에 있는 마을이다. 오리포 근처의 마을을 말한다.
- △ 문다지 : 문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 △ 범에-굴 : 마을 동쪽 등대가 있는 작은 산 넘어 부신대에 있는 굴을 말한다.
- △ 부선대(浮仙臺) : 부신대라고도 한다. 신라시대에 사선(四仙)이 놀았다고 한다.
- △ 부채-바우 : 부신대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마을 등대가 있는 산을 넘어 부신대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운수바위 옆에 있다. 일부에서 '서낭바우'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고성군 지질해설사에 따르면 서낭바위는 부채바우와 마주하고 있는 바위라고 한다.
- △ 상에머리 : 동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 새쪽-말 : 오호 중심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 서낭-바우 : 부채바위와 마주하고 있는 바위를 말한다. 그 곁에 서낭당이 있어 바위이름을 서낭바위라고 부른다.
- △ 소-섬 : 동해에 있는 섬이다.
- △ 송림(松林) : 송지호 바닷가를 따라 솔숲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이식의 『간성지』에서 간성군의 7군데(영랑호, 광호, 황포, 송포, 선유담, 반암, 화진포)의 송림을 소개하고 있다.

- △ 송지호(松池湖)[뒷개] : 오호리 북쪽에 있는 호수이고, 둘레가 15리 되는데 부근에 송림이 울창하다. 이 곳이 정거재(鄭巨載)라는 부자의 터 였는데 그가 스님을 하대하였기 때문에 그 스님이 이 땅 한복판에 쇠절구를 던져 물이 나와 호수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호수 서편 송호정(松湖亭) 정자가 있다.
- △ 송호교 : 송지호에 놓인 다리를 말한다.
- △ 신촌-말 :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 △ 오리진(五里津) : 오호리라는 마을 지명이 생기기 이전의 지명이다.
- △ 오리진주막 : 1900년경 오리진 마을에 있었던 주막(酒幕)을 말한다.
- △ 오리포(梧離浦/梧里浦) : 마을 남쪽에 위치하며 오호항과 연결되어 있다. 『간성지(杆城志)』에는 오리포(梧離浦)라는 지명과 함께 송호(松湖/송지호)에서 5리에 위치하며 주위가 5, 6리 정도이며 하류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 △ 오호교 : 금계교와 이어진 다리를 말한다.
- △ 오호등대 : 마을 동쪽 작은 산에 1958년 전후하여 설치된 등대를 말한다.
- △ 용-바우 : 용이 올랐다는 바위를 말한다.
- △ 우무리 : 동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 운수바우(자석바위) : 마을 동쪽 등대가 있는 산을 넘어 해안에 위치해 있다.
- △ 죽도봉수(竹島烽燧) : 대섬인 죽도에 봉수가 있었다고 전한다. 죽도봉수는 삼포리 봉수 터라는 주장도 있다. 이식의 『간성지』 <古跡>에서 고을 남쪽 20리에 있는 죽도봉수를 비롯하여 정양산(正陽山)봉수, 술산(戌山)봉수를 기록하고 있다.
- △ 죽도성지(竹島城址) : 죽도를 대섬이라고도 한다. 마을의 동북쪽 864m 떨어진 오호리 산 1번지에 있다. 토축 길이 약 360m이다. 태당 이식(李植 1584~1647)이 이곳에 현감으로 부임하였을 때 화살로 사용했던 전죽(箭竹)을 생산하기 위하여 주민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성지 남쪽에 용바위가 있는데 가뭄 때 개를 집어넣으면 부정을 피워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조선시대에 이 섬의 이름을 따서 죽도면(竹島面)이라고 하였다. 그 옆에는 소죽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 산천조에 ‘고을 남쪽 20리에 있는데 둘레가 2리 쯤 된다. 섬에 군영막사 옛터가 있으며 오동나무와 전죽이 그 위에 가득 나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식의 『간성지』 <古跡>의 ‘도진(島鎭)’에서 “죽도의 옛터에 관아(官衙)와 창고가 있다. 세간에 전하는 말로는 군수가 항상 여기서 적의 침입을 피했다고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주민들이 토끼를 키웠으나 수달피가 토끼를 다 잡아먹어서 그 이후로는 토끼를 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죽도의 경치도 좋고 민물도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밥도 해먹고 화전놀이를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 △ 짱치너메 : 마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 △ 흑도 : 거문섬을 말한다.

인정리(仁亭里)

위치는 동쪽으로 오호리, 서쪽의 구성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의 삼포1리, 그리고 북쪽으로 오봉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57년)에는 감민당리(甘民堂里), 화정리(花井里)가 등장하고 감민당리는 44호(남자 84, 여자 198)가 화정리는 33호(남자 55, 여자 194)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서는 감민당리가 감인당리(甘仁堂里)로 변화되고 석교리(石橋里)가 처음 나타나고 있으며, 화정리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에서 <첨재>에 평촌리(坪村里)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성읍지』에서는 감인당리가 평촌리에 통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평촌리(坪村里)와 화정리(花井里)로 되어 있다. 화정리는 이후 우물 정(井)이 정자 정(亭)으로 변경되었다.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에는 <첨재>에 신정리(新亭里)가 나타나고 있어 화정리와 관계된 마을이 아닌가 추정된다.



인정리 마을 전경 ▼



『강원도간성군양안』(1903)의 기록을 보면, 감인당리에는 윤(尹) 씨가 주로 살았고, 화정리에는 이(李) 씨가 주로 살았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감인당리(甘仁堂里)의 '인(仁)'자와 화정리(花亭里)의 '정(亭)'자를 따서 인정리(仁亭里)로 통폐합되어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현재 인정1, 2리로 분리되어 있다. 인정1리는 평촌과 석교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마을이다.

인정2리는 옛날 이 마을에 권(權)씨, 왕(王)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노비까지 차림새가 꽃같이 아름다운 데다가 사철 내내 마르지 않는 샘과 샘 주위에 꽃이 만발하여 지나가던 고승이 꽃우물(花井)이라 이름 지은 것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 우물은 지금까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 때도 항상 수위가 일정하여 마을에서 보존하고 있다.

△ **가재골** : 석교와 연접해 있는 골짜기다.

△ **개맨당-앞** : 인정리 남쪽과 삼포리 경계에 있는 들을 말한다.

△ **개치** : 개가 변하여 들이 되었다.

△ **건네-말** : 셋골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귀룡골** : 범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짝별에서 평촌가는 오른쪽 골짜기를 말한다.

△ **기와대** : 세거리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남상-바웃골** : 도방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내맨집고개** :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고갯길이다.

△ **높은-재(노판동, 호근산)** : 송지호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오봉의 하나이고 안장봉을 말한다.

△ **대꼬깔(죽변산竹弁山)** : 고깔처럼 생겼다는 산이며, 마좌리 인근에 있다.

△ **댐두루(竹島坪)** : 인정리, 오호리, 삼포리에 연접해 있는 평촌리의 넓은 들이다.

△ **도방-터** : 셋골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돌머루** : 양지말 앞에 있는 들이다.

△ **동사터** : 일제강점기부터 마을사무소가 있던 장소를 말한다.

△ **두릉-골** : 오봉리 오음산 줄기에 딸린 골짜기를 말한다.

△ **땀봉나드리** : 따로 떨어진 버덩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말바우** : 말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 **매-바우** : 매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산을 말한다.

△ **몬-산** : 오음산 남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 **물-꼴** :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를 말한다.

△ **바우-모퉁이** : 바위가 있는 들을 말한다.

△ **발링-골** : 오음산 줄기에 딸린 골짜기를 말한다.

△ **밤나무터 전설** : 연대와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령 7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밤나무가 있었는데, 옛날 9년 동안의 흉년에 뿌리만이 깊숙이 남아 있는 곳에 거지가 살다가 굶주림에 지쳐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전설이 있다.

- △ 배나뭇-골 : 도방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버들 밭 : 옛날 화전놀이 하던 곳으로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공현진 초등학교 소풍 장소이기도 했다.
- △ 범바우 : 범이 살던 곳으로 호환이 일어난 곳이다.
- △ 범젼-말 : 샛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 비행장 : 마을 한가운데에 있고, 한국전쟁 전후 군 비행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마을사람들의 운동장이고 휴식처다.
- △ 살구논 : 토박(土薄)하여 살구처럼 노랗다는 논을 말한다.
- △ 삼봉산(三峯山) : 봉이 셋인 산이다.
- △ 새잇골-안물 : 색골 안에 있는 우물이다.
- △ 샛-골 : 사이에 끼어 있는 마을이다.
- △ 서낭고개 : 작은 서낭고개는 오봉리와 경계지점에 있는 서낭고개이고, 큰 서낭 고개는 제공 산 아래에 있는 서낭고개다.
- △ 석교(石橋) : 돌다리가 있었던 마을이다.
- △ 세-거리 : 길이 세 갈래로 났던 곳이다.
- △ 솔-고개 : 샛골 서쪽에 있으며 인정2리와 구성리 경계에 있는 고개다.
- △ 쇠스랑골 : 쇠스랑처럼 생긴 산이다.
- △ 시루-바우 : 떡 찌는 시루와 모양이 같아 유명한 바위를 옛날부터 시루바위라고 불려왔다. 버들 밭 위 옛날 공동묘지가 있었다.
- △ 숙배기 : 쭈부다랭이가 많은 논들을 말하고 수령논으로 쇠스랑으로 모내기를 하던 논이다.
- △ 시리바웃-재 : 시루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산이다.
- △ 안장-봉 : 안장처럼 생긴 산이며, 산이 높아 높은재라고도 한다.
- △ 양지말 : 화정(花井)이 있는 마을이다.
- △ 에이비지릉 : 솔고개 우측에 있는 뽕죽하고 높은 산이다.
- △ 여리지록-골 : 치매산주령 밑에 있는 골짜기다.
- △ 웃서당(書堂) 아래서당(書堂) : 구한국시대로부터 인정리에 2개소 서당이 있었는데 웃서당은 큰서당이라 하고 아래서당은 초학서당이라 하여 인근 부락 학생들이 많이 다녀 공부를 계속 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이 서당 출신)했다. 한일합병 후 웃서당을 개량사숙으로 개편하여 지속하고 다시 보통학교로 승격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결국 현 죽왕학교 부지에 오호공립보통학교로 계속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죽왕초등 학교로 되었다.
- △ 인정-천 : 인정 앞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 △ 장구생이 : 옛날 ‘장구생’이 살았던 곳으로 짹별 위 버들 밭 아래다.
- △ 재궁-산 : 옛날에 묘막(墓幕)이 있었다는 산이다.
- △ 전나무배기-웅글 : 전나무가 있었던 인근의 우물이다.
- △ 중림1 : 범젼말모퉁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 중림2 : 개민당 위쪽에 있는 들이다.

- △ **중림사** : 죽왕면 인정리 속칭 죽림촌(竹林村)에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의 정확한 연대와 유래를 알 수 없었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 어른에게 물어본 결과 절의 이름이 중림사라고 알려 주었고 지금은 주춧돌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
- △ **쩍별** : 양지마을과 버들밭 사이에 있는 큰 들이고 작별이 많던 들이다.
- △ **치매산주령** : 치마폭처럼 줄이 선 바위를 말한다.
- △ **통사시미** : 세거리 동쪽에 있는 들이다.
- △ **평촌(坪村)** : 평야에 있는 마을이다. 인정1리가 되었다.
- △ **화산골** : 저수지가 있는 골짜기다.
- △ **화정(花亭)** : 현 인정2리. 이덕균 가옥 앞에 있는 우물이다. 화정(花井)이라고도 했다. 인정2리가 되었다.

구성리(九城里)

위치는 동쪽으로 인정 1, 2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쪽의 마좌리, 남쪽으로는 야촌리,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간성읍 선유실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여지도서』(1757)에는 서파탄리(西破呑里)로 표기되어 있고, 22호(남자 41, 여자 151)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1789)에서는 서성리(西城里)로 되어 있다.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에서는 구둔(돈)리(九頓里)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서성리(언문표기로 서파른)와 구둔리(九頓里, 언문표기로 구두독)로 되어 있다.



1916년 8월 1일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구돈리(九頓里)와 서성리(西城里)를 합하여 구돈리의 '구(九)'자와 서성리의 '성(城)'자를 따서 구성리(九城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9년 5월 15일에는 고성군에서 양양군으로 편입되어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가 되었다. 1963년 1월 1일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말엽 도공이 명당자리를 찾던 중 죽변산(대꼬깔) 아래 평탄한 지대에 금학포묘지형(金鶴抱卵之形)이라 하여 이곳에 와서 밭을 아홉 번 구르며 명당이라 하였기에 구돈리(九頓里)라 칭하였다고 전하며 마을의 산이 주위에 성같이 둘러싸여 있고, 또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서파리(西坡里)라고 부르다가 후에 다시 서성리(西城里)라고 하였다고 한다.

봉화 정씨(奉化 鄭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순흥 안씨(順興 安氏) 등이 오래전부터 거주하였다.

구성리 마을 전경 ▼



- △ 가래-골 : 아랫말 옆에 있는 골짜기다.
- △ 곱박골-고개: 터일 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 △ 관-터 : 아랫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 구둔(九頓) : 구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 터일(垚一, 대일) : 서성리에 딸린 작은 마을이다.
- △ 동숙골-고개 : 탑동리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 명우산(鳴牛山) : 조선 중엽 서기 1546년에 동네가 생기고 그 후 구성리(九城里) 앞 높은 산을 명오산(鳴鳥山)이라고 칭하였는데 조선 말엽에 와서 1905년경 오봉2리(적동 笛洞)의 용궁 김씨(龍宮 金氏)가 산소를 이 산 밑에 쓰고 부터 와우형(臥牛形)이라 하여 그들이 명우산(鳴牛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 △ 사태-골 : 관터 위쪽에 있는 골짜기다.
- △ 산다텃-골 : 유산(柳珊)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골짜기다.
- △ 삼봉산 : 인정리와 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 △ 새박-골 : 새(草)가 많았다는 골짜기다.
- △ 서낭당-골 : 현재 구성리 6반에 위치하고 있다.
- △ 서성(西城) : 『여지도서』에서는 서파탄리(西破呑里)로, 『간성군읍지』(김광우)에서는 서파리로, 『호구총수』(1789)에서는 서성리(西城里)로 되어 있다. 구둔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 서성산(西城山) : 옛날에는 여인의 치마폭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치마산이라 칭하여 오다가 조선 말엽 간성군 때에 고을(郡) 도읍지를 정하려고 하였으나 자산이 많아 좋지 않다고 하여 도읍지를 정하지 않고 간성(杆城)으로 옮긴 후 고을원이 서쪽에 자리 잡은 성 같은 산이라고 하여 서성산(西城山)이라 정하였다고 한다.
- △ 성죽-골 : 아랫말 옆에 있는 마을이다.
- △ 솔-고개 : 소나무가 있는 고개다.
- △ 아랫-말 : 구(舊) 동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 △ 적-골 : 터일 남쪽에 있는 골짜기다.
- △ 절터(寺址) : 구성리 마을에서 터일로 넘어가는 말바꾸미에 암자터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고려 때 그곳에 암자가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건립연대나 없어진 연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는 유물이나 유적은 없지만 절터로 적합한 지형만이 남아 있다.
- △ 지저박-골 : 아랫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다.
- △ 한개박-골 : 산다텃골 옆에 있는 마을이다.
- △ 그 외에도 승지골, 외미골(이상 1반 구역), 귀룽골, 발구골(2반 구역), 노루골(3 반), 모새골, 골(4반), 분두골, 한가박골, 째작골, 제리골, 우측골(5반), 쇠스랑골, 구리안골(6반) 등이 있다.

삼포리(三浦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구성리, 남쪽으로는 야촌리, 북쪽으로는 인정1리와 오호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본래 간성군 죽도면의 지역으로서 『여지도서』(1757)와 『호구총수』(1789)에서는 황포리(黃浦里)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의 <첨재>에 순포리(筍浦里)가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성읍지』(1897년경)의 <첨재>에서는 포월리(浦月里)의 지명과 함께 황포에서 분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1911)에서는 포월(浦月), 황포(黃浦, 언문표기 누른개), 순포(筍浦) 3개 마을로 나타나고 있다.

1916년 8월 1일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시 포월(浦月), 황포(黃浦), 순포(筍浦) 3개 마을이 삼포리(三浦里)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내도

삼포2리 마을 전경 ▼



『강원도간성군양안』(1903)의 기록에 보면, 순포리와 황포리는 어(魚) 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월리는 송(宋) 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항간에는 순포의 한자를 ‘蓴浦’, 혹은 ‘荀浦’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재 확인되는 문헌에는 모두 ‘荀浦’뿐이다. 순포 인근 산야 및 집 주위는 대나무가 무성하다. 그래서 죽순의 ‘순(筍)’일지도 모른다.

삼포리는 1, 2리로 구분되어 있다. 삼포 2리는 한일합병이 될 때까지 황포리(黃浦里)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小溜池)의 수면이 황색을 띠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984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국도변으로 이주해 현대식 가옥을 신축해 민박촌이 형성되었다.

△ **삼성당** : 삼포리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 **삼포교(三浦橋)** : 삼포리 구역에 있는 다리다.

△ **서낭바우-재** : 서낭바위가 있는 고개를 말한다.

△ **선-바우** : 마을의 서남쪽 300m지점에 위치한 바위로 여러 개의 바위가 달라붙어 있어 일명 입암(立岩)동이라고도 부른다.

△ **숙구지(宿古之)** :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숙고지주막이 있었던 곳으로 순포리다.

△ **개민당** : 순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오래전에 감민당(甘民堂)이 있었다.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인정리에 편입되었다가 그 후 삼포리에 편입되었다.

△ **골-말** : 포월 중에서 골짜기 부분을 말한다.

△ **골말-웅글** : 골말에 있는 우물이다.

△ **망개드루** : 황포리에 있다.

△ **범-바우** : 범이 내려왔다는 바위다.

△ **범바웃-재** : 범바위가 있는 고개다.

△ **봉수단(烽燧壇)** : 감인당 동쪽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 **봉수동(烽燧洞)** : 봉숫개(봉수동 밑에 있는 마을)라고도 한다.

△ **봉숫개** : 봉수동 참조

△ **봉화대** : 고려 때 통신수단의 일환으로 삼포리 산1번지 상상봉 해발180m에 직경10m(사방)의 돌담(성)을 쌓아(높이 3.5m) 현재 약 1m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아래 마을을 봉수동이라 칭하였고 마을 앞에는 호수(1ha)가 있으며 가물치, 붕어, 잉어가 번식하고 있어 한때 관광객의 낚시터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요즈음 높이 많이 매립되어 찾는 사람이 적다. 또 1996년 4월 23일 죽왕면 마좌리 부근에서 발생한 산화로 인해 이 일대의 송림이 전소되기도 했다. 1997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청동기 유물이 이곳 주변에 산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순포(筍浦)** : 1980년대까지 삼포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앞 개에서 순채(蓴菜)가 많이 났다고 한다.
- △ **아래-황포** : 황포 아래 마을이다.
- △ **연산-재** : 정월 보름날 달맞이를 하는 재(고개)다.
- △ **오리-말기** : 포월 앞에 있는 독을 말한다. (말기는 독이다)
- △ **오마장 줄별, 삼성당 앵두터 아랫들** : 들판 명칭이다.
- △ **원순포(元筍浦)** : 순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다.
- △ **월작보(月作淤, 월작이보)** : 포월리에 있었던 보다.
- △ **월짜기(월재기, 골월재기)** : 포월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다.
- △ **줄별** : 넓은 개 주변으로 줄(풀이름)이 많았다는 들이다. 포월 마을 앞에 있었다.
- △ **칠성대** : 죽왕면 삼포리 산1번지 동쪽 해변에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해발 60m의 칠성대가 있다. 옛날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날 칠성대에 올라가 복두칠성을 보고 절 세번하면 자식을 본다고 하여 칠성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상상봉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 △ **큰-말** : 포월 중에서 큰 지역을 말한다.
- △ **포월(浦月)** : 순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약 80년 전부터 마을 앞에 개(浦)가 있고 그곳에 달이 비추는 것이 매우 좋아 보이므로 포월이라 칭하여 왔다.
- △ **피양집-모퉁이** : 평안도에서 이사 온 사람이 사는 마을이다.
- △ **할미-바우[노고암(老姑岩)]** : 마을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한 바위가 마치 할머니의 허리처럼 굽어 있으며, 옆에는 손자인 듯한 바위가 손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붙어 있어 노고암(老姑岩) 또는 일명 할미바우라고도 하며, 삼포1리 주민 및 인근부락 주민들이 예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곳에 와서 자식을 낳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 △ **황포(黃浦, 누른개)** : 약 100년 전 이 마을 앞에 소류지가 있었는데 그 수면이 황색을 띠었다하여 황포라 칭하고 있다.
- △ **황포천(黃浦川)** : 황포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다.
- △ **호무-섬** : 논 매기가 끝난 다음에 농부들이 놀이를 하는 섬이다.
- △ **화전터(花煎-)** : 화전놀이를 하던 골짜기다.
- △ **흑석도** : 죽왕면 삼포리 산233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다. 면적은 약500㎡이며 삼포해변 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섬의 색깔이 검게 보인다고 해서 흑도 혹은 검은 섬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오호리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주변 해역에서 해산물 채취, 가리비양식, 정치망 조업을 하고 있다.

야촌리(野村里)

위치는 동쪽으로 송암리, 서쪽으로는 토성면 운봉리, 남쪽으로는 토성면 백촌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삼포2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본래 간성군 죽도면 지역이다. 『여지도서』(1757)에서 포둘리(浦斗里)는 관문 남쪽 25리에 위치하고 49호(남자 81, 여자 194)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간성군읍지』(김광우)에서는 보두을리(浦豆乙里)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금포리(金圃里)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간성군읍지』(고영희, 1884)의 <교정>에는 보두을리(浦豆乙里)를 ‘지금의 삼성(三星), 무송(茂松)’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 <첨재>에서 금포리(錦圃里)가 이전의 ‘金’에서 ‘錦’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삼성리, 무송리, 금포리(錦圃里), 곡실리(谷室里)의 4개 마을이 나타나고 있으며, 금포리의 연문표기를 ‘아래토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금포리, 삼성리, 무송리, 곡실리의 4개 마을이 통합하여 야촌리(野村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간성군양안』(1903)의 기록에 보면, 무송리는 함(咸) 씨가 주민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리는 김 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금포리는 김 씨와 함 씨 두 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내도

▼ 야촌리 마을 전경



옛날 송 처사라는 풍수가 이곳을 지나다가 소나무가 많이 무성한 곳에 정자가 있다고 하여 송정자라고 한 것이 지금의 솔공지이고, 마을 주위에 있던 청용산, 송정자, 거북산 등 세 곳의 산이 마치 별(星) 셋과 같다고 하여 삼성동(三星洞)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 △ 거북산 : 산 형태가 흡사 거북과 닮았다 하여 거북산이라 부른다.
- △ 고금-바우 : 바위가 험하여 이곳에 학질에 걸린 어린 아이를 데려오면 놀라서 학질이 떨어진다는 바위다.
- △ 곡실(谷室, 뽕소) : 옛날 산 계곡에 마을이 있었기에 곡실리라 하였다.
- △ 금천평보(金川坪湫) : 무송리에 있었던 보를 말한다.
- △ 금포(錦圃, 아래토성) : 야촌리에 있는 마을이다. 운봉리 마을과 인접해 있었다.(1913년 제작지도 참고)1914년 죽도면과 왕곡면이 통폐합되기 이전에 죽도면사무소가 있었다.
- △ 김청개 : 옛날에 개였다는 들이다.
- △ 나문개 : 야촌 남쪽에 있는 들이다.
- △ 나문앞 : 나문개 앞에 있는 들이다.
- △ 무송(茂松) : 야촌리에 있는 마을로 1916년 마을지명통폐합 이전까지 사용했던 지명으로 야촌리 남쪽 입구에 있었다.
- △ 삼성동(三星洞) : 야촌리의 옛 지명으로 1916년 마을지명통폐합 이전까지 사용했던 지명이고 야촌리 동쪽입구에 있었다. 옛날 부락 주위에 있던 청용산, 송정자, 거북산 등 세 곳의 산이 마치 별(星) 셋과 같다하여 삼성동이라 했다고 전한다.
- △ 오호국민학교(삼성국민학교) 터 : 수복 직후(1951년 전후) 야촌리에 오호국민학교(육군 공병대가 1960년대에 작성한 <지방별지명조사철-고성군>에서 삼성국민학교가 오호국민학교로 개칭했다고 되어 있다)가 개교하여 전쟁 중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당시 학교 교사(校舍)는 큰 기와집으로 개인 주택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한다. 1953년 전후하여 학생수가 급증하면서 지금의 오호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였다. 당시 피난민들이 송암리 일대에 집중된 상황이어서 양양군에서 오호국민학교가 가장 학급수(학생수 1천여명 이상)가 많았다고 전한다.
- △ 삼성당보(三星堂湫) : 삼성리에 있었던 보다.
- △ 서반월(西半月) : 야촌 앞에 있는 들이다.
- △ 솔공지(송정자) : 삼포리의 월짜기와 이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약200 연전 송처사라는 풍수가 이곳을 보고 소나무가 많이 무성한 곳에 정자가 있다하여 송정자(松亭子)라 한 것이 지금은 솔공지로 부른다. 옛날에는 이 부근의 부락을 송정동(松亭洞)이라 했다고 전한다.
- △ 솔미정 : 야촌리 초입에 있는 소나무 숲을 말한다.

송암리(松岩里)

위치는 동쪽으로 문암1리, 서쪽으로는 야촌리, 남쪽으로는 토성면 백촌리 그리고 북쪽으로 삼포2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송암리는 옛 문헌자료에는 없는 지명이다. 다만, 1937년 12월 1일 동해북부선 간성-양양간 철도가 개통되었고, 문암역이 지금의 송암리에 생기면서 인구와 물자의 교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문암역 관사의 일부가 남아 보존되고 있다.

옛날에는 오래된 소나무 1그루가 홀로 서 있다고 하여 독송정(獨松亭)이라고 했다. 1951년 이후 민통선이 삼포리에 설치되자 수천가구가 이 마을에 안착하게 되었고 행정구역 분할시 송암리(松岩里)로 되었다. 수복 직후 송암리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1955년에 송암시장 번영회가 운영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송암리 지명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1955. 7. 3.일자) 국도 7호선을 중심으로 마을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일부 4차로 확장으로 자작도 방면으로 집단 이주하기도 하였다.



▼ 송암리 마을 전경



- △ 외솔따배기(독송정, 獨松亭) : 외파로 소나무 정자가 서 있던 작은 마을이다.
- △ 송암시장 : 1953년 전후에 설립된 시장이다. 송암시장 번영회가 1955년 7월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3일과 8일에 시장이 열렸다고 한다.
- △ 정거장(문암역) 터 : 1937년 12월 1일 개통되었던 동해북부선 문암역사가 있었던 장소다. 현재 인근에 관사 관련 일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보존되고 있다.
- △ 문암역 관사 :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암역 터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두 개의 관사가 마주보고 있으며, 일부 보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문암리(文岩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야촌리와 북쪽으로 송암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토성면 교암리와 연결되어 있다.

『여지도서』(1757)에서는 괘진리(掛津里)는 관문 남쪽 30리에 위치하며, 82호(남자 99, 여자 277)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문헌에는 문암리에 관한 기록은 따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식의 『간성지』(1631)의 <山川>에 문암(門巖)이 나타나고 있다. 지명이 아니라 기이한 바위로 소개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1911)에서는 괘진(언문표기로 괘나루), 망포리(望浦里, 언문표기로 망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1916년 8월 1일 행정통폐합에 의하여 망포리와 괘진리를 통합하여 문암진리(文岩津里)라 변경하였다. 이후 다시 개칭하여 지금은 문암리(文岩里)로 되어 있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문암(門巖, 문바위)이 문암(文岩)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없다. 혹시 현재 문암 1리 바닷가에 있는 무선대(舞仙臺), 또는 문암 2리에 있는 옛 문인들이 즐겨 찾던 능파대(凌波臺)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만 할 수 있다.

마을 앞 개(浦)를 바라보는 마을이라 하여 망포리(望浦里)라 하며, 만호리, 괘진리(掛津里), 망개리 등에 대한 속칭들이 전해온다. 현재 문암리는 1, 2리로 분리되어 있는데 문암1리를 ‘문바위’, ‘망개’, 문암2리를 ‘괘나루’, ‘괘나리’ 등 별칭으로도 부른다.

1954년에 문암진리가 문암 1, 2리로 분리되었다. 망개는 문암 1리가 되었다. 마을은 7개 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앞불과 뒷불로 나뉜다. 6반은 따로 새마을(신촌마을)이라고 부르는데 1968년



해일 피해로 7반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고 옮겨와 살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현재 36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원래 굿당이 있었던 곳이다. 7반은 염전개 또는 동골이라고 불렀는데 예전에 소금을 만들던 곳이어서 염전개라고 불렀으며, 동골은 한국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몰려 살다보니 오물이 많아 동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6, 7반을 합해 뒷불, 5반은 버덩말, 1, 2, 3반은 앞불이라고 불렀다. 마을 앞에 개(浦)가 있고 개울을 바라보는 마을이라 하여 망개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괘진은 문암 2리가 되었으며, 그 경계를 보면 서쪽으로는 토성면 백촌리, 남쪽으로는 토성면 교암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고, 북쪽에는 문암1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1954년에 문암2리가 되었다. 마을이 하천 및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섬과 닮은 마을로서 연꽃형 마을이라고도 불러 왔다. 마을 옆으로 큰 하천이 흘러 수해를 입지 않고 해일파도가 일어도 작은 섬들에 항상 걸려 피해가 없다는 뜻에서 걸릴 '괘(掛)'자를 붙여 괘진(掛津)이라 불러왔다고 전해진다.

한편 문암 1리는 전설이 전해온다. 삼국시대에 신라 유민들이 들어와 어업과 농업을 겸업으로 하여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 군사들과의 싸움이 있었다. 이때 신라 장군이 죽은 자리에 난데없이 돌로 된 미륵동이 생겨났으며, 장군의 부인은 바닷가 미륵동 옆에서 밤낮을 슬피 울며 애통해 하다가 죽었다. 죽은 후에 부인의 혼(魂)은 뱀이 되어 미륵동을 지키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인은 유언으로, 나(뱀)를 해하지 않고 보살펴 주면 이곳 마을은 만호(萬戶)가 거주하여 온 주민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한때 이 마을을 만호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 문암1리 마을 전경



- △ **가달개방축** : 늪가에 있었던 방축 논을 말한다.
- △ **감투-바우** : 감투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 △ **공장거리** : 일제강점기 1940년대 전후 정어리 공장이 있었던 마을이다.
- △ **광대-바우** : 망개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 △ **괘나루뒷내물(掛津後川)** : 괘진 마을 뒤로 흐르는 개천을 말한다.
- △ **괘나루[괘진(掛津)]** : 문암2리를 말한다. 옛날에 관청에 공물을 바치던 곳이다.
- △ **괘도(掛島)**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 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죽도(竹島) 남쪽에 있다. 석봉(石峯)이 바다 가운데 높이 솟아 있으며, 사면이 둥글고 매끄러워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서로 그 위쪽에 등지를 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문암리(괘진)마을 앞 능파대 남쪽에 위치해 있다.
- △ **기섬** : 괘나리 앞에 있는 섬이다. 문암2리 포구에서 동쪽으로 약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부터 게가 많이 서식하여 기(‘게’의 방언)섬으로 불렸다.
- △ **능파대(凌波臺)** : 문암2리(괘진) 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병풍석으로 된 바위로 관광지로 유명하다. 능파대의 바위들은 지질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로부터 문인들이 즐겨 찾던 명소였다. 이곳에 시와 기록을 남긴 선인들로는 1589년에 강원도 관찰사 구사맹(具思孟), 1633년 경에 간성현감 이식, 1771년 이재 이의숙(李義肅), 순조 때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홍경모(洪敬謨) 등이 있으며, 홍경모의 「능파대기」에서는 바위에 새겨진 ‘凌波臺’의 글씨가 봉래 양사언의 글씨라고 밝히고 있다.
- △ **뒷망썰** : 바다에 나간 배가 이 산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산이다.

문암2리 마을 전경 ▼



- △ **든대-바우** : 방파제 공사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방파제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올리고 내릴 때 쓰던 기구를 든대라고 하는데, 든대바위와육지가 가까워서 든대를 놓고 해초류 작업을 하러 다녔다고 한다.
- △ **판섬머리(반월산)** : 반월산이라고 하는 들 가운데 있는 산이다.
- △ **망개[망포(望浦)]** : 망포, 문암1리를 말한다. 이곳에서 망을 보았다고 한다.
- △ **망개드루(望浦坪)** : 망개의 넓은 들을 말한다.
- △ **무선대(舞仙臺)** : 망포에 있는 것으로 옛날 사선(四仙)이 놀았다고 하고, 또한 임금이 와서 노는데 선녀들이 춤을 추었다고 한다.
- △ **문바우(門巖)** : 간성 현감 이식의 『간성지(杆城志)』(1631년)의 <山川>에서는 '군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석벽(石壁) 사이로 길이 있다 끊겼으므로 이름이 전해졌다. 수십 년 전에 한 승려가 낫자루 끝으로 이끼 위에 門巖이라는 두 글자를 썼는데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마을 지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 **문바우-터** : 예전에 돌문을 해 세웠던 곳이다.
- △ **문암 해안 약수터** : 문암1리 항구 방파제 옆 야산 밑에 위치한 샘으로서 이 물을 마시면 장수하며 특히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랜 옛날 신선이 내려와 춤을 추며 놀다 목이 마르면 이물을 마셨다는 전설도 있다.
- △ **문암천(門岩川)**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 『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토성천(土城川) 고을 30리에 있으며 근원지는 소파령(所坡嶺)이다. 냉천과 반석 등이 있어 아름다운 곳이다. 상류천은 모두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 **반월산(半月山)** : 판섬머리를 말한다.
- △ **방섬** : 포구에서 동쪽으로 약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섬(홍합)이 많이 서식했다고 한다. 섬이 마치 방석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방섬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큰 방섬과 작은 방섬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방섬 주변에는 미역성애, 곤포성애(다시마 서식지), 감장성애(수중금강산이라고도 부름)가 자리 잡고 있다. 어민들에게는 다시마, 섬 등 수산물이 풍부한 곳이고 감장성애 지역은 물속의 경치가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 **백도(흰섬)** : 죽왕면 문암진리 산22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4,248㎡로써 국유지이며 항구와의 거리는 약700m다. 일명 '흰섬'이라고 하며 해안에서 약5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항상 갈매기의 배설물로 덮여 섬 전체가 백색으로 보인다.
- △ **불췌당** : 민간신앙에서 여성의 신을 모신 산이다.
- △ **사공-바우** : 모양이 뱃사공처럼 생긴 바위로 된 섬이다.
- △ **삼형제등이** : 산의 등성이가 3개 가지런히 있는 산이다.
- △ **삼형제-바우** : 포구 동쪽 약50m 앞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 삼형제가 바다에 나간 부모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고 전한다. 사람들은 포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섬이라고도 부른다. 바위 일대는 예부터 어민들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 △ 서낭당 : 남자의 신을 모신 곳이다.
- △ 선-바우 : 마을 항구 뒤편 언덕 아래 자리 잡고 있다. 옛날부터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서 선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 △ 문암선사유적지 : 문암선사유적지는 지난 1998년과 99년 2차례에 걸쳐 유적발굴 조사를 한 결과 덧무늬를 사선방향으로 교대로 장식한 독특한 문양의 덧무늬형 토기 8점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집터 3기, 야외 노지 5기 등이 발견돼 2001년 국가지정 중요사적지 제426호로 선정됐다.
- △ 아이뎀-바우 : 마을 항구 뒤편 언덕 밑에 자리 잡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업은 것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아기를 업고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일대를 섬바우재라고도 부른다.
- △ 암서낭과 솟서낭 : 평상시 군부대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 그러나 3~5년마다 열리는 별신굿이나 정월 초사흘 제의 때에는 한시적으로 군부대 협의아래 들어갈 수 있다. 솟서낭은 성황신을 모신 곳으로 마을 뒷산에 있으며 암서낭은 북쪽 바닷가에 있다. 솟서낭에서 일차 제의를 한 후 암서낭에 가서 제의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남근에 치마저고리를 매달아 구멍에 끼워 넣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 △ 앞망재 : 바다에 나간 배가 이 산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
- △ 염전걸(거리)[뚝골] : 한국전쟁 뒤에 새로 생긴 마을이며, 예전에는 염전이 있었다고 한다. 피난 당시 오물이 많다 하여 뚝골이라는 속칭이 붙었다.
- △ 자마석 : 바다 안에 있다는 바위다.
- △ 자작도 : 마을 해변에서 북쪽 약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큰 자작도와 작은 자작도가 10m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해변 앞쪽에 자리 하고 있으면서 나지막한 작은 돌로 이루어져 자작도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바위가 낮아서 재재기라고도 부른다.
- △ 작은 방섬 : 능파대 옆에 있는 섬이다.
- △ 작은 힌섬 : 새뚱으로 빛깔이 하얗게 된 작은 섬이다. 문암2리 마을 앞에 위치해 있다.
- △ 장군-바우 : 모양이 옛날의 장군처럼 생겼다는 바위다.
- △ 재재기 : 삼형제 바위 옆에 있는 섬이다. 자작도를 말한다.
- △ 칼고지꼴 : 모양이 칼처럼 생긴 산이다.
- △ 쿵쿵-바우 : 마을 내항 물량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공사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 바위 사이를 바닷물이 오가면서 쿵쿵 소리를 냈다고 한다.
- △ 큰 방섬 : 능파대 옆에 있는 섬이다.
- △ 큰 자작도 : 죽왕면 문암리 산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면적 10,276㎡이다. 낮은 무인도로 경관적, 자연 생태적 특이성은 없으나 인접한 백도에 서식하는 가마우지 등 조류의 휴식처로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큰 힌섬 : 새뚱으로 빛깔이 희게 된 큰 섬이다.
- △ 할미-바우 : 망개에 있는 바위다.
- △ 황새-바우 : 힌섬 부근의 바위다.

마좌리(麻佐里) - 주민 미거주 마을

본래 간성군 죽도면에 편제된 마을이다. 『여지도서』(1757)에서 처음 지명이 등장한다. 관문 남쪽 30리에 위치하고 11호(남자 21, 여자 23)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마좌리의 언문표기를 ‘마장이’로 하고 있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서도 마좌리는 지명의 변동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로부터 ‘마전’, ‘마장이’라고 불려왔다. 일설에는 조선시대에 말을 먹였다고 전한다. 또한 마을 뒤 마산에 위치하여 ‘마좌리’라고 한다고도 전한다. 예로부터 웅장골, 가래골, 직수바웃골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마을은 1983년 10월 5일 군부대 주둔으로 19가구에 남자 43명, 여자 38명 등 모두 81명이 집단 이주한 마을로써 현재 민간인이 살지 않는 사라진 마을이다.



- △ 가래-골 : 마장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 구둔-고개 : 서성리의 구둔으로 가는 고개다.
- △ 마장이 : 마좌리
- △ 마쟁이 고개 : 서성리로 가는 고개다.
- △ 마전(麻田) : 마좌리
- △ 웅장-골 : 마쟁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 대꼬깔(죽변산, 竹弁山) : 마좌리의 높고 뾰족한 산을 말한다. 산의 형태가 중(僧)이 쓰고 다니는 대(竹)로 만든 꼬깔(弁)같이 생겼다하여 죽변산 또는 대꼬깔로 부르고 있다.
- △ 직-소 : 수직으로 되었다는 소를 말한다.
- △ 직소-바위 : 직소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 △ 직소바웃-골 : 직소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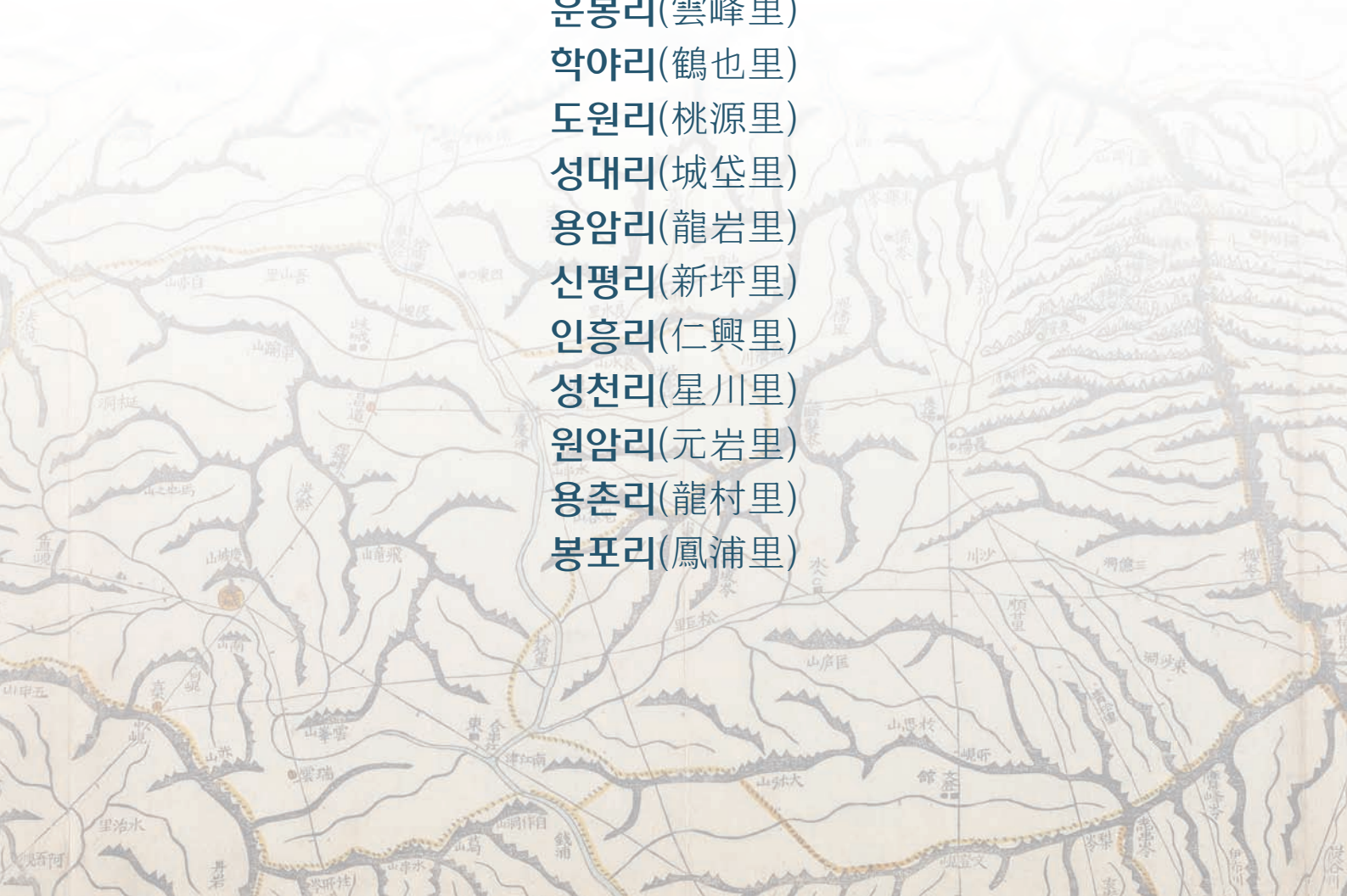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토성면 편

천진리(天津里)
청간리(淸澗里)
아야진리(我也津里)
금화정리(錦花亭里)
교암리(橋岩里)
백촌리(栢村里)
운봉리(雲峰里)
학야리(鶴也里)
도원리(桃源里)
성대리(城堡里)
용암리(龍岩里)
신평리(新坪里)
인흥리(仁興里)
성천리(星川里)
원암리(元岩里)
용촌리(龍村里)
봉포리(鳳浦里)



토성면(土城面)

옛 토성(土城)이 있던 면(面)이므로 토성면(土城面)이라 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토성리(土城里), 학야동리(鶴野洞里), 원기리(院基里), 동노동리(東老洞里), 인각리(仁角里), 원암역리(元巖驛里), 장천리(獐川里), 사야지리(沙也只里),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 고백진리(古栢津里), 광포리(廣浦里), 건진리(乾津里), 청간역리(淸澗驛里), 관항진리(館項津里), 군선구미진리(群仙仇味津里), 아야구미진리(阿也仇味津里), 교암진리(橋巖津里), 백촌리(栢村里)를 관할했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토성리(土城里), 학야동리(鶴也洞里), 원대리(院垞里), 동노동리(東老洞里), 인각진리(仁角津里), 광포리(廣浦里), 청간역리(淸澗驛里), 백촌리(栢村里), 고백진리(枯栢津里), 아야구미리(阿也仇味里), 군선구리(群仙仇里), 건진리(乾津里), 교암리(橋巖里)를 관할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에는 운봉리(雲峰里), 학야동(鶴也洞), 신평리(新坪里), 토기점리(土器店里), 행도원(杏桃源), 원대리(院垞里), 백촌리(栢村里), 금화정(錦花亭), 아야진(我也津), 용암리(龍巖里), 성남리(城南里), 신대리(新垞里), 광포리(廣浦里), 봉현리(鳳峴里), 용포리(龍浦里), 사촌리(沙村里), 인각리(仁角里), 장흥리(長興里), 풍곡리(豐谷里), 성천리(星川里), 교암리(橋巖里), 청간리(淸澗里), 천진리(天津里), 장천리(獐川里), 사진리(沙津里), 원암리(元巖里), 토교리(土橋里) 등 27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토기점리를 학야동(鶴也洞)으로, 금화정을 아야진(我也津)으로 각각 편입하고, 성남리와 신대리를 병합하여 성대리(城垞里)로, 행도원과 원대리를 합하여 도원리(桃源里)로, 광포리와 봉현리를 병합하여 봉포리(鳳浦里)로, 용포동과 사촌리를 병합하여 용촌리(龍村里)로, 인각리, 장흥리, 풍곡리를 병합하여 인흥리(仁興里)로 각각 신설하고 토교리를 원암리(元巖里)에 편입하여 17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9년 5월15일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개칭되면서 양양군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8.15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소재하여 북한에 예속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권에 들어온 후 1963년 법률 제1178호에 의거 양양군에서 고성군으로 환원되었고, 1973년 행정



구역 조정에 따라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에 예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행정구역상 아야진7리를 금화정리(錦花亭里)로 변경하였고, 『고성군지(高城郡誌)』의 한자 마을명 도원리(桃院里) 표기를 『조선지리지』 근거로 도원리(桃源里)로 고쳤다.

토성면 마을 명칭 변천표

시기 및 읍면별		마 을 명
1914. 4. 1 이전	土城面	雲峰里(웃토성), 鶴也洞(핵골), 杏桃源, 院垌里(원터), 城南里(동녹골), 新垌里(셋터), 栢村里, 橋巖里(다리바우), 錦花亭, 我也津(애금이, 龜岩里), 淸澗里(群仙里), 龍巖里(장새미, 間淸澗), 新坪里(새말), 天津里(건나루), 廣浦里(枯栢津), 鳳峴里, 沙村里(촌모래기), 沙津里(나루모래기), 仁角里, 長興里, 星川里(슈자벌), 豐谷里, 元巖里, 獐川里, 龍浦洞, 土器店里(즘말), 土橋里(흑다리, 원암리에 속함) (27개리)
1914. 4. 1	土城面	雲峰里, 鶴也洞, 杏桃源, 院垌里, 城南里, 新垌里, 栢村里, 橋巖里, 錦花亭, 我也津, 淸澗里, 龍巖里, 新坪里, 天津里, 廣浦里, 鳳峴里, 沙村里, 沙津里, 仁角里, 長興里, 星川里, 豐谷里, 元巖里, 獐川里, 龍浦洞, 土器店里 (26개리)
1916. 8. 1	土城面	鶴也里(학야리, 토기점리), 桃院里(행도원, 원대리), 我也津里(아야진, 금화정), 城垌里(성남리, 신대리), 鳳浦里(봉현리, 광포리), 龍村里(용포리, 사촌리), 仁興里(인각리, 장흥리, 풍곡리), 元岩里(원巖리), 橋岩里(교巖리), 龍岩里(용巖리), 章川里(獐천리), 雲峰里, 栢村里, 新坪里, 淸澗里, 天津里, 沙津里, 星川里 (18개리)
현재	土城面	天津1·2, 淸澗, 我也津1·2·3·4·5·6, 錦花亭, 橋岩1·2, 栢村, 雲峰, 鶴也1·2, 桃源1·2·3, 城垌1·2, 龍村1·2, 龍岩1·2, 新坪1·2, 仁興1·2·3, 星川, 元岩, 鳳浦 (33개리)

천진리(天津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신평1리, 남쪽으로 봉포리, 북쪽으로 청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옛날 마을의 여삼평(汝三坪) 들판에서 거주했는데 바람이 세고 반농반어를 목적으로 점차 해변으로 옮겨 현 위치에 집단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초 '건진리(乾津里)'로 불렸으나 잦은 천재지변(天災之變)으로 곤경에 처하자 '건(乾)'자는 마른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으므로 조선 말엽 천진(天津)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풍림(천진솔밭)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1970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은 천진1리, 천진2리로 나누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전에는 토성면 소재지 마을로써 1리가 마을 중심이었는데 2리에 면사무소와 토성농협, 천진초등학교 등 위치하면서 중심이 옮겨갔다.



천진리 마을 전경 ▼



1980년 초에는 어촌계원 70여명과 어선 40여척 정도였으나 2015년 말 어가 24호, 어촌계원은 27명으로 예전 오징어잡이 어선의 해난사고 이후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마을 안에는 1925년 4월 1일 천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고 1951년 9월 28일 천진국민학교가 되었다가 개칭한 천진초등학교가 있다.

Ⅰ 천진 1리 Ⅰ

- △ 뱀-골 : 너삼평 좌측골
- △ 방죽-골 : 갯골아래
- △ 거북-바우 : 바닷가 쪽 거북이 모양바위
- △ 서낭-바우 : 서낭으로 섬겼다는 바위.
- △ 섬-바우 : 곡식 담는 섬처럼 생긴 바위.

Ⅰ 천진 2리 Ⅰ

- △ 마을 뒷솔밭 :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이장복이란 사람이 16세 되던 해에 해마다 계절풍으로 불어오는 심한 바람을 막기 위해 마을 방풍림으로 심은 나무가 지금까지 울창하게 자라 여름이면 주민들 휴식처이며 오가는 이들이 쉬어가는 좋은 휴식처가 되었다.
- △ 뱀-골 : 너삼평 좌측 골짜기
- △ 갯-골 : 천진초등학교 뒤 천진호 골짜기, 개골 또는 재골이라고도 한다.
- △ 방축-골 : 개골
- △ 너삼-평(여삼평 汝三坪) : 마을 위 들판
- △ 개-안 : 개편에 있는 들.
- △ 노산-버덩 : 천진리에 있는 들.
- △ 모자-바우 : 모자처럼 생긴 바위.(인흥, 천진, 신평의 경계위치. 현재 골프장에 있음)
- △ 시루-바우 : 시루처럼 생긴 바위.(인흥, 천진, 신평의 경계위치. 현재 골프장에 있음)
- △ 천진호 : 제생병원 옆에 있는 석호로써 순채 등 희귀 수생식물 서식지로 관리가 필요하다.

청간리(淸澗里)

위치는 동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용암 2리, 남쪽으로 천진리, 북쪽으로 아야진6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청간역(淸澗驛)이 있었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부터 '군선리(群仙里)'라고 불려 왔다고 하며 옛 주민들은 현 청간리(淸澗里) 서쪽 안터평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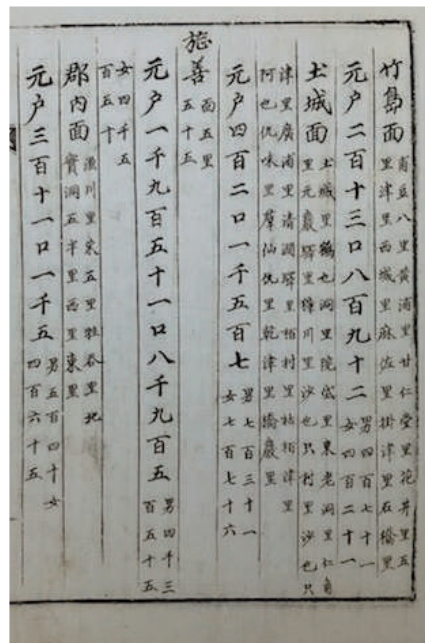
현재 청간리 청간정(淸澗亭)이 있는 산 및 해변에는 옛날 궁창(창고) 및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하며 군부대가 주둔지를 옮긴 후 주민은 새청간이라 부르는 안터에서 해안가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하는데 현 마을명은 그 이후 청간정 건립과 함께 청간리(淸澗里)라 불려 왔다고 한다.



청간리 마을 전경 ▼



- △ 청간정(淸澗亭) : 관동팔경 중 수일경(秀一景)으로 처음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종 15년(1520)에 군수 최청이 고쳐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 21년(1884) 갑신정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928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 △ 청간천(淸澗川) : 신선봉에서 발원한 지류가 신평리와 성대리, 용암리를 굽이돌아 동해로 흐른다.
- △ 노적-봉 :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간정의 산봉우리에 접하고 있다. 옛날부터 낚자리 쌓아 놓은 것과 모양이 같다고 하여 노적봉이라 하였다 하며 옛날에는 봉우리 뒤에 정자가 있어 노인 및 마을 사람들의 놀이터 노릇을 하였다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 자리에서 낚시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 △ 학산(鶴山) : 학(鶴)이 무리지어 서식 하던 곳, 머리 부분에 서낭당이 있던 곳 인데 도로 개설로 산맥이 끊어지면서 마을에 인제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 △ 안-터 : 청간다리 위, 옛날 역원(驛院)이 있던 곳
- △ 뒷-골 : 한전 위 골짜기
- △ 개-안 : 청간리와 천진리 사이의 들판
- △ 염전거리 : 일제강점기 염전 하던 곳. 현 아파트 위치
- △ 중보(仲湫) : 청간 다리 위에 있던 보(湫)
- △ 갈매기-바우 : 갈매기가 잘 앉는 바위.
- △ 나루 청간 : 청간 남쪽 나룻가에 있는 마을.
- △ 진-바우 : 기다랗게 생긴 바위.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
- △ 씹-바우 : 아야진 청간 사이 물밑에 있는 미역바위로써 마을 미모의 처녀를 데려오기 위해 당초 아야진 소유의 바위를 마을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 △ 너래-바우 : 작살개 남쪽에 있는 넓적 바위



호구총수(戶口總數)

아아진리(我也津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도원 3리, 남쪽에 청간리, 북쪽에 교암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옛 조상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을 속칭 명을 구암리(龜岩里)로 불러왔는데 아아진 등대에 위치한 바위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하여 거북 '구(龜)'자와 바위 '암(岩)'자를 써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그 후에는 애기미로 애칭되고 있다.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는 구암리(龜巖里)로, 마을에 정석(鼎石), 구암(龜巖), 노적암(露積岩), 고양이바위(猫岩), 쥐바위(鼠岩) 등 있고, 1884년 강원도지사 황춘파(黃春波)가 지은 아아정(我也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지도서』에는 아아구미진리(阿也仇味津里)로 기록하고 있고, 『조선지지자료』에는 '이금이'로, 보명(湫名)으로 이릉개보(芮林浦湫), 포구명(浦口名)으로 애기미포구(我也津浦口), 자근애기미포구(小我也津浦口)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1900년경 아호리(鵝湖里)라고 불렀다.



아아진1-3리 마을 전경 ▼



한편, 아야진으로 부르게 된 동기는 현재의 아야진6리 교회로 접하는 아야진에서 교암으로 넘어가는 산(山)형태가 잇기'야(也)'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우리라는 뜻을 포함, 아야진(我也津)으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전형적인 어촌마을로써 1955년 7월 1일 분할되어 아야진을 1, 2, 3리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행정구역 조정으로 1972년 7월 1일부로 1, 2, 3, 4, 5, 6리로 분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조선시대 방랑시인 김삿갓⁴²의 마을 포구에 머물면서 지은 한시(漢詩)가 당시 대부였던 이근철(李根鐵) 고가(古家)에 발견되었다.

마을 어귀에는 이근철영세불망비(李根鐵永世不忘碑)가 있는데 1840년(헌종 6년) 대기근 때 마을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이근철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70여 호였으며 방파제가 만들어져 어항 규모를 갖추고 청어를 많이 잡았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마을의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다.

수복 이후 1955년 아야진어업조합이 처음 결성되었고, 지금은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아야진지점으로 변경되어 어업인들의 수산물 위탁판매와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아야진4-6리 마을 전경



42) 본명 김병연(1807~1863), 호는 난고(蘭皐), 속칭 김삿갓 혹은 김립(金笠), 자는 성심, 선천부사 김익순이 흥경래에게 항복한 것을 비판한 글로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으나 후에 조부(祖父)라는 사실을 알고 20세 무렵부터 벼슬을 버리고 전국을 방랑하며 권력자와 부자를 풍자하고 조롱한 한시(漢詩)를 남겼다..

- △ 노랑-대 : 노랑대라는 고기가 많이 나서 노랑대라고 부른다.
- △ 사천성에 : 물밑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짬이라고 불렀다.
- △ 검정성에 : 어선들이 조업하기 위해 암초의 이름을 검정성에라고 지었다.
- △ 아귀-바우 : 아귀의 입을 벌려 놓은 형상을 하여 아귀바위라고 부르며 아갈바우라고도 한다.
- △ 멩에-섬 : 전복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Ⅰ 아야진 1리 Ⅰ

- △ 거북-바우 : 아야진 등대에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현재 방파제를 연장해 만들어 이 바위가 없어졌다.
- △ 호랑이굴-바우 : 먼 옛날에 호랑이가 내려와 놀다 갔다고 해서 바위이름을 호랑굴 바위라 칭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호랑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존되어 있다.
- △ 봉잇-재(보이재) : 아야진1리 등대 아래부터 호랑굴까지 이어지는 백사장, 옛날 봉화를 놓던 자리.
- △ 자마석 : 거북바위 근처에 있었음.

Ⅰ 아야진 3리 Ⅰ

- △ 이른-개 : 마을 서쪽 도원3리 앞 들
- △ 넘너-꼴 : 마을 위 골짜기
- △ 쪽다리 : 마을 앞 다리

Ⅰ 아야진 6리 Ⅰ

- △ 작살개 : 현재 아야진6리 어판장에서 조선소에 이르는 지역으로 옛날 이곳에 자갈과 모래가 많았으며 한적하고 위험하다고 하여 '작살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고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이 작살 형국이라는 설도 있는데 언제부터 작살개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청간리와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여름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화정리(錦花亭里)

위치는 동쪽으로 교암리, 서쪽으로는 도원3리, 북쪽으로는 백촌리, 남쪽으로는 아야진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마을 안 우물 주변에 꽃이 피어 있다고 하여 금화정(錦花井)이라고 하였으나 마을 정자 주변에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하여 금화정(錦花亭)이라고 하였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아야진리(我也津里)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행정구역 개편 시 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상 아야진7리였으나 1997년 8월10일 금화정리(錦花亭里)로 개칭되었다.



▼ 금화정리 마을 전경



교암리(橋岩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백촌리, 남쪽에는 아야진리, 북쪽에는 문암리가 위치하고 있다.

『여지도서』에는 교암진리(橋巖津里)로 기록하고 있고 간성군읍지와 조선지지자료 등에는 교암리(橋巖里)로 기록하고 있다.

옛날 지명은 ‘대리바우’라고 한다. 마을 양쪽으로 개천이 흘러 다리가 두 개가 있고 마을 앞 바다에는 바위가 많고 다리와 바위가 있다고 해서 ‘대리바우’

라고 한 것이다. 천학정 산(서낭산) 기슭으로 도로가 놓여 있었으며 산길 중간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어 통행함에 따라 속칭 다리바위로 불렸다고 하는데 1972년 7월 1일 교암리(橋岩里)가 교암1, 2리 분할되었다.



교암리 마을 전경 ▼



황(黃) 씨와 윤(尹) 씨가 마을에 먼저 들어오고 그 후에 한(韓) 씨가 들어와 번성했다고 한다. 육상과 해상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장이 크게 섰다고 한다. 옷장 거리장과 아랫장 거리장이 있었는데 옷장 거리장이 더 규모가 크고 6일장으로 아랫장 거리는 우시장도 섰다고 한다. 동해안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깊어 큰 배가 정박할 수 있었고 미시령과 섯령을 통해 영서지역과 쉽게 오갈 수 있었던 것이다. 기차를 이용해 청어와 미역을 북쪽으로 실어 날랐고 배를 이용해서는 함경도, 원산 등으로부터 의류, 신발, 생필품 등을 마을로 들여왔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간성, 속초, 대포 장으로 옮겨 판매가 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수산업이 성했던 지역으로 동해안에서 청어가 제일 많이 잡힌 곳이다. 청어 잡이는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또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암은 미역을 많이 채취했다고 한다. 미역은 교암리 앞바다에 있는 먼섬, 앞섬 주위에서 많이 낚다. 미역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미역 채취를 하지 않는다.

Ⅰ 교암 1리 Ⅰ

- △ **대리-바우** : 한자 교암(橋岩)의 훈자‘다리’바우에서 ‘ㅣ’모음이 첨가 되어 대리바우 라고 함.
- △ **돈대-바우** : 바다에 있는 돈대처럼 생긴 바위.
- △ **서낭-산** : 서낭이 있는 산.
- △ **천학정(天鶴亭)** : 다리바우(마을) 남쪽에 있는 정자
- △ **망월대(望月臺)** : 천학정 부근에 있는 바위
- △ **학정암(鶴頂岩)** : 가도(駕島) 가운데 있는 바위
- △ **용-바우** : 교암 방파제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옛날 육지에서 닭 한 마리가 날아가 앉았는데 그대로 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파도가 넘으면 작업이 어렵고 바위를 넘지 않으면 작업이 가능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먼섬(가도)과 달리 비교적 마을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은 예부터 앞섬이라고 부른다.
- △ **손-바우** : 천학정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정자 아래 토어(tor)와 그루브가 발달해 있다. 생김새가 기도하는 사람의 손 모양과 같다고 하여 사람들은 손바위(手바위) 혹은 기도바위라고 부른다.
- △ **고래-바우** : 코끼리바위, 수(手)바위, 부처바위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천학정 바로 아래 위치한 바위 중 가장 뚜렷한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고래의 몸은 바다에 감추고 머리만 내민 형상을 하고 있다. 파도가 치면 마치 고래가 불쑥 물위로 솟구쳐 오를 것만 같은 형국이다.
- △ **신랑각시-바우(부처바위)** : 천학정 아래 자리하고 있다. 두 남녀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으로 신랑각시바위라고 부른다. 바위의 생김새가 흡사 부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부처바위라고도 부른다.

- △ **두꺼비-바우** : 천학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바위의 생김새가 두꺼비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예부터 두꺼비바위라고 불렀다. 예로부터 두꺼비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 왔으며 이곳 두꺼비바위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작은 사고 한번 없었기에 주민들은 더욱 더 천학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 △ **오리-바우** : 천학정 옆에 있는 두꺼비바위 아래 자리하고 있다. 물오리가 날개를 접고 헤엄쳐가는 형상으로 뒤쪽 물 위에 돌출된 작은 바위 두 곳은 어린 오리 새끼와 닮았다고 하여 오리바위라고 불렀다.
- △ **섬-바우** : 교암 방파제에서 동쪽으로 약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 바위에는 자연산 섭(홍합)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여 섬바위로 불렀다. 수심이 깊지 않아 물에서 직접 헤엄쳐 바위까지 가서 섭을 직접 채취했다고 한다.
- △ **가도(駕島)** : 토성면 교암리 산5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17,667m²으로 국유지로써 육지와 약 2km 떨어져 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로서 교암어촌계와 어민들이 주변에서 해산물 채취와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다. 섬 중앙 부분이 동서 방향에 비해 고도가 낮아 소의 멍에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멍에 가(駕)를 써서 가도라고 부른다. 동네 사람들은 가도를 먼섬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육지에서 학이 날아와서 가도에 머물렀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은 친근하고 신성한 섬으로 믿고 있다. 이 섬의 왼쪽 네모난 돌 앞에는 둥근 머리 모양의 두 바위를 호(好)바위라고 부른다.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여자 뒤에서 남자가 감싸 안고 반대편에 있는 흔들바위를 바라보는 형상이다. 예로부터 해가 뜰 때 남녀가 함께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호바위 앞에 자리하고 있는 흔들바위는 어른 한 사람이 힘주어 밀면 조금 흔들리지만 수많은 세월동안 세찬 파도와 해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현재 모습 그대로 있다.

| 교암 2리 |

- △ **찾-골** : 철길 너머에 있는 골짜기
- △ **복수-골** : 학교 밤나무 옆 골짜기
- △ **범-바우** : 동광농고 뒤에 있는 바위
- △ **버덩-말** : 마을 뒤
- △ **괘-바우** : 군부대 너머에 있는 바위
- △ **박상-골(상박골)** : 마을위 골짜기

백촌리(栢村里)

위치는 동쪽에 교암1리, 서쪽에 도원2리, 남쪽에 금화정리, 북쪽에 운봉리에 각각 접하고 있다.

고려 말엽 김(金)씨 조상이 처음 들어와 마을을 형성 할 당시 마을 어귀까지 바닷물이 차서 해안과 연결된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양이라 하여 해상리(海上里)라 부르다가 조선시대 초기 때 잣나무가 많이 있다하여 ‘잣나무골’ 백촌리(栢村里)로 개칭, 현재까지 불러오고 있으며, 마을 앞산 골짜기에 잣나무 숲이 남아 있다고 하여 아직도 잣골이라는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에는 마을에 황새골고개(黃沙谷峴), 작골(作谷), 동막골(洞幕谷), 개금박골(開金谷), 청다리주막(淸橋酒幕)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경주 김(金) 씨가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마을 앞에는 1952년 3월 20일 개교한 동광중학교와 1954년 5월 6일 동광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2011년 3월 1일 개칭한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있다.



▼ 백촌리 마을 전경



- △ **팽두나무** : 조선시대 왜적과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마을에 병영을 설치하고 주변을 성으로 쌓아 지방의 군량미를 공납 받아 보관하고 무기를 보관하던 곳으로 팽두나무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주변 밭에서 근래까지도 기와 등 옛 성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 △ **솔모정-거리** : 150여 년 전 조선시대 경주 김씨 집안에서 과거에 합격, 진사벼슬을 얻게 되어 이를 경축코져 마을 입구에 솔문을 만들고 두 달간 전 마을 잔치를 하였다 하며 마을 입구를 그 당시부터 솔모정거리라고(현 토성농협백촌지소)칭한다.
- △ **성문계** : 마을 형성당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도적과 외침을 막기 위하여 마을 주변에 성을 쌓아 방비를 하였다 하여 지금도 그 자리(栢村마을 끝어귀)를 성문계라 칭하고 있다.
- △ **무레이-골** : 마을 위 학야리 가는 쪽 골짜기
- △ **뱀장-골** : 마을 앞 골짜기
- △ **잣-골** : 마을 아래 교암 사이 잣나무가 많았던 골짜기
- △ **넘-바우** : 동광농고 옆 백촌 뒤
- △ **밤나무-골** : 마을위, 옛날 집단이주 하기 전에 거주하던 마을
- △ **자사성지(城址)** : 동문지(東門址)와 서문지(西門址)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주둔군부대의 방호(교통호)시설로 훼손되었다.
- △ **금-개울(금천 金川)** : 백촌 뒤에 있는 내.
- △ **동문-터(東門)** : 옛날 만호첨사(萬戶僉使)가 있던 때의 동문 자리.
- △ **만호첨사-터** : 만호첨사가 살던 터.
- △ **서낭-산** : 서낭당이 있는 산.
- △ **서문-바깥(西門)** : 옛날 만호첨사가 있을 때. 서문 바깥에 있던 마을.
- △ **서문-터** : 옛날 만호첨사가 있던 때의 서문자리.
- △ **존자-평(尊字坪)** : 옛날 지번(地番)이 존(尊)자(字)이던 들.
- △ **토성-자리** : 옛날 만호첨사가 있던 때의 성(城) 자리
- △ **갈-버덩** : 갈대가 많아 붙여진 들
- △ **거랭이** : 소(牛) 배가 끌릴 만큼 땅이 질어서 거랭이라 하였다.
- △ **괴-바우** : 바위가 고양이와 그 발톱 형태를 닮았다고 한다. 막상골 북쪽에 있다.
- △ **골막** : 응달 말 옆 마을회관 뒷길로 들어가는 골
- △ **뒤너머** : 양지말 너머, 양지말과 동광초교 사이
- △ **마당-바우** : 마당처럼 평평하여 10여 명이 둘러 앉을 수 있다. 막상골 안쪽에 있다.
- △ **막상-골** : 괴바우 남쪽에 있는데 이 골 안에 마당바위가 있다.
- △ **매박-골** : 소(沼)가 있었고 산벼랑이 막다른 곳을 이른다.
- △ **목너매** : 사단 가는 신작로 갈라지는 어귀의 왼쪽 논
- △ **방계** : 위방계와 아랫방계가 있는데 매박골과 막상골 사이 공동묘지
- △ **버덩-말(웃-말)** : 성문계 뒤쪽. 곳집과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 마을
- △ **복수-골** : 소토골길과 황새골 사이
- △ **분무-골** : 아야진초교에서 이른개를 통해 산길로 백촌 쪽 골짜기

- △ 설미 : 갈버덩 남쪽으로 막상골 입구 논
- △ 소토-골 : 교암리와 웃말 사이의 논
- △ 쇠지미 : 황새골로 지나 풀무골 갈라지는 곳에서 다리 건너 있는 곳
- △ 수청-바우(수정-바우) : 수정 바위가 많아 수청 바위라고 한다.
- △ 양지-말 : 성문께 아래의 산기슭 마을로 전통 한옥이 많은 곳(1~3반)
- △ 응달-말 : 마을회관 뒤쪽 마을
- △ 청룡-고갱이 : 산 주령이 청룡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마을 남쪽 입구로 철길 건널 목 위치.
- △ 청다리 : 술집이 많아서 청다리라 했다, 대장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광고교 입지전 지칭.
- △ 풀무-골 : 산과 산속 바위 형태가 대장간 풀무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 황새-골 : 늪지에 황새가 많이 날아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지금은 벽돌공장이 있다.

운봉리(雲峰里)

위치는 동쪽으로 야촌리가 있으며, 서쪽으로 학야리, 남쪽에 도원2·3리, 북쪽에 삼포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마을의 속칭명은 토성리로 운봉 토성을 현재 청재등이라 하나 이곳이 바로 토성이라고 하며 그 앞을 쪽지고개라 부르고 있으나 옛 이름은 죽지고개라 했다고 한다. 고개의 이름 중 운봉을 상토성(上土城)이라 부르고 죽왕면 야촌을 아래토성(下土城)이라 했으며, 마을 곳곳의 명칭으로 뒷말은 토성의 뒤에

있는 곳이라고 하여 뒷말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남운경이란 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초) 그 연혁이 약500년이 되고 최초에는 권(權)씨, 둘째는 이(李)씨가 거주했었다. 그 후에는 현재 이(李)씨만이 14가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동구 밖에는 동그란 우물이 있었는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여지도서』에는 토성리(土城里)로 기록하고 있고,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을에 운봉산(雲峰山), 건넌산(城隍山), 청용재(靑龍峙), 쪽지고개(簇趾峴), 당정고개(當亭峴), 봉치버덩(鳳峙坪), 남문보(南門坪湫), 절골 시내(寺谷溪), 고양이바위(猫巖), 운봉소(雲峰沼) 등 기록이 있다.



△ 운봉산 雲峰山 Unbongsan [異] 운암(雲岩)⁴³ : 군의 토성면 북부지역에 위치한 산이다 (고도 : 285m). 군의 운봉리와 학야리에 걸쳐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이 금강산이 되려고 돌을 모아 봉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미 고성에서 금강산이 생겼다는 소식에 억울해 울자 운봉산이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전설로 옛날 부지런한 장사가 금강산의 장사와 집짓기 시합을 하던 중 금강산 장사가 집을 완성했다는 거짓 소문에 3일 동안 울면서 통곡하며 그 동안 지은 돌성을 무너뜨렸는데, 이때 지었던 돌성의 높이가 구름 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여 운봉산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화산폭발로 생겨난 운봉산은 주상절리가 넓게 발달하였고 마당바위·기둥바위·거북바위·병풍바위·빨래망치바위 등으로 불리는 기암괴석이 곳곳에 분포해 산이 돌을 모았다는 전설을 뒷받침한다. 운봉산은 토성산(土城山) 또는 운암(雲岩)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선지리지』에는 운봉산이 기록되어 있으나 『해동지도』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고지도에서는 운봉산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 떡-바우 : 바위 위에 바위라 하여 덩바위를 이렇게 일컫음

△ 골-슬 : 수통골 넘어가는 곳

△ 봉-재 : 학야 가는 봉화대

△ 뒀지-바우 : 학야 가는 길목

△ 수통-골

△ 봉화-터 : 현재 봉재라 불리우고 있으나 이곳은 옛날의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전해 오는 전설로는 봉화대의 물이 흘러 봉재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봉화터란 말이 없으나

운봉리 마을 전경 ▼



43)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700쪽

괴바위라 불리는 괴상한 바위가 있어 동쪽으로는 자유로이 오를 수가 있어 이곳의 안식처가 되었다. 죽왕면 봉수에서 봉화가 시작되면 다음이 이곳이고 이곳에서는 양양군 국수봉에 연락했다고 전해진다고 한다.

- △ 거북-바우 : 거북처럼 생긴 바위.
- △ 대꼬깔-산 : 대꼬깔처럼 생긴 산.
- △ 마람-터 : 전에 마름이 살았던 터.
- △ 옷-토성 : 토성 위쪽에 있는 마을로 현재 운봉마을.
- △ 육모석 : 여섯 모가 난 바위.
- △ 절-꼴 : 옛날에 절이 있던 골짜기.
- △ 쪽찢-고개(죽지고개) : 백촌리(栢村里)로 가는 고개.
- △ 평풍-바우 : 병풍처럼 생긴 바위로 운봉산에 있다.

학야리(鶴也里)

위치는 동쪽으로 백촌리와 운봉리가 접해 있으며, 서쪽과 남쪽으로 도원리, 북쪽으로 운봉산이 위치하고 있다.

옛날 뿔자리에서 학이 날아갔다고 하여 학골(鶴谷), 또는 핵골이라고 하였다.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토기점리(土器店里)를 병합하여 학야리(鶴也里)에 편입되었다.

햇골과 뒷골이 한마을로 합하여 불렀으나 1940년대 학야리로 명명되면서 학야1리는 뒷골과 옹기점말(土器店里)

이 한 마을로, 학야2리는 햇골이 한 마을로 독립되었으며 뒷골의 명칭은 햇골 뒤에 있다고 하여 뒷골이라하였다. 옹기점말은 100여년 전부터 정(鄭)씨 집안이 이주 정착하면서 옹기를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옹기점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옹기'자를 빼고 점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1반은 뒷골이며, 2반은 옹기점말이라고 한다.

『여지도서』와 『간성군읍지』에는 학야동리(鶴也洞里)로 기록하고 있고, 『조선지리지』에 토기점리(土器店里)는 1916년 8월 1일 학야리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에는 마을에 문지방고개(門峴), 함정고개(陷穽峴), 장미들(長尾坪), 뒤뜰시내(後坪溪), 독바우(瓮巖), 큰골(大谷) 등 기록이 있고, 토기점리의 사기막평(沙器幕坪), 둔지평(屯地坪), 사기막개울(沙器幕溪)의 기록이 있다.



▮ 학야 1리 ▮

- △ 반암-골
- △ 송하수
- △ 동산밭-재 : 학야1리에서 학야2리 넘어가는 곳
- △ 민소-골 : 마을 앞 골짜기
- △ 흑자-골 : 마을 앞 골짜기
- △ 떡바우-골 : 운봉산 위, 골짜기
- △ 전말앞-버덩 : 마을아래 벌판
- △ 둔-봉 : 학교 밑
- △ 매루-재 : 쌍다리
- △ 박-골
- △ 된장-골 : 북쪽 골짜기
- △ 바우랑-골 : 바위가 낭떠러지기를 이룬 골짜기.
- △ 쉬청-골 : 운봉산에 있는 골짜기.
- △ 지둥-바우 : 기둥처럼 생긴 바위.

▮ 학야 2리 ▮

위치는 동쪽으로 학야1리, 운봉리와 백촌리를 접해 있으며, 서쪽과 남쪽으로 도원리가 각각 위치하며, 북쪽에 운봉산이 있다.

학야1리 마을 전경 ▼



햇골이란 속칭명을 지니고 있는 마을로 동방골에 산소가 있었는데 묘의 후손들의 집에 시주를 갓던 도승이 산소의 후손들에게 냉대를 받고 이에 반감을 갖게 되어 동방골에 있는 바위를 엮어 놓으니 그 속에서 학 두 마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학골이라고 불려오던 중 후일 발음이 변하여 햇골이 되었다고 한다.

△ 뱀장-골 : 마을 위 골짜기

△ 적-골 : 마을 앞 개울건너 골짜기

도원리(桃源里)

위치는 동쪽으로 학야리, 서쪽에는 간성을 흘리, 남쪽으로는 성대1리, 북쪽에는 마좌리를 바라보고 있다.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에 행도원(杏桃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 살구나무와 복숭아나무가 많아 행도원(杏桃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마을의 속칭명 향도원(香桃源)이라 전해 내려오는 유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 1968년 8월 도원저수지 신축공사 과정에서 현재 저수지내에 살던 주민 일부가 도원1리로, 일부는 도원3리로 각각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행도원리의 안장바위산(鞍障山), 마산(馬山), 천불고개(天佛峙), 학고개(鶴峴), 사이평(間以坪), 노루소(獐沼), 안가골(安哥谷), 승방골(僧房谷), 제비골(鷺谷) 등 기록이 있다. 원대리의 큰사발골(大草谷), 용소골(龍沼谷), 샛령(間嶺) 등이 있고, 『여지도서』에는 원기리(院基里)로 기록하고 있다.

도원저수지는 1963년 축조를 시작하여 1970년 12월 30일 준공되었고, 제방길이 183m, 제방높이 26m, 저수량 2,953.8천㎥, 유역면적 2,605ha, 도원, 백촌, 죽왕지역 502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Ⅰ 도원 1리 Ⅰ

△ 아들-바우 : 원터에서 샛령을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바위로 왼손으로 돌을 쥐어 양다리 사이로 던져서 돌이 바위에 올라앉으면 아들을 낳고 떨어지면 딸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 새박-골 : 원터(마을위 골짜기)

△ 운다지 : 원터 옆

△ 대간령 大間嶺 Daegallyeong [異] 샛령, 새이령, 소파령(所坡嶺, 所波嶺), 석파령(石破嶺)⁴⁴ : 군의 신선봉(神仙峰)과 마산(馬山)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샛령 혹은 새이령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진부령(陳富嶺)과 미시령(彌矢嶺)의 사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샛령·새이령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간령(間嶺)이 되었고 큰 샛령(새이령)과 작은 샛령(새이령)으로 구분하여 대간령·소간령이 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土城面), 원대리(院垞里)에 위치한 고개 지명으로 간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글 지명은 ‘시인영’이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는 이 고개가 소파령(所坡嶺) 혹은 석파령(石破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성군에는 “소파령 고을 서쪽 59리에 있다. 석파령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인제군에는 “소파령(所波嶺) 현의 북쪽 82리, 간성군(杆城郡)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는 등 기록에 따라 이름과 한자 표기가 조금씩 다르다. 『여지도서』간성군 관액조에는 “소파령은 군의 서남쪽 60리에 위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간성군 서쪽 경계를 이룬 산줄기의 흘리령(屹里嶺)과 미시령 사이에 석파령이 묘사되어 있다. 이 지명에 대하여 2005년 녹색연합에서는 이전의 지명인 소파령으로 지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원1리 마을 전경 ▼



44)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700~701쪽

- △ 사자원(獅子院): 『수성지』에 ‘소파령(所坡嶺) 밑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금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 신선-봉: 특수부대 위에 있는 바위
- △ 용수-골: 마을 앞 골짜기
- △ 먼외-골: 저수지 위 골짜기
- △ 성황-골: 원터 근처 다리부근
- △ 용산땃-골: 마산가는 골짜기로 용이 났다고 함.
- △ 구절토: 옛날 절이 있던 자리
- △ 신방-소: 선녀가 목욕을 하고 놀다가 승천하였다고 하는 곳
- △ 굴-바우: 바위 굴 속에 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 △ 찬샛물: 샛령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전되어 오는 말로는 결핵환자가 3년을 치료해 병을 완치하였다 하며 '찬산물'이라고도 칭한다고 한다.
- △ 가매-소: 가마처럼 생긴 소.
- △ 갓-바우: 가마처럼 생긴 소.
- △ 관땃-골: 관이 있던 골짜기.
- △ 켜-소: 켜(구유)처럼 생긴 소.
- △ 난치나뭇-골: 난치나무가 많은 골짜기.
- △ 노루-소: 전에 노루가 빠져 죽었다는 소.
- △ 닳돈-꼬개: 전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고 이 고개 막바지를 못 올라가서 땀 사람에게 돈 닳돈을 주고 집을 저 달라고 했다는 고개.

▼ 도원2리 마을 전경



- △ 대꼬깔-봉 :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대꼬깔처럼 생긴 산.
- △ 도학-골 : 원터 앞에 있는 골짜기.
- △ 둔둑-골 : 행도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마산 : 말처럼 생긴 산으로 간성읍 흘리와 경계임
- △ 생숫-골 : 마산의 한 골짜기.
- △ 승방-소 : 전에 소 부근에 절이 있었다 함.
- △ 신선대(神仙臺) : 신선봉에 있는 바위. 신선이 놀았다 함.
- △ 안정-바우 : 모양이 안장처럼 생긴 바위.
- △ 용-소 : 용이 있었다는 소.
- △ 원대(院臺) : 원터(마을), 행도원 서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때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원집이 있었다.
- △ 지방-골(연자동) : 행도원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팔발-골 : 마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도원 2리 |

위치는 동쪽으로는 백촌리, 서쪽으로 도원1리, 남쪽으로는 성대1리, 북쪽으로 학야1리가 자리 잡고 있다. 옛날 선조들께서 사기그릇을 만들었다 하여 사기막이라 부른 것이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으며 자세한 유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마을 앞에는 2009년 무릉도원권역 사업으로 추진한 대형 옹기지게꾼 형상의 커뮤니센타 건물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1961년 개교한 도학초등학교가 있다.

- △ 매-봉 : 모양이 매처럼 생긴 산.
- △ 머넛-골 : 골이 길어서 멀다 함.
- △ 문-다지 : 어귀가 문처럼 생긴 골짜기.
- △ 밤나뭇-골 :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
- △ 사기-막(沙器幕) : [사그매기, 도원이구] 행도원 남동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사기막이 있었음.
- △ 새박-골 : 풀밭이 많은 골짜기
- △ 서낭-골 : 서낭이 있던 골짜기.
- △ 서득-골 : 너설이 많은 골짜기.
- △ 시루-바우 : 시루처럼 생겼다는 바위.
- △ 양가직-골 : 안가의 집이 있었던 골짜기.
- △ 연자-동 : 지방골(골)
- △ 독바위, 진골산, 개금바골산, 문지방고개, 내가(노로소개), 진소 등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치 못함.

Ⅰ 도원 3리 Ⅰ

위치는 동쪽으로 아야진리, 서쪽으로는 도원1리, 남쪽으로는 용암1리, 북쪽으로는 학야1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도원3리는 도원1리에서 1967년까지 거주하였으나 정부에서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도원저수지를 축조, 침수지역이 되어 집단이주가 불가피하여 1968년 8월 27가구 중 18가구는 도원1리에 이주하였고, 9가구는 현재 토성면 신평2리 재건촌에 이주하여 새로이 마을이 생겼다하여 새말(新里)이라 부르게 된 것이 속칭명이 되었다. 2017년 3월 국회의정연수원이 개원했다.

△ **넛-골** : 신생평야지 마을로써 마을앞 1km지점에 유일한 넛가가 있는 골짜기를 넛골이라 부른다.

△ **새박-골** : 도원저수지 위 북쪽으로 약3km거리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박달나무가 많은 골짜기라하여 새박골이라 한다.

△ **진등** : 마을들판을 말하는 것으로 들판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우천 시 들판 전체가 질다하여 진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성대리(城垞里)

위치는 동쪽으로 용암리와 아야진리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인제군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신평리, 북쪽으로는 도원리가 위치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약 360여 년 전 엄(嚴)씨 성(姓)을 가진 이가 살면서 마을이 동쪽을 향해 위치하고 마을 모양이 다락처럼 생겼다고 하여 동루동 또는 동노동리(東老洞里)라 불렀는데,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다. 1884년 무렵 토성(土城)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성남리(城南里)라고 하였고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대리(新垞里)와 병합하여 성대리(城垞里)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동노동리(東老洞里)로, 『간성군읍지』와 『조선지지자료』에는 성남리(城南里)이며, 갯바우산(冠巖山), 치매바우산(裳巖山), 솔고개(松峴), 대암평(大巖坪), 쪽다리보(足橋坪) 등 기록이 있다.



성대리 마을 전경 ▼



Ⅰ 성대 1리 Ⅰ

- △ 치매-바우(치마바위) :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로 이 바위 때문에 남자들은 일찍 죽고 여자들은 오래 산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 △ 갓-바우 : 갓과 같이 생겨서 갓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바위 밑에 큰 구멍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어서 피난터로 이용했다고도 한다.
- △ 영월 엄씨 열녀비(寧越 嚴氏 烈女碑) : 구전에 의하면 엄씨는 날때 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부모에게 효도가 극진하였으며 남편(金東經)이 병으로 눕게 되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차도가 없어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니 병이 완쾌되어 6년을 더 살게 하였다고 전한다. 비신(碑身)은 높이 1.35m, 폭 46cm, 두께 20cm이며 위에 옥개형의 비개(碑蓋)를 얹었다.
- △ 웅장-골 : 학교 앞 골짜기
- △ 윗-터 : 마을 뒤
- △ 소-고개 : 향도원 넘어가는 고개
- △ 넘더-골 : 마을 위 골짜기
- △ 쪽-다리 : 마을 앞 다리
- △ 개금박-골 : 편편금(片片金). 빗갈이 누른 돌이 곳곳에 있다함.
- △ 동늑-골(동로동, 성남, 성대리 일구) : 성대리에서 으뜸 마을로 성남(城南) 또는 동루골로 불린다.
- △ 선양-골 : 전에 인삼이 선양여치가 났다는 골짜기.

▼ 성대2리 마을 전경



△ 불당-골 : 불당이 있던 골짜기.(불당골)

△ 대밭-골 : 웅장골 옆 골짜기

Ⅰ 성대 2리 Ⅰ

위치는 동쪽으로 용암1리, 서쪽에는 성대1리, 남쪽에는 신평1리, 북쪽에는 도원3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성대1리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새로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신대리(新垓里)라고도 불렸으며 그 후 성대1리에서 분할되었다.

『조선지리지』와 『간성군읍지』에는 신대리(新垓里)로, 소알치봉재(松峙), 진등고개(長磴峙), 병바우들(鵝巖坪), 산양재들(山陽坪) 등 기록이 있다.

△ 횡재 : 마을 앞 버덩

△ 쪽-다리 : 다리 밑

△ 신대(新垓) : 새터(신대, 성대리이구), 새로 생긴 마을.

용암리(龍岩里)

위치는 동쪽으로 청간리, 서쪽에는 성대리, 남쪽으로는 천진리와 신평리, 그리고 북쪽에는 아야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옛날에 동쪽 산에 청용이 살아 청용바위, 남쪽 산에 범이 살아 범바위, 신선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바위 등 여러 바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넓은 터가 있어 이(李) 씨와 김(金) 씨가 터를 닦고 집을 지어 살면서 마을명을 용암(龍岩)이라고 부르고 장새미, 새이청

간, 골말 자연마을을 합하여 현재의 용암리(龍岩里)가 되었다. 또한 서쪽에는 넓은 들과 골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도 샘이 계속 흐른다고 하여 속칭 장샘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간성군읍지』와 『관동지』에는 양암리(陽巖里)로, 『조선지리지』에는 용암리(龍巖里)로, 마을에 진등고개(泥磴峴), 범바우평(虎巖坪), 양암평(陽巖坪), 청룡바우(靑龍巖) 등 기록이 있다.



Ⅰ 용암 1리 Ⅰ

- △ 호-골 : 부락서쪽 이른개 넘어가는 골짜기에 위치
- △ 범-바우 : 옛날 범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하여 범바우라 부른다.
- △ 셋-골 : 下龍岩, 上龍岩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른개 넘어가는 지름길로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 △ 가운데 새-골 : 장새미와 새이청간 사이에 있는 골짜기.
- △ 골-말 :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 △ 뒷-골 : 용암 뒤에 있는 골짜기.
- △ 방축-골 : 방축이 있었다는 골짜기.
- △ 서낭-골 : 서낭이 있던 골짜기.
- △ 안-뒷골 : 뒷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
- △ 용-바우 : 용암리.
- △ 장새미 : 새이청간 서남쪽에 있는 마을.

Ⅰ 용암 2리 Ⅰ

위치는 동쪽으로 청간리, 서쪽으로 용암1리, 남쪽으로 천진리, 북쪽으로 도원3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 용암1리 마을 전경



상용암리와 청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 '간(間)'자를 따서 간청간(間淸澗)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사이라고 하는 말이 세이라고 발음이 변해 세청간(歲淸澗)이라 불리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다.

△ 셋-골 : 마을 서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용암1,2리 간에 위치하고 있다.

△ 뒷-골 :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청간(淸澗), 아야진(我也津)으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뒷-갯골 : 마을 앞 남쪽에 위치한 개울로 옛날에는 이곳 개울 앞에 마을이 위치 하였으나 병자호란 때 마을이 침수, 지금의 용암2리에 이주하였다. 당초 이 마을의 뒷편에 개울이 있었던 관계로 지금도 뒷개울이라 부른다고 한다.

△ 산지당-골 : 마을뒷 골짜기

△ 서낭-돌 : 천진1리에서 올라오는 서낭이 있는 골짜기

△ 너삼-평 : 신평 올라오는 벌판

△ 새이-청간(용암리2구, 하용암, 세청간) : 청간리(淸澗里) 사이에 있는 마을.

△ 진-등 : 등성이가 긴 산.(마을 뒷산)

△ 청룡-바우 : 지형상 청룡에 해당한다는 바위.

△ 뱃-바우 : 용암 앞에 있는 들.

△ 수-평 : 옛날에 숲이었다는 들.

△ 아랫-새골 : 가운데 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용암2리 마을 전경 ▼



신평리(新坪里)

위치는 동쪽으로 천진리, 서쪽에 인제군 북면, 남쪽에 인흥리와 원암리, 북쪽에 성대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옛날에 성대리가 처음 마을로 형성된 후에 성대리의 남쪽으로 성남이라 부르던 곳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말이라 명명한 것이 속칭명이 되었는데 신말(新末)은 쌀밥 먹고 장작만 땀다는 마을로 그만큼 풍부하였다는 유래도 있으며 성남이란, 제일 먼저 생긴 곳으로 간성 둘레를 성으로 쌓은 남쪽에 있다

하여 부르게 된 것이다.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밤나무정(화전민촌), 쑥개벌(재건촌) 마을을 병합하여 신평리(新坪里)라고 하였다. 1991년도 신평 별판에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마을에 밤나무평(栗木坪), 불당골(佛堂谷), 화암사(禾巖寺) 등 기록이 있다.



▼ 신평1리 마을 전경



Ⅰ 신평 1리 Ⅰ

- △ 서당-바위 : 옛 전설에 가뭄이 들면 이 바위에 처녀가 올라가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소변을 보면 비가 온다하여 서당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 선-바위 : 신평1리, 봉포리, 인흥리 3개 부락의 경계로서 바위가 서 있다하여 선바위라고 한다.
- △ 산제당-나무 : 신평1리에서 남서쪽 설악목장 아래에 위치한 소나무로 약200년 되었으며 옛부터 나무 밑에서 쌀을 가지고 가서 메를 지어 놓고 가정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빌었다고 한다.
- △ 뱀-골 : 신평 아래 농경지 입구 뒷골짜기에 위치하여 형체가 죽은 뱀처럼 생겨 그 집안이 대성을 못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 △ 된-골 : 마을에서 천진 쪽으로 가는 골짜기
- △ 횡-재 : 신평교 옆 골짜기
- △ 흰-고개 : 마을 위
- △ 너삼-평 : 천진(天津)과 신평(新坪) 사이에 걸쳐 있는 들.
- △ 물방앗-골(수점동) : 물레방아가 있던 골짜기.
- △ 병-바위 : 부엉이가 잘 깃들었던 바위.
- △ 병바위-들 : 병바위가 있는 들.
- △ 부두-정 : 부도(浮屠)가 많은 골짜기
- △ 새양-평(山陽平山양평) : 산이 양지편이라고 마을 옆 들판
- △ 장가되앞-소 : 장가의 무덤 앞에 있는 소.
- △ 장개-바위 : 이 바위 위에 돌을 던져 얹으면 장가를 간다는 바위.
- △ 송선달네-뫼골 : 송선달이란 사람의 묘가 있는 골짜기.
- △ 안산-재 : 신평 앞에 있는 산.
- △ 송선달네-뫼골 : 송선달이란 사람의 묘가 있는 골짜기.
- △ 시루-바위 : 모양이 시루처럼 생긴 바위.

Ⅰ 신평 2리 Ⅰ

위치는 동쪽으로 신평1리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신선봉을 바라보며, 남쪽에는 원암리, 북쪽에는 성대1리가 위치하고 있다.

1961년 8월 21일 서울에 거주하던 118세대의 746명이 정착하여 15동, 20동, 10동, 73동의 4개 지역에 분산 입주하여 주택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여 호당 대지 120평, 밭5,900평을 개간하여 거주하였다. 1965년 1월 1일자로 15동, 20동, 10동 계45동이 신평3리로 분구하였다가, 1966년 5월 30일자로 화전민 이주로 62세대가 떠나게 되어 1968년 12월 1일자로 신평3리가 폐지되어 지금의 신평2리가 되었으며 속칭 재건촌이라고 불려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 △ 화암사(禾巖寺) : 신라 혜공왕(惠恭王) 5년(769)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창건하고 화암사(華巖寺)라 칭하였다. 여러번 불에 타서 조선 고종 원년(1864) 이곳 수바위 밑에 옮겨 짓고, 수바위를 한자로 표기해 수암사(穗岩寺)라 하였다가 1912년 화암사(禾岩寺)라 하였다. 사찰 내에 관음보살상과 삼성각서편 부도군와 입구 부도군과 비가 남아 있으며 1991년 세계잼버리 대회 종교의식장으로 사용된 후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 △ 천후산(天吼山) : 신선봉 옆 일명 상봉이라고 불리는 이산에는 돌이 많고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는 바람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 오고 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은 이산에 성인(聖人)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가 마치 부처와 같고 그 옆에 있는 큰 돌은 쌀곳간(廩)같아서 사람들이 화암(禾岩)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방수(防戍 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킴)가 이곳에 있었는데 고점라(藁帖裸)라는 돌(石)이 적(敵)에게는 양곡을 쌓아둔 것으로 보여 적이 퇴각했다고 하여 화암(禾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고을 남쪽 70리에 있다. 산에는 동굴에서 부는 바람이 많으며 산 중턱에서 나온다. 이를 두고 하늘이 운다고 하며, 세간에 전하기를 양양(襄陽)과 간성(杆城)사이에는 큰 바람이 많은데 이 때문이라고 한다. 산에는 성인대(聖人臺)가 있고 돌의 모양이 불상을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옆의 큰 돌은 곡식창고(困廩)같아서 세간에서는 화암(禾岩)이라고 부른다. 세간에 전하기를 옛날에 이곳에서 수자리(防戍)를 살면서 짚으로 이 돌을 감싸 적에게 식량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물리쳤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뿐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 수바위-골 : 마을 위 미시령과 화암사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수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 △ 샘치-골 : 화암사 우측 샘이 있는 골짜기
- △ 된-봉 : 흰 배미골 서남쪽에 있는 산.
- △ 매봉-재 : 옛날 매 사냥을 하였다는 산.
- △ 밤나무-정(화전민촌) : 전에 밤나무가 많았으며 화전민이 사는 마을.
- △ 불당-골 : 불당(佛堂)이 있던 골짜기.
- △ 삼박-골 : 샘치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선인-대(仙人臺) : 화암사 남쪽에 있는 산. 높이가 645m.부처 모양의 바위와 신선 바위가 있음.
- △ 수-바우(穗岩 노적봉) : 화암사(禾岩寺) 위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 모양이 벼가리같이 생겼으며 옛날 이곳을 수비할 때 짚으로 이 바위를 가려서 적에게 노적가리로 보이게 하였다고 함.
- △ 흰배밋-골 : 논배미가 흰 개가 있었다는 골짜기
- △ 신선-바우(신선대, 신선암) : 선인대에 있는 바위. 신선이 이곳에서 바둑을 두고 놀았다 함.
- △ 쭉갯-벌 : 재건촌
- △ 할미췌-등(천불췌등) : 화암사 동북쪽에 있는 산.

인흥리(仁興里)

위치는 동쪽으로는 봉포리와 용촌리, 서쪽으로는 신평리, 남쪽으로는 성천리와 속초시, 북쪽으로는 신평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버덩이 길다고 하여 속칭 장흥리(長興里)라고 부른다.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인각(仁角), 장흥(長興), 풍곡(豐谷)을 합하여 인흥리(仁興里)라고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70년 전 일제강점기 인흥1리에서 성천리에 이르는 지금의 성황당 산맥으로 이어지는 언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장항리(獐項里)라고도 불렀는데 그로 인해 위 언덕 맥을 잘라 인재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여지도서』에는 인각리(仁角里), 『조선지리지』에는 인각리의 말버덩평(馬位坪), 서낭당평(西浪塘坪), 사이보(間矣湫), 미륵골(彌勒谷), 미논골(山畝谷), 장흥리의 장막현(帳幕峴), 뒷골(後谷), 옹기점말(陶店谷), 가마골(釜谷), 풍곡리의 서기봉산(西起峰山), 우렁골(蔚龍谷), 석장골(石長谷) 등 기록이 있다.



인흥1리 마을 전경 ▼



Ⅰ 인흥 1리 Ⅰ

- △ 화전토(花田土) : 마을 옆 솔밭으로 이어지는 산에 진달래가 많아 예부터 화전토라고 하였는데 어린이들이 이곳에 꽃을 따먹으러 다녀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에서 문둥이가 나와 간을 빼먹는다고 하여 어린이들이 입산을 막았다고 한다.
- △ 간나-바우(관모바위) : 성천천 바위 옆에 위치한 바위로 아낙네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즐겨하며 담소를 나눈 것이 바위산에서 여자목소리가 난다 하여 간나바우라 하였다 한다.
- △ 미노-골 : 마을 북쪽 위에 위치한 골짜기
- △ 뒷-골 : 미노골로 향하는 옆 골짜기
- △ 왕당-골 : 마을 바로 위의 작은 골짜기
- △ 동네-골짜 : 왕당골 옆 골짜기
- △ 마우-돌 : 마을 뒤 버덩
- △ 고개-너머 : 마을 앞 성천리가는 남쪽길
- △ 하상-골 : 인흥3리 가메골 북쪽 골짜기
- △ 가메-골 : 신평2리 8동 골짜기
- △ 동디-미 : 장흥리 뒤횚에 있는 들.
- △ 마갯-자리 : 동디미 막바지에 있는 들.
- △ 마웃-또리 : 마웃 논이 있던 들.
- △ 목너머-개울 : 고개 너머에 있는 내.
- △ 장마웃-버덩(장막재) : 인흥1리 (장흥리)마을 앞에 있는 들.
- △ 인흥천(仁興川) :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인각천(仁角川) 고을 남쪽 50리에 있으며 근원지는 미시파령(彌時波嶺)이다.’ 천태산에서 발원한 지류는 원암과 성천을 거쳐 동해로 흐른다.
- △ 장항리(長航里) : 장흥리(長興里) 일제강점기 때 인흥에 인재가 난다하여 장항(長航)리라

▼ 인흥2리 마을 전경



하고 노루목 지형을 잘라 파내 길을 내니 그 당시 잘라낸 땅에서 피가 많이 흘렀고 아직도 그 지역이 흙이 붉다.

△ 모살-바우(못살바우) : 마을 동쪽 1.5km지점, 높이 7m 바위산(인흥리773-1,2번지) 옆에 사는 집이 너무 못살아서 못살바우(모살바우)하고 하였다고 함. 조경업자가 바위를 모두 가져가 현재 바위는 없다.

△ 서낭산(서낭당) : 천여 년 전 조씨 성을 가진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 유할 곳이 없어 서낭 나무 밑에 잠을 청했는데 싸우는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호랑이와 성황신이 싸우는데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성황신에게 길손을 달라고 하고 내 집에 온 손님이니 내줄 수 없다고 하여 호랑이가 지쳐서 잠이 들어 자는 사이 길손이 모닥불에 돌을 달구어 입을 벌리고 자는 호랑이 입에 넣으니 호랑이가 뜨거워 뱉고 달아났고 뱉은 돌은 냇가에 떨어졌는데 태풍에 수몰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 후 조 씨는 이곳에 정착해 성황신을 믿으며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뒷-골 : 미노골로 향하는 옆 골짜기

△ 옹기점 : 뒷골 상류 지점 논으로 옛날 옹기점 마을이 있었다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호랑-바우 : 뒷골 중간 지점 작은 하천에 호랑이 포효하여 가로 40m, 세로 35m, 높이 5m 바위가 칼로 자른 듯 갈라져 절반은 서 있고 절반은 누워있다고 한다. 대순진리회 경내에 가면 볼 수 있다.

△ 한질가 : 인흥3리에서 인흥2리 마우들을 가로질러 뒷골 입구에서 가마골 입구까지 밭과 논을 지나는 길. 지금은 인흥1리 포장도로를 이용한다.

Ⅰ 인흥 2리 Ⅰ

마을에는 1940년 11월 15일 인흥공립심상소학교로 개교하여 1941년 인흥공립학교, 1952년 인흥국민학교, 1996년 3월 1일 현재 인흥초등학교가 초등교육과 후학 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인흥3리 마을 전경 ▼



- △ 너-다리 : 봉포저수지 위쪽
- △ 서낭-대 : 마을 앞
- △ 송-정 : 마을 뒤 솔밭
- △ 인각-버덩(서낭대이-버덩) : 서낭이 있던 들.
- △ 너다리 : 봉포저수지 위쪽으로 천진으로 가는 길목에 널빤지로 만든 다리
- △ 미논-골(미노-골) : 너다리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 △ 선-바우 : 바위가 서 있는 것 같다하여 선바위라 했다. 골프장이 있는 곳이다.
- △ 송정 : 마을 뒷산에 수령 200년 이상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는데 2019년 산불로 소실됐다.
- △ 시루-바우 : 인흥과 천진 사이에 있는 바위로 골프장 안에 있다.

! 인흥 3리 !

위치는 동쪽으로 인흥1리, 서쪽으로 원암리, 남쪽으로 성천리, 북쪽으로 성천1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주전에 의하면 작은 골짜기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마다 풍년이 찾아온다고 하여 풍곡(豊谷)으로 명명된 것이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다.

인흥저수지는 2001년 축조를 시작하여 2009년 12월 30일 준공되었고, 제방길이 183m, 제방높이 41m, 저수량 1800.8천㎥, 유역면적 400ha, 인흥, 용촌, 성천지역 16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 △ 세기봉(석가봉) :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정상에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 옛날 이곳에서 세기버섯(석이버섯)이라는 희귀한 버섯이 돌아나 세기봉 또는 석이버섯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기봉이라 부른다.
- △ 우령-골 : 마을에서 남북쪽으로 3km 위치한 골짜기
- △ 석장-골 : 마을에서 남북쪽으로 1km 위치한 골짜기
- △ 너래-바우(노래-바우) : 우령골에 소재하고 있는데 아낙네는 화전놀이터, 남자들은 천렵하던 곳으로 지금은 저수지로 수몰되었다.
- △ 뒸-용 : 하상골 위 골짜기
- △ 작은-가메골 : 마을 옆 골짜기
- △ 복재-골 : 마을 아래 골짜기
- △ 진대-등 : 마을 위 골짜기
- △ 가멧-골 : 깃대봉 밑에 있는 골짜기.
- △ 깃대-봉 : 전에 세부 측량 때 깃대를 세웠다는 산. 인흥리 산62번지 내 8동(마을)옆 높은 산.
- △ 짝박-골 : 풍곡리 뒤에 있는 골짜기.
- △ 탕건-자리 : 탕건처럼 생긴 논.
- △ 아랫-말 : 아랫동네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 큰-말 : 마을 중심으로 25가구가 살고 있다.

성천리(星川里)

위치는 동쪽으로 용촌리, 서쪽으로 원암리, 남쪽으로 속초시 장사동, 북쪽으로 인흥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예부터 시냇가 건너에 산세가 수려하고 지리적으로 잘 생긴 수자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장수와 용마가 났다고 전하며 장수는 비통하게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고 장수를 잃은 용마는 부락 뒷산으로 넘어갔는데 용마능선 바위 위에 그 자취가 남아있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 마을이 수자별

에서 현재 마을로 이전한 유래는 수자별 동쪽 산봉우리와 수자별이 서로 상충하여 대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마을로 옮겨졌다 하여 마을이름을 속칭 수자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성천(星川)이란 시냇가에 작은 돌이 많이 있어 하늘의 별과 같다하여 '성(星)'자를 써서 성천(星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의 마을로 옮긴 후에는 화재도 없으며 마을에 탁(卓) 씨가 대대손손 살아오고 있다.

『조선지리지』에는 마을에 제비바우산(鷺巖山), 몽진산(夢眞山), 도은산(道隱山), 청국재(菁根峙), 고건이坪(古建伊坪), 고직골(窟後谷 굴뚝골) 등 기록이 있다.



성천리 마을 전경 ▼



- △ 말-바우 : 이 바위에 말발굽 자국이 있어 말바위라 칭하였다 하는데 이는 옛날 무사가 싸우던 말발굽 자국이라고 하며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 고구-골 : 마을 위 골짜기
- △ 석장-골 : 성천리에서 북서쪽으로 2km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
- △ 갯가 : 집 앞 버덩
- △ 머슬-바우 : 마을아래 2km 지점에 있는 바위
- △ 참나무-버덩 : 마을 위 버덩
- △ 우령-골 : 석장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 △ 용진-바우 : 성천리와 원암리 중간지점
- △ 먹넘어 : 마을아래 버덩
- △ 수자-평 : 성천리 앞 들.
- △ 참문안-골 : 수자벌에 있는 골짜기.

원암리(元岩里)

위치는 동쪽으로 속초시 장사동, 서쪽으로 인제군 북면, 남쪽으로 속초시 학사평, 북쪽으로 인흥리와 신평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주변 산세가 바위산으로 둘러져 있고 울산바위가 있으므로 원암리(元巖里)라고 불렸다. 조선시대 역원 중 한 곳으로 『간성읍지』에 고을 서남쪽 60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93년(성종 24년) 미시파령(彌時坡嶺) 길이 열리면서 양양(襄陽) 오색역(五色驛)을 철거하여 여기에 옮겼다고 전한다.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죽골, 잣밭골, 토교리(土橋里)를 병합하여 원암리라고 했다.



『여지도서』에는 원암역리(元巖驛里)로, 『조선지지자료』에는 원암리의 황철봉(天台山), 울산바위(蔚山巖), 성인대(聖人臺 선인치), 양양고개(襄陽峴), 숙진골(宿眞谷), 신흥골(新興谷), 미시령(彌矢嶺), 흑다리주막(土橋酒幕), 원암역(元巖驛), 원암참(元巖站) 등 기록이 있다.

과거 미시령 고개를 넘으려면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속칭 역(驛)동네라고 불렸으며 마을 가운데 서낭봉이 있어 영(嶺)을 넘을 때는 서낭봉에서 제를 올리고 넘었다고 한다. 당초 고성군 토성면 관할 지역이었다가 1919년 이후 양양군 토성면 원암리였던 것이 1963년 1월 1일 다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속하게 되었다.

원래 미시령 아래 산간 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대명델피노리조트, 아이파크콘도미니엄, 일성콘도미니엄 등 대형 관광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원암온천지구 지정과 미시령관통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늘어나면서 관광단지가 되었다.

원암저수지는 1959년 축조를 시작하여 1963년 11월 30일 준공되었고, 제방길이 298m, 제방높이 25.9m, 저수량 1,318.2천㎥, 유역면적 1,419ha, 원암, 신흥, 학사, 자활지역 191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원암리 마을 전경 ▼



△ **울산-바위(蔚山巖)** : 울산에서 왔다고 하여 울산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금강산을 향해 울산에서 출발하자 그 옆에 있는 바위 하나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매달려온 것이 달래봉이라고 부르며 북쪽으로는 신선바위가 있어 모두가 금강산으로 향해 가던 중 미시령 밑에 있는 칼바위가 해가 저물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여도 늦지 않다고 권유함에 쉬었다 가기로 하였는데 미시령 너머에 있는 선바위와 창바위가 아침에 전갈을 보내왔다. 내용은 자기들이 금강산을 갔다 오는 길인데 금강산 1만 2천봉 모으는 일이 다 끝났다고 되돌아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현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옛날에는 울산에서 바위세를 해마다 받아 갔는데 한해 흉년이 들어 울산바위세를 걱정하자 한 어린이(호림)가 그 사연을 물어 부모들로부터 울산바위세를 물어줄 일이 걱정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도 걱정 말라고 부모를 안심시키며 언제든 울산에서 바위세를 받으러 오거든 알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던 중 울산에서 울산부사가 보낸 하인이 와서 울산바위세를 달라고 하자 이제 원암에는 저 울산바위가 필요 없으니 제발 가져가 달라고 하였다. 울산에서 온 사람이 그러면 울산까지 날라다 놓으라는 말에 호림이 울산까지 등짐으로 저다 줄테니 뭍빵끈을 준비하여 울산바위에 매어 놓으면 지고 가겠다고 하니 울산에서 온 사람은 여기에 있다가는 호림장사에게 변을 당할 것을 느끼고 돌아가서는 그 후부터는 일절 오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울산바위세가 없어졌다는 전설이 내려 오고 있다.

△ **미시령 彌矢嶺 Misiryeong⁴⁵ [異] 미시파령(彌時坡嶺), 연수파령(連水坡峯), 연수령(延壽嶺), 여수파령(麗水坡嶺)** : 군의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이 고개는 인근의 다른 고개에 비해 높고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 고개를 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미시령(彌時嶺)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라 미시령은 미시파령(彌時坡嶺)·연수령(延壽嶺)·연수파령(連壽坡嶺)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미시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간성군(杆城郡)에는 미시파령이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 24년에,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바다 고을 동쪽 7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본조 성종 때 양양부 소동라령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고 여수파령(麗水坡嶺)이라고 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대동여지도』에는 연수파령, 『택리지』에는 연수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간성군 관액조에는 미시령이 군 남쪽 팔십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해동지도』에는 간성군 석파령(石破嶺) 남쪽에 미시령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간성군 토성면 원암리(元巖里)에 위치한 고개 지명으로 미시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글 이름으로 연슈파 또는 큰영(嶺)이라 기록되어 있다.

45)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년, 701쪽

- △ **선인-재(선인치仙人峙)** : 잣밭골에서 화암사로 넘어가는 고개다. 백두대간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중에 선인치라는 바위산이 있다. 일명 선인대(仙人臺)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선녀, 신선들이 만월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는 장소로써 바위 정상에 목욕탕 모양의 웅덩이가 9개 있으며 이곳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 지금에도 정월 대보름이나 한가위가 되면 선녀, 신선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수정 지에는 성인대(聖人臺)라고 기록하고 있다.
- △ **수암(穗岩)** : 임진왜란 때 왜적이 온갖 노략질을 일삼자 이름 모를 장군이 양민을 동원하여 이영을 엮어 바위를 싸서 노적더미처럼 가장하여 노적에 헌옷을 입힌 허수아비 수천 개를 산 속에 세워 놓고 군량미와 군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알리고 자생된 밤나무를 베어 적이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 때 연기를 피워 적을 완전 소탕하였던 곳으로 지금은 이삭 '수(穗)' 자를 써서 수바위라 일컫고 일명 노적바위라고 한다.
- △ **서낭-골** : 마을건너 골짜기
- △ **발-골** : 돌산
- △ **우령-골** : 돌산너머 골짜기
- △ **간낭-골** :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 △ **신흥-골** : 신흥사너머
- △ **무랑-골** : 고주골
- △ **아래-건너 넘골**
- △ **윗-건너 넘골**
- △ **가매-소** : 가마솥처럼 생긴 소.
- △ **건넌-논골** : 큰말과 고죽골의 중간에 있는 골짜기.
- △ **고죽-골** : 큰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노루목-고개(장천고개)** : 장천으로 가는 고개.
- △ **다다리** : 원암 앞뜰에 있는 논.
- △ **댄-터** : 큰말에 딸린 산골짜기.
- △ **마산-재** : 고죽골에 딸린 산골짜기.
- △ **마웃-논** : 옛날 역(驛)에 딸렸던 논.
- △ **무친-논** : 전에 큰물로 문혔다는 논.
- △ **문암-골** : 고죽골에 딸린 산골짜기.
- △ **바리-골** : 큰 마을에 딸린 산골짜기.
- △ **서낭-뽕** : 큰 마을에 딸린 산골짜기.
- △ **숙진(잣밭골)** : 미시령 넘기 전 마을(주막).
- △ **토교리(土橋里)** : 흙다리(토교리) 잣밭골(숙진) 동쪽에 있는 마을, 흙으로 덮은 다리가 있었다. 미시령 밑에 있는 마을로써 숙전리 옆 마을이다.

용촌리(龍村里)

위치는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으로 인흥리, 남쪽에는 속초시 장사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옛적에는 사야지리(沙也只里)라 불렀다. 농촌마을임에도 대지 부분이 모래가 많아 속칭 사촌리(沙村里 촌모래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뒷산 용바위가 등천하였다고 하여 용촌리(龍村里)라 명명한 것이 지금의 명칭이다. 원래는 용포리(龍浦里)와 사촌동(砂村洞) 두 마을을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병합으로 용포(龍浦)의 '용(龍)'자와 사촌(砂村)의 '촌(村)'자를 합쳐 용촌리(龍村里)라 부르게 되었는데 과거의 용포리(龍浦里)는 용촌2리이며 사촌리는 용촌1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사야지리(沙也只里)로, 『조선지리지』에는 사촌리(沙村里)의 국사봉(國祠峰山), 갈벌(芦坪), 모래기주막(沙村酒幕), 번개(翻浦), 방축개(防築湫), 용포리(龍浦里)의 흰고개(白峴) 등 기록이 있다.

최근 교통이 편리해 집에 따라 인근 속초시에 생활권이 전이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용촌1리 마을 전경



Ⅰ 용촌 1리 Ⅰ

- △ 용-바우 : 마을에서 들판으로 넘어가면 큰 바위가 있다. 먼 옛날 번개 안에서 강씨 총각이 살았는데 힘이 세어 강장군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너무 힘이 세어 후환이 두려워 누나가 동생을 죽여 총각이 죽은지 3일 만에 이 바위에서 용마가 등천 하여 그 후부터 용바위라고 불렸다고 한다. 지금도 번개안에 기와 조각과 샘물이 남아 있으며 원래 번개안은 호수였으나 강총각이 하룻밤 사이 바다에 물을 모두 몰아넣어 3만여 평의 논을 만들었다는 전설도 있다.
- △ 유물산포지 : 마을 주변에 선사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두뭇-골 : 국사봉 밑에 있는 골짜기.
- △ 무논-고개 : 무논이 많은 고개.
- △ 순-개(용지호 방축개) : (호수) 용촌리 남쪽에 있는 호수 순채(蓴菜)가 많았다 하며 또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가 나왔다 함.
- △ 번-개(들) : 예전에는 호수였다 하며 또는 강장군(姜將軍)이 이곳에서 났다 함.
- △ 사촌(용촌1리 마을) : 촌모래기, 사진리(沙津里) 즉 나루모래기와 같이 모래밭에 있다 하여 모래기라 하는데 이곳은 나루 모래기와 구별하여 촌 모래기라 함.
- △ 서낭-골 : 서낭이 있는 골짜기.

용촌2리 마을 전경 ▼



Ⅰ 용촌 2리 Ⅰ

위치는 동쪽에 동해가 있으며, 서쪽에 인흥2리, 남쪽에는 속초시, 그리고 북쪽에는 봉포리가 위치 하고 있다.

1916년 행정구역 병합으로 구포리(龜浦里)와 사촌리(砂村里)를 합쳐 용촌리(龍村里)로 개칭 하여 현재 아랫마을인 사촌리는 용촌1리이고, 용포리(龍浦里)는 용촌2리로 부르게 되어 용포동(龍浦洞)이 속칭명이 되었다.

- △ 용포동(龍浦洞) : (용촌리2구) 용소(못) 있었던 마을.
- △ 오리-별 : 나루 모래기에서 5리가 되는 골짜기.
- △ 용뿔-개(못) : 용포에 있는 개
- △ 큰-버덩 : 용촌에서 가장 큰 버덩.
- △ 정자-앞버덩 : 장자나무가 있었던 앞의 들.

봉포리(鳳浦里)

위치는 동쪽에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인흥리와 신평리, 남쪽에는 용촌리, 북쪽에는 천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마을 남쪽에 있는 호수를 여은포(汝隱浦)라고 하였는데 광포호(廣浦湖)로 바뀌면서 호수 이름을 따서 광포리(廣浦里)라고 하였다. 그 후 해안가 광포(廣浦), 산 너머는 봉현(鳳峴)이라 칭하여 오다 1916년 8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광포리와 봉현리를 병합하여 봉현(鳳峴)의 '봉(鳳)'자와 광포(廣浦)의 '포(浦)'자를 따서 봉포리(鳳浦里)로 했다.



『간성군읍지』와 『관동지』, 『여지도서』에는 광포리가 고백진리(枯伯津里)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지지자료』에는 봉현리(鳳峴里)의 너다리평(汝橋坪), 광포리(廣浦里)의 봉수대(烽燧峴), 너른개(廣浦) 등 기록이 있다.

마을은 모두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은 ‘너먼골’이라고 부르고, 6반은 ‘돌너메’라고 부른다. 6.25 한국전쟁 직후 100여 호가 있었다.

1997년 경동대학교가 개교하였고, 대순진리회의료재단에서 신축 중인 병원건물은 수년째 중단된 상태다. 도로변으로 상가 발달해 관광객과 대학생을 상대로 성업 중이고 해안에는 고급 펜션이 즐비하여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켄싱턴리조트와 오션레이크리조트 등 대형관광숙박업소도 성업 중에 있다.

봉포리 마을 전경 ▼



- △ **대섬(죽도 竹島, 봉죽도 鳳竹島)**: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무로도(無路島) 청간정(淸澗亭) 남쪽 5리 바다 가운데 있으며 위쪽에는 전죽(箭竹)이 있다. 만력(萬曆) 경진년(1580, 선조 13) 7월 그믐날 저녁 때 섬에 벼락이 쳐서 온 바다에 화광(火光)이 가득했고 천둥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맑은 날 이 섬을 바라보면 산꼭대기가 꺾여 확 트였는데, 한 길 남짓하여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 **잔넘어**: 이곳은 먼 옛날에 장안(長安) 해방청(海坊廳), 즉 현재의 해군 파견대가 있던 곳으로 주위의 원형체에 흙과 돌로 쌓아 올려 성을 만들어 경비하던 곳으로 흙으로 쌓아올린 성이라 하여 토성면이라 칭하였다 하며 현재 그곳에 가보면 성을 쌓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
- △ **광포호(廣浦湖)**: 택당선생유고(澤堂先生遺稿)『간성지(杆城志)』에 따르면 ‘광호(廣湖) 관아 남쪽 45리에 있으며 둘레가 10여 리이다. 부근의 산 가장자리의 얇은 물에는 연(蓮)이 자라는데 매년 꽃이 만개한다. 그 속으로 배를 띄우면 비단구름이 찬연하고 사방 멀리까지 향기가 퍼져 사람을 감싸는 것 같다. 여은포(汝隱浦)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 **봉포호**: 경동대학교 앞에 위치한 석호로써 수질 관리 대책 등이 필요 하다.
- △ **봉우제-골**: 서낭너머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마을 앞 골짜기
- △ **봉포봉수지(鳳浦烽燧址)**: 일명 성황당이라 부르며 그 흔적만 남아 있다.
- △ **봉포 토성(鳳浦 土城)**: 토축성으로 해안에서 약200m 서쪽에 위치한 곳에 옛 성터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둘레 약500m이며 와편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대부분 훼손됐다.
- △ **맷돌바우**: 1930년대 방파제 축조사업에 되면서 현 위치에 자리 잡았고, 오랫동안 세찬 파도에 날카로운 사면이 다듬어져 맷돌 모양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높은 파도가 칠 때면 감싸고 있는 주변 바위와 부딪치면서 마치 맷돌이 갈아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 **너먼-골**: 큰 마을 너머 쪽에 있는 마을.
- △ **산제당-산**: 산제당이 있는 산.
- △ 이 외에도 방파제 넘어 연인바우, 얼굴바우, 엄마젓가슴바우, 발바닥바우, 큰발바우, 연근바우, 심장바우, 엉덩이바우 등 화강암 바위의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붙여져 있다.

참고문헌

- 『고성군지(高城郡誌)』, 고성군, 1985년
- 『고성군지증보판(高城郡誌增補版)』, 고성군, 1998년
- 『고성군지(高城郡誌)』, 고성군, 2020년
-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原 水城志)』, 고성문화원, 1995년
- 『고성군읍지(高城郡邑誌)』, 고성문화원, 1896년
- 『지명유래지』, 이선국 저, 고성문화원, 1998년
-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 신종원 책임편집, 경인문화사, 2007년, 360~399쪽
- 『강원도동해안바위설화』, 이승철 외, 강원도환동해본부, 2016년, 276~335쪽
- 『강원도읍지(江原道邑誌)2』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년12월22일
- 『국역 관동지(關東誌) 하』, 강원도, 2007년11월25일
- 『여지도서(輿地圖書)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3년12월21일
- 『한국지명총람2(강원도편)』, 한글학회, 1967년
- 『한국의 지명』, 아카넷, 도수희, 2003년 6월25일
- 『강원의 고지명』, 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5년
- 『조선지지자료』, 1911. 조선총독부
- 『지지소서』, 1915, 조선총독부
- 『조선향토대백과(강원도)』, 2004,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 『지방별 지명조사철』, 2016,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
- 『2008 미수복고성군지』, 2008, 미수복 고성군민회
-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년
- 『조선지형도』, 1913년 제작(1/50,000)
-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2)』, 2013,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편집후기

삼국시대 본래 고구려 영토에 속했으나 이후 신라에 편입되었다. 일찍 공동체 언어의 지명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신라 경덕왕 이후 지명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려 이후 부군현제 시행과 함께 한자식 표기 지명에 대한 변화가 이어졌고, 일제강점기 군과 읍면,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지명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지명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특정한 지형과 지세를 고려한 자연 친화적 한자식 표기 이름이 많다. 해안을 따라 나루터가 있던 곳의 진(津)자와 포(浦)자를 비롯해 지형·지세와 관련된 평(坪), 천(川), 강(江), 산(山), 호(湖), 암(巖)자, 동식물과 관련된 송(松), 오(梧), 학(鶴)자, 마을 설화와 관련 있는 용(龍)자도 적지 않다. 또 방위를 나타내는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위치를 표시하는 상(上), 중(中), 하(下), 크다는 의미의 대(大)자를 사용한 이름도 많다. 또한 ‘바위’를 ‘바우’로, ‘~땅’을 ‘~미’ 등 자모음 변형에 의한 독특한 방언과 우리 언어문화의 단면을 지명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수희 교수는 『한국의 지명』⁴⁶에서 「본래 지명 어휘는 국어의 계통, 고대 국어의 재구, 국어의 어원, 국어 변천사 등의 연구에 지극히 귀중한 자료이고, 역사 지리, 민속, 민담, 신화, 전설, 제도 등 문화사 전반의 연구 자료다. 또한 우리 민족의 성립 및 이동은 물론 타민족과의 문화사적 교류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긴요한 자료다. 뿐만 아니다. 역사학·고고학·민속학·사회학·경제학·설화문학 등에 대한 보조 근거가 되고 지명을 접두한 물명(産地名), 지명과 인명, 지명과 신조어 등과의 깊은 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명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 정확도를 높여야 했지만 과연 그 기대에 부응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 땅이름과 유래를 보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었지만 역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지명 어휘 연구뿐만 아니라, 지명어(地名語)에 대한 음운론, 행태론, 의미론, 해석론 등 특성을 심층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지역 정서와 문화가 녹아 있는 고유 지명임에도 한자 기록으로 전해지면서 음차, 훈차 기록으로 본래 지명이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당초 땅이름은 일정 구역 공동체의 순수한 언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자 문화권이 확대되면서 한자식 표기 등으로 지명이 변형되거나 의미가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거나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다. 기존 사료의 필사 과정에서 오기 또는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명의 변형과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고, 오기에 대한 규명도 명확히 할 수도 없었던 점 역시 안타까웠다.

구체적으로, 『여지도서』(1757~1765년), 『호구총수』(1789년), 『관동지』(1829~1831년), 『간성군읍지』(1884년), 『조선지리지』(1912년경) 등 각종 사료가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시차가 있었고 그 과정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사료 필사와 편찬 과정에서 오기 또는 착오가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46) 『한국의 지명』 도수희 지음, 2003년, 아카넷

정오(正誤)를 찾고 올바르게 정리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오류와 예단, 추측이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다.

구전에 의한 유래 정리도 마찬가지였다. 고증자의 불확실한 증언을 입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증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다.

정리 과정에서 마을 전경을 보존하기 위해 항공 촬영을 시도했다. 관내 전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군부대 등 관련기관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야 했고,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항공 촬영을 하지 못한 일부 지역도 있다. 승인 지역에 대해서도 촬영 여건과 기술이 허락하지 않아 원하는 사진을 얻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대부분 취락(聚落) 형태가 집촌(集村)보다는 산촌(散村), 가촌(街村) 또는 열촌(列村) 등 지형 또는 지세에 따라 분산되어 있거나 골짜기마다 취락이 새로 형성돼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없었다. 물론, 가급적 종전 마을과 집촌 중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특별히 수동면 지명을 기록에 담을 수 있었지만 수동면 전체는 민통선과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와 연구, 정리를 위해 애쓰신 김철수 연구원, 황재철 연구원, 한창영 소장, 이성식 연구원, 김광섭 연구원 등 읍·면 마을 담당 연구원들의 각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일

책임편집 이 선 국

색인(가나다순)

(가)

가도(駕島)	213	검장리(劍藏里)	134
가라홀(加羅忽)	23	경포리(鏡浦里)	73
가리라봉(迦里羅峰)	69	고건이평(古建伊坪)	237
가마골(釜谷) / 토성	233	고미성리(姑味城里)	149
가매골(釜洞)	51	고백진리(古栢津里)	201
가오리(加五里)	109	고성군 연혁	23
가진리(加津里)	164	고성산(古城山) / 간성	63
가평대(加平臺)	83	고성산(古城山) / 현내	121
간성역(杆城驛) 터	37	고재바우(고재암)	166
간성읍(杆城邑)	29	고죽골	238
간성읍성(杆城邑城)	34	고직골(窟後谷굴뒷골)	237
간성향교	45	고직령(高直嶺)	150
간촌(間村) / 수동	153	고진동(高津洞)	151
간촌리(良村里)	42	고충서낭	87
갈마현(喝馬峴)	149	고황산(高隍山)	139
갈벌	39	곡실(甓소谷室)	189
감로봉(甘露峰山)	104	곤사리골(蕨谷)	149
감박-재	33	공수진(公須津)	169
감상-골	47	공수포평(公需浦坪)	145
감인당리(甘仁堂里)	179	공장거리	166
갓바우산(冠巖山)	225	공중바우(공중암)	166
개고개(狗峴)	95	공현진역(公峴津驛)터	172
개민당	186	공현진리(公峴津里)	169
거진리(巨津里)	76	관대바위(冠帶巖)	60
거진읍(巨津邑)	73	관모봉(冠帽峰)	104
거탄진리(巨呑津里)	73	관향진리(館項津里)	201
건달령(乾達嶺)	149	광대골(廣大谷)	132
건봉령(乾鳳嶺)	105	광산리(光山里)	50
건봉사(乾鳳寺)	105	광평리(廣坪里)	29
건봉산(乾鳳山)	105	광포리(廣浦里)	201
건진리(乾津里)	201	광포호(廣浦湖)	246
검장동리(檢長洞里)	109	괘도(掛島)	193
		괘진리(掛津里)	191

교동리(校洞里)	44
교상리(校上里)	29
교암리(橋岩里)	211
교암진리(橋巖津里)	201
교중리(校中里)	29
교하리(校下里)	29
교항주막(橋項酒幕)	103
구 공동묘지	166
구두독	182
구둔리(九頓里)	182
구만리(九萬里)	149
구산면(邱山面)	73
구성리(九城里)	182
구암리(龜巖里)	207
구절-폭	49
구천동(九川洞)	137
구천동고개(九川洞峴)	147
군내면(郡內面)	29
군선구리(群仙仇里)	201
군선구미진리(群仙仇味津里)	201
굴별우(屈別隅)	152
규봉산	45
극락암(極樂庵)	45
금곡리(金谷里)	29
금구도(金龜島)	115
금성리(金星里)	174
금수리(金水里)	61
금용동리(金龍洞里)	29
금장동리(金章洞里)	29
금천평(金川坪)	94
금포(錦圃)	189
금화정리(錦花亭里)	210
까치봉(鵲峰) / 수동	146

까치봉(鵲峰) / 거진	101
--------------------	-----

(ㄴ)

낙산평(洛山坪)	103
남강(南江)	150
남천(南川)	37
남후정천(南后亭川)	145
내면리(內沔里)	147
내어비탄리(內於非呑里)	29
내태봉리(內台峰里)	146
내평리(內坪里)	148
내허평(內墟坪)	152
냉천리(冷泉里)	104
노루맥이	154
노루소(獐沼)	220
노산버덩	204
노인산(老人山)	121
능파대(凌波臺)	193

(ㄷ)

달골(月谷)	146
달홀(達忽)	23
대간령(大間嶺)	68
대강고개(大康峴)	147
대강리(大康里)	139
대강역(大康驛)	139
대구미평(大口尾坪)	97
대꼬깔(죽변산, 竹弁山)	180
대대리(大垞里)	96
대대면(大代面)	73
대봉리(臺峰里)	146
대봉천(大峰川)	132

대섬	166
대암(大巖)	153
대암평(大巖坪)	225
대진리(大津里)	111
대천동(大川洞)	153
댐두루(竹島坪)	180
덕무현(德茂峴)	146
덕산고개(德山峴)	139
덕산리(德山里)	146
덕포(德浦)	165
덕포굴(德浦窟)	166
도발리(道發里)	109
도원리(桃源里)	220
도은산(道隱山)	237
도회천(桃灘川)	147
독송정(獨松亭)	191
동노동리(東老洞里)	201
동대리(東垞里)	73
동반월동(東半月洞)	84
동산현(童山縣)	109
동안터	94
동촌(東村)	145
동호리(東湖里)	38
두무산	150
뒷개	177
뒷골	218
뒷산, 뒤배찌산(두백산)	174

(ㄹ)

마기라산(磨耆羅山)	69
마기산(磨耆山)	69
마달리(馬達里)	124
마산(馬山)	67
마장이(麻佐里)	196
마좌리(麻佐里)	196
마직리(馬直里)	109

마차구미진리(麻差仇味津里)	109
마차진리(麻次津里)	126
만산리(滿山里)	29
말근담이	171
말버덩평(馬位坪)	233
망개	194
망월대(望月臺)	212
망포리(望浦里)	191
명륜동(明倫洞)	136
명우산(鳴牛山)	184
명파리(明波里)	129
명파역리(明波驛里)	109
명파천(明波川)	130
명호리(明湖里)	136
모정리(茅亭里)	109
목달리(木達里)	109
몽진산(夢眞山)	237
무선대(舞仙臺)	194
무송리(茂松里)	188
무송정굴(茂松亭窟)	128
문리골(文利谷)	90
문바우(門巖, 문암)	194
문안골(門內谷)	92
문암리(文岩里)	191
문암선사유적지	195
문암역(文岩驛) 관사	191
문암역(文岩驛) 터	191
문암천(門岩川)	194
미논골(山畚谷)	233
미륵골(彌勒谷)	233
미시령(彌矢嶺)	240

(ㅂ)

바랑골(八狼谷)	132
반석골(礮石谷)	104
반암리(盤岩里)	101

반암회리(盤巖回里)	73
반평(班坪)	151
반항평(盤項坪)	154
밤나무평(栗木坪)	230
방축동리(防築洞里)	29
배봉리(培峰里)	131
백발골	153
백암도(白巖島)	77
백일포(白日浦)	147
백촌리(栢村里)	214
버드내뜰(柳田坪)	100
범바우평(虎巖坪)	227
벽력암(벼락-바우)	102
보두을(甫豆乙)	188
보림골(普琳谷)	104
봉수대(烽燧臺)	186
봉잇재	209
봉평리(蓬坪里)	80
봉포리(鳳浦里)	244
봉포호(鳳浦湖)	246
봉현리(鳳峴里)	201
봉호리(蓬壺里) / 간성	40
봉호리(蓬湖里) / 거진	73
부동리(釜洞里)	29
부선대(浮仙臺)	177
부채바우	177
부허령	154
북천(北川)	99
불당골(佛堂谷)	230
불당동(佛堂洞)	147

(스)

사계리(沙溪里)	74
사근다리(沙斤橋里)	93
사기점(沙器店)	149
사두봉(蛇頭峰)	133

사명당(沙明堂)	153
사비리(沙飛里)	149
사야지리(沙也只里)	201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	201
사양제(斜陽堤)	154
사엄	154
사이보(間矣洑)	233
사일제(斜日堤)	154
사진리(沙津里)	201
사천리(沙泉里) / 수동	151
사천리(泗川里) / 현내	133
사천리(蛇川里) / 현내	109
사촌리(沙村里)	201
산북리(山北里)	89
산학리(山鶴里)	120
삼거리(三巨里)	73
삼성동(三星洞)	189
삼치령(三峙嶺)	152
삼포리(三浦里)	185
상거리(上巨里)	73
상거탄리(上巨呑里)	73
상남말(상나무마을)	164
상리(上里)	32
상사계리(上沙溪里)	93
상사정(相思亭)	152
상산골(上山谷)	148
상산북리(上山北里)	73
상원동(上院洞)	143
상원리(上院里)	154
상정월리(上汀月里)	143
상초현리(上草峴里)	143
상촌(上村)	93
상탄리(上炭里)	143
새골(間谷)	154
새마을(신촌마을)	56
새임리	114
셋령(대간령大間嶺)	221

서기봉산(西起峰山)	233
서낭당평(西浪塘坪)	233
서문리(西門里)	29
서반월동(西半月洞)	84
서성리(西城里)	182
서파른	182
서파리(西破里)	184
서파탄리(西破呑里)	184
석교리(石橋里)	179
석문리(石門里)	91
석장골(石長谷)	233
선-바우(선돌)	67
선유담(仙遊潭)	61
선유실리(仙遊室里)	60
선인-재(선인치 仙人峙)	241
성남리(城南里)	201
성대리(城垜里)	225
성인대(聖人臺 선인치)	239
성직고개(城直峴)	148
성천리(星川里)	237
세비-촌	78
소동령(小東嶺)	57
소물달(所勿達)	109
소봉암(小蓬岩)	132
소산동(消産洞)	152
솔고개(松峴)	225
솔공지	189
솔모정-거리	215
솔아치(소라지)	154
송강(松江) / 수동	153
송강리(松江里)	90
송도(松島)	138
송도진리(松島津里)	138
송림(松林)	171
송암리(松岩里)	190
송암시장(松岩市場)	191
송어교(松魚橋)	152

송어직(松魚直)	152
송전주막(松田酒幕)	97
송정리(松亭里)	86
송죽리(松竹里)	99
송지골(松枝谷)	154
송지호(松池湖)	177
송포리(松浦里)	102
송학리(松鶴里)	74
송학봉(松鶴峰)	100
송현리(松峴里)	137
송호리(松湖里)	74
송호정(松湖亭)	174
수달리(水達里)	126
수동리(水洞里)	29
수동면(水洞面)	143
수령(水嶺)	146
수-바우(穗岩, 노적봉)	232
수성(遄城) / 수성(水城)	23
수외리(水外里)	73
수위리(水圍里)	73
수잠리(水岑里)	147
수침곡(水砧谷)	147
숙진골(宿眞谷)	239
순포(筍浦)	187
술산봉수(戌山烽燧)	128
숯골(炭谷)	134
숯골계(炭谷溪)	134
스뭇개-바우(화채암)	171
승방골(僧房谷)	220
승산현(僧山縣)	109
신개골(新開谷)	153
신대리(新垜里)	148
신선-바우	232
신선-봉(神仙峰)	221
신성리(新城里) / 간성	29
신성리(新城里) / 거진	73
신안리(新安里)	35
신탄리(新炭里)	152

신평리(新坪里) / 간성	29
신평리(新坪里) / 토성	230
신흥골(新興谷)	239
쌍계동(雙桂洞)	125
쌍학골	130

(ㅇ)

아래토성	189
아야구미리(阿也仇味里)	201
아야구미진리(阿也仇味津里)	201
아야정(我也亭)	207
아야진리(我也津里)	207
안가골(安哥谷)	220
안심리(安心里)	29
안장바위산(鞍障山)	220
안터구미	152
안터리	153
안현(鞍峴)	145
안호리(雁湖里)	136
안흘리	67
애기미포구(我也津浦口)	207
야다평(野多坪)	100
야장골(冶匠谷)	134
야촌리(野村里)	188
양암리(陽巖里)	227
양암평(陽巖坪)	227
양양고개(襄陽峴)	239
어룡리(魚龍里)	52
어천리(魚川里)	52
여산면(呂山面)	109
여산현(驪山縣)	109
여상골(女裳谷)	154
연대봉(蓮垵峰)	136
연암동(燕嶺洞)	147
연양골(鵞央谷)	147
연작골(燕雀谷)	152

연작동(燕雀洞)	152
열산리(烈山里)	109
열산호(烈山湖)	83
오고탄리(五古呑里)	73
오금천리(五金川里)	52
오대면(梧垵面)	74
오래암(五來岩)	132
오리나루	176
오리진(五里津)	178
오봉리(五峰里)	173
오소동(烏巢洞)	151
오소령(烏巢嶺)	91
오수골(烏巢谷)	151
오시동산(烏時洞山)	90
오음산(五音山)	175
오정리(梧亭里)	95
오현면(梧峴面)	73
오호리(五湖里)	176
옥동(玉洞)	95
읍-바우	172
옹기점말(陶店谷)	233
와우산(臥牛山)	33
왕곡리(旺谷里)	175
왕곡마을	175
왕곡면(旺谷面)	159
왕곡면사무소(旺谷面事務所)	159
외면고개(外沔峴)	139
외면령(外沔嶺)	147
외면리(外沔里)	147
외솔따배기	191
외태봉리(外台峰里)	146
외평리(外坪里)	73
용무당(龍霧山)	136
용소(龍沼)	65
용소골(龍沼谷)	220
용수구미(龍沼峴)	80
용수동(龍水洞)	152

용암(龍岩)	132
용암리(龍岩里)	227
용촌리(龍村里)	242
용포리(龍浦里)	201
용하리(龍下里)	88
용호리(龍湖里)	73
용호촌(龍湖村)	73
우렁골(蔚龍谷)	233
운근역리(雲根驛里)	109
운봉리(雲峰里)	216
운봉산(雲峰山)	217
운자제언(雲字堤堰)	97
울모래(鳴沙)	172
울산-바위	240
원기리(院基里)	201
원당리(源塘里)	84
원대리(院垵里)	201
원암리(元岩里)	238
원암역(元巖驛)	239
원암역리(元巖驛里)	201
원암참(元巖站)	239
월비산(月飛山)	145
월안리(月安里)	73
위천리(渭川里)	29
유격리	146
유촌(柳村)	29
육송정 홍교	47
울목현(栗木峴)	145
을용동	93
응봉(鷹峯)	83
응암봉(鷹巖峰)	101
이근철영세불망비 (李根鐵永世不忘碑)	208
이기대	153
이릉개보(芮林浦洑)	207
인각리(仁角里)	201
인각진리(仁角津里)	201

인정리(仁亭里)	179
인흥리(仁興里)	233
인흥천(仁興川)	234
임천리(林泉里)	29

(ㄷ)

자산리(慈山里)	79
자산천(慈山川)	80
자작도	195
작살개	209
жат발골	238
장골(長谷)	95
장막재(장현리)	234
장막현(帳幕峴)	233
장밭골(長位田洞)	93
장새미	228
장승평(長承坪)	101
장신리(長新里)	55
장재암골(長在菴谷)	148
장전리(長田里)	29
장천리(獐川里)	201
장평리(長坪里)	73
장항리(獐項里)	73
장흥리(長興里)	201
재재기(자작도)	195
저도(猪島)	132
저도진리(猪島津里)	109
적골	175
적동(笛洞)	175
전골(前谷)	153
전봉상 효자각	45
전천(前川)	148
전평(前坪)	147
정양산(正陽山)	101
정월리(汀月里)	145
정토리(淨土里)	29

제비골(鷺谷)	220
제비바우산(鷺巖山)	237
제진리(猪津里)	132
제진주막(猪津酒幕)	132
제춧골(齊秋谷)	65
조제암(鳥啼庵)	130
족지평(足址坪)	145
주교평(舟橋坪)	95
죽도면(竹島面)	160
죽도면사무소(竹島面事務所)	160
죽도봉수(竹島烽燧)	178
죽도성지(竹島城址)	178
죽림리(竹林里)	109
죽왕면(竹旺面)	159
죽정리(竹亭里)	117
죽포리(竹泡里)	74
죽포역리(竹泡驛里)	73
줄평(茁坪)	104
중리(中里)	29
중평리(仲坪里)	109
지경리(地境里)	137
직동(直洞)	147
진등고개(泥磴峴)	227
진부령(陳富嶺)	68
진부리(陳富里)	64
진평(陳坪)	77
쪽다리보(足橋坪湫)	225

(ㄸ)

차동리(次洞里)	73
참샘골(寒泉谷)	151
천불고개(天佛峙)	220
천진리(天津里)	203
천진호	204
천하정리(天下井里)	29
천학정(天鶴亭)	212

천후산(天吼山)	232
철통리(鐵桶里)	113
청간리(淸澗里)	205
청간역리(淸澗驛里)	201
청간정(淸澗亭)	206
청간천(淸澗川)	206
청국재(菁根峙)	237
청룡바우(靑龍巖)	227
청상봉(靑裳峰山, 치마산)	104
초계리(草溪里)	93
초도리(草島里)	114
초부리(草阜里)	109
초진도(草津島)	109
초현리(草峴里)	145
치매바우산(裳巖山)	225
칠동리(漆洞里)	74
칠절봉(七節峰)	65
침곡현(砧谷峴)	145

(ㄷ)

큰널기(날기)	168
큰사발골(大草谷)	220

(ㄹ)

탁릉천(卓凌泉)	78
탑동리(塔洞里)	58
탑현리(塔峴里)	49
태봉리(台峰里)	146
토교리(土橋里)	201
토기점리(土器店里) / 간성	29
토기점리(土器店里) / 토성	201
토동(土洞)	143
토성리(土城里)	201
토성면(土城面)	201

(ㅍ)

팔음리(八音里)	29
팔음천리(八音川里)	29
평촌(坪村)	182
포남리(浦南里)	73
포남역리(浦南驛里)	74
포돌리(浦斗里)	188
포월(浦月)	187
풍곡리(豊谷里)	201
풍암(豊巖)	23

(ㅎ)

하리(下里)	34
하사계리(下沙溪里)	93
하산두(下山頭)	88
하산북리(下山北里)	73
하정월리(下汀月里)	143
하초현리(下草峴里)	143
하탄리(下炭里)	152
하해상리(下海上里)	29
학고개(鶴峴)	220
학산(鶴山)	206
학산리(鶴山里)	109
학야동(鶴也洞)	201
학야동리(鶴野洞里)	201
학야리(鶴也里)	218
학정암(鶴頂岩)	212
한질목	112
할미고개(老姑峴)	97
할미성	151
함지덕령(咸池德嶺)	153
합축교(合築橋)	99
해삼대(海參垜)	152
해삼터(海參垜)	153
해상리(海上里)	46
해상면(海上面)	29
햇골	218
행도원(杏桃源)	201

향로봉(香爐峰)	69
향목리(香木里)	163
허가골(許哥谷)	133
허궁다리골(虛橋谷)	151
현내면(縣內面)	109
형제고개(兄弟峴)	148
화곡리(禾谷里)	122
화망령(火望嶺)	154
화암사(禾岩寺)	232
화정(花井)	182
화진포(花津浦)	83
화포리(花浦里)	82
황장산(黃腸山)	146
황철봉(天台山)	239
황포(黃浦)	185
회골(檜谷)	154
회룡동(回龍洞)	90
회진리(回津里)	74
후천(后川)	139
흑다리주막(土橋酒幕)	239
흑도암(黑島岩)	128
흑연동(黑淵洞)	143
흑연리(黑淵里)	153
흘리(屹里)	66

고성군 마을 지명 유래

- 인쇄일 : 2022. 12
 - 발행일 : 2022. 12
 - 발행인 : 주기창(고성문화원장)
 - 기 획 : 고성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 편집부 : 고성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 연락처 : 033) 681-2922
 - 팩 스 : 033) 681-2928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

【비매품】 이책은 고성군비 지원으로 발행되었음.



江原道
高城文化院

www.goseongcul.com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TEL : (033) 681 - 2922